진정한 삶의 책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

제12권

가르침 339 - 366

12권으로 구성된 『진정한 삶의 책』(Libro de la Vida Verdadera)은 전 인류에게 남겨진 유산이며,
멕시코 시티(Mexico D.F.)의 “교육부 산하 저작권 총국(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에 26002, 20111, 83848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원본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C.
Apartado Postal 888, México, D.F., - C.P. 06000

독일어 번역, 독일어판 서문, 해설, 각주, 주석 및 작품에 대한 참고 사항을 담당한 자:
발터 마이어(Walter Maier)와 트라우고트 겔텐보트(Traugott Göltenboth).

2017년 1월 기준

편집 (새로운 철자법 및 레이아웃):
부흐디엔스트 줌 레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 7371 929 66 42
이메일:manfredbaese@gmx.de

『진정한 삶의 책』은 이 버전을 바탕으로 DeepL Translator를 통해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트홀트 겔텐보트(Gotthold Göltenboth)가 번역하고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에서 출간한, 저작권이 있는 진정한 원본 저작물입니다. 이 저작물은 본래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수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죄가 되며, 신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나 마리아 호스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2017년 3월 25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印)의 시대"* …
…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활용하라. 오늘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가르침을 받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리라."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 글들의 소유주이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안나 마리아 호스타입니다.
(이메일:hoanna64@yahoo.com)

DeepL - 다운로드 링크: www.DeepL.com/Translator (비즈니스 버전)

DeepL은 현재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며, 데스크톱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내용

진정한 삶의 책 1

서문 6

서문 8

가르침 339 13

가르침 340 24

가르침 341 35

가르침 342 47

가르침 343 59

가르침 344 70

가르침 345 80

가르침 346 101

가르침 347 112

가르침 348 123

가르침 349 134

가르침 350 146

가르침 351 157

가르침 352 170

가르침 353 181

가르침 354 191

가르침 355 202

가르침 356 213
가르침 357 230
가르침 358 240
가르침 359 251
가르침 360 264
가르침 361 278
가르침 362 288
가르침 363 300
가르침 364 311
가르침 365 319
가르침 366 328
목차 353
1866-1950년 멕시코에서의 신성한 가르침 359

서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정한 삶의 책” 시리즈의 마지막 권인 제12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다른 권들과 마찬가지로 트라우고트 겔텐보트(Traugott Göltenboth)가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스페인어 원문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닌 영적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내면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짧은 구절씩만 읽고, 읽은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피조물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양심을 통해 자녀들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자, 지도자,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전한 예언과 계시는 인간 영의 상승적 발전을 예고하고 스승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제2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대에 “말씀”은 신성한 아이 안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증거하셨으며, 제자들이 자신의 떠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구름 속에서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멕시코에서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혜롭게 준비되었습니다. 1866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의 영이 로케 로하스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엘리야니, 타보르 산에서 변모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제3의 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몇 년 후,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리스도께서 일할 도구들을 준비하신 뒤, 1884년에 그분은 선택받은 도구인 다미아나 오비에도(Damiana Oviedo)의 인간적 이성을 통해 처음으로 ‘’로 나타나셨으며, 그 후 매주 일요일마다 멕시코 전역의 점점 더 많은, 결국 수백 곳에 이르는 모임 장소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멕시코에서의 계시는 1950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계시 시기의 마지막 약 20년 동안, 즉 1930년경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가르침 대부분은 속기로 기록되었다. 풍부한 가르침, 교리, 예언, 계시 등은 전국 각지에 형성된 수많은 다양한 모임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음성 전달자” 로 섬겼던 소그룹은 성령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선포된 가르침 중 366개를 선별하여 12권으로 엮었습니다. 그들은 이 책에

제목:

"LIBRO DE LA VIDA VERDADERA"
독일어로: "진정한 삶의 책"

이 가르침들 각각은 신성한 교훈들의 조화로운 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멕시코의 청중을 대상으로 했으나, 그 안에서 여러 번 강조된 바와 같이, 이는 오늘날의 전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신성한 말씀의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깊고 내재된 의미가 인간을 고양시키며, 굶주린 영혼에 양식과 치유제가 됩니다. 동시에 이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주는 지침이 됩니다.

서문

다음 발췌문들은 독자들에게 이 책에 대한 첫인상을 전해줄 것입니다. 괄호 안의 번호는 가르침과 구절의 번호 체계를 따릅니다.

생명의 위대한 책 – 제3의 성서

나의 말씀은 영원히 기록되어 남을 것이며, 너희는 이를 바탕으로 '제3의 시대'의 책, 즉 '제3의 성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엮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세 시대 모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지혜를 남기기 위해 '황금 깃펜'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아버지께서 첫 시대의 사건들을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두루마리에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신 첫 번째 "금 붓"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금 붓"이었습니다. 제2시대의 사도들과 후계자들 중에서 예수께서는 네 명의 "펜"을 두셨는데, 이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성한 스승의 "황금 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유대와 깨달음, 영적 성장을 통해 구약이 신약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때가 이르자, 그것들은 하나의 책으로 합쳐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내 말씀을 갖게 된 제3의 시대에, 나는 그 말씀이 글로 남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황금 붓"들을 임명하였다. 때가 되면 너희는 하나의 책을 엮게 될 것이며, 이 제3시대의 책은 – 때가 되면 – 제2시대와 제1시대의 책과 마찬가지로 통합될 것이며, 그때 세 시대의 계시, 예언, 말씀들로부터 모든 영혼의 유익을 위한 **'생명의 위대한 책'이** 탄생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첫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모든 말씀이 진리와 영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모든 예언이 인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미리 예견된 역사의 흐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그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다.

자,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편찬하기 시작한 이 책을 누가 중요하게 여기겠느냐? 진실로 –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인류가 갈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너희의 책을 요청할 때가 올 것이며, 그때 그들은 깨어나 내 말씀을 탐구하고 토론할 것이다. 그 사상적 논쟁 속에서 여러 진영이 드러날 것이다 – 과학자,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증거와 지혜의

책이 여러 나라에 전해질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투, 즉 말과 사상과 이념의 전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이 진리와 영 안에서 '생명의 위대한 책'이 주님께서 쓰신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나의 뜻대로 형제처럼 서로를 껴안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세 권의 책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그러면 인류는 그 빛을 따르게 될 것이며, 바벨의 저주는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참 생명의 위대한 책'을 읽게 되고, 모두가 같은 가르침을 따르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58, 58-66)

그리스도의 영적 가르침이 미치는 영향

내 빛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모든 가르침 속에서 나의 진리를 찾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유이다. 이는 예언된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 중 누가 진리를 대변하는가? 누가 양의 가죽을 쓴 굶주린 늑대를 숨기고 있는가? 누가 *순결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내면이 절대적으로 순수하다고 단언하는가? 너희는 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영성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인류는 인간 사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신앙 고백과 세계관으로 분열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종파와 교파가 생겨났으며, 너희가 그들 각각에 담긴 진리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을 밝혀 주며, 점차로 모든 이가 자신의 행실을 완성하고 더 완전하고 높은 길로 이끌기 위한 기초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363, 4-8)

예수의 기적

나는 예수를 통해 그분의 피조물들을 치유해 주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해 듣고 그분의 기적을 알고 있던 불신자들은, 그분을 잠시라도 흔들리게 하고 그분이 무오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까다로운 증거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신 일, 즉 내가 그들을 만지거나 바라보거나 명령의 말씀을 건네는 것만으로 그들을 정상적인 인간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사실—그로 인해 그 영들이 그들의 이성을 떠나고 양쪽 모두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도록 하셨다는 점—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능력을 목격하고, 바리새인들과 학자들, 서기관들, 세리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을 알 수 없는 힘의

소행으로 돌렸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병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 하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이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일곱 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 스스로를 '군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승의 일생 내내 영적인 현현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현은 열두 제자 가 목격했고, 다른 현현은 야외와 가정에서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즉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남녀들은 저 세상에서 오는 징후와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 또한 이러한 현상의 목격자였으며,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며칠 동안, 천상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적 계곡의 존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르짖었고; 스승께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날, 그분의 빛은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려 온 존재들을 갈망하며 모든 동굴과 구석구석, 물질적·영적 거처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 물질화되어 혼란에 빠지고 병든 존재들, 길을 잃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사슬에 묶여 불의의 짐을 짊어지고 있던 존재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고 육체에 묶여 있던 다른 영혼들 – 그때 모든 이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명으로 일어섰다. (339, 21-22)

육체적·영적 고통의 치유

나는 너희에게 영과 영으로 말하며 그 길을 인도하리라. 그러나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의사로서 나아가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의 고통을 달래 주면, 그들은 내 말씀의 맑은 물 샘에서 마실 수 있으리라. 먼저 상처와 궤양, 혹은 병을 찾아내어 그들의 고통을 치유한 뒤, 그 다음에야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라. 제2시대의 예수님처럼 너희 이웃에게 나아가, 내 말씀 *앞에* 치유의 향유를 가져다주라. 그러나 그 향유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 제자들아? 혹시 축복받아 병자들을 위한 약으로 변한 샘물의 물인가? 아니,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향유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내가 그곳에 귀중한 정수로 담아 두었으니,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열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어떤 병자에게 그것을 부어 주고자 한다면, 치유하는 것은 너희의 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위로로 넘쳐흐르는 영일 것이다. 너희가 생각을 두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의 존재들과 요소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모든 이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하노니,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라.

귀신에 들린 자들과 인간의 이성으로 혼란에 빠진 자들에

관해서도, 너희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 너희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절망과 망각에 빠진 존재들을 돕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 권능을 드러내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모든 속박과 불의를 깨뜨리며, 이 세상이 주님을 깨닫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자기 자신과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백성의 위대한 사명 중 하나이다. (339, 39-41)

천국과 지옥

이 계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형벌에 대한 관념과, 과거에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영원한 불에 대한 모든 해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하십시오.

"불"은 영혼을 괴롭히며, 도가니 속의 금이 정화되듯이 영혼을 정화할 고통과 자책, 그리고 회개의 상징이다. 이 고통 속에 내 뜻이 있으며, 내 뜻 속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

만약 불이 인간의 죄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의 육신은 이 지상 생활에서 불 속에 던져져야 할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던져져야 하는 것이죠.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육체는 결코 영적 공간으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단 그 임무를 마치면 땅속으로 가라앉아, 자신들이 생명을 얻은 자연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한 불"이라고 부르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또 다른 중대한 오해입니다. 영적 영역에는 물질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이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에서 태어난 것은 물질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나의 말씀은 어떤 신앙적 신념을 공격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아 , 그로 인해 인류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온 오류를 낳은 모든 것의 내용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내 법과 가르침이 영혼들을 오류와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영원히 끝없는 속죄 속에서 파멸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352, 44-48)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

너희는 결코 버림받은 채 살아온 적이 없다. 태초에 너희가 생명을 얻었을 때부터, 너희는 내 사랑의 방패 아래에 있었다.

자녀들을 다정하게 사랑하는 인간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즉 여러분의 보살핌과 헌신, 사랑이 가장 절실할 때, 과연 그들을 운명에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저지르거나 여러분을 상처 입힌 자녀들조차도, 여러분은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들의 곤경에 이처럼 반응한다면,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장한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기에, 나는 여러분이 불길한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선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45, 40-42)

완전한 기도의 중요한 측면들

영적 완전함을 얻기 위해 힘써라, 힘써라. 나는 너희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나는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배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물질적 무기보다 뛰어난 '무기'인 기도를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가장 훌륭한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기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기도는 간구, 중보, 경배, 그리고 영적 묵상이다. 기도의 모든 요소는 필수적이며, 하나는 다른 것에서 비롯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구란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갈망을 충족시켜 달라고 청하는 것, 즉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내 자녀들아, 아버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익이 될 때마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의 구원에 반하는 것을 구하는 일은 삼가라. 왜냐하면 오직 물질적 재물과 육체적 쾌락, 그리고 덧없는 권력을 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쇠사슬에 묶어두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도의 형태인 중보기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사랑이다. 가까운 형제자매와 먼 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이들, 이 세상의 덧없는 통치자들의 폭정을 견디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오, 나의 자녀들아, 준비하라. 너희 이웃을 위해 기도하되, 이 중보기도에서도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이다. 형제나 부모, 자녀가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것이 영혼이 필요로 하는 바가 아니라면 그들이 이 생에 머물도록 고집하지 말라. 차라리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고통 속에서 정화되기를, 그 고통이 영혼의 상향적 발전을 촉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의 형태인 신성한 영에 대한 숭배는, 온전한 모든 것에 대한 숭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온전함과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배를 통해 여러분은 모두 도달해야 할 완전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경배는 여러분을 영적 묵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영적 묵상은 경배와 함께, 영생의 근원이신 신성한 영과의 합일을 이루게 해 주며, 이 근원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왕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간구 기도에서 시작하여 영적 묵상에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358, 10-16)

가르침 339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너희는 준비된 영혼을 품고,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영원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내게로 온다. 그리고 너희는 고통을 덜어주고, 너희의 탄식에 응답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 너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말씀을 간절히 기다린다.

2. 나는 너희가 각기 다른 길을 따라, 저마다 다른 소명을 이루며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완전함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나와 하나가 되기를 추구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는 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너희는 그 말씀을 진정한 의미대로 해석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예전처럼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내가 완전한 사랑과 정의 그 자체이며, 여러분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나중에 눈물을 흘려야 하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르며 그 실수를 만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을 야기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경계하며 살게 해 줍니다.

3. 이를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올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지극히 완전한 행실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내 제자이기에 그러한 행실을 이루기 위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빛이 여러분의 의심을 걷어냈고, 영혼의 강인함이 약함을 이겨냈으며, 신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소명을 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4. 너희는 이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던 단순함과 순수함의 삶, 즉 영적인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이 새로운 삶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너희는 더 이상 내가 왜 너희에게 돌아왔는지, 혹은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는다. 오늘날 여러분은 제가 '제2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가르쳐야 할 전부가 아니었으며, 그 교훈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 두었으며, 그 시간 동안 내 가르침을 다시 이어가며 영적인 삶으로 이끄는 길,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대화, 그리고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던 시절에 전했으나 아직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에 대한 해설을 보여 주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결국, 첫 번째 시대에도, 두 번째 시대에도 이토록 위대한 교훈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믿을 능력이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영원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는 지극한 인내와 지혜로, 서두르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에서 너희의 손을 잡아 주셨으며, 오늘 너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6. 이제 곧 절정에 달할 성령의 때가 왔으니, 이는 위대한 계시와 정의의 때로서, 수많은 비밀의 베일이 걷혀 온전히 빛과 명료함이 될 때입니다!

7. 내가 너희의 눈을 열어,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넘어 내 보물 창고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으니, 아버지인 나는 내 자녀들에게 있어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완전하고 온전히 알아주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아직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사랑받거나 숭배받지 못했으며, 너희는 율법에 대한 단 한 순간의 이해와 존중이 내 영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지 알지 못한다.

8. 너희가 이 땅에 온 이래로, 너희는 너희 이성의 수용 범위 내에서 나의 계시를 받아왔으나, 너희가 발전의 길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너희의 이해력은 갓 태어난 아이가 작듯이 아직 매우

미약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를 제한해야만 했다.

9. 초창기에 내가 온전히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너희의 *이성이* 혼란에 빠지고 너희 존재 전체가 짓눌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너희를 준비시키고, 너희를 그 길의 시작점에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이르러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려 했다.

10. 나는 모든 시대에 이 세상에 사자들을 보내어, 영혼의 생존과 불멸, 그리고 영혼이 완전해졌을 때 얻게 되는 더 높은 삶에 대해 말하게 하였다.

인류가 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초기, 순수함의 특징을 지녔던 시절부터 더 큰 죄악이 만연했던 시절을 거쳐, 지금과 같은 물질주의와 그릇된 과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나의 영적 사자들은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보존해 온 영혼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경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11. 그러나 초기 시대의 사자들은 영혼이 겪는 긴 시간의 흐름과 내세에서의 한 삶을 인류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덕과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았던 족장들은, 자신의 가족과 씨족, 혹은 민족을 정의와 의로움의 길로 인도하는 데 만족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영적이며 우주적인 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 즉 내세에서 영혼이 누릴 더 높은 삶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깨달음과 덕행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발전 과정과 그 큰 시련의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12. 선지자들은 지극한 진실함으로 말했으며, 거의 항상 혼란과 타락의 시기에 이 땅에 내려왔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면서, 선으로 돌아서지 않을 경우 정의의 큰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경우에는 신의 법에 순종하고 따를 때 주어질 축복을 예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선과 정의, 그리고 상호 존중을 실천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삶과 그 운명, 그리고 발전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대리자로 삼기 위해 선택했고, 그를 통해 모든 시대를 위한 율법을 전달했던 모세조차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13. 아버지의 법에는 지혜와 정의가 담겨 있다. 이 법은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살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 눈앞에서

인간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모세는 인류에게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불순종한 영혼들의 속죄가 어떤 형태인지, 혹은 삶의 사명을 지혜롭고 부지런히 수행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 않았다.

14. 그 후, 영적 은사와 영감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는 고양된 순간과 황홀경 속에서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시편을 지었다. 그는 이 시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제물을 바치도록 권면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사랑과 영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영혼의 경이로운 존재와 그 발전 과정,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계시해 줄 수는 없었다.

15.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그에게 부여된 지혜와 권능이라는 위대한 은사를 마찬가지로 드러냈으며, 그 덕분에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의 조언과 판결, 명언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다. 만일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돌아와 "주여, 영적인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면 – 솔로몬은 그 모든 지혜를 다해도 이에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16.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음의 열정과 순종을 보인 모세, 경고를 전한 선지자들, 모범을 보인 족장들, 유익한 조언과 올바른 판단을 내린 조언자들과 학자들, 재판관들은 너희가 그들을 본받아 이 땅에서 출발하여 높은 저 너머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에서 첫걸음을 확실하게 내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본보기를 남겼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땅 위에서 정의를 찾기 위해 서로에게 공정해야 한다. 이곳에서 너희는 밭일한 결실이나 수확을 얻었다. 이 고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의 영원한 생명의 반영이자 형상이었다.

17. 훗날 메시아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인류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그들에게 큰 계시를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며,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보는 모든 것을 너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내 영이 드러나신 메시아께서는 제2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 열쇠와, 생명과 지혜와 정의와 영원의 책을 봉인하고 있던 인장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셨습니다.

18. 그분이 오시기 전, 나는 영적 세계가 인간 세계를 방문하도록 허락하였다. 스승의 수행단에는 빛과 높은 경지에 이른 영들뿐만 아니라, 낮은 경지에 있는 영들도 함께 활동하였다. 그 당시 양쪽 모두 현존하고 있었다. 전자는 온전한 헌신으로 가득 찬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였다. 그들 중에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가장 순수한 자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잉태할 것이라는 고귀한 소명을 알린 이가 있었다. 또 다른 이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고, 또 다른 사자는 성가족에게 닥칠 위험을 경고하며, 이집트로 피난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다.

19. 그 시절 많은 현현들이 많은 이들의 환호와 믿음 속에서 목격되었다. 그러나 영적 삶에 적대적이고 불신하는 다른 이들은 이 진리를 의심하고 부정했다. 하지만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나의 영적 군대는 스승께서 발산하신 빛에 이끌렸다.

20. 신성한 사역을 섬기는 빛의 존재들과, 반항적이고 무지한 다른 존재들이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 인류 가운데서는 과학으로도 해방시킬 수 없었고 백성들에게 배척당했던 귀신 들린 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율법의 교사들도, 과학자들도 그 병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없었다.

21.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를 가르치고 사랑의 증거를 주기 위해 내가 미리 예정해 둔 것이었다. 나는 예수를 통해 그의 피조물들을 치유해 주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해 듣고 그분의 기적을 알고 있던 불신자들은, 그분을 잠시라도 흔들리게 하고 그분이 무오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까다로운 증거들을 요구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신 일, 즉 내가 그들을 만지거나 바라보거나 명령의 말씀을 내리시는 것만으로 그들을 정상적인 인간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고, 그로 인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던 영들이 떠나게 하여 그들 모두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사실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목격하고, 바리새인들과 학자들, 서기관들, 세리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을 알 수 없는 힘의 소행으로 돌렸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병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 하나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스스로를 '군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들도 있었다.

22. 스승의 일생 내내 영적인 기적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어떤 것은 열두 제자가 목격했고, 다른 것은 백성들이 – 야외에서나 가정에서 – 목격했다. 그것은 기적, 즉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남녀들은 저 세상에서 오는 징후와 부름을 받아들였다. 노인들과 아이들 역시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으며,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며칠 동안, 천상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영적 계곡의 존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르짖었고, 스승께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날, 그분의 빛은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려 온 존재들을 갈망하며 모든 동굴과 구석구석, 물질적·영적 거처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 물질화되어 혼란에 빠지고 병든 존재들, 길에서 벗어나 양심의 가책이라는 사슬에 묶여 불의의 짐 을 짊어지고 있던 자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고 육체에 묶여 있던 다른 영혼들 – 그때 모든 이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명으로 일어섰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때 그들의 가족이었던 이들에게 부활과 존재에 대한 증거를 남겼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세상은 그 슬픔과 고통의 밤에 이러한 현현들을 목격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떨렸고, 아이들은 오랫동안 죽어 있다가 그날 단 한 순간만 돌아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스승에 대해 증언하고, 동시에 그분의 자녀이기도 한 무수한 영혼들이 거주하는 영적 밭을 가꾸시며, 그들을 치유하고 무지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스승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그날 잠시 돌아온 이들을 보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23.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지식은 대대로 전해졌으며, 사도들은 세상의 길을 누비며 잠들어 있던 인류의 눈을 뜨게 하고, 더 높은 삶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주며, 높은 저세상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젖히고 스승의 가르침을 설명하였다. 그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자들도 치유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자들과 먼 세계에 사는 자들 모두를 격려하며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낯선 고통도, 먼 고통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양쪽 모두의 고통을 똑같이 느꼈다. 준비된 자는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탄원이나 간청, 혹은 곤경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쳐, 그들이 지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자신들을 따르도록 했다.

24. 나는 세상이 깊이 생각하고, 영혼은 죽지 않으며 그 삶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영혼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미리 정해진 길이 있고, 그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러한 현현들을 허락했다.

25.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내 진리를 증언하고 인류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심지어 제자들 앞에서도 내가 생명이며, 내 생명이 모든 피조물 안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나는 그 제자들이 나를 보게 하고, 그들의 손가락이 나를 만지게 하여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하셨다. 내가 골고다에서 나의 사명을 완수한 후,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기에, 나의 임재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건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한 예시였으며, 내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경이와 기쁨 속에서 영으로 나타나며 너희에게 준 깊은 의미를 지닌 교훈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로 그런 방식으로 – 영적인 방식으로 – 올 때가 올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26. 그 당시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할 전부는 아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려면, 내가 먼저 떠나고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야 한다. 그분이 내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나는 시련의 때에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 위로자, 그 설명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너희를 깨우치고, 과거의 가르침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다.

27. 제3의 시대를 열어 놓은 분은 바로 나다. 이는 너희가 철저한 연구를 통해 나의 모든 현현의 근거를 깨닫고, 나의 계시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8. 제2시대, 즉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세월 동안, 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일들, 그리고 피조물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그 시대의 중요성과, 태초부터 지극히 사랑받는 인류에게 주어진 나의 약속들이 실현되었음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전하고 영적 삶을 알게 함에 따라, 너희가 영혼의 의사들이 되고, 이 길을 통해 지칠 줄 모르는 씨 뿌리는 자들, 참된 지혜의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나는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였다.

29. 오늘날의 인류는 너희 눈에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 보일지라도, 그들을 둘러싼 영적 존재들의 세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그 수많은 무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인간의 길로 침투해 들어오는지!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듣지도 못한다.

30. 나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으니, 너희가 모든 영혼 속에 빛을 밝혀 주고, 서로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자매, 조언자, 그리고 치유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 너희의 직관이 너희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들의 곤란과 사명, 혹은 속죄가 무엇인지 알려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너희는, 내가 모든 존재에게 부여한 운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나의 자비가 너희를 올려놓은 그 높은 자리에서 너희를 떨어뜨리는 학문 속으로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

31. 너희는 더 이상 무지하지 않다. 오늘 너희는 이미 오래전에 너희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시대부터, 그리고 그 후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지혜롭게 인도받고 조언을 받았던 그 시절 동안, 너희의 모든 행동과 기도, 말은 기록되어 영혼 속에 그 여파를 남겼습니다. 그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나의 첫 번째 위대한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고, 또한 나의 강림을 목격할 수 있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32. 이 시대에 내 계시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나를 듣고 내 가르침을 실천한 이들에게는 맛이 좋은 열매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일을 멈출 때, 나는 계속해서 일할 나의 증인들, 나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 후 이 백성의 품에서 이 씨앗을 번성하게 할 새로운 세대의 파종자들을 일으키리라.

33. 나는 너희에게 족장들의 행복한 날들을 되살리도록 초대한다. 평화와 안녕, 그리고 삶의 기쁨이 지배하던 그 시절처럼, 덕이 있고 소박한 삶을 사는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아라.

사람이 믿음과 덕을 통해 몸과 영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며, 의로움과 활력, 그리고 힘으로 나를 드러내던 그 행복한 시절을 떠올려 보라. 그 시절에는 여성 또한 덕과 다정함, 도덕적 힘, 영혼과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자궁이자

요람이자, 자녀와 남편, 그리고 아버지에게 선함의 원천이자 경건함의 본보기가 되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라.

34. 어떤 이의 지붕이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넓게 펼쳐졌던 그 시절, 환대와 자비, 사랑과 배려가 존재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다시금 그런 날들을 경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민족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된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을 초대하여 이 기쁨에 동참하게 하리라. 이곳,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들은 형제애와 우정을 발견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실함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의 지붕 아래에서는 그들이 명예와 도덕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는 축복받은 선물을,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서는 빛과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그 민족들이 여러분을 방문하여 여러분의 영적 이상을 함께 나눈 후, 그들은 를 통해 멀거나 가까운 길을 거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며, 영성화와 진실함의 발자취와 모범을 남길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곁에서 평화와 건강, 삶의 기쁨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여러분이 나의 율법을 실천하고 영성화함으로써 찾은 것이며, 이는 모든 행동에 담긴 소박함과 고양,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35.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이 인류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행성을 감싸고 있는 그 우울과 암울한 예감의 장막을 느끼십니까? 스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재림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살지도 않는 그 세상은 – 영적 삶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요! 그러나 그 주민들의 깨달음을 위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지구상에서 그들의 영혼이 가진 유일한 사명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시련을 통해 완전해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증거, 하나의 부름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36.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육신을 땅에 남겨두고, 모든 이를 기다리는 "그 계곡"의 문턱을 넘기 전에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는 "이 깨달음에서 단 한 걸음만 떨어져 있다." 베일이 찢어지고, 모든 이의 눈이 열려 숨겨진 지식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광활한 대륙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사막, 끝없이 이어지는 길, 여러분이 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종들— 한 가지 가르침, 한 마디 말, 한 번의 계시를 통해 정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나 죽음, 고통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37. 인간은 불을 태워버리는 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은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여정에 남기는 흔적은 생명과 건강, 위로와 평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가르침은 나의 법이며, 나의 말씀이며, 내가 다시 한번 내 자녀들에게 선사하는 나의 영원한 업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영혼에 새겨져 있고 그 인장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힘차게 솟아날 것이다.

38. 이 사역의 시작은 어떠할 것이며, 이 지식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인가?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그 중 큰 부분은 내가 직접 맡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나의 영적 군대, 그리고 내가 무한한 사명을 맡긴 나의 사자들에게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빛의 군단으로서 나서서, 과거와 현재 시대에 현실이 되었으나 그 의미를 짐작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영적 계시들에 대한 이 계시와 해설을 전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 빛은 사회 계급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는 불신자들의 심판이나 형벌을 두려워하여 주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9.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일을 시작해야 할지 지시를 내리리라. 이는 너무나 크고 분명한 징조가 나타나는 때가 될 것이니, 너희는 영적 세계의 부름과 이 세상의 부름을 듣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은 그 사건들을 통해 너희의 투쟁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릴 것이다. 내가 영에서 영으로 너희에게 말하며 그 길을 인도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의사로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그들의 고통을 달래 주었을 때, 그들은 내 말씀이라는 맑은 물의 샘에서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처와 궤양, 혹은 병을 찾아내어 그들의 고통을 치유한 다음, 그 후에야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라.

40. 제2시대의 예수님처럼 너희 이웃에게 나아가, 내 말씀 *앞에* 치유의 향유를 가져다주라. 그러나 그 향유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 제자들아? 혹시 축복받아 병자들을 위한 약으로 변한 샘물인가? 아니,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향유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내가 그곳에 그 연고를 귀중한 정수로 담아 두었으니,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열어 쉼 없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어떤 병자에게 그 연고를 부어 주고자 한다면, 치유하는 것은 너희의 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위로로 넘치는

그 영일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두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41. 너희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자연의 존재들과 요소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이 말을 하노니,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라.

귀신 들린 자들과 인간의 이성으로 혼란에 빠진 자들에 관해서도, 너희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 너희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절망과 망각에 빠진 존재들을 돕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 권능을 드러내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모든 속박과 불의를 깨뜨리며, 이 세상이 주님을 깨닫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자기 자신과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백성의 위대한 사명 중 하나이다.

42.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며, 영혼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 큰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사랑으로 도와주라.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모든 존재를 올바르게 대하기 위해 너희 마음을 다정함과 연민으로 채우라.

43. 너희가 이 혼란에 빠진 존재들에게 빛과 위로를 가져다주지 못했느냐? 아니,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지식을 준 이래로 너희는 이 피조물들의 길을 밝혀 주었다. 그러나 이 영혼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너희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커야 하겠느냐.

44.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싸움은 이미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번져 나갔다. 거대한 전투가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인간이 무기를 들 수 있도록 이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이 준비하며 빛을 가져다줄 마지막 시련을 맞이하는 동안, 너희는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연고를 전해야 한다. 기도로 그들에게 다가가 너희의 영적 망토 아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라. 너희가 사랑으로 너희의 존재를 쏟아낼 때, 나는 내 영으로 온 우주를 감싸 안을 것이기 때문이다.

45. 기도하라, 백성들아. 내 이별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단 한 순간도 용기를 잃지 말라. 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열방의 평화를 간구하라.

46. 앞으로는 과거에 너희가 누구였는지, 내일 너희가 누구가 될지 더 이상 알고자 하지 마라. 단순히 너희가 이미 그곳에 있었고, 지금 그곳에 있으며, 다시 그곳에 있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길을 따라 내게로 올 것임을 생각하라 – 너희는

이스라엘의 영이며, 내 사역 안에서 높은 사명을 맡을 선택받은 백성임을. 지상에서 평화를, 내세에서 복을 얻기 위해 힘쓰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40

1. 사랑과 자비로,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노라. 그 때 나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고, 너희의 길에 나의 사랑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라고 가르쳤노라.

2. 나는 너희에게 모든 피조물보다 너희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다시 너희 영혼에게 다가가, 내 사랑과 빛,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

3. 내 품에서 멀어지지 마라. 너희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알지 못하며, 나는 너희가 그 때에 약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에 안전한 길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가르침을 한 글자 한 글자 전해 주기 위해 나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나 나의 사역은 또 다른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에 따라 만들어낸 것이다. 나의 사역은 가르침이며, 태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해 온 법이다.

4. 오늘날 인류는 고통의 잔을 비우며 "이는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사랑이며, 너희를 벌하지 않는다. 정화를 이룬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이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며, 너희는 말씀과 직관, 예언의 은사, 그리고 계시를 통해 이를 받아들인다. 나는 너희의 영혼을 굳건히 하여, 너희를 항상 빛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에 당황하지 않도록 한다.

5.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우리를 당신의 사도 무리에 속할 자격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1950년 이후 나는 새로운 제자들과 종들을 양성하여, 그들이 직관과 영감을 통해 나의 메시지를 받아 인류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6. 너희는 "천국의 사다리 일곱 단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묻고 있다. 너희의 스승은 단호하게 말하노니, 숫자 '일곱'은 영성을 의미하며, 바로 그 영성이야말로 내가 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미덕과 발전된 능력을 다해 내게로 와야 한다. 너희 발전의 일곱 번째 단계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게 도달하게 될 것이며, 하늘이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 그 문을 열어젖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단 한 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너희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너희가 깨어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고통이 너희에게 닿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7.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인류를 대신하여 내 곁에 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내 택한 백성인 14만 4천 명의 표를 받은 자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너희 중 어떤 이들은 영적인 영역에 있고, 다른 이들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다.

8. 인류의 고통이 크므로, 너희는 이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를 땅의 모든 곳으로 전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여행 가방을 나의 사랑의 선물로 가득 채웠고, 너희가 가는 길에 방해하려는 어둠을 물리치도록 너희 손에 칼을 쥐어 주었다.

9.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를 위해 식탁을 차리고 너희 영혼에 영적인 양식을 베풀었다. 너희가 영성화에 이르도록 너희를 비추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10. 엘리야는 이 제3의 시대에 길을 닦은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너희를 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로 모았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는 빛과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며, 기쁨이 그 존재 안에서 넘쳐흐를 것입니다.

11. 나는 내 사랑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의 의지로 내게로 올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허락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었기에,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다정함으로 너희에게 길을 가르치기 위해 너희에게 내려왔다.

12. 진정한 영성인은 그의 말이 아니라 선한 모범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너희의 상승을 돕기 위해, 나의 빛나는 광선이 너희의 세계로 내려와 너희 영혼을 비추고 고양시킬 것이다.

13. 사람들은 나의 사랑과,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할 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스승께서는 너희 영혼이 매일 더 많이 깨달음을 얻어, 무지에서 해방되어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14. 내 왕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아버지의 "말씀"이 무한한 사랑과 함께 너희에게 임하여 다시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15. 나는 다시 인류를 찾아왔으나, 내가 영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의 물질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나의 신성한 영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럼 왜 사람들은 나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물질주의와 저급한 정욕에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너희를 비추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빛으로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16. 나의 말씀은 너희 영혼의 양식이며,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너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정화될 수정처럼 맑은 물이다. 땅의 보물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보물을 추구하여 너희를 둘러싼 영광을 깨달으라.

17. 슬프고 낙담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도로 일어나, 너희 아버지께 자비를 받으라.

18. 내 백성아, 너희는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낙담해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음이 부족하면 용기를 잃게 되고, 너희 영혼은 약해지고 슬프며 낙담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가 아버지께 믿음과 신뢰를 두기를 원하노니, 그리하여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리라.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하고, 선하고 소박하게 살며, 인내로 고통을 견디고, 이웃의 모욕을 용서하라.

19.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다시 내 가르침을 받고, 너희 마음속에 나를 모시며 내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너희를 통해 선한 행실로 내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 제2의 시대에 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의 입을 통해 나를 드러냈으며, 사람들이 나의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에도 이 빛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너희 세상을 비추었고, 앞으로도 모든 시대에 걸쳐 그러할 것이다.

21.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깊이 헤아려 보라. 그러면 너희는 진리의 빛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영혼은 점점 더 커져서 내 영적 빛의 완전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22. 나의 빛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해 왔으며, 나의 사자들을 통해 드러났다. 제2시대의 사도들은 – 성령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어 – 나의 가르침이라는 영적 씨앗을 뿌렸다.

제3의 시대에 나는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가르치며, 동시에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활용하고 있으니, 너희가 이 빛과 자비로 가득 차게 되면 인류에게 이 빛의 광선과 자비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너희도 가르치고, 너희가 나에게서 받는 대로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 이웃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잘못을 폭로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길을 걸으며, 비록 가시를 거두게 되더라도 장미를 뿌려라. 가시가 너희 마음을 상처 입힐 때, 내가 너희의 상처를 치유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치유의 연고와 위로, 그리고 영혼의 힘을 주리라.

23. 내 백성아: 세상에는 환난이 있거니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세상의 어둠을 없애고 영적인 빛을 남기기 위해 왔기 때문이니, 이 큰 환난이 영원히 사라지고, 인류가 내 뜻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의 고통이나 전쟁에 대해 아버지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 이는 내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4. 나는 너희에게 평화와 화합, 형제애, 선의를 베풀었으며,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너희 세상에 전사들이 있는 것도, 고통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은 바로 사람들 자신이었다. 아버지인 나는 너희를 용서했다. 너희의 죄가 컸기에, 너희의 고난도 매우 컸기 때문이다. 너희의 고통을 생각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다. 고통받고 우는 모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연민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며, 이 시기에 나는 너희의 눈물을 닦아 주고 있다.

25.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왕국에 이르러 너희 영혼에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너희 스승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보여 주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부드럽게 길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너희의 사랑과 선의를 나타내야 한다.

26. 내 백성아, 너희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너희의 잘못들이다. 그것들은 가시로 변하여 너희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이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리라.

2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고통을 당할 만한 이유를 만들지 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덕의 흰 옷을 입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

28. 너희는 빛나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영적 군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빛을 주었으니, 너희가 창공의 별들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9.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진리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부르니, 내 신성한 영의 이 고귀한 속성들을 활용하게 하려 함이니라.

30. 이 시기에 나는 너희의 영에게 넓은 지평을 보여 주니, 너희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인류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선을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31. 기꺼운 마음과 순종으로 내 명령을 수행하고, 너희 몸을 다스려 영혼과 육체의 조화를 통해 내 뜻을 이루도록 하라.

32. 너희에게는 나의 사랑과 영적인 은혜가 있다. 나의 평화를 누리는 너희는 혼란에 빠진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33. 나는 전쟁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의 굳은 마음속에서 내 존재를 느끼게 하리니, 그들이 내 뜻이 그들의 전쟁적 의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 있어 내 뜻에 따라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 정의가 온 지구상에 드러날 것이다.

34. 사랑하는 백성아,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너희를 통해 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우고 수고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며, 이 시대에 너희 영혼이 공로를 쌓기 위해 짊어져야 할 속죄의 길이기 때문이다.

35. 잠들지 마라, 이스라엘아. 성령의 빛을 따라 나아가 너희의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라.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고, 가인처럼 형제들이 서로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

36. 일어나서 세상에 나의 빛과 그들의 큰 고통을 달래줄 치유제를 전하라. 빛의 검으로 싸워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라. 너희의 기도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라. 나는 세상이 너희를 나의 신성을 전하는 사자로 인식하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 모두를 심판하는 이 시기에, 세상의 어두운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빛과 능력을 부여받은 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37. 이 시기에 너희 자녀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켜라. 여러 종교 공동체에서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주님,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현재 내 말씀을 이루고, 내가 택한 자들 가운데서 내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류를 깨우고 이 시대에 나의 임재를 증언하는 사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38. 이스라엘아: 이 제3의 시대에 수많은 무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너는 평화와 빛의 무지개와 같아야 한다.

39. 너희는 내 말씀을 숨기고 내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명확히 말하라.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너희가 그들에게 너희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덧붙임으로써, 내 일이 내일 비난받고 내 율법이 왜곡되는 원인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

40. 인류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나, 나의 참된 종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너희는 세상이 자기 성찰에 들어가고 나의 뜻을 이루도록,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얼마나 많은 시련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가!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얼마나 많은 내 자녀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일어나겠는가! 만일 너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비록 이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와 인류에게 행복이 가득하도록, 준비를 갖추고 내 모든 지시를 따르라.

41. 너희는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내게 말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입술로만 외워 둔 그 말들을 되풀이할 뿐, 너희의 마음은 내게 너희 행실의 참되고 진실한 열매를 바치지 못하고 있다.

42. 때때로 어떤 시련이 너희를 짓누를 때, 너희는 그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신의 벌이라고 여기며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제가 제 형제를 용서했는데, 왜 ‘저’는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제가 형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용서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할 텐데 말이다.

43. 매일 짧은 시간 동안 명상하는 법을 배우고, 그 명상이 영적인 삶을 다루는 것이라면, 너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무수한 설명들을 발견하고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44. 너희의 영혼은 이미 나에게 질문하고 나의 응답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빛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영혼은 이미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했다.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오한 관찰력으로 놀라움을 주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명료하게 설명해 내는, 소박한 환경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라. 그들이 이런 것을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일까?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관이나 필요성에 따라 영적 기도의 일부인 명상의 은사를 발견했다. 외부 영향과 편견으로부터 격리된 고독 속에서, 그들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참된 것과 연결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이, 어떤 이는 덜

하겠지만, 삶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명상해 온 모든 이들은 자신의 지성 속에서 영적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45. 사람은 자신의 영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모든 이가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이는 내가 이미 그 당시 너희에게, 때가 되면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46. 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내 말씀과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되었던 바로 그 때이며, 이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의 감각과 능력을 통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47. 그들이 나를 보았다고 말하기 위해, 나를 인간의 형상으로 제한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영이 나를 느끼고 그들의 이성이 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나를 보았다고 온전히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8.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지성은 너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보게 하기 위해 내가 나의 현존을 인간의 형상이나 어떤 상징적 인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49. 그 '두 번째 시대'에 나를 보거나 나와 함께 걸었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는가. 반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이 영 안에서 나를 바라보았고, 나의 빛을 통해 나를 알아보았으며,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50. 너희 모두 눈을 뜨고, 너희의 믿음을 통해 너희가 빛의 자녀들임을 증명하라.

51. 너희 모두는 나를 볼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와 믿음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52.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기 위해 도달해야 할 그 영적 고향인 왕국의 문은, 너희 영혼을 기다리며 활짝 열려 있다.

53. 이 생에서 최선을 다하여, 너희 영혼이 해방될 때 빛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필요한 힘을 갖추도록 하라. 그러나 사랑과 용서, 자비와 빛으로 충만해져서, 육신을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지상의 짐을 가볍게 내려놓고, 비틀거림 없이 승천의 길을 따라 평화의 고향에 자유롭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

54. 너희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의 말씀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내려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나는 사랑으로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그 길 위의 매 걸음마다 그들이 이전에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55.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자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너희는 이미 감각을 깨우고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 냉담하거나 무관심해 왔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낸 이미지나 형상에 만족해 왔기 때문이다.

56.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통하는 문을 열 열쇠를 준다. 이 열쇠들은 사랑이며, 그 사랑에서 자비와 용서, 이해, 겸손, 평화가 솟아나며, 너희는 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57. 너희 영혼이 물질을 다스리고 성령의 빛을 누릴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58. 이 생의 시련들로 인해 너희는 잠시 믿음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겠으며, 날마다 너희의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히 해 주리라.

59. 나는 너희를 준비시켜, 너희를 통해 인류의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니, 곧 너희가 큰 문제에 직면한 민족들에게 나의 빛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인류는 흐느끼며 영성화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60. 나는 매일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에게 나의 사역을 맡기고, 그들을 인류를 위한 겸손의 본보기와 맑은 거울로 삼고자 한다. 그들은 내가 선택한 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의 빛을 전하기 위해 싸우고 활동해야 한다.

61. 이 시대에 나를 듣는 사람들의 무리는 많으나, 자신의 마음을 나의 신성을 모시는 성소로 준비한 이들은 적다.

62. 너희 가운데서 내가 계시를 내리는 시간은 짧으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준비된 모습을 보고자 한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 첫 시대에 광야를 건넜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 왕국의 문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마치 '탕자'와 같으니, 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금 나의 어루만짐을 느끼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너희가 벌거벗은 채 내게 왔을 때, 나는 너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나의 영적인 망토로 너희를 덮어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날을 보여 주었고, 내 식탁의 음식을 베풀어 주었다. 나는 너희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로서 너희의 고통을 함께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위로를 주었으니, 곧 영생의 양식인 나의

말씀과, 너희 삶에 임하는 나의 평화와 기쁨을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음을 느끼게 하려 함이다.

63. 영적 세계 또한 너희가 다시 내 곁에 있음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 그 세계는 내 밭에서 일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맞이하며,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연고를 주기 위해 너희와 함께했다.

64. 너희가 나에게서 멀어질 때일수록, 나는 너희가 심연으로 빠지지 않도록 더욱 가까이서 지켜보노라. 이는 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거친 파도 속에서 구해내어 구원의 항구를 보여주기 위해 데려온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이며, 나의 영적 세계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나에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65. 나의 종들의 수는 몇 배로 늘어났으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루어진 나의 계시가 끝난 후에는 순종할 자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너희는 영적인 차원에서 나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받아들인 후, 이제 인류에게 외침을 전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다.

66. 너희는 영혼 속에 성령의 은사와 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너희가 영성주의적 삼위일체-마리아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67. 성령께서 너희를 비추실 것이며, 가르침의 책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며, 너희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이 시대에 너희 스승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류에게 전해질 제3의 성서가 될 것이니, 곧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다.

68. 내 성령의 빛이 너희를 온전히 비출 때, 너희는 진실함과 사랑으로 준비하여 내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양식과 치유제로 전하게 될 것이다.

69. 이 인류의 한숨과 흐느낌이 내게 닿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누가 너희를 상처 입혔느냐? 너희는 침묵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괴롭힌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의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중에 그 가시 위를 걸어야 할 것임을 깨닫고자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길에 찔리는 가시들을 뿌려 놓았기 때문이다.

70. 때때로 너희는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난 자들의 실수의 결과를 겪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 중 누가 가시들로 길을 뒤덮은 자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미소를 지을 것이나, 그것을 비웃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회의적이고 불신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그래야만 그들의 냉소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이 말씀에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71. 나의 가르침을 아는 자 중 누가 신성한 정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겠는가? – 아무도 없다.

72. 죄악된 삶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통이나 아픔 없이 지내다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신의 공의를 조롱했다고 믿거나 적어도 그 공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영적 계곡'에 이르렀을 때, 그 존재들은 – 세상에서 그들에게 말해 주었던 영원한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 – 놀라움 속에 사색과 양심 성찰에 적합한 빛과 평화의 기운에 감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순간, 누가 그들에게 지상에서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겠는가? 그때 영혼은 현명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물질화된 상태라 영원함도, 영적 완성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 영혼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불공평하다고 여기며 반항한다.

73. 여러분 모두가 이미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고통 속에 절망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정반대로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속죄를 이행하고 있다는 내적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반항하는 대신 – 그로 인해 그 속죄를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신 – 매일매일 희망을 통해 그 짐을 덜어내고, 영혼이 오점 없이 깨끗해졌음을 느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74. 심판의 시기인 이 제3의 시대에, 영적 속죄가 절정에 달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나는 세상에 내 목소리를 들려주어 사람들을 잠에서 깨우고, 그들의 고통의 잔을 영생의 포도주 잔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 주노라.

75. 나는 너희에게 환난의 날들을 단축하고, 너희가 스스로를 상처 입혔던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을 계시해 주었으며, 너희가 그 길에서 더 이상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너희의 이성에 빛을 주어, 그 이성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그리하여

너희는 더 이상 너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운명이나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너희가 불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너희는 즉시 나서서 고통과 죄, 무지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의지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76. 빛은 온 땅에 퍼져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그 누구도 그것이 자신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말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이 가르침이 지상의 민족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나의 영적 임재가 그들을 깨우게 될 것이며, 그들은 좋은 소식의 도래를 예감하게 될 것이다.

나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여러분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진리에 더 가까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것입니다.

77.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가 한 번 혹은 여러 번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예전에 가꿔 온 달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며, 너희 영혼이 이미 시작한 어떤 일을 끝낼 기회를 얻음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기 위함이다.

78. 너희 영혼에게 맡겨진 일을 먼저 완수하지 않고서는 이 행성을 떠나지 마라.

79. 돌아와야만 하는 이에게, 간신히 시작만 하고 떠났던 그 일을 이제 새로운 임무와 책임, 수고와 결합된 모습으로 마주해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80. 나는 너희가 실수를 만회하도록 돕고, 하루 만에 잃어버린 한 해를, *한* 해 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한 세기를 되찾을 수 있는 비밀을 밝혀줌으로써, 너희가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다.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가르침 341

1. 한때 내 사랑의 메시지를 이해했더라면, 인류는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만족을 더 좋아하며, 내 율법을 잊어버렸다.

2. 백성아: 내 사역을 전파하려는 네 노력 속에서, 오로지 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된다. 이 빛을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전파하라.

수세기 동안 전해져 온 익숙한 관념에 영적으로 계속 집착하여, 그로 인해 자신의 광신적 태도를 버리지 못한 자들은 너희처럼 나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영은 이 신성한 계시를 받아들였으나, 인류에 대한 너희의 의무는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얻은 지식을 인류에게 제공하고, 너희의 행실을 통해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3.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도록 너희를 선택했다. 나는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밖에 있음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공덕을 통해 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며, 너희의 은사를 활용하라고 권고한다.

4. 너희는 더 이상 특정한 예배 형식이나 의식, 또한 생명도 능력도 없는 형상들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형상과 비유"로 창조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영을 가지고 있으며, 선을 행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사명을 수행할 때, 생명을 지니고 너희 주님의 능력과 힘을 드러내는 창조물로부터 영감을 얻으라.

창공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모든 것이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이 자연의 왕인 태양이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는지, 그리고 자연의 생명 요소들과 땅에서 싹트는 씨앗 사이에 어떤 조화가 존재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을 지배하셨기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통해 드러난 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아직 더 성장해야 합니다.

6. 나는 사랑과 자비로 다시 너희에게 오노라. 그러나 세상이 영적인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빛은 모든 이에게 쏟아지고 있다.

7.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 즉 사람들을 훈계하면서도 개인적인 호의나 허영을 모두 버리는 이들—사람들이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을 차리며, 빛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이들— 종교나 교리에 상관없이 이웃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 – 그들은 진리를 선포할 것이며, 그 진리야말로 하나님이다.

8. 나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며, 인간의 영혼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밝혀내고, 영성화, 빛, 그리고 완전함에 이르는 길잡이를 찾게 될 것이다.

9. 너희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세계적 화합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다.

10. 나는 세상이 너희를 통해 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사역을 너희에게 맡겼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다가가라.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리지 말라. 모든 사람은 똑같은 영적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마다 너희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너희는 나의 평화를 느끼고, 영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11. 나는 울타리를 떠난 양들, 즉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의 귀환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 시기에 너희의 스승은 길을 잃은 자들, 즉 내가 그들에게 내 은총과 사랑을 풍성히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폭풍 속에 휩싸여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다.

12.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에게서 나온 영혼들이여: 나는 이 시기에 나의 권능과 사랑으로 너희를 준비시켜, 세상을 뒤덮은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였다.

13. 머지않아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의 시기가 끝날 것이며, 그 후 너희는 인류 가운데서 증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나는 너희를 구명정으로 인도하였고, 너희를 제3시대의 나의 군사로 삼았으니, 너희는 세상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실감할 수 있도록 길 위에서 싸우러 나아가야 한다.

14. 너희는 세상에 대해 맑은 거울과 같아야 한다. 너희는 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겸손과 순종으로 내 명령을 이행할 나의 종들이며, 마음속에 그 법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15.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겸손을 가르치노니, 너희가 나를 본보기로 삼아 길을 떠나 모든 지방으로 가도록 하라. 사람들은 내 말씀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세상의 여러 길로 나아가야 한다. 보라, 멕시코 민족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면서도 내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러나 내 신성으로부터 풍성한 은총을 받은 너희는, 어떤 사명을 지녔는가? 바로 내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 앞에서 숨어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부족한 자비를 거절해서도 안 된다.

17. 여러 종파와 교회, 그리고 다양한 교리들이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자신들이 진리의 소유자라고 선언하며 내 제자라고 주장함으로써 너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 경고를 주는 것은 너희가 싸울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를 사람들 앞에서 나의

평화를 전하는 중재자로, 그들의 고통을 달래주는 치유제로 알려줄 것이다.

18. 너희의 순종을 통해 너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가 산 정상에 이를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 중에서 표식을 받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19. 이 시기의 나의 가르침은 '제3의 성약'이니, 그 안에서 너희는 나의 계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 각자에게 정해진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적인 의미와 명확한 형태로 이를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내 말씀을 너, 이스라엘아,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새겨 두었으니,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잃게 만들지 못할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온전한 지혜로 모든 시대에 걸쳐 인류에게 맡겨 온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20. 기도를 통해 너희는 너희를 보호하는 나의 영적 세계의 도움을 받아 내게로 나아갈 수 있다. 너희는 이미 이 길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준 교훈들을 통해 너희의 손을 잡고, 기도를 통해 내게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21. 내 말씀의 빛은 너희 앞에 등대처럼 서서 너희의 삶을 비추고 있다.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온전한 영광이 드러난 모습을 보았기에, 나의 부르심에 따라 서둘러 달려왔다. 영적인 환상 속에서 나의 임재를 목격한 이들은 기쁨에 차 있었으나, 너희 모두는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았다. 너희 모두는 나의 말씀을 꿀처럼, 정성껏 차린 식사처럼, 그리고 치유하는 향유처럼 누렸다.

22. 너희는 이제 그 맛을 알고, 그 안에 모든 완전함이 담겨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내 말씀의 열매를 다른 열매들과 혼동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나는 너희가 때가 무르익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며,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게 될 때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23. 나는 모든 영혼에게 내 말씀과 사랑, 그리고 빛의 정수를 쏟아붓고 있으며, 나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가르침, 그리고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영성화를 통해 나를 찾는 고귀한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나를 위한 성전을 세운 영혼들이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나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 제3시대에 속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경전과 제2시대에 내가 전한 말씀, 그리고 그 해석과 논의를 통해 내가 이를 통해 너희 가운데 내 빛을 쏟아붓고 있음을 읽었으며, 나는 그들의 영적 결실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24. 그들은 인류가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은 것을 보며 위대한 업적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을 다잡고 공로를 세우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지한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빛과 은사, 그리고 힘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시대에 주어진 율법과 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삼으며, 내가 제자들에게 주신 예언과 예고들을 깊이 연구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찾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숨지 않았기에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곁에 두게 됩니다.

25. 나는 만물의 아버지이며, 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려온다. 나는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멕시코 민족을* 선택하여 나의 말씀과 계시가 온전히 그들에게 쏟아지게 한 것은, 그들을 겸손한 자들로 보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민들 속에서 미덕을 발견했고,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들이 육신을 입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국적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선택받은 자들의 수에 속하는 영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표식을 받았고,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감수성 있게 만들었으니, 그들은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듯 나와 대화합니다.

26. *너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았으며, 너희의 은사를 통해 제3시대에 이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므로 백성아,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확고한 신념으로 전해야 하며, 나의 모든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나의 율법을 해석해야 한다. 다른 이들은 직관과 훈련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진 온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로는 크다. 그들은 너희가 나를 들은 방식대로 나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으로 너희와 하나이다.

언젠가 너희가 길에서 서로 마주치고 서로를 알아볼 날이 올 것이다. 너희의 영적인 시선은 그들 안에서 그들이 품고 있는 영혼, 즉 그들의 힘과 미덕을 발견할 것이며, 그 순간 너희는 서로

손을 잡으며, 너희의 길을 가로지른 그 순례자 또한 나의 선택받은 자 중 한 명임을 알게 될 것이다.

27. 모든 사람이 이런 형태로 내 말씀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것이 너희의 단합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과 유대감을 맺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인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28. 너희는 너희의 몫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나의 선택받은 자들 중에는 나의 신성을 섬기기로 헌신하고 성직자 같은 옷을 입은 이들도 있다. 선택받은 자들 중에는 군중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가장 겸손한 이들도 있다. 또한 지상의 법과 정부를 대표하는 이들도 있다. 오직 나만이 그들의 수를 알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아, 너는 영적인 준비를 통해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너희 모두는 시련의 순간, 즉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흩어지기를 요구하여 사방에 나의 씨를 뿌려야 할 때, 하나의 몸과 하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 순간에 당황하지 말라. 너희 중 일부는 기관의 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랑과 자비, 가르침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대도시의 주민들 곁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이 무지한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곳에서 너희 동료 인간들의 광신주의와 무지와 맞서 싸울 것이다.

29. 너희 사명이 성취될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아직 너희의 수를 완전히 확정하지 않았다. 너희는 아직 가르침을 받는 시기이며, 나의 제자이자 추종자들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는 스승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한 마디를 청할 것이며,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진리여야 하고, 나의 순수한 가르침이어야 한다. 너희는 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

30. 나는 지금 너희를 준비하고 있다. 나 스스로가 너희의 마음을 다듬는 이 위대한 임무를 맡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으니, 그들 안에서 이기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가 너희의 마음을 가꾸어 왔으며, 너희가 가는 길에서 겪은 시련들을 통해 그 마음은 다듬어졌다. 너희가 비틀거렸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 시련은 너희에게 큰 빛을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너희가 깊이 생각해 보니, 내가 너희 길에 놓은 그 시련이 필요했다는 것, 즉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듬어져야 할 단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일이 얼마나 완벽한지 알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정화되지 않았고, 너희 안에 큰 빛과

큰 영성이 없다면, 어떻게 내 말씀을 빌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31. 오직 나만이 너희를 인도하며, 오직 나만이 너희 각자의 내면을 알고 있으며, 너희 영혼의 강함에 따라 시험을 보내주었다. 너희 각자가 적절한 시기에 나의 신성을 전하는 사도로 나서야 하기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은 셀 수 없이 많다. 내가 과거의 시대에 대해 너희에게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는지!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세 가지 유언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 하나의 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을 통해 너희에게 마지막 페이지를 전해 주는 이 1950년에, 스승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페이지로 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새롭고 무수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써 나갈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빛을 발산할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너희는 멈춰 서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영성화를 이룰 것이다.

32. 1950년에 너희는 아직 가장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너희는 그 여정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후 너희는 너희 각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은사를 꽃피우게 될 것이다.

33.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모든 시대의 주님이시다.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나는 항상 함께해 왔다. 나는 모든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이미 앞서 계셨으며, 항상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왔고, 항상 그들의 삶을 심판해 왔다. 누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가 내게로 나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로하며, 너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34. 인류를 이루는 너희는, 나로부터 멀어지고, 더 이상 나의 신성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며, 물질주의에 빠져들고, 정욕에 휩쓸려 영적 사명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법과 심판에 있어 변함없고 엄격하시다. 나는 언제나 동일하다. 내 영이 어떤 특정 시기에는 다른 때보다 더 큰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영과 같으며, 족장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영과 같고, 모든 사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영과 같다.

35. 내 신성을 기억하라, 백성아. 아버지처럼 되어라! 나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사랑에서 냉담함으로 변하지 말라! 오늘은 열정적이었다가 내일은 냉담해지지 말라! 나는 너희가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믿음이 굳건하며, 언제나 고양되고 영적인 모습으로, 언제나 위로 향하는 길 위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너희 영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36. 왜 어떤 날에는 나에게 사랑과 믿음을 보이다가, 다른 날에는 나를 의심하는가? 왜 너희의 마음은 그리 변덕스러운가? 나는 너희가 굳건한 바위처럼 서 있기를 원하며, 너희의 믿음은 언제나 변함없고, 너희의 사랑은 점점 더 자라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땅에서 가꾸는 식물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장하는 데 멈추지 말고, 짧은 시간 안에 너희 모든 은사의 충만함과 성숙함을 얻어, 나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37. 나는 너희를 가꾸어 주는 자비이니, *너희는* 기꺼이 자라나는 식물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이슬, 곧 생명을 받아들이고, 너희 영혼의 위대함을 위해 그것을 활용하라.

38. 오늘 아이들은 나를 듣고 있으며, 나는 어른이나 노인들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도 말한다. 아이들의 이해력이 미약한데도 왜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가? 그들의 영은 너희의 영만큼이나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이들을 얕보지 말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게 하지 말라.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 그들의 영은 굶주려 있다. 나는 너희를 양육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양육할 것이다. 그들은 내일의 세대이며, 영성화의 사업이라는 건축 작업에서 너희가 놓은 기초 위에 또 다른 돌을 쌓아야 할 자들이다.

39. 너희가 이런 형태로 내 말씀을 듣게 될 마지막 아침 기도 시간들이지만, 나는 나를 듣는 이들의 수가 여전히 적음을 본다.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으며, 오직 돈과 쾌락만을 사랑한다. 그 마음은 영혼이 적대감, 정욕, 그리고 야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에 빠지고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40.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깨어날 수 있었으며, 잠든 자들을 위해 깨어 있다. 그러니 너희도 항상 깨어 있으라. 나는 바위를 비옥한 식물로 바꾸고, 적절한 때에 나의 씨를 뿌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언제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언제 그 때가 왔는지도 알고 있다. 나의 제자인 너희는 스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이 사역의 빛을 받아들이고자 갈망하며 열려 있을 때 씨를 뿌려라. 너희의 직관이 그 시기를 알려 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위대한 교훈들을 계시할 것이며, 너희는 직관의 인도에 따라 많은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41. 내 말씀이 끝난 후 – 그 때 지상에서 누가 너희를 가르칠 것인가?: 너희 각자는 나로부터 영감과 준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나와 연결되도록 하라. 이 선포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은 한동안 계속 모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힘은 여러분이 삶의 길, 즉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영감을 생명과 빛의 근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줄 것이나, 너희 중에는 뛰어난 직관을 지닌 이들이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바로 그들이 조언을 하고, 스스로를 스승이라 부르지도 않고, 나의 후계자라 자칭하지도 않으면서 말할 것이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그 때에 나는 너희의 믿음과 성장을 시험할 것이며, 너희 모두가 나의 가르침을 활용하고, 나의 말씀이 너희 각자의 마음속에서 결실을 맺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42. 그 때에 나는 너희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며, 벌거벗음이나 굶주림, 버림받음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가 마치 사막을 방황하듯 떠도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생명력과 에너지, 영적 능력으로 가득 찬 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돕기를 원한다.

43.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쳤고, 형제애를 실천할 것을 부탁했으며, 너희 모두가 같은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너희 모두가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두 같은 속성과 같은 완전함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너희의 공로가 클수록 영감도 더 커질 것이며, 너희의 행적도 더 위대해질 것이다.

44. 만약 확신이 서지 않아 단호한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울 때는 잠시 기다려라. “모든 힘을 모아 모든 결실을 평가하라”, 그래야 너희의 발전에서 전진할 수 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선한 결심을 축복하리라. 나는 너희 영혼이 양심의 지시를 온전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리라. 너희는 이 시대처럼 무관심하게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5. 많은 시련이 너희 앞에 닥칠 것이다. 너희는 수많은 저항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첫 번째 시련을 겪었고, 나의 대의를 위해 이미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잃었으나 여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나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너희 가족들이 줄 수 없었던 영혼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 안에서 너희는 영과 영혼의 평안을 찾았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가리키고, 너희를 조롱한다고 해도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46.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 그래야 시련의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내 가르침이 무엇인지, 즉 너희가 마음에 품은 것이 옳고 선하며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각자는 내 사역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행동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동과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47. 너희 각자는 삶의 길 위에서 든든한 기둥과 같다. 너희는 믿음을 잃은 자에게 다시 믿음을 되찾아 줄 수 있다. 길을 잃은 자의 영혼을 혼란에서 구해낼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삶의 용기와 평온, 그리고 평화를 줄 수 있다. 그러니 백성아, 네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명심하라. 내가 너를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에서 나의 사역을 발견했을 때, 나와 인류에 대한 큰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48. 나는 너희의 귀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적 계시를 통해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왔으며, 너희가 그로 인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받은 백성'이라 불렀을 때, 그것은 내가 너희를 다른 이들보다 우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전하고, 모든 비밀을 설명하여, 너희가 온전한 명료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도록 가르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49. 너희가 주변 사람들의 이해력에서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 새로운 시련이 너희 영혼을 덮칠 때마다,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할 것이며, 이 인사를 통해 너희는 나를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스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겠노라. 모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 속에서 나에게는 빛이 부족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겠고, 너희 영혼을 에너지로 채워 주며, 너희의 말이 올바르고 진리로 가득 차며 본질로 충만하게 하리라.

50. 나는 너희 모두에게 나의 제자로서 말하고 있다. 나는 1950년 말에는 더 이상 "어린이 제자"를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토록 많이 말해 왔으며, 나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니, 이는 너희 각자가 배움을 얻고 짧은 시간 안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1. 나는 너희 마음속의 감사함을 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 삶과 행실은 스승님 곁에 머물며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변화시키게 하라. 내가 늘 그래왔듯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게 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모습을 드러내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게 허락하라. 그래야 너희도 서로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흐름인 이 가르침들이 너희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이 사랑으로 가득 찬 너희 마음이 다른 이들, 즉 너희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2. 나는 너희에게 이웃 사랑, 선의, 용서라는 미덕을 심어 주었다. 이 시대에 이 미덕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인류가 더 이상 이를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보노라! 오직 이기심과 불화, 무정함만이 번성하고, 곳곳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소리만 들린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웃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 그 일을 나에게 맡길 준비를 하라. 나는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형제자매로 여길 수 있도록,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며 너희를 보냈노라.

53. 여전히 지상에 존재하는 사법 제도는 공정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자비의 부족과 이해 부족, 그리고 마음의 강퍅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국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시련들을 허락하였으니, 사람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계명을 따르는 데서 멀어지는 한, 세상에는 그의 마음을 꺾고 상처 입히는 자가 계속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세상에는 재판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형벌도 없을 것이고, 정부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며, 모든 이는 나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 너희 모두는 나의 율법에서 영감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행동은 언제나 자비롭고, 영성화와 사랑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부도덕과 악덕,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 여러분은 쓰라린 잔을 마셔야 하며, 비록 여러분의 형제들이지만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로부터 굴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을 지키고, 인내로 심판을 견뎌내며, *내가* 완전한 재판관임을 기억하라.

54. 나는 오늘 내 영의 빛을 통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으며, 너희가 내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 삶 속에서 기도와 자기 성찰을 구한다. 그것을 연구하되, 단순히 연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여 그 가치를 깨닫도록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42

1. 제자들아: 너희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들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득 차서 내 가르침이 전해지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성령께서 그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는 시대의 절정이며, 195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형태로 내 말씀을 받게 될 마지막 해로 예고된 해이다.

서둘러 마음을 준비하여, 그 안에 온전한 의미를 간직하십시오 – 내가 자비로 쏟아 붓는 그 정수를 말입니다. 너희는 영혼을 준비하며,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내게 구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뒤에 있는, 이 계시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며 영혼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린다. 너희는 동료 인간들이 이 가르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지만, 신성한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희망을 간직하되, 먼저 너희가 첫 번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

2. 백성아, 모든 사람이 이런 형태로 나를 듣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다. 이 일은 내 손에 맡기되,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나는 *너희의* 행실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1866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왔다가 사라진 세대들을 심판할 것이며, 각자에게는 그 수고에 따라 갚아 주리라. 너희에게, 백성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아직 너희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할 기회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너희 입술이 서툴렀고,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희망을 품으라. 나는 현재 온 인류를 준비시키고, 그들의 영을 인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듬고 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은 영성화라는 바람직한 목표로 그들을 이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정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3. 너희가 나에게로 올 수 있으려면, 사람들아, 너희 자신을 정화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나를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을 때, 얼굴을 가리지 말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전에 내가 너희가 모든 잘못을 씻어내고 합당한 자가 되도록 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백성들아, 내 주위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지 않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우선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라. 나는 각 사람을 통해 일해야 하며, 내가 뿌린 이 씨앗은 배가될 것이며, 영성화를 위한 유리한 시기가 올 것이다. 오늘날 너희는 오직

장애물들, 즉 너희의 전진을 가로막는 사슬들만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 해방의 시기는 모든 이에게 올 것이며, 그때 너희의 생각과 말은 이 인류의 들판을 가득 메우는 강물과 같을 것이다.

5. 오늘 너희는 나를 들었고, 나의 말씀을 믿었으며, 나의 모든 가르침이 너희에게 의무임을, 나의 법이 너희 영 안에 깃들어 있음을, 그리고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천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었음을 책임으로 느끼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내일 내딛을 발걸음을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켰고,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며, 너희 영혼이 시련 속에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길을 닦아 두었다. 나는 너희가 멈춰 서지 않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 마련해 둔 비밀의 보물창고에서, 길 위에서 닥칠 시련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빛을 찾도록 예언을 주었다.

6.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었고, 너희를 훈련시켰으며,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 길을 열었고, 내가 너희 마음에 뿌린 씨앗을 가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 누가 자신이 무지하거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준 은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매일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의지는 더욱 굽히지 않게 되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너희의 행보를 막을 수 없게 하라.

나는 너희를 전사로 훈련시키고 있다. 너희는 어둠과 싸울 것이며, 악과 전투를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기적인 학문과 그릇된 신앙적 신념에 굳어진 사람들의 이성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7. 그러므로 신성한 스승께서는 너희에게 기도하고 명상할 것을 촉구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말해 왔다. 내 말씀과 나의 모든 현현을 깊이 탐구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하여 너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시련과 역경에 맞설 수 있도록 하라.

그러나 너희는 인생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 곁에는 영적 존재들, 내 신성의 종들, 덕이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들은 너희의 약함을 보고 너희에게 다가와 도움을 주며, 너희에게 영적 판단이 없을 때 그것을 내려주고, 너희가 약해질 때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이들이다.

8. 나는 나와 함께 거하는 고귀한 영적 존재들, 덕이 있는 영적 존재들이 이 시기에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 모두가 너희 곁에 있고, 너희 스승이 너희를 인도하며, 나의 가르침이 너희의 보루인 만큼 –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너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왜 너희 마음이 낙담하겠느냐?

9. 영적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며, 내가 너희를 부르신 때부터 전해 준 그 책을 읽어보라. 그리고 내가 너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지, 얼마나 많은 예언을 너희에게 맡겼는지, 엘리야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예언을 전했는지, 그리고 영적 세계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준비를 시켜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

10. 내가 제3의 시대에 이 책을 펼친 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고,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그 내용을 들어왔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 너희가 이 교훈들을 너희 영 안에 간직해 두었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펼쳐서 필요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수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1950년에 닫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영원토록 펼쳐진 채로 남을 것이니, 단지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만 그러할 뿐이다.

11. 나는 인간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 왔으니, 이는 너희가 나와, 그리고 높은 영역에 거주하는 영적 존재들과 영적 교감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언제나 이 위대한 책에서 읽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12. 너희가 내 영과 대화하는 은사를 펼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책들에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읽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며, 사랑이 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며, 평화와 자비는 여러분을 도와줄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해설을 받게 될 것이며, 제가 여러분에게 빛을 주기 위해 물려준 이 내면의 책에서 동료 인간들 앞에서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나의 계시의 소유자이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 특권은 너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며, 이 선물은 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이가 영성화의 길을 따르고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13. 너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계시들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땅에 보내고, “인류에게 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나의 뜻대로 설교하고 예언하라!”라고 말하며 임무를 맡겼기 때문이다.

14. 너희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다, 백성아. 너희가 은사를 온전히 꽃피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너희는 이 모임의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에게 증거를 요구할 때, 내가 – 내 뜻이 있다면 – 너희를 통해 그것을 허락할 때,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겸손을 입혀 주었으니, 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불모의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 네 직관을 발휘하여, 적절한 때에 내 뜻에 따라 말함으로써, 내가 네게 지목해 줄 사람들을 네 스승의 식탁으로 인도하라.

15. 오늘 너희는 내 뜻에 따라 지정된 땅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평화와 겸손, 그리고 환대가 꽃피고 있다. 이 나라는 너희의 고향이 되어 왔으며, 그 품 안에서 너희는 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재림을 예고했고, 내 말씀을 지켰다. 나의 사역은 완성되었다.

여러분이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주겠다. 그러나 아버지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의 임무를 완수했으며, 여러분의 진척 상황에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해 왔다. 여러분의 준비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을 쏟아부었다.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말로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나는 너희를 모아 준비시켰고, 이미 너희 영 안에 있던 은사들을 알려 주었으며, 너희 육신의 본성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16.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인 너희는 태초부터 기록되어 온 것을 알고 있었다. 너희는 너희의 소명을 알고, 책임감을 느꼈으나, 너희가 지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너희가 나의 뜻과 명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필요했다. 너희는 인류가 쓰러져 있을 때, 지독히 쓴 잔을 비울 때, 속죄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을 도우러 왔다. 너희는 이 나라에 발을 디뎠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의 온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유와 자비가 되도록 준비되었다.”

17. 그들이 너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너희가 나의 사자임을 증언하라. 이를 위해 내가 너희를 준비시켰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의심이 보이는구나. 그러나 보라, 시련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빛을 줄 것이다 –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랑의 시련들이 말이다.

18. 내 가르침을 듣는 너희는 준비하고 항상 깊이 성찰하라.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의미의 깊이를 파고들어, 이 순간들 속에서 영적 영역에서 내 곁에 머물며, 높은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

19. 나는 너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화려함 없이 소박한 방식으로 나를 드러냈으며, 너희가 이러한 소박한 계시 속에서 그 위대함을 깨닫고 짐작할 수 있기를 내 뜻으로 삼는다. 나는 너희가 그 은사를 통해 온 존재로 나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영적 은사를 주었다. 나는 너희 마음의 모든 감수성 있는 현을 어루만지고, 나의 말씀으로 너희를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 어떤 인간의 말도 이 가르침이 너희에게 안겨준 활력, 평화, 그리고 기쁨을 주지 못했으며, 내가 그 안에 흘려보내는 이 "맛", 이 본질적 내용을 통해 너희는 나를 알아볼 수 있다.

20. 1950년이 지나면 너희는 믿음에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너희의 신념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너희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전달된 나의 보편적 광선이, 너희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위로하기 위해 말씀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경외심과 숭배의 마음으로 회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시대에도 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제3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을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이 끝난 후, 나는 더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이며 더 많이 사랑받게 될 것이다.

21. 너희는 내가 설교 활동을 하던 그 시절, 즉 내가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3년을 떠올렸다. 그들은 나의 모든 행적을 보았으며,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스승 안에 깃든 순수함과 온전한 위엄, 그리고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당시 나의 행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지상에서 나의 삶은 소박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나의 임재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위대함을 예감했다. 그리하여 나는 제자들을 택했는데, 그중 몇 명은 강가에서 만나 "나를 따르라"고 말하며 부르셨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달았고, 그리하여 나는 한 명 한 명을 택하였다.

22. 그들은 나를 따랐으니, 자신의 영에 충실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사랑을 이해하였으며, 그들에게 맡겨진 보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들은 이 풍요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내가 떠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앞으로 올

세대들과 나를 직접 듣지 못한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말씀을 기록하고 복사해 두었다. 그들은 그 기록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내 영감에 따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경전들은 나의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23. 나는 너희에게 사명을 알렸고, 너희 모두를 택하였으며, 너희 이마에 나의 표식을 새겨 주었다. 너희 중 일부에게는 "예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에게는 "군중들에게 영적 영감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지성을 통해 전달되는 '보편적 광선'이 나의 말씀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24. 나는 너희 모두에게 귀중한 은사들, 즉 영의 은사이자 영원한 은사들을 맡겨 주었다. 너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에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미 이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시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능력이 얼마나 꽃피어날지는 너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다. 나는 너희 영혼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영혼이 끊임없이 위로 향하는 길, 곧 나를 향해 이어지는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내 왕국에는 너희 각자를 위해 마련된 자리가 있으며,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짧은 시간 안에 너희 영혼을 위해 정해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

25. 내 왕국에 계급 체계가 있는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힘내라! 너희의 모든 능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통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너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분투하라.

26. 오늘 너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내일은 너희를 위한 새로운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혼이 그 세계의 문턱에 다다르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그 영혼을 불러 책임을 묻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27. 나는 지금 사막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회와, 준비를 마친 모든 모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엘리야가 너희의 인도자이며, 바로 그 가 너희에게 예언을 전하고, 너희를 준비시키는 자이다. 그는 길을 닦는 자이다. 너희 앞에, 항상 너희 곁에 계신 그를 느껴라.

28. 시련이 닥칠 때마다, 빛이시며 길을 닦아 주시는 분이신 엘리야를 부르라. 그 시련의 순간에 엘리야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29. 지금은 내 말씀의 마지막 때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동요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30. 너희는 계속해서 모여 서로를 도와야 한다. 각자는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야 한다. 예언자인 자는, 내 뜻이 있다면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 이 백성을 인도할 빛에 대한 선포를 받을 때를 대비하여, 각자는 자기의 은사에 따라 이기심 없이, 깊은 겸손과 온전한 영혼의 고양 속에서 활동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영원의 큰 책'에 기록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너희의 모든 행실은 너희 자녀들과 후손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임을 –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일이 성령의 일임을 알면서.

31. 오늘 나는 너희를 하나로 모았으며, 한 가족으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너희를 남겨 둔다. 깨어 있으라! 너희 모두가 기도로서 열방과 통치자들, 그리고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의 뜻 위에 나의 뜻이 있으며, 나의 법은 무자비한 정의의 법이고, 속죄의 법 곁에는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32. 변함없는 사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그 잘못을 바로잡고 속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죄의 과정에서 성령을 통해 위안이 있을 것이다.

33. 나는 위로자이시며, 약속된 진리의 영이시다. 족장들의 시대부터 사람들이 가장 쓰라린 잔을 비워야 할 이 시기가 예고되어 왔다. 그 때부터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셔서 시련의 시간에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해져 왔다.

34. 그러므로 나는 내 말씀을 이루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준비시켰다. 또한 나의 제자인 너희에게도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채워 주리라. 너희의 은사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며, 너희의 생각과 기도를 통해 일하여, 인류를 위한 치유제가 되고, 악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라.

35. 내 법은 너희 각자에게 있으며, 사명과 잠재된 은사도 그러하다. 감각과 능력은 준비되어 있고, 영혼의 눈은 열려 있다. 영은 신성한 불꽃이므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이며, 이를 통해 너희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내 지시에 따라 기도하고, 중보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

36.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인류의 모든 탄식은 내가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간구는 내가 살피고 있다.

37.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니, 너희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은사들을 너희의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 그리고 내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감싸라. 나는 이 은사들을 마치 자매처럼 너희에게 맡긴다.

38.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너희 안에서 온 인류를 축복하며, 그들에게 내가 풍요와 평화를 줄 좋은 시절을 기다리라고 말한다.

39. 오늘 너희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으며, 나는 너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뿐이다. 그러나 속죄가 끝난 후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임하며, 인류가 영성화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너희 각자에게 있다.

40. 나의 신성한 영은 너희가 영적 사명을 통해 일구어 낸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41.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맡긴 황금 씨앗을 가꾼 지칠 줄 모르는 일꾼들이며, 이 좋은 씨앗 중에서 일부를 내게 보여주고 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영 안에서 보니,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나를 이해했고, 나의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 나를 대신하여 모든 길에서 동료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제자로 변모하고 있다. 나머지 분들은 시험을 겪으며 기울인 노력을 나에게 보여 주는데, 그 시험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승리하여 길에서 마주친 모든 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떨게 하고, 너희가 다시 잠들지 못하게 한 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42. 너희는 나의 부르심에 따라 서둘러 일어나, 내가 너희 마음에 새겨 놓은 법인 나의 계명을 들었으며, 깊은 회개 속에서 시대가 너희를 덮쳐 왔음을, 그리고 내가 너희 영에 맡긴 이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위대하고 숭고한 사역을 숨겨 왔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너희의 회개가 내게 닿았으며, 심판자로서의 나의 시선은 너희 영혼이 잃어버린 시간을 애도했음을 알아보았고, 마지막 순간에 너희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간청하고 있다.

43. 이와 같이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자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내게 사명을 완수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보여 주니, 이는 내가 그들의 영에게 어려운 사명을 맡겼음을, 그리고 세상이 너희가 길을 나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세상이 너희를 통해 구원을 얻고 파멸에서 벗어나, 너희가 이 제3의 시대에 목격한 빛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44. 나는 너희를 준비시켰고, 다시 한번 가장 큰 은총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나의 빛이 너희의 마음과 이성을 비추었으며, 너희는 양심 속에서 나의 사역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곧, 나의 신성을 전하는 사자로서 나서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 헤매던 평화를 알리고, 수세기 동안 은총의 삶에서 멀어져 있던 영혼들에게 내 이름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책임이다. 이를 위해 내가 너희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그리고 대변자들을 통해 전한 나의 말씀은 너희 가운데서 큰 종소리처럼 메아리쳤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나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뜻을 헤아린 이들은 내게로 나아가, 생애 동안 수행해야 할 사명을 받고, 나를 알고 자신을 알며, 수세기 동안 그들의 영혼이 견뎌 온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섰다.

45. 너희는 오직 나의 자비만이 줄 수 있는 자유를 내면에 지닌 영혼들이며, 너희가 온전히 높이 치솟아 너희의 영을 나의 영과 하나 만들 때,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46. 나는 너희가 나의 평화와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으로 힘을 얻어 더 이상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산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기를 원한다 – 너희의 영과 나의 영 사이에 존재하는 고양과 조화를 통해, 인류가 너희를 매개로 하여 나의 자비를 받게 될 수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려 함이며, 너희가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가져다준 나의 위대한 은혜와 계시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47. 내 뜻은 너희가 군인, 사도, 제자, 일꾼으로서 나서서, 해방의 순간을 기다리는 내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들은 너희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으로 차려진 식탁을 찾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인류는 오직 어려운 시기의 고난만을 겪어 왔으며, 그 궁핍함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렸다. 이제 세상이 크게 떨고 있는 때이다. 그들의 정화가 거대하고, 고통 가 그들을 깨우며, 기록된 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48. 이 인류는 이제 자신의 고통 한가운데서 깨어나 새로운 날의 빛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백성아, 너는 내 말씀이

성취됨에 따라 나의 증인이 되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보여 주어야 한다.

49. 이스라엘아, 네 영이 어둠과 벌인 싸움은 거대했다. 너희는 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나섰으나 시련에 휩싸였다.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나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했다. 그들은 나의 일이 흠이 없으며 눈송이처럼 순수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헌신과 영적 열망으로 가득 차, 인류가 나의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반면, 나의 가르침에서 위안을 얻는 다른 이들은 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선택한 각 사람에게 기대하는 성취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0.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자 하며,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의 열매를 발견하고자 하며, 너희의 손이 나의 오른손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너희가 이웃들 가운데서 내 임재의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빛과 진리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분명한 말로 말해야 하며, 너희 마음을 내 신성한 영의 거처로 보여주고, 너희가 이 시대에 내 보물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영적 은총을 전하는 자들임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51. 이스라엘아, 네 앞을 가로막은 어둠을 이겨낸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으니, 세상에 네 갱신과 영성화를 보여 주라. 네 선한 본보기와 기도로 잠든 이웃들을 깨우고, 내 신성한 영이 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말하라. 신성모독자가 되지 말고, 내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되지 마라. 너희 안에 내 은총과 성령의 은사가 쏟아져, 너희가 좋은 씨앗처럼 번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52. 나는 이 시기에 내 종이 되기 위해 너희 영혼이 기울인 노력을 받아들이며, 너희 하루 일과가 끝날 때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주리라. 그것은 너희 영혼에 씌워질 월계관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해와 순종을 보여 주기만 한다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빛나게 하고, 빛의 자녀로서, 이 제3시대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즉 내가 내 신성한 피로 정화하여 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한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53. 너희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너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달았다. 잠시 동안 믿음이 부족했고, 시련이 예기치 않게

닥쳐왔다. 그러나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꿰뚫어 보시는 나의 신성한 시선 앞에서 너희는 떨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율법과 나의 신성한 사명에 따라 행하고 수고해 온 것에 대해, 내 영이 너희 영에게 전하는 축복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리고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 이겨내며 나를 따르기 위해 겪은 고통과 노력에 대해, 나는 너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석을 맡기노라: 나의 지혜.

54. 성령으로서 나는 내 빛을 너희 안에 쏟아 붓지만, 너희의 영이 큰 고양에 이르도록, 그리고 너희 마음이 더 큰 영성화를 이루도록 매일 한 번 더 노력하라. 이는 이스라엘아, 네가 동료 인간들에게 순수한 거울과 같이 되어, 네 행실로 나를 증거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영혼을 위한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고, 사람들 사이에 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라.

55. 나는 이 시대에 너희를 하나로 묶어 모았으니, 사도이자 전사로서의 "옷"을 너희에게 주어, 내 은총과 빛으로 너희 영혼을 단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때문에 내 일이 훼손되거나 조롱받거나 비웃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 책임을 너희에게 맡기니, 너희의 모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은총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고, 인류가 내 부르심을 듣고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56. 내 광선검은 지금 어둠과 싸워 이기고 있다. 나는 너희가 진실함으로 일어나 내 신성한 사업 안에서 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있다. 나는 인류의 고통과 비참함을 마주할 때 너희 마음이 깊이 동요하도록, 내 자비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맡겨 주었다. 나는 이 시대에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영혼들의 궁핍함을 너희에게 보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깨어 기도하고, 내 진리를 선포하며 너희 마음속에 미덕을 가꾸는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57. 나는 너희가 나를 멀리 있다고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모두 영성화를 통해 나를 느끼고, 나를 직접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너희는 나의 현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영이 나의 영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58. 이스라엘아, 순종과 사랑으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내가 너희를 기름 부어 참 제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59. 지금 나는 너희 안에 성령의 성전을 세우고, 새 예루살렘에 너희가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60. 선한 뜻으로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웃들에게 내 지혜의 열매를 누리게 하라. 그것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라. 내 평화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것을 지키며, 너희 가운데 계신 내 임재의 증거로서 인류에게 전파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43

1. 나는 나를 찾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나 자신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으나, 엘리야는 지칠 줄 모르고 길을 닦으며, 이 시대에 빛나는 등대처럼 너희에게 구원의 항구를 보여주고 있다.

2.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며, 폭풍우 치는 바다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류가 부추기는 분열을 신경 쓰지 말고 길을 떠나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영에 맡겨 준 사랑의 무기로 스스로를 지키고, 나의 율법으로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류는 나를 알게 될 것이며, 또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의 일부가 될 것이다.

3. 동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며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라.

4. 인류는 언제나 나의 자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오해해 왔습니다. 스승께서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창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물의 원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영원한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법을 만들어 내고 이웃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그들은 오직 고통과 혼란만을 겪었을 뿐이며, 수많은 군중이 심연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5. 나는 인류의 악행, 곧 열국을 분열시키는 자들에게 한계를 둘 것이다. 그들은 단합하여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그칠 것이다. 보호받지 못하고 고아가 되어 홀로 길을 떠도는 과부와 아이들을 보라.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 탄식이 내게 닿고 있다!

6. 사람들은 눈이 멀어 고통이 닥칠 때 내 신성한 이름을 모독한다. 내가 완전한 자비로 그들에게 베푼 축복의 선물들이 과연 그들의 고통의 원인인가? 아니, 내 자녀들아. 그 원인은 그들 자신의 죄에 있다.

7. 그들의 모든 고통은 불순종으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다. 그러나 너희는 민족들을 사랑과 화합, 그리고 내가 지금 그들에게 베푸는 평화로 이끌어야 한다.

8.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으니, 너희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유혹에 문을 열어주고, 인류 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혼은 내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며,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내 사명과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물을 것이다. 또한 나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가져온 사랑과 자비가 무엇이었는지 물을 것이다.

나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눈에서 어두운 눈가리개를 벗겨 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사랑이 너희가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울 것이니, 모든 이가 내가 너희에게 제시해 둔 빛의 길을 볼 수 있게 하리라.

9. 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인류 사이에 나타날 다양한 세계관의 혼란 속에서, 너희는 영성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을 물질주의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냄으로써 평화의 무지개와 같아야 한다. 너희는 겸손한 말로 말하며, 너희의 영 안에서 율법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를 알아볼 것이다.

10. 너희가 준비가 되면 길을 떠나, 너희의 모범으로 영성주의 삼위일체-마리아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믿음과 소망, 자비를 전하며 바다와 하늘, 사막과 계곡을 가로질러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통의 잔을 마신 이들에게 나의 평화를 전해야 한다.

11. 나는 제3의 성서에서 너희에게 빛과 가르침, 그리고 나의 사명을 주었으니, 이는 제1의 성서와 제2의 성서와 함께 하나의 사랑과 자비의 교리를 이루는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하며, 광신주의와 우상숭배를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것들이 그들을 참된 길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다.

12. 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유혹이 그들에게 허상으로 보여준 불필요한 것과 악한 것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네 싸움이라, 오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은 땅의 모든 길에서 드러날 것이며, 아무도 내가 너희 영혼에 심어 놓은 자비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사랑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내려오시며, 나의 평화로 너희를 격려하시고,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나의 말씀을 새기시는 분이시다.

13. 나는 너희가 나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오노라. 나는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매체를 통해 말씀하며,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평화와 위로를 느낀다.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의 영에 맡길 위대한 영적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14.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건네준다. 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위로와 은총의 삶을 주어, 너희가 영적으로 나를 향해 이끄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노니, 그곳에서 너희는 참된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15. 내 평화를 느끼고,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음성을 듣고, 이 평화의 사자가 되기 위해 준비한 자들의 수는 적다.

16. 너희는 이미 첫 번째 시대에 어린 양의 피로 표식을 받은 나의 백성이다. 바로 내가 파라오의 속박에서 구원해 낸 그 백성이다.

17.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희 영혼은 여러 육신을 통해 성장해 왔다. 너희가 겪어 온 고통을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너희는 아버지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18. 오늘날의 시대는 내일 영적 계곡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속죄의 시기로 특징지어집니다. 나는 너희 영혼을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너희가 나를 향해 상승하여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신성한 고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왔습니다.

19.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크도다. 나는 너희가 가는 길에서 더 이상 고통받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둔 길에서 내 율법을 실천하는 동안, 너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의 영적 세계는 너희가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20. 나의 말씀은 너희 영혼을 위한 신성한 위로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그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라. 사람들이 나의 사역을 폄하하거나, 내가 너희를 장식해 준 '의복'을 찢어 버릴 때에도 그들을 용서하라. 이 일은 내게 맡겨 두어라. 너희 스승처럼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너희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고, 오직 너희에게 다가와 어떻게 그렇게 큰 너그러움을 얻게 되었는지 묻게 될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1. 너희가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고통이 너희를 정화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경험을 쌓았으니, 나의 평화를 구하고 나의 길을 따르라. 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일하라.

이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곳은 바로 준비된 밭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영혼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품고 있는 세 마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내려와 그들에게 나의 온기와 애정을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것이요, 내가 부른 영혼들이다 – 그들은

광신과 우상 숭배를 키웠으나, 내가 다양한 신앙 고백과 의식 속에서 골라낸 자들이다.

22.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모든 시대에 너희 영혼을 부르았으나, 너희는 나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너희의 물질적 본성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하였다.

23. 너희 모두가 육신을 입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사다리'의 일곱 단계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들은 모든 영혼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성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너희가 내 영에서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상태로 내게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여러 번의 환생을 거치며 영혼을 더럽히고 내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를 속죄하기 위해 다시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24. 나는 그 영적 차원에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다. 너희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육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였고, 너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었다.

25. 이 시대에 너희가 차지하는 소수만이 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육신을 벗은 영혼들도 이 메시지를 받고 있다.

26. 나는 모든 시대에 내 뜻대로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어, 신성한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법, 유일한 계명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다.

27. 나의 법은 사랑과 자비이다. 이미 첫 번째 시대에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가 그 법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위함이었다.

제2의 시대에 나는 제자들에게 나의 두 번째 계시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들은 나에게 "그때 주님의 재림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서로를 배척하게 될 것이며, 살육이 자행되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서로 싸우게 될 것이며, 악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악에 물들어 있으며, 가정에도, 나라들에도 평화가 없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중과 도덕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 모든 일로 인해 내 영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28. 내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은, 너희가 가족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그들을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준 것은, 너희가 맹목과 무지를 없애도록 하기 위함이다.

29. 나는 너희 영혼에 위대함을 주기 위해 왔으니, 그 위대함은 곧 나의 사랑인 나의 율법을 성취하는 데 그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을 따르는 사명을 다함으로써 이 위대함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30. 나는 너희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내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에, 대변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냈다. 그것은 빛이며, 너희가 제2시대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는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이다.

31. 수많은 청중들은 착각하여, 그 대변자를 마치 나의 신성인 양 여깁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내가 완전함에서 너희에게 보내는 그 빛 속에 있습니다.

32.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며, 산 정상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서 너희의 영혼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 중 너무 약했던 자들은 여러 종파와 종교 공동체의 대표자들에게 찾아가게 될 것이다.

33. 너희 모두가 나의 참된 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너희 모두가 강해질 것도 아니다. 그 시련이 닥쳤을 때,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니, 마치 스승의 제자였음에도 나를 부인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처럼 말이다.

34. 내가 아직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내 뜻을 전하는 시간은 짧다. 그러나 내가 떠나기 전에, 어둠이 너희를 감싸지 않고 너희가 심연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너희에게 힘과 권능을 채워 주겠다. 높은 저 세상에서 나는 너희에게 나의 격려와 내 영적 세계의 거대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이 너희 곁에서 도와주게 하리라. 너희는 사랑의 무기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35. 나는 너희에게 이 무기를 주었으니, 이를 통해 빛의 불꽃이 수많은 군중에게 닿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지켜왔으며, 너희와 분리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너희가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나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영에서 영으로 내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36. 나의 법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각자의 이해력에 따라 다양한 종교와 신조, 의식을 만들어 냈으며 , 인류에게

"이것이 참된 길이다"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나는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에게 법을 보여 주었다.

37. 너희가 이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몸과 피를 바쳤으며, 이 신성한 사랑의 희생은 영원히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것이다.

38.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며, 그들에게 내가 내 말씀을 풍성히 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빛과 사랑의 칼로 나의 사역을 수호하게 하려 함이라.

39. 나는 너희의 육신을 향하지 않았으니, 육신은 그 사명을 다한 후 땅속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의 옷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이웃을 위한 선행으로 그것을 단장하라.

40. 나는 신성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듯이 너희 이웃을 용서하라.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도, 정죄하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너희를 어루만진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의 일을 내게 맡기면, 나는 적당한 때에 내 완전한 정의의 저울로 각자의 행실을 저울질하리라.

41. 너희는 온유함을 보이고 얼굴에 미소를 띠기만 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모범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둠을 품고 있는 자들이 굴복하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구명정을 보여주는 이들이 되어, 내게 속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라.

42. 인류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며, 종교 단체들이 믿는 방식대로 그들이 그분을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모든 마음이 상징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다. 오늘 나는 제2시대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43. 병든 자에게로 향하고, 영혼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나를 향해 올라가는 동안 그 안에 너희의 사랑과 자비를 머물게 하라. 제2시대의 나의 본보기를 귀담아들으라. 나는 너희 마음에 섬세함을 심어 주었고, 빛과 치유의 은사를 주었다. 너희 영혼을 높이 들어 올리면, 나는 너희를 통해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연고를 내려 주리라.

44. 나는 돌로 지은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영혼과 마음 속에 있는 교회를 갈망하며, 너희 안에 영성이 깃들어 있을 때 그곳에 거하기를 원한다.

45. 1950년 이후에는 너희가 나의 기도처에 모여, 너희 안에 영성이 깃들도록 준비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으로 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겠지만, 나와 영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너희의 찬송은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46. 시련은 혹독할 것이며, 너희 모두가 굳건함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 중 많은 이가 심연으로 추락하여, 어둠을 뚫고 나가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끈기 있게 굳건히 버티는 자들은 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47.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거듭 베풀어 온 지 66년이 지났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으로 인식하고, 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48. 나는 너희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의 신성한 "말씀"이 드러나도록 준비시켜 왔으니, 이 계시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너희가 나에게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책임을 깨닫지 못한 어린 제자들일 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았으며 지칠 줄 모르고 내 말씀을 전해 주었으며, 이 순간까지도 나의 보편적인 광선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내려오고 있다.

49. 나는 완전함이며, 나는 생명이며, 나는 사랑이다. 너희 스승의 뜻은 너희가 길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며, 내가 너희를 죄의 오물에서 끌어낸 후에, 너희가 다시 예전의 길로 빠져 내 은총을 잃고 어둠으로 돌아가 인류의 어리석음과 물질주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영성주의적이고 삼위일체-마리아적 백성이라 불렀으니, 이는 네가 내게서 받은 무한한 은총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50. 나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준비하라. 너희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니, 너희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웅변적인 인간의 말이 너희 귀에 닿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유혹의 그물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 상속권을 잃게 될 것이며, 나의 은총의 선물을 거절할 것이다. 내가 준 빵을 너희는 내팽개칠 것이며, 그때 너희는 비록 이것이 나의 신성한 뜻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굶주리고, 궁핍하며,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것처럼 느낄 것이다.

51.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참된 길을 제시해 주었으며, 너희가 내 뜻을 행하고, 모범을 보이며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제자가 되도록 내 율법을 주었음을 깨달아라.

52. 나는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은 가능하다. 내가 너희에게 지운 십자가는 너희 어깨를 짓누르지 않을 것이며, 때때로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너희가 스승을 이해하지 못했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53. 태초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불신, 그리고 물질주의로 인해 어떤 이들은 신성모독을 저질렀고, 어떤 이들은 배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와 인내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들의 불순종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대하도록 했다.

54.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예들을 알려 주는 것은 너희가 올바른 길을 걷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곁길로 빠진다면 너희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너희가 투쟁하고 수고하며 나의 자비와 끝없는 긍휼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여정의 끝에 약속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55. 때가 되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말씀이 계속해서 대변자들의 이성을 통해 선포되기를 나에게 간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준 상징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성께 그 광채가 내려와 너희에게 율법을 전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제2시대에 예수님의 이별 시기가 정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러한 형태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그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너희가 감각에 얽매여 내 말씀에 익숙해져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56. 이스라엘아, 네가 깨어나는 것은 늦을 것이며, 아주 늦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끝없이 고통받는 이유가 될 것이다.

57.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너희 영혼을 기뻐하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아, 상을 받으라. 나의 사랑이 너희 이마에 월계관을 씌우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천국의 문을 열어 주리라." 하고 말하기를 원하노라.

58. 인간의 의지가 나서서, 나의 신성한 말씀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의 우주적 광선이 1950년 이후에도 한동안 내려와 대변자들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육신에 환생한 영혼들은 큰 실수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그들은 내가 곧 완전함 그 자체임을 잊었고, 내가 곧 무자비한 법 그 자체임을 잊었으며, 나의 말씀이 왕의 말씀으로서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우주에서 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왕의 별이 빛을 잃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계시를 끝낼 시기를 너희에게 알려 주었으며,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준비를 지켜보고 제자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도 말했노라 –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이다.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지침을 내려야만, 그들이 방향을 잡고, 내가 이 세상에서 허락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활용하여,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 그들이 사랑과 이해, 자비로 이 지구를 준비된 상태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걸을 길을 닦아 놓으리라.

5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195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계시가 없을 것이며, 만일 사람이 내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형성하여 세상에 내놓으려 한다면, 그는 그 대가로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준비시켰고, 사랑하는 백성아,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뜻은 따를 것이며, 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더 이상 이런 형태로 이를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이 계시들의 핵심을 지켜라. 내 보편적 광선이 더 이상 내려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 너희는 헛되이 아버지께 간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0. 준비하라, 순종하라, 일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 이웃들에게 전하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이가 깨어나게 하라. 그러나 물질주의적인 일을 만들어내려 하고, '스승께서 그들이 노력하면, 그 갈망이 크면 계속해서 대변자를 통해 계시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 법에 덧붙이려는 자들은, 오직 거짓된 계시만을 듣게 될 것이다.

61. 이스라엘 백성아, 오늘 내 성령의 빛이 너와 함께 하니, 네 스승처럼 싸우고 일하라.

62. 나의 지혜는 크나, 너희의 임무는 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싸우고 일하기 시작하라. 너희는 가는 길에서 나의 빛과 가르침을 갈망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타락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나의 일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에 다가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두드리라. 그러나 문이 닫혀 있다면, 그냥 지나가라.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한다면, 인내심을 갖고 영혼에 격려와 위로, 치유가 필요한 군중들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다가가 내 말씀으로 그들을 "기름 부어" 주라.

63. 너희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기도에 전념하여 너희 영혼이 너희의 하나님이자 주님과 하나 되게 하라. 그리고 눈이 먼 이웃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영성을 보여 주라. 너희의 이성이 깨달음을 얻어, 너희가 내 진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말에 위로를 느끼는 마음들이 있으니, 너희는 온 인류를 깨우라. 그러면 이기심도, 악의도, 쓴맛도, 불화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그들이 내 곁에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너희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내 빛의 한 알갱이를 얻으러 스승께 온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64. 사람들은 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 나의 문에 두드리는 이들은 궁핍한 자들이며, 나는 너희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너희의 보살핌에 맡겼다.

65. 매일 명상하고 영과 영이 소통하며 나와 대화하라. 그 길은 엘리야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그는 등대처럼 너희를 비추어 주었다. 그는 단지 이 제3시대에 나의 계시를 위한 선구자였을 뿐 아니라, 그의 사명은 영원 속에서 비로소 끝날 것이다.

66. 1950년 이후, 나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계속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다른 이들은 각자의 길로 떠나갈 것이다. 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영성화를 통해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서둘러 나설 것이요, 다른 이들은 다시 물질주의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67. 나의 참 제자들은 준비를 갖추고 떠나서 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아들 롯과 같을 것이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법을 알았으며, 정화될 그 땅을 떠나라는 나의 계명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행했다. 나의 제자들도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68. 너희 영혼에 아브라함의 본보기를 항상 새겨 두어라. 내가 그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나를 신뢰하며 큰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나는 그가 손을 멈추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그에게 보냈다. 그 후 나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여, 인류가 그를 통해 선을 얻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나는 희생적인 죽음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아브라함을 상기시키는 것은 오직 너희가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본보기로 삼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며, 나는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44

1. 너희는 내가 매일 펼쳐진 책처럼 너희 눈앞에 제시해 온 말씀을 듣고 있다. 나는 그 내용을 너희에게 계시했고, 진실함과 빛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 말씀과 사랑의 정수를 너희에게 주었다.

2. 내 사역의 품 안에서 부활한 너희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시선을 두었으니, 너희가 내일 인류에게 나에 대해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3. 많은 이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의 일부를 얻으려 할 것이다. 내가 이 구명정을 보여 줄 대상은 바로 고통받는 자들과 난파당한 자들이다.

내가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을 사용했음을 명심하라. 오늘날 그들은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는 바위들이며, 내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며, 내 선택받은 백성의 지파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용하였고 그들을 나의 사역에 헌신시켰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마리아 영성가들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분께 마음의 꽃을 바치기 위해 하나의 기도로 연합합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그들에게 나의 자비와 빛을 부어 주었다.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들의 중재를 통해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다. 그들은 이 제3시대의 나의 군인들, 나의 일꾼들, 나의 제자들이다. 나는 수정처럼 맑은 물의 샘과 순수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들의 보살핌에 맡겼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사막을 건널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큰 무리를 불러 모으기 위해 길을 떠날 이들이다.

4.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아: 너에게는 네 이웃에게 나에 대한 증언을 하라는 주님의 사명이 주어졌다. 너는 인류에게 인정받을 강한 이스라엘이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은총과 성령의 빛을 부어 주었기 때문이다.

5. 이스라엘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너희가 약해지고 궁핍해지지 않도록, 장차 내 가르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가 현재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맡긴 내 말씀을 소홀히 지나가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류에게 보낼 때, 너희가 내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내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원한다.

6. 준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1950년이 지나면, 인류의 고통이 크므로 너희 눈은 많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신성한 대의를 온전히 깨달은 채로 싸움을 준비하라. 너는 세상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여전히 내가 그들의 매개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주장할 그 '목소리 전달자들'의 정신에 깃든 집착과 혼란을 제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지성 기관에 비치는 것은 나의 빛이 아니며,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할 것이다.

7. 너희는 한계가 있어 동료 인간들의 계획과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러나 예리한 시선을 지닌 아버지는 내일 일어날 모든 일을 보실 수 있다.

8. 나는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어, 참된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인류를 위해 나의 사역을 전하는 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품고 있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너희가 빛의 자녀임을 보여라.

9. 너희의 길에 나타나는 시련 앞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대할 때 주저하지 말라. 그들은 선한 행실 없이 내 신성 앞에 서 있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자비를 자랑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줄 준비가 된 겸손한 이들이 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너희 입술에서 사랑과 빛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라.

10. 이스라엘아, 나는 네게서 거짓을 보고 싶지 않다. 언젠가 그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들이* 스승의 제자들인가? 만약 *그들이* 거짓 제자들이라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거짓을 전한 스승 또한 거짓이었을 것이다."

11. 너희는 선한 행실과 너희의 갱신, 그리고 영성화를 통해 나의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나는 내일 인류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은 신성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위로를 느끼고 우리의 병을 고치는 연고를 받기를 간청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그 마음속에 믿음을 키우고, 세상이 너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12. 너희의 임무는 여행자들이 나무의 시원함을 느끼고, 그들의 광란 같은 여정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그들에게 말할 것이며, 그들이 회개를 느끼고 내 신성한

영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내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맞이하며, 비록 그들이 여전히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그 목소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 큰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 영혼이 자유로워지게 할 적절한 때가 왔다." 나는 그들이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악행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13.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날마다 너를 가르치는 것은 내 율법이 네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양심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가 따르지 않았던 내 율법의 계명이 무엇인지 보여 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롭게 되어 내 지혜로 충만한 백성이 될 것이다.

14.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과거의 너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현재의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될 것이니, 그러면 가장 완고한 마음조차도 너희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조언자가 되어, 마음의 순수함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 줄 것이다.

15. 인류가 맹목적인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인도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오직 빛의 자녀인 너희에게서만 그러한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16. 인류에게 큰 시련이 닥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의 보호 아래 있는 너희는 일하지 않아도 먹이를 얻는 새들처럼 될 것이다. 그때 인류는 그토록 큰 재앙과 비참함 속에서도 너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는 것과, 너희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17. 너희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 영혼을 고양시키지 못한 신성모독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18.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매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너희가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광신주의는 내 눈에 혐오스러운 것이며, 바로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고자 한다. 양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19. 너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시간은 짧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여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20.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신성한 스승에게서 배우라. 그 가르침은 글로 남을 것이며, 너희는 내일 그 가르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스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아버지의 자비가 너희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너희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르침을 배우라. 너희는 여전히 내 힘을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 순간 너희의 양심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22. 나는 오른손에 율법을,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나는 이 계시 형식을 통해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헤어질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를 영적으로 양육할 것이니, 너희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가 계시되지 않을 것이므로, 너희 내면에 나를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영혼이 나의 신성한 영과 교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으니, 내 뜻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나의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23. 내가 떠난 후, 너희의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24. 나는 너희가 내 율법을 연구하고 어기지 않도록 그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 주님께 공로를 쌓으라. 이제 너희는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순종으로 나에게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25. 나는 큰 사랑과 인내로 너희를 더러움과 다양한 세계관, 우상 숭배에서 건져 내었다. 너희는 우상들, 곧 황금 송아지 앞에 절했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눈먼 채 길을 걷지 않도록, 항상 빛과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26. 오늘날, 나는 너희 영혼이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던 여러 길에서 너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었다. 나는 너희 영혼이 이 행성에 올 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환생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는 너희가 깊은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2시대의 예언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줄 준비된 마음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다시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뜻이었습니다.

27. 내 사랑과 빛은 내 법을 내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이슬처럼 너희 영혼 위에 내려왔다. 너희가 준비하는 법을 안다면, 너희를 낙인 찍고 고통을 주는 손은 없을 것이다.

28. 너희는 제2시대의 사도들처럼 길을 떠나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알고, 출발하여 나의 가르침을 전파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나는 여러 종파와 종교 공동체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택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 그들의 사명을 다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29. 너희는 인류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 그래야만 내 천국의 평화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다. 내 눈은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제안한 바이며, 너희는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산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31.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내가 심판자로서 무자비하다고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삶의 여정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나를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구하라.

32. 나는 악을 단으로 묶어 불 속에 던져 넣기 위해 오노라. 모든 악한 씨앗은, 너희에게 은혜로운 삶을 주기 위해 전해지는 이 말씀인 나의 신성한 낫에 의해 잘려 나갈 것이니라.

33.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너희를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하고자 한다. 내 말씀을 들으러 오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훗날 동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이해하고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34.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내게 말하길,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했습니까?"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 과연 나를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너희가 맡은 사명을 다할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 때 너희가 느끼는 그 만족감은 마치 나를 느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멀어지므로, 내 임재를 거의 느낄 수 없게 된다.

나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자비 속에 있습니다. 단지 빵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격려하고 이 삶의 고통 속에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사랑과 위로의 말을 건네는 순간에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작은 사랑 한 조각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많은 버림받은 여성들이 격려의 말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너희, 나의 선택받은 자들은 모든 궁핍한 이들에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힘을 주기 위해 나서야 한다.

35. 세상은 타락과 혼돈 속에서, 광란의 속도로 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 배를 맡겨, 표류하는 자들—내 말씀을 듣지 못했으나 그들의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그들을 깨우고, 이 시대에 내 임재를 인류에게 증언하기를 원한다.

36. 이 시대에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냈음을 증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라. 내가 제2의 시대에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인간이 되었다면, 오늘 내가 내 은총으로 준비시킨 죄인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37. 왜 너희는 사람들의 행적에는 더 큰 믿음을 두면서, 너희의 하나님이자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관대함을 의심하는가?

38. 예수로서 지상에서 걸었던 나의 발자취를 기억하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고 겸손할 것을 가르쳤다.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거늘, 세상이 타락의 절정에 이른 이 제3의 시대에 너희가 어찌 내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39. 사람들은 마음속에 증오와 악의를 품고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광신주의 또한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40. 백성아, 너희는 내게 묻는다. "주님, 주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이후로, 왜 우리 길에 시련이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노라.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고통을 견디고 겸손할 것을 가르쳤다. 기억하라: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관자놀이에 가시관을 씌우며, 내 손에 갈대를 쥐어 주며 조롱했다. 그러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인류의 구원을 상징하는 내 피가 흘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 쓴맛과 역겨움, 그 고난들을 거부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결코 없었다. 나는 너희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고통을 겪었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내 피를 흘렸다. 그러나 오늘날의 너희는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며, 단지 선한 의지로 준비하여 세상에 나의 진리를 전할 뿐이다.

41.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었고, 너희를 나의 군인이라 불렀다. 너희는 내가 내 말씀으로 격려하는 나의 군대의 일부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싸우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시니,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인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너희를 깨우쳐 주리라.

42.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곧 내 말씀이 너희를 구원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통받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너희에게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43. 나는 너희가 내일 동료 인간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44. 너희 영혼이 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나의 평화와 사랑을 잃지 않도록 – 세상이 그 악함으로 만들어낸 가시덤불을 마주치지 않도록 – 세상에서 멀어져라. 나는 너희를 심연에서 끌어올려 인도하였으니, 이는 너희 영혼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려 함이다.

45. 나의 빛은 결코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으며, 나는 언제나 그들의 마음 가까이 있다. 어찌 내가 내 자녀들을 도중에 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을 나의 자비 없이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고통을 없애 주었고, 생명나무 아래서 쉬게 하며 그 열매로 너희를 먹여 주었다. 너희는 내가 떠난 후에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을 것이며, 그 열매와 물, 그리고 빵을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 궁핍한 이들과 나누어 줄 것이다.

46. 무거운 폭풍에 휩쓸려 절망에 빠진 민족들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준비시키고 깨우쳐, 너희가 너희 스승처럼 나아가게 하며, 너희를 통해 내가 그들의 영적 침체에서 해방시켜 주도록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영혼과 이성을 비추며, 세상에 닥친 혼란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47. 내 자녀들아, 준비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권능과 빛으로 지상의 민족들을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평화를 느끼게 하라.

48. 축복받은 순수함은 세상의 타락에 물들었고, 젊은이들은 숨 가쁜 속도로 그 길을 따르며, 처녀들조차도 수줍음과 순결, 그리고 예의를 잃어버렸다. 이 모든 미덕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세속적인 정욕을 키웠으며,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쾌락만을 갈망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일어나 영혼의 성장을 향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다.

49. 나는 너희가 몸을 일으켜 너희의 하느님과 하나 되어, 내 업적에 담긴 자비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50.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현재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 여섯 번째 등대의 빛이 우주를 비추고 있으며, 나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고양시켜 그들이 내게로 오게 한다.

51. 나는 너희가 다시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 성령의 빛이 너희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도록 하기 위해 이 시간을 너희에게 맡겼다. 죄인들의 이해력을 통해, 나는 단순한 말이지만 그 의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내 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

52. 내일 너희는 땅의 여러 길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증언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해로운 것, 죄, 그리고 불화를 없애고, 모두가 한 분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에게는 사회 계급도, 인종도, 귀족 가문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두 한 분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며,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53. 인류는 현재 불순종의 결과로 큰 정화를 겪고 있으나, 이 고통의 잔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인 나는 이 시기에 너희가 어깨에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오셨다.

54. 민족들은 예로부터 서로를 경시해 왔기에, 국경과 서로 다른 이념을 만들어내고 서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55.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너희가 나를 본보기로 삼아 광야에서 타는 듯한 태양의 광선이 너희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가 인류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 지혜로 너희를 가르쳤다.

56. 제2의 시대에 나는 열두 사도를 준비시켜 인류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14만 4천 명을 하나로 모아 준비시켰으니, 인류가 이 백성을 통해 다시금 나의 자비를 받게 하려 함이다.

57.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사람들은 불순종과 육체의 약점 때문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 그 약점들은 영혼을 약화시켜, 내 뜻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했다!

58. 내 가르침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여, 내일 너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라. 나는 이 시대에 내 가르침으로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길을 걷고 내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 왔을 뿐이다.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하여 네가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리라.

59. 너희가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들과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비록 이 계시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것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태초부터 영적으로 너희와 함께해 왔듯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니, 이것이 곧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60.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너희의 행실로 증언하기를 원한다. 이미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었다.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오면,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끌려 왔는지 깨닫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왜 너희가 영성주의자인지, 왜 너희가 이스라엘인인지, 그리고 왜 너희가 마리아 삼위일체 신자인지를 말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육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한 이스라엘 자손임을 기억하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참된 후손이기 때문이다.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것은 그가 시련 속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강인해야 한다. 너희는 영성주의자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영으로 나를 찾고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61. 너희는 왜 마리아를 찾고 사랑하는가? 내가 제2시대에 너희를 어머니로서 그녀의 자애로움에 맡겼고, 그녀의 영이 너희와 온 인류를 위해 중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62. 레위 지파는 이미 첫 번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자 사제가 되도록 선택받았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시대에 레위 지파는 다시 한번 나의 신성을 섬기도록 봉헌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념하는 자들이다.

63. 백성아, 유다처럼 행동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나를 부인하지 말고, 도마처럼 나를 의심하지 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런 약점을 보인다면 – 내 영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인가!

깨어 기도하라. 내 사도들의 순종을 본보기로 삼으라. 그들처럼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해지려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너희 모두가 동등하며,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 영혼의 승천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하노니,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 거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너희 중 어떤 이는 더 일찍, 어떤 이는 더 늦게 도착할 것이다. 선한 행실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 너희 영혼이 승천하도록 하라.

64. 너희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나는 너희의 선행과 악행이 기록된 책을 보여 줄 것이며, 나의 정의의 저울이 너희의 공로 쪽으로 기울어지면 너희 영혼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이 행성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속죄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들은 영적 영역에서 계속해서 공덕을 쌓아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며, 시련을 승리로 이겨낸 천사들과 나의 영적 세계가 그러하듯, 인류를 위해 싸우고 일하게 될 것이다.

65.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는 점차 진정한 행복을 얻어 나갈 것이며, 마침내 나의 신성한 영과 하나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나로부터 나왔으며, 순수하고 맑은 상태로 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66. 고통이 너희 영혼을 얼마나 정화시키는지 이해한다면, 너희는 그 고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신’은 영혼을 약하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유혹에 맞서 방어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 말해 주었다.

67. 이 말씀이 더 이상 너희 귀에 들리지 않게 되면, 너희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 가르침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승화하여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며 내 신성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일단 내 곁에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 345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스승님 곁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심판자로 계셨던 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깊은 곳까지 심판했던 지,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른 이들은 영적인 계시에 무관심하고 오직 세상의 유혹에만 마음을 열고 있던 모습을 보았던 지, 그로부터 불과 몇 번의 아침 경배만이 지났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진정한 영적 준비와 열린 마음으로 나를 맞이했으나, 다른 이들은 퇴보에 빠져 있었고, 내 자녀들 중 일부는 일상의 틀에 갇혀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영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3. 나는 백성의 사랑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아직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며, 내가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 조화가 아직 느껴지지도, 실천되지도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4. 나는 교회의 기도를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과오에 대한 회개를 나타냈고, 다른 이들은 세계 평화와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을 위한 조심스러운 간구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참된 영적 통찰력으로 스승 앞에 겸손히 나아가 가르침을 갈망하는 이들, 심판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는 법을 아는 이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이심을 아는 자녀들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들은 얼마나 적었는가.

이 축복받은 기회, 이 은혜의 순간에 아버지는 영적인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영감을 주시고, 공의를 베푸시며,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일부는 인간의 매개를 통해, 그리고 상당 부분은 영과 영 사이에서, 특히 당신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지구와 온 세상에까지 전달하셨습니다.

5. 이것이 이미 내가 심판자로서 여러분에게 온 마지막 가르침이었으며, 인간의 지성 능력을 통해 전달된 나의 광선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자리였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주의 "일꾼들",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 그리고 영적 삼위일체-마리아주의 봉사자들이 모여 있었고, 나는 그들의 지성을 통해-을 통해 내 사역을 알리고 청중들의 믿음을 북돋아주었습니다.

6. 나는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나,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집회에서는 아닐 것이다.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이를 예감하고 흐느꼈다.

“육신”은 연약했고 , 임박한 이별과 이러한 집회의 종결을 거부하며 저항했다.

7. 엘리야는 너희를 준비시켰고, 그의 영적인 손가락으로 미리 이 순간을 가리켜 주었으니, 이는 온 백성이 깨어나고, 각성하며, 깨어 있게 하여, 이 심판과 은혜의 시점을 무관심하게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엘리야는 영혼들의 길에서 언제나 선구자로서 나타나며, 내 자녀들의 발이 길에서 다치지 않도록 길을 정비하고 가시와 돌덩이를 치워주기 때문이다. 그는 양심을 통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영적인 종을 울려, 여러분을 깨우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오시는 분의 음성을 듣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매 순간,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8. 나는 심판의 매 순간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고, 그곳이 고통과 불확실성, 어두운 예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그 간구를 듣기 위해 다가갔다. 그 간구들은 점점 더 영적이지 않게 되고, 물질적인 것만을 갈망하며 오직 세상의 지식과 욕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인류, 즉 오직 세상의 재물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영혼 속에 단 한 줄기, 한 점의 희망만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을 마주했다. 그러나 나는 그 불꽃을 꺼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진리와 위로, 격려, 그리고 나의 본질로 그 불꽃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나는 그 은혜로운 순간에 온 지구상에 영적으로 이를 쏟아부어, 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고, 나의 본질이 예외 없이 모든 이 안에 머물게 하였으니, 이는 엘리야도 이전에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 영혼들과 마음들은 이미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길을 닦는 자인 엘리야의 영에 의해 준비되어 있었다. 엘리야는 항상 너희 곁에 있었으나, 너희가 그를 느낀 적은 드물었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다.

9. 엘리야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위대한 영으로,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는 이입니다. 나는 그와 다른 위대한 영들의 중재를 통해 영적 우주를 움직이고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실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제자들아, 나는 창조계를 다스리는 수많은 위대한 영들을 내 곁에 두고 있습니다.

10. 그러자 너희는 스스로 묻는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 아니신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내가 모든

영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나이다. 나는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시며, 나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수많은 영들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나의 사역과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으며, 나의 창조물 안에서 내 오른편에 있는 존귀한 자리를 주었다.

내가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너희 모두를, 이미 지나간 그 은혜의 아침을 위해 준비시킨 후, 엘리야는 주님께 잡초가 무성한 밭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잡초는 아직 조금 더 번성할 것이며, 잡초는 계속 자라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땅 위에서 더욱 퍼져 나갈 것이다." 그러나 곧 수확의 때가 올 것이며, 곧 낫이 휘둘러질 것이니, 그때면 악한 씨앗들 사이에도 밀이 있을 것이나, 비록 그 수가 매우 적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 밀은 내 곡창에 보관되어, 때가 되어 땅이 적합하고 비옥해지면 다시 뿌려질 것이며, 잡초는 단으로 묶여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11. 내 백성아, 악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났다. 선함과 미덕, 사랑은 악과 질병, 재앙, 전염병, 불행의 침입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의 씨앗인 이 모든 것이 선한 이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많은 이들을 비틀거리게 했으며, 신실한 자들의 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악이 인류에게 막대한 권세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를 위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타락과 어둠, 그리고 미혹 뒤에는 신성한 빛, 즉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이 있기 때문이다. 빛의 영혼이라 불리는 원초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주신 입맞춤, 즉 내가 모든 자녀들을 투쟁의 길로 보내며 새겨준 신성한 인장을 흠 없이 간직하고 있다. 이 표식 덕분에 그 어떤 영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13. 길을 잃은 자들의 수는 많다. 그러나 지구상, 지구 인구를 이루는 여러 민족의 품속, 하찮은 마을과 평야 지대에서도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대중에게 본보기가 되고 영적 버팀목이 되는, 스스로를 고양할 줄 아는 많은 마음이 부족하지 않다. 그들이 기도할 때,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솟아나지 않는가? 왜 인류는 선과 평화를 향해 깨어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14.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가장 많이 죄를 지은 자들, 즉 이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자들이 나중에 너희의 가장 큰 은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실제로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죽을 것이며, 그들의 육체는 사라질 것이며, 인간의 죄의 원인인 어둠의 세력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그 영에 이끌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거대한 시련의 용광로와 큰 속죄, 영적 정화를 겪어야 할지라도, 비록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 할지라도, 비록 속죄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어둠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 비록 그 회개의 불길이 지옥의 불길처럼 느껴진다 해도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영혼은 온전하고 순수하게 거듭날 것이다 – 도가니를 거친 금보다 더 순수하게.

15. 너희는 인간의 겉모습만 보고 삶을 상상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 다른 세계들, 너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길이다.

16.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인간의 과학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힘들이 있는데, 이 힘들은 끊임없이 너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은 힘도 있고 나쁜 힘도 있으며, 빛의 힘도 있고 어둠의 힘도 있다.

17. 이러한 영향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영에서, 이성에서, 감정에서 온다.

18. 이 모든 진동들은 공간을 관통하며, 서로 충돌하고, 너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육신을 가진 영혼들로부터도, 육신이 없는 존재들로부터도 비롯된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빛의 영혼들이 있는 반면, 혼란에 빠진 영혼들도 있기 때문이다.

19. 그 힘들의 시작과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묻는다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리라:

20. 세계가 생기기 전, 모든 피조물과 물질이 생명을 얻기 전부터, 나의 신성한 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물의 일체로서 나는 내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으니, 나는 마치 신하가 없는 왕과 같았고, 제자가 없는 스승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 닮은 존재들을 창조할 계획을 세웠으니, 그들에게 내 온 생애를 바치고, 그토록 깊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때가 되면 주저 없이 십자가 위에서 그들에게 내 피를 바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것이다.

21. 너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미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가 말해도 거슬리지 말라. 그렇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22. 하느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도록, 그분은 자신의 품에서 영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그분과 신성한 속성에서 닮은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기원이었으며, 너희는 그렇게 영적인 삶으로 태어났습니다.

23.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하시며, 너희의 영혼을 창조하신 후 자녀들에게 이해받고자 간절히 원하셨기에, 물질적 삶을 창조하셨고, 너희의 일시적인 거처 중 하나인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24. 아버지는 자녀가 어떠한 불완전함도 마주치지 않고, 오히려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무한한 인내로 모든 것을 빚어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태초부터 마치 한 권의 책처럼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그 책의 페이지들 속에서 너희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게 던질 질문, 즉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간절히 기다리던 답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5.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나는 그 영혼에게 지상의 육신을 주었으니, 이는 지혜와 완전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 창조된 경이로운 세상을 거닐기 위한 지팡이이자 옷이 될 것이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교훈과 아름다움을 담은 책으로서,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무한한 곳까지 이어지는 사다리 역할을 했다.

26.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나는 육신을 입은 영혼, 즉 인간에게 말하였다. "여기가 네 일시적인 고향이다. 네 길을 가라. 샘물을 마시고, 열매를 맛보고 즐기며,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알아라."

27. 이것이 너희의 물질적 삶에서의 시작이었으나, 아버지께서 여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먼 과거의 일이며, 세월이 흐르면서 묻혀 버렸다.

28. 시간을 측정하고 계산하기 위한 너희의 계산법과 가장 고도의 과학조차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의 시작을 결정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 계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29. 과학자가 이 세상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 내가 그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 한, 그가 어떻게 우주적 생명의 시작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 너희가 너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것을 알고자 애쓰며 머리를 앓지 않도록,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내재해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신 지식에 만족해야 한다: 너희 생명의 시작은 아주 먼 과거에 있으며, 그에 대한 지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져 버렸다.

30.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순결과 무죄로 가득 찬 영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는 내가 이 피조물들의 순결, 즉 그들의 무지와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그 순결에 만족했다고 믿느냐? 아니요, 제자들아, 그 무지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볼 수도,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었으며, 영적 공덕의 부족으로 인해 아버지의 신성한 속성 중 그 어떤 것도 높이 평가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나의 더 높은 뜻에 종속된 하등한 피조물이 되기를 원치 않았으며, 너희가 만들어내는 기계들처럼 – 자기 의지도, 자기 생명도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혼에게 의지의 자유라는 은사를 주었고, 육체가 영혼에게 인간 삶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나는 직관을 통해 창조주 아버지의 존재를 영혼에게 알려 주었다. 육체의 연약함을 고려할 때, 나의 정의와 지혜,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담긴 영의 빛에 이끌리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힘이었던 것이다.

31. 영혼이 육체적 감각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 삶으로 깨어난 바로 그 순간, 영혼은 영적인 삶을 포기하였고, 시련의 용광로와 투쟁, 고난, 고통,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결과가 시작되었으며, 영혼과 인간 능력의 전개가 시작되었다.

32. 그렇다, 내 자녀들아, 태초부터 인간이 자유 의지에 따라 경험해 온 모든 생각과 말, 행위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선과 악의 진동을 일으켰다.

33. 자유 의지를 행사하며 건전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고, 자신과 이웃의 안녕을 추구한 이들은 유익하고 자비로운 진동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같은 자유 의지를 행사하면서도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육신에 내재된 이기적인 성향에 따라 행동한 이들은 해롭고 유혹적인 힘을 만들어 냈습니다.

34. 이 두 가지 진동은 공간 속에 남아, 사람들의 생각과 과거의 행위에 따라 그 강도를 높이거나 낮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은 영혼들의 발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제자들아. 이 진동들은 모든 영혼 위에 잠재된 채로 남아, 그들의 생각과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35. 양심의 빛에서 영감을 받은 이들은 나쁜 영향을 물리치고, 선하고 치유적인 진동에 마음을 돌렸다. 그러나 자유 의지를 행사하며 신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이들은 파멸적이고 불길한 진동을 끌어당겨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불균형에서 오늘날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저급한 정욕이 비롯되었다.

36. 너희의 시작과 영원 속의 미래를 아시는 나, 나는 첫 인간들에게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울 무기를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악이 악을 대적하는 싸움을 택하였으니, 그 싸움에서는 아무도 진정으로 승리하지 못하며, 양쪽 모두 패배자로 남게 된다.

37. 너희가 나에게, 내가 인류에게 악과 싸우기 위해 준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면, 나는 그것이 기도와 율법을 지키는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말하리라.

38. 나는 너희에게 선과 악의 힘의 근원에 대해 말해 주었으며,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진동들은 주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해 내가 창조할 모든 세계에 닿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원한 것은 너희의 파멸이 아니라, 너희의 완성이었다. 그 증거는, 내가 양심에 호소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셨든, 나의 사자들을 통해 가르치셨든, 혹은 그 '제2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어 내 자녀들 가운데 계셨든, 내가 항상 내 자녀들에게 나를 드러내어 왔다는 사실이다.

39. 아무리 미개해 보일지라도 – 접근하기 어려운 숲속에 살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조차도 – 내 사랑의 표현을 경험하지 못한 인종이나 부족은 없다. 그들은 위험에 처한 순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조언해 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40. 너희는 결코 버림받은 채 살아온 적이 없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시작한 태초부터, 너희는 내 사랑의 방패 아래에 있었다.

41. 자녀들을 다정하게 사랑하는 인간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즉 여러분의 보살핌과 헌신, 사랑이 가장 절실할 때, 과연 그들을 운명에 내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저지르거나 여러분을 상처 입힌 자녀들조차도, 여러분은 지극한 사랑으로 걱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들의 곤경에 이처럼 반응한다면,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42.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장한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기에, 나는 여러분이 불길한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선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이 악을 묘사하고, 그에게 인간의 모습을 부여하며, 영적 존재로 여겼던 오래된 신앙적 신념과 형상, 인물, 상징적인 이름들 – 현재 세대까지 전해져 온 이러한 신앙관들 – 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그것들을 통해 이 시대에 인간이 이룬 영적 발전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미신적인 신화와 숭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43. 너희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우리가 자유의지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당신의 법을 어김으로써 악의 진동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다면 –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천국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영과 나의 영이 갈망하는 그 자유는, 너희가 속죄를 통해 쌓은 공로에 근거하여 얻게 될 것이다.

44. 너희는 언제 영적 해방을 얻게 될까?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 이를 너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며, 다만 내 사랑이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는 무기로 악의 세력과 싸우고, 내 율법을 굳게 지키며, 큰 시련 속에서 강해지라고 너희에게 촉구하실 뿐이다. 그때 너희는 오늘날 인종이, 언어가, 피부색이 나뉘어 있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 교리와 권력 다툼, 적대감으로 분열되어 있는 인류의 마음속에 내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덕을 지키며, 내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경외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아! 너희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과 유혹을 겪어야만 하겠는가!

45. 깨어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승리하라. 그러면 너희는 진정으로 영적 변모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늘이 너희 곁에 임할 것이며, 평화와 참된 기쁨의 미소가 드러날 것이다. 비유 속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며, 너희는 인류가 그토록 많은 투쟁과 몰락 끝에 마침내 선의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평화를 얻게 될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46. 나의 가르침으로 힘을 얻고, 이 빛을 인류와 나누십시오.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미덕이라는 무기를 들어 어떻게 악과 싸울 수 있는지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47. 여러분은 선과 악의 진동이 인간이 이 세상의 표면에 등장했을 때 이미 존재했으며, 나의 현명하고 자비로운 정의가 태초부터 양심의 빛에 충실한 영혼들뿐만 아니라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된 존재들까지 이 세상에 환생하도록 허용해 왔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인류를 위한 속죄를 위해, 다른 쪽은 인류를 위한 축복을 위해 말이죠. 그렇기에 너희는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해 위대한 영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왔다. 어떤 이들은 선을 위해, 다른 이들은 악을 위해 나타난, 권능과 힘으로 충만한 영혼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인간으로 환생하여 선행을 베푸는 이 영혼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인류는 그들을 비범한 사람들로 여긴 데서 착오를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토록 발전하지 못하는 바로 그 시기에, 그들은 그토록 큰 힘과 빛, 사랑, 지혜, 또는 미덕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영혼들이 지구에서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다른 세계, 다른 곳에서 이미 정화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여러분에게 와서 소량만 뿌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 그들이 성숙시킨 수확물, 즉 가꾼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열매의 맛과 생명력, 정수를 여러분의 입술에 전해 주었고, 여러분의 존재를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에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너희 인간의 마음에 용기와 지지를 주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언자였고, 다른 이들은 족장이나 학자, 혹은 왕이었으며, 어떤 이들은 재판관이나 교사였다. 또 다른 이들은 자연과 마음, 영혼의 아름다움을 전하여, 너희 마음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48. 너희는 또한 인류 존재의 모든 시대를 통해 남성과 여성들이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드러낸 폭력 앞에 경악하기도 했다. 너희의 역사 기록서는 그들의 이름을 모아 두었다. 너희 존재의 기억의 책, 즉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행실과 모든 업적을 기록하고 간직하시는 그 책에도 그들의 이름이 마찬가지로 담겨 있으며, 그리고 너희는 한 영혼, 한 인간의 마음이 악을 위해 그토록 많은 힘을 품고, 자신의 행위에 전율하지 않을 만큼의 용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또한 그 마음이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워,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양심을 통해 요구하시는

심판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도 놀라워했다. 그리고 이 행성에서 그 영혼들의 삶의 여정은 얼마나 길고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내 사랑과 정의에 자유 의지로 반항했던 이 사람들을, 나는 그들의 불순종 그 자체를 이용하여 내 종으로 삼았다.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은 –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 내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49. 그러나 그 지배는 언제 끝날 것인가? –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의 지배가 인류를 (완전히) 지배한 적은 결코 없으니,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도 나에게 충실하고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나의 율법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태초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

지금까지 그 두 세력 중 어느 쪽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왔는가? 악의 세력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곁에서 육신으로 내 목소리를 들려주어야만 했다. 너희를 돕기 위해, 너희의 희망과 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너희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심어 놓은 원칙들을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선과 사랑의 길이다.

50. 하나님께서는 종교라는 이름도, 종교 단체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영혼들이 그분의 정의와 사랑의 법에 따라 행한 행위들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진정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창조된 모든 존재 안에 있다. 그러나 나를 한정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나의 사랑으로 인해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나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 – 시나이 산에서처럼 내 목소리를 인간이 들을 수 있게 하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든, 또는 내가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제2의 시대에 내 자신의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내어 살아있는 말씀과 기적이 되시고, 인간의 피를 가지시며, 모든 사람의 가장 물질적인 눈에도 보이시고 감지될 수 있도록 하셨 . 지금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양한 연령, 국적, 사회 계층의 남성과 여성을 선택하여, 어떤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통해, 그리고 모두를 통해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의미, 동일한 계시, 그리고 동일한 증언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51.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언제나 먼저 있었다. 인간이 이 행성에 거주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들에게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너희 고향의 모든 지역을 영적인 정수로 가득 채웠으니, 이는 이 행성을 단지 지상의 낙원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성소로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인간이 단지 자연 앞에 머리를 숙여 숭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엘리야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께서 첫 번째 주민부터 마지막 주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음성을 알리러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첫 번째 주민들은 나를 들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의 온전한 영광을 보지 못했고, 어떤 상징을 통해서도 나의 신성한 영을 보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내가 영임을 알았고 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말씀하신다는 것,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시라는 것, 내가 그들을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내가 모든 선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2. 그러나 너희가 엘리야의 존재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나는 그를 첫 시대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여, 그 자신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인류를 놀라게 하고, 그의 현현과 행적, 그리고 말로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든 비범한 영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 과학자가 아니었음에도 자연의 힘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 — 인간이었음에도 죽음을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었던 사람, — 그의 기도로 자연의 힘을 불러내어 인류의 불신과 유물론에 경악을 안겨준 사람 — 마술사가 아니었음에도 실제로 육체를 떠난 영혼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53.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일어섰는데, 그가 한 예언들은 곧 이루어졌으며, 이를 들은 증인들 스스로가 그 성취를 목격했고,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주어진 예언들도 있었으며, 이는 후대 세대들이 증언한 바와 같다. 또한 그는 정의의 손길로 이방인들 을 징벌함으로써 주님의 종들을 보호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이들의 굳건한 믿음을 북돋아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물질주의와 미신, 이교주의를 벌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 나를 드러냈고, 그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능력을 그의 오른팔에 부여했으며, 엘리야 자신이 죽음을 이겨내고 참된 생명 속에 있음을 너희가 목격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54. 그는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해야 했으며, 사람들을 깊은 무기력에서 깨워야 했고, 날마다, 대대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이어지며 그토록 큰 사랑으로 스승이시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 온 이들의 희망을 되살려야 했다. 나는 엘리야가 진리와 영 안에서 세례 요한, 곧 길을 닦는 자 안에서 실현되도록 하셨으니, 그는 바로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예언을 믿고, 그의 말씀에 경외심을 느끼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정화했고, 그들 안에서 기쁜 소식, 곧 주님의 왕국이 곧 임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55. 나는 세례 요한의 삶이 비범하게 되도록 하셨으니, 그가 사람이 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하여 그의 유년기와 청년기,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의 존재가 너희를 깨우게 하려 하셨으니, 마치 종소리가 잠든 이를 깨우듯이, 목자가 양 떼를 모으듯이 너희를 하나로 모으고, 강가로 인도하여 너희를 정화하며, 너희 몸을 씻어 주게 하려 함이었으니, 이는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정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도다.

56. 엘리야는 순종적이고 겸손한 종으로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그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그분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군중이 있고, 여기 영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곳이야말로 안전한 곳이니, 가장 안전한 울타리는 바로 아버지의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57. 나는 제3의 시대에 엘리야를 돌아오게 하였으며, 스승으로서 나는 그 제2의 시대에 그를 예고하며 이렇게 말했었다. "진실로, 엘리야는 너희 가운데 있었으나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겠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보다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스승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엘리야는 제3의 시대에 나보다 먼저 와서 영혼들을 깨우고, 성령의 시간이 그 문을 열었음을 예감하게 하며, 모든 영혼에게 눈을 뜨고, 제2의 시대에서 제3의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 제3의 시대에 엘리야의 선포가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나는 그를 의로운 사람, 로케 로하스를 통해 드러나게 하였다.

58. 엘리야는 저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 사람을 깨우치고, 그에게 영감을 주며, 그를 굳건하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길을 인도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 중에서 로케 로하스를 선택한 것은 *그가* 아니었다. *내가* 그를 택하였고, 나의 자비로 준비된 그의 영혼을 보냈노라. 나는 그에게 또한 나에 의해 준비된 육신을 주었으며, 너희는 그가 겸손했고, 아버지가 그의 겸손과 덕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음을 알고 있노라. 그는 예언자이자 대변자, 선견자, 그리고 지도자였노라. 이 모든 면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빛나는 본보기를 남겼노라.

그는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으며, 예언자 엘리야처럼 박해를 받아 산 정상으로 물러나 그곳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만 했다.

그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하고 정죄받았습니다. 스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를 믿고 따르며 곁을 지킨 이들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치유의 힘이 흘러나와 기적을 행했는데,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일깨워 주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의 입술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의 입은 상처받은 마음들에게 위로가 가득한 조언을 건넸다.

그의 지성은 위대한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의인들과 사도들, 예언자들처럼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다. 그의 영은 이 세상과 육신에서 벗어나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겸손히 주님의 비밀 보물창고 문 앞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러한 승천을 통해, 스승의 광채가 닿기도 전에 엘리야의 영이 첫 번째 증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다.

59.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그를 비추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은 바로 엘리야의 빛이었으며, 그 빛은 증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자 엘리야요, 타보르 산에서 변모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는 심판과 사명, 그리고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 감동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3의 시대에 아버지의 임재가 도래하도록 이 새로운 계시의 길을 준비했고, 주님께서 인간의 중재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은 후,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귀와 마음, 그리고 온 존재를 준비시켰습니다.

엘리아스는 모든 잠든 자들을 깨우고, 모든 더러워진 자들을 정화하며, 추위에 떨고 있는 모든 이를 자신의 영의 불길로 감싸 안고, 모든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길과 오솔길, 대로를 닦기 위해 영적으로 인류 가운데 머무르셨습니다. 엘리아스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은 그 투쟁 속에서 온 인류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케 로하스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세상을 향한 제3시대의 문이 열렸다. 이는 14만 4천 명의 영혼들이 차례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60. 로케 로하스는 첫 번째로 표식을 받은 자였다. 나는 영과 영으로 그와 대화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내 말씀을 듣고 활력을 얻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미성숙하므로, 나는 대변자들을 통해 내 말씀과 행적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144,000명 중 하나이며, 내가 이미 제2의 시대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 예고했던 자들, 즉 이 시대에 인류 가운데서 어렵고 위대한 사명—구원, 영성화, 그리고 고양의 사명—을 수행할 자들임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이마에 삼각형을 표식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61. 나는 로케 로하스를 통해 너희가 여섯 번째 인의 시대에 있으며, 너희를 위한 그 책이 여섯 번째 장, 여섯 번째 부분에서 열렸음을 깨닫게 하였다. 그 일곱 인이 찍힌 책은 인류의 존재에 대한 미리 예견된 역사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기록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은 비밀 속에 봉인되어 있었기에, 그 내용이 인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직 *한* 손, 즉 거룩하고 순결하며 완전한 손만이 그것을 열 수 있었는데, 바로 어린 양의 손이었으며, 그분은 제2시대에 그분의 가르침과 희생의 죽음—고귀한 사랑의 희생—을 통해 너희가 알게 된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분만이 그 책을 펼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창조의 공간에서도, 그 어떤 세계에서도 그 책을 펼 자격이 있고 그 내용을 영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62. 나는 이 계시를 통해 너희가 여섯 번째 인에 속한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앞선 다섯 인에도 속해 있었으며, 영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일곱 번째 인을 거쳐야 한다.

63. 일곱 인은 너희의 삶이며, 너희의 역사이며, 너희의 투쟁이며, 너희의 승리와 패배이며, 너희의 고통과 전투이며, 마침내 영광과 찬송, 그리고 주님의 우편에서 그분과 아주

가까이서 누리는 영적 축제로 가득 찬 너희의 구원이다. 그러나 내 백성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혼란 이후 나는 내 대변자들 가운데서, 주님으로서 성령으로 너희를 그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진정한 준비를 찾아볼 수 없었다.

64. 엘리야는 일곱 봉인을 풀지 않았으며, 너희 민족에게 그 봉인을 심지도 않았다. 로케 로하스도 일곱 봉인을 풀지 않았다. '일곱 승리의 책'은 나 자신이 풀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에 관한 은밀한 일들, 즉 그분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실 수 있었다. 물론 성령께서는 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너희에게 위대한 교훈들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오직 너희 주님만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 너희가 그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선지자들은 비유적인 의미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위해 예언들의 실현과 성취를 가져오셨다.

65. 너희는 이미 내가 언제나 너희 곁에 계셨으며, 너희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선한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와 덕행으로 영적 빛의 세계에서 나오는 선한 기운을 끊임없이 끌어당길 수 있도록, 너희의 원시적인 무기, 본래의 무기에 빛을 더해 주셨음을 알고 있다 – 꿈속에서든, 일할 때든, 시련이나 위기의 순간에든, 항상 너희를 노리고 있던 유혹의 그물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유혹은 항상 너희에게 즐거움과 덧없는 부, 거짓된 빛, 학식과 명예로 가득 찬 악의 길을 약속해 왔으나, 그것들은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사라져 버리며, 오직 큰 괴로움만을 남길 뿐인 악의 길로.

66. 너희는 이미 너희를 위해 길을 닦아 주고 항상 너희 뒤를 따라온 목자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엘리야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스승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당신의 발자취를 따를 위대한 본보기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스승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로케 로하스를 훌륭한 본보기로 삼으라! 그는 엘리야의 형상 그 자체이며, 목자로서 너희를 지켜주었고, 그의 삶을 나의 봉사에 바쳤으며, 그 안에는 순수함과 고상함,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높은 저 세상에서 훌륭한 사자로 그에게 맡긴 ' '라는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67. 로케 로하스가 그 법을 제정하지도 않았고, 인류에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대변자였을 뿐이며, 그의 지성과 입을 통해 아버지의 법이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그는 내 품에 안길 수 있었고, 나에게서 영감을 받아 황홀경에 빠질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그를 매개로 하여 제3의 시대에 주님의 식탁에 앉은 최초의 참가자들에게 첫 번째 빵과 첫 번째 포도주, 첫 번째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여러분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으며, 여러분이 광신주의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 그는 너희가 영성주의를 물질주의적 과학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니, 물질주의적 과학은 비록 "영"에 대해 말하지만, 내 모든 자녀들–종파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제외하고–에게 자비를 실천하도록 가르치거나 너희에게 순수한 말씀을 전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언자로서 그는 나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도록 충실한 증언을 해 주었으며, 그의 증언은 언제나 진실했습니다.

68. 그러나 로케 로하스 이후에도 여러분에게는 다른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준 이들이었습니다. 앞서가는 형제들의 좋은 본보기에 힘입어 격려받으라. 그러나 그들을 완전한 재판관의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들 안에서 찾고자 하는 완전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형제자매 중 누구에게서든 충실함을 찾으려 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용기와 열정, 자기 부인과 희생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69. 모든 미덕 중에서 너희는 형제자매들에게서 단지 원자 하나, 입자 하나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무언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제자들의 마음에 뿌리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두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완전함을 찾고자 한다면, 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으라. 내 말씀 속에는 스승 중의 스승이 계시며, 그분은 교만함 없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참으로 완전하시다!"

70. 1866년부터 너희에게 전해 온 나의 계시는 이제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스승께서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계시가 나와 너희 모두에게 끝이 난다면 – 그때 엘리야는 무엇을 하겠느냐?

71. 나는 이미 너희에게, 인간을 매개로 나를 만나온 후에는 영과 영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과연 너희의 대화가 내가 떠난 바로 다음 날부터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떠난 첫날부터 이미 나의 신성한 영과 함께 위대한 영감과 완전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다. 나는 이미 이 말씀들을 통해 너희에게 묵상과 준비의 시간을 예고하고 명한 바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묵상과 준비의 시기에 엘리야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미리 알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자들의 영적인 시선이 이를 증언할 것이며, 너희 마음은 그의 임재와 그의 따뜻함, 그리고 그의 예언과 격려를 느낄 것이다.

72. 내 백성이 일단 준비가 되면, 주님은 그분의 "구름", 즉 그 영적이고 보편적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진정으로 준비된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시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깨우실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깨달은 백성에게서만 내 영적 대화를 위한 열린 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실로, 온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준비될 것은 아니나, 충성스러운 자들, 굳건한 자들, 많은 고난을 겪고 회개한 자들, 그리고 준비를 지켜온 자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73. 온 세상에 영에서 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환시자들과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을 가진 남녀들이 위대한 영감에 대해 말할 것이다. 오, 백성들아, 그 때가 이미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깨어 있게 하고, 훈련시키며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유혹이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 인류 가운데 큰 타락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74. 나의 왕국인 영성화는 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마치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고, 모든 나무를 휘어지게 하며, 모든 숲을 뒤흔들고, 문을 두드리고, 모든 존재의 얼굴을 채찍질하듯이 말이다. 마찬가지로 영성주의도 빛과 사랑의 폭풍처럼 올 것이다. 모든 것을 휩쓸고 무너뜨리는 폭풍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제도의 중심에서, 모든 국가와 모든 인종의 품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나의 왕국이며, 성령의 통치이자, 영적 고양과 평화와 사랑의 통치이다.

75. 진실로, 그 때 너희는 인류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어나, 성전으로, 성소로, 성령의 참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보편적인 사역이며, 하나님의 법, 곧 정의와 사랑의 법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이 영성주의를 통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갈망하든, 추구하든, 혹은 그것을 찾았다고 기뻐하든 말이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영적 혼란과 극심한 광신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르침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에 뿌리내리려면, 먼저 인류에게 광신과 우상 숭배의 먹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3시대에 사람들의 영적 광신주의는 매우 거대해질 것이다. 그들은 그 광신주의에 그토록 강력한 힘으로 몰두하려 할 것이니, 공적 생활 자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육체를 무시하며, 수많은 세속적 법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온전히 헌신하려 할 것이다 – 오직 영혼의 존재만을 위해 생각하고, 꿈꾸고, 살며, 세속적인 것은 잊어버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영적 영역에 정의의 원리를 지닌, 물질적 영역에 내재된 법칙들이 바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괴롭히고, 질책하며 바로잡는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76. 이 사역의 제자들로서, 144,000명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모든 시대에 걸쳐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아 온 영적 이스라엘로서, 너희 또한 너희의 위대한 영적 지혜의 책과 평화의 깃발, 일치와 선의의 깃발, 정의의 무기, 계시, 예언, 직관, 해석, 그리고 내 말씀에 대한 연구라는 은사들로 무장하여 인류에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역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주의이며, 이것이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올바른 방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서 가르치신 경배이자 예배이다!"

77. 그곳에서 너희의 밭은 끝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너희의 일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밤 없는 낮이, 피로 없는 일이, 죽음 없는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너희 영혼을 위한 축제가, 사랑과 구원의 축제, 투쟁의 축제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일이 클수록 너희의 기쁨도 커질 것이며, 너희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갈 때, 너희 영혼 속에 사명 완수의 결실을 품고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주님의 충실한 자들, 즉 평화와 사랑을 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영혼들 중 하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높은 저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투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빛과 사랑의 씨앗이 사방으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모든 원칙을 그 근간부터 뒤흔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자신의 일을 마치지 못한 이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이들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다른 세계로, 다른 영혼들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8. 휴식을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일 뿐, 그것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에게 있어 휴식은 최악의 형벌일 것입니다. 영혼에게 최고의 보상은 활동과 일,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결코 잠들지 않으시며,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보기로 삼아, 이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 영혼에게는 피로도, 밤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습니다.

79. 죽음이 너희 영혼을 높은 저 세상에서 깨우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며, 그 순간부터 영혼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오늘 제 날개가 펼쳐져 무한을 품게 되었고, 오늘 저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에게 주셨던 빛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 임무와 사명을 보여 주십시오." 오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이, 다른 세계로 가서 우주의 아름다운 업적에서 영감을 받은 위대한 영혼, 예언자, 스승으로 나타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80.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영적으로 제 곁에 도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직 보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배워야 할 것과 해야 할 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81. 너희는 지상에서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이 나의 말씀을 듣게 되며, 너희보다 더 높은 삶의 단계에 있는 그곳의 주민들, 즉 다른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이를 듣는다. 또한 그곳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더 높은 삶의 차원에 속한 다른 영적 존재들도 이를 듣는다. 왜냐하면 제3시대 에 아버지께서 빛의 영들과 함께 펼치시는 이 "연주"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의 광선은 보편적이며, 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영적 본질 또한

보편적이다. 심지어 영들이 도달한 가장 높은 단계에서도 그들은 나를 듣는다. *너희는* 현재 이 계시를 통해, 인간을 통해 전달되는 가장 불완전한 방식으로 나를 듣고 있다.

82.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더 높은 계시의 단계로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야 너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 이 지구를 완전히 떠날 때, 새로운 삶의 단계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너희의 영과 함께 펼치시는 "연주"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는 아직 물질계에 머물러 있으니, 이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과 영을 위로받으라. 그리고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했던, 너희가 여전히 아버지, 남편, 아내, 형제, 자녀, 친척 또는 친구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은 다른 삶의 단계에 있으며 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의미와 본질이 다르며, 비록 그들이 같은 기쁨과 같은 위로, 같은 격려, 그리고 같은 양식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83. 이 연주회 – 스승께서 묻습니다 – 정말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천체들 –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사는 다른 세계들 – 에서 또한 기쁨과 영적 삶의 근원이 된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지냈던, 영매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토록 가깝고 동시에 그토록 멀리 있는 존재들 말입니다.

84. 오, 나의 제자들아, 내가 이처럼 빛으로 가득 차 너희를 준비시키고, 너희를 위로하며, 나의 사역이 보여주는 무한한 지평을 보게 함은, 너희가 이 희망과 빛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 삶과 영적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 전하십시오. 나는 너희가 온전히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전념하여, "세상에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법을 아는" 훌륭한 영매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육체에 주어지는 것은 정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져야 하며, 너희 영혼에 주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자비로 주어져야 한다. 너희는 세속적인 의무를 다할 시간과, 영적 수행과 영적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을 발전시킬 시간을 모두 가져야 한다.

85. 이러한 방식으로,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 물질주의, 심지어 미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징후와 흔적이 너희 영혼에서 떨어져 나가고 너희 마음에서 제거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순수함과 진실함, 소박함과 고상함으로 영성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제3의 시대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숭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본보기를 인류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86. 강해지라 – 단지 이 사역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치유력으로 충만하고 은총이 넘치는 이 사역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라. 너희 각자의 가슴 속,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은 그 보이지 않는 성막 안에서 이 모든 힘을 발견하라.

87.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성소, 곧 언약궤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은총과 축복의 샘,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움받지 못하는 영혼은 없으며, 누구도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가 아닙니다. 나의 신성한 자비 앞에서, 온 우주에 자신을 가난하다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주님의 땅에서 추방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상속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은총의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현재 죄 속에서 길을 잃었거나, 눈이 가려져 있거나,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항상 너희 안에서 이 은총의 선물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임재가 결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나의 왕국과 영광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떡", "치유의 향유", "무기", "열쇠"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항상 너희 안에 있을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88. 이것이 바로 이 은혜의 날에 내가 너희 양심에 새기는 나의 말씀이다.

89. 깨어 기도하라, 오 백성아. 회복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너희와 인류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잡초가 퍼뜨리는 씨앗 또한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크게 싹트고 있으니!

90. 깨어 기도하라. 낫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낫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91. 나는 사람의 손이 파괴와 죽음, 전쟁을 가져오도록 허락하겠지만, 그것은 오직 일정한 한계까지만이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불의와 타락, 맹목, 그리고 사람들의 권력 추구는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내 낫이 올 것이며, 지혜로 내 뜻이 정한 것을 베어낼 것이다. 내 낫에는 생명과 사랑, 참된 정의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백성아, 깨어 기도하라!

92.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고자 하며, 너희 기도의 힘 안에서 나는 용서할 이유도 찾았다. 너희의 중보 기도를 통해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 공의를 잠시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너희의 간구 속에서 나는 울고 있는 자들에게 줄 치유의 연고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영혼을 고양시킬 때, 나는 또한 사람들이 자초하는 파괴를 막을 이유를 찾을 것이다.

93.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46

1. 나는 너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너희 영혼이 나의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2. 나는 빛이자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 은혜의 일부를 받게 된다.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선물을 잃을 때, 너희의 자유 의지로 인해 물질주의적 성향을 키우고 그로 인해 고통을 자초할 때 고통을 느낀다. 너희가 고통받고 울 때, 그것은 너희 자신의 경건하지 못함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서 어둠을 걷어내고, 너희의 길에서 가시와 바위들을 치워, 너희가 나의 길을 찾게 하고, 과거를 잊고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게 하리라.

3.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며, 좋은 조언자이자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너희 양심을 통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니,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리라.

4. 너희는 아버지께서 가꾸어 오신 식물과 같다. 나는 훌륭한 정원사로서 너희 가운데 있어, 쐐기풀을 뽑아내고 갉아먹는 벌레를 제거한다. 나는 너희 영혼이 나와 조화를 이루도록 돌보아 준다.

5. 너희는 난파당한 자들이니, 내가 구명정을 보여 주어 너희가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하리라. 내가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물 위를 걸어가되, 베드로처럼 나에게

“스승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가라앉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믿음이 사랑과 합쳐져 하나의 힘을 이룰 때, 너희는 영혼 속에서 큰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너희 아버지의 능력이 너희를 지탱해 주실 것이므로 너희 몸조차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너희 주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6. 자신의 행실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가 바친 것의 몇 배나 되는 것을 줌으로써 조용히 그에게 보답하리라.

7. 고통받는 자, 눈먼 자, 혼란에 빠진 자들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내 자비를 베풀어 주려 합니다.

8. 이 계시는 1950년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오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게 더 가까이 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제3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며, 그 시대에 너희는 너희 영혼을 깨운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었느니라.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나에게 물었다. “아버지, 제가 왜 다시 돌아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그것은 너희 영혼이 잃어버린 순결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죄에 이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정화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내 왕국에 있을 것이니라.

9. 너희는 내가 빛의 옷을 입혀 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일부이며, 내일 너희는 인류의 스승이자 지도자로서 나아갈 것이다. 오늘날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부르며,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는 싸우고 일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10. 유혹은 여전히 너희를 둘러싸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때가 올 것이니, 그때에는 유혹이 묶여 버려 너희의 길에는 오직 너희를 인도하는 빛만이 남게 될 것이다.

11. 너희는 투쟁과 수고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이 시기에 너희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내가 유산을 맡긴 것은 너희의 ‘육신’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너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12. 나는 그 영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여, 그 영혼이 나를 향해 돌아와 영원토록 나의 신성한 영과 하나가 되어, 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소수만 모여든 사랑하는 자녀들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꿰뚫는 시선은 이제 나의 임재의 때가 왔음을 그들의 영으로 느끼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어디에서나 발견한다. 그들은 너희처럼 내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그들의 영 안에서 내가 다시 인류 가운데 계시며, 영적으로 '구름 위'에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겠고, 다른 이들에게는 예감의 능력을 통해 보게 하며, 나머지 이들에게는 내 사랑을 강렬하게 느끼게 하여 내 영의 임재를 깨닫게 하리라.

14. 나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준비된 상태로 만나지만, 다른 이들은 여러 종파와 종교에 얽매여 잠시 길을 잃은 채 잠들어 있다. 그러나 이제 내 큰 종소리가 그들에게 울려 퍼져, 모든 이가 내게로 와서 영혼의 부활을 받고 하나가 되어, 땅 위에서 나의 평화를 느끼며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가 왔다.

비유

15. 덕과 권능으로 충만한 위대한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는 수백만, 수억에 달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군중 중 그 누구도 통치자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으며, 멀리서만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그분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문이 열리더니, 그 안으로 피 흘리는 어린 양과 "여기에 빛이 있다.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마음속에 덕을 품은 모든 이에게 열린 문이 있다. 오라, 이리로 오라!" 눈부신 빛이 보이자, 군중들은 환호하며 그 문 쪽으로 향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 다다라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모두가 그곳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가는 길에 가시덤불을 만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들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막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 통치자,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군중들을 내려다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어린 양이 너희 모두가 내 왕국에 도달할 길을 보여주기 위해 그 가장 순수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16. 축복받은 자녀들아: 나는 나의 숭고한 사랑으로 너희 영혼에 자유를 주었고, 너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켰다. 나의 가장

귀중한 피를 통해 나는 너희 영혼이 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내 왕국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비유의 끝

17. 너희 백성아, 내 말을 이해하느냐? 그 통치자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위대하신 여호와이시다. 열리는 그 문은 너희의 스승이시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희생된 어린 양이시며, 너희 영혼에 빛과 부활을 주기 위해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예수님이시다.

18. 오늘날, 나는 너희가 속죄하고,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돌이키며, 내가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는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육신의 그릇을 너희에게 맡겼다.

19. 나는 너희가 죄에서 멀어지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고양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영혼의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내가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오, 죽음아, 네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오 무덤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상기시켜 드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죄가 죽음의 원인이며, 나는 이 시대에 성령의 빛을 통해 죄를 없애고 있다.

20. 너희가 인류 가운데서 차츰차츰 뿌려 온 것의 열매를 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밭을 가꾸어 인류가 그 좋은 열매로 양육받도록, 나는 너희 손에 농기구를 맡겨 주었다.

21. 나는 내 말씀이라는 정교한 끌로 너희 마음을 다듬고, 성령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었다. 나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시며,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고, 너희를 용서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고, 또한 가장 훌륭한 의사로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영혼의 나병을 고치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22.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실천하고, 너희 마음에 사랑과 순결을 품게 하기 위함이며, 비록 유혹이 너희에게 다가오더라도, 내 빛과 사랑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여 모든 약함을 물리치게 함으로써, 유혹이 너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3. 축복받은 백성아,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고통의 잔을 비워가는 모습을 보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 모든 것에서 지켜 주었으니, 이를 우연으로 여기지 말라, 축복받은 백성아. 너희는

내 말씀으로 스스로를 준비하여 세상에 보여 주도록 은총을 받은 백성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24. 너희는 나의 도구이니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손에 나의 능력과 빛을 맡겼으니, 너희가 인류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려 함이라.

25. 너희의 순종과 사명 수행을 통해 너희는 영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적 군대와 하나가 된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높은 저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종이 되어, 다시는 나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

26. 나는 너희가 새롭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너희의 준비 기간으로 맡겨 주었다.

2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사랑과 성령의 빛은 온 인류에게 부어졌다. 그러나 전쟁이 열국을 덮쳤으니, 이는 나의 사도 요한이 제2의 시대에 예견했던 바와 같다. 내가 과연 너희를 위해 이러한 고통을 준비했단 말인가? 내가 과연 죽음인가? 아니, 나의 자녀들아, 나는 생명이요, 나는 모든 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28. 내가 너희 영혼에게 맡긴 모든 환생에서, 나는 항상 너희에게 참된 삶을 향한 부르심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 빛은 오직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온 인류를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29. 나는 너희의 영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양심을 통해 내 존재를 느끼게 함으로써, 너희 영에 지워진 책임을 깨닫게 하노라.

30. 나는 너희에게 오직 하나의 길만을 제시해 주었으니,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자 유일한 법이시며, 모든 시대에 걸쳐 영혼이 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의 가르침만을 전해 왔기 때문이다.

31. 나는 사랑 어린 말씀으로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한다. 나는 인류가 길을 잃고, 맹목과 물질주의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릇된 길로 이끌려 갔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치 영혼에 어두운 눈가리개를 씌우고 나의 은총을 저버린 것과 같다.

32. 내 백성아, 인류가 얼마나 많은 오류에 휩싸여 있는지 깨달아라. 무지함으로 인해 그들은 물질주의 속에서 나를 찾으며, 그들의 마음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 내 자녀들은 아름다운 말에

기뻐하며, 이 시대에 무한한 곳에서 빛을 비추는 구원의 별인 내 영을 알아보지 못한 채, 빛과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다.

33.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니, 비록 너희가 배움이 없고 보잘것없더라도, 나는 너희를 통해 내 말씀을 드러내어 성령의 빛을 통해 세상에 내 진리를 설명하였으니, 이는 인류가 더 이상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은총의 생명을 누리며, 마음속에서 나를 느끼고 영성을 갖게 하려 함이라.

34. 나는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를 나의 은총의 소유자로 삼았으며, 너희가 나를 이해하는 즉시, 너희 이웃을 파멸로부터 지키고, 악이 가득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자들을 구하며, 유혹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길을 떠나게 하려 함이다.

35. 제3의 시대에 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부르심을 보내어, 나의 모든 양들이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36. 나는 영혼을 어둠에서 구원하고 잠에서 깨우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며, 제2의 시대에 나는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37. 나는 너희가 준비하여 나의 신성한 대의의 전사가 되도록 많은 영적 은혜를 베풀었다. 나는 너희가 나의 뜻을 이해하도록 계시와 직관을 통해 나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맡겼다.

38.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했노라. 악한 대변자들이 일어나 *거짓* 예수를 받아들이게 할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속임수를 쓰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할 것이다. 거짓 "지도자"와 거짓 "예언자", 거짓 "전사"들이 일어나, 그들의 말과 물질적 욕망으로 너희를 빛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것이다.

39.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다. 내가 매년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백성아, 준비하라. 나의 현존을 활용하고, 내 말씀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 내일이 되면 그것이 네게 용기를 주게 하라. 그래야만 시간이 닥쳤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다."

40. 나는 너희가 마음을 다잡고, '목소리 가진 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그들이 너희를 신성한 스승의 참된 군인이자 진정한 제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을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나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이 은총을 미루어 두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인류가 어둠과 광신, 우상 숭배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아라.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권력욕과 탐욕, 오만함이 솟아나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이 나의 꿰뚫어 보는 눈에는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깨우치고, 너희의 손을 잡아 세상의 길을 비추는 빛의 길을 보여주도록 이끌었다.

41. 이미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일어날 시련을 예고하기 위해 나의 예언을 주었다. 나는 땅이 흔들릴 것이며, 자연의 힘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전염병과 비탄과 죽음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전쟁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42. 나는 인류 앞에 빛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시며, 영혼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내 능력과 사랑을 맡겨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게 하여, 육체가 내 뜻을 따르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43. 나의 정의는 인류의 전쟁 충동을 막을 것이며,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기심도, 오만함도, 무지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모두가 신성한 법칙에 따라 다스릴 것이며, 모두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땅 위에 평화가 깃들 것이며, 나라들은 더 이상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과학 또한 나를 인정할 것이다. 모두가 를 향해 나아가며 같은 길을 찾고, 같은 목표를 갖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는 도덕과 자비, 그리고 진정한 화합이 있을 것이다.

44. 사랑하는 백성아, 바로 너희가 그 길을 깨끗이 정리하고 걸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수많은 무리가 너희를 따를 것이며, 나는 내 말씀으로 그 무리를 무장시킬 것이다.

45. 이스라엘아, 이것이 과연 어떤 때가 되겠느냐?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인류가 나의 평화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의 신성한 자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싸움을 위해 일어나라.

46. 너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 자신의 지성에 따라 –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니,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아직 우리 안에 쌓아두지 못했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대의 무자비함에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어길 때 우리를 책망하실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지극한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곳들에서만 철회될 것입니다 – 특정 장소에서는 그분의 빛과 말씀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에 나서는 곳에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간의 무지함이 나의 참된 말씀에 장애물로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령의 성전에서는 모든 종파와 모든 종교 공동체의 관념들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47. 스승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계셨다. 나는 너희를 준비시켰고, 너희를 나의 선택받은 자로서 나의 빛으로 표식했으며, 너희가 굳건하고 순종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평화의 입맞춤을 주었다. 준비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비밀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니, 그리하여 내 일이 비밀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48.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말고, 내가 매일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 주는 자비와 평화, 위로를 누리라. 나는 너희가 내일을 이끌어 나갈 줄 알고, 내 생각의 진동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내일, 너희가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나를 듣지 못하게 될 때, 내 가르침을 실천하고 영적으로 내 빛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영적 세계는 모든 영적 계시 때마다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49. 너희가 준비가 되면, 인류에게 이 빛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나 거리도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겸손과 온유함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너희를 통해 내가 그들에게 생명과 용기를 줄 것이다. 내 밭에서 일하며 늙어간 너희 중, 청소년 시절부터 세상의 방탕함을 등진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상을 찾지 말고, 칭송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한 허영은 내가 너희 영혼에 맡긴 은혜를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선한 이상이나 나쁜 이상을 존중하되, 오직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만 경청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가 되고 겸손해지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드러날 것이다. 비유

50. 어떤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큰 부와 재산을 가진 한 귀족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줄 날을 알려 주었다.

그 때가 되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그 분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서둘러 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은 그 궁핍한 이들의 벌거벗음과 가난을 보시며 연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들에게 거처가 어디인지 물으시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거처도, 머물 곳도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닥치는 곳이면 그곳에서 쉬곤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께서는 각자 자신의 부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자비의 선물이 더 필요하면, 필요할 때 다시 오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51.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인 여인이 그 주님 앞에 이르렀고,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건네주셨다. 평안도 위로도 없이 통곡하며 울부짖는 청년들과 처녀들이 찾아왔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그 주인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며 자신의 망토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 기력이 다한 노인들이 찾아오자, 그분은 그들에게 용기와 평안, 그리고 안녕을 주셨다.

52. 이들도 저들도 그 도시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그들이 그 부를 잘 활용했는지, 아니면 다시 가난에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무리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날이 왔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고통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셨다.

비유의 끝

53. 스승께서 너희에게 묻는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에 대해 이야기했느냐?” 그러자 너희는 나에게 대답한다. “스승님, 우리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54. 1950년 이후, 너희가 더 이상 이 형태로 나를 듣지 못하게 되면, 인류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백성아, 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자비를 믿으라. 너는 동료 인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을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55. 인류는 고통의 잔을 비우고 있으며, 그들의 탄식이 내게 닿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로서 나는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해 왔다. 나는 아버지이지만, 인류의 탄식을 마주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언제나 그랬듯이 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영혼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56. 약한 자는 자신의 영혼에 주어진 사명보다 세상에서 받는 것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비뚤어진 시선으로 너희를 바라보며, 너희가 약하고 내 율법을 어기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자들이야말로, 너희를 비방하고 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너희의 결점을 지적할 자들이 될 것이다.

57. 나는 너희를 미혹하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유혹에 대해 수없이 경고해 왔다. 그러나 너희는 전투에서 굳건한 전사가 되어야 하며, 시련이나 악의 교활한 계략 앞에서도 약해져서는 안 된다.

58. 내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진정으로 준비한 내 백성의 수는 적다.

59. 나는 세상에 내 권능과 지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하며 학식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었다.

60. 나는 너희를 바로잡고, 내 사랑과 빛, 자비를 베풀며, 덕을 가르쳐 청중들이 은총의 삶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성의 도구를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였다.

61. 사람은 나의 진리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잡초, 악의가 숨어 있으며, 다양한 세계관이 그를 다른 가르침과 다른 법으로 현혹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는 미혹에 사로잡혀 있다.

62.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라. 물질적인 대상들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숭배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으며, 신비주의를 전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너희 영혼에 나의 빛과 자비를 쏟아부어, 물질주의가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였노라.

63. 너희가 깨어 기도하고, 공부하고 탐구할 때, 1950년이 저물어 갈 무렵 너희는 나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나의 자비를 많이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준비가 부족하여 나를 증언하는 법을 모른다면, 돌들이 말하여 인류 가운데서 나의 임재를 증언할 것이다.

64. 나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 말씀으로 설명해 주었으니, 너희가 내 사역에 끼친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라. 너희가 먼저 과거의 습관들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동료 인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느냐?

65. 나는 너희가 훗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너희를 용서하고 단장해 주었다. 나는 너희가 싸움을 일으켜 인간의 마음에 스며든 어둠과 광신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빛의 검으로 너희에게 맡겼다. 이는 마치 나쁜 씨앗이 크게 번식한 것과 같아서, 인류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영혼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66. 나는 세상이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오며, 세상이 내가 그들에게 제시한 길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길에는 너희 발을 피 흘리게 할 가시나 돌조각이 없다.

67. 인간은 나를 시험하려 들지만, 이 시대에 너희 모두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자신의 과학과 부를 자랑스러워하며, 나를 그들의 왕이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드러냈다는 사실조차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그처럼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사랑과 자비가 임하여, 그들이 깨어나 에서 창조해 낸 것이 덧없는 것이며, 숭고하고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68. 백성들아,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마지막 계시의 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인류의 맹목과 이기심에 맞서 싸울 빛의 무기를 갖출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느니라.

69. 너희는 스스로를 연약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제3시대의 전사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의 자비와 가르침, 그리고 사랑을 풍성히 베풀었기 때문이다.

70. 인간의 마음은 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신성한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아버지로서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자비를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미혹된 자들의 어둠을 걷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성령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어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이며, 바로 이 영혼들이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해 온 자들이기 때문이다.

71. 이스라엘아, 네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면, 누가 네 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때 어떤 시선이 화살처럼 네 가슴에 박힐 것인가? 너희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며,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고, 너희를 안아 주려고 뻗은 손들을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이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겪는 것이 고통만이 아니도록 하기 위한, 너희의 투쟁에 대한 미리 받은 보상처럼 될 것이다.

72. 나는 너희가 빛의 무기와 사랑의 검을 지니고, 믿음과 희망과 자비의 깃발을 높이 치켜드는 전사가 되도록, 나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73. 이스라엘아, 너에게 아직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과 행실을 하나로 모아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되어 인류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비춰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되는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47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오늘 이 날, 내가 너희를 맞이하고 너희에게 축복을 내린다. 너희의 영혼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너희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너희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너희를 어루만지며 내 말씀을 전하노니, 이 말씀은 너희 삶의 고통을 달래주는 치유제가 될 것이다.

2. 그러나 나는 이 시기에 너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나의 제자가 되도록 초대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제2시대에 내가 남긴 본보기를 기억하라. 그 당시 인간으로 오신 나의 오심은 헛되지 않았다.

3. 나의 고난과 나의 말씀, 그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은 너희 영혼에 새겨져 있다. 그곳에는 내가 세 시대에 걸쳐 쓴 책이 있고, 모든 사자들을 통해 전한 나의 말씀이 있으며, 증언과 행적들이 있다. 너희가 너희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을 너희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길을 걸어왔고 성숙의 정점에 이르렀으므로, 영적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제1시대, 제2시대, 제3시대에 나의 말씀을 들었던 너희가 – 어떻게 이 메시지를 의심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했을 때, 너희 영혼에 새겨 둔 그 예언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는 말하지 않았고, 단지 시기와 사건들만을 알려주었으며, 나의 재림을 예고할 징후들을 지목해 주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인류 가운데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분의 영에 강림하셨음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내가 주신 모든 예고는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말한 이들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5. 내가 여기 현존하며,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숨어 있지 않았다. 이 시기, 즉 제2시대에 내가 작별을 고한 때부터 제3시대에 내가 오기까지, 나는 인류를 위해 항상 현존해 왔다. 내 빛은 언제나 너희 가운데 비추었고, 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나의 가르침과 본보기도 마찬가지다. 단지 계시의 단계가 달라졌을 뿐이다.

이 시기에 나는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을 육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 했다. 너희가 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보라, 백성아,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차 두 팔을 벌리고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맞이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고자 한다. 나는 너희가 나의 모든 말씀과 계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제3시대의 유언, 즉 이 시대에 해당하는 귀중한 책을 너희 마음에 새겨 남기고자 한다.

6. 너희는 수많은 대변자들을 통해 나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 각자는 이 시기에 나로부터 한 가지 사명을 받았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들의 책임은 매우 크며, 인간의 뇌를 통해 계시가 전해지던 이 시기가 지나가면, 나는 이 대변자들 각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은 내 말씀과, 내가 그들의 뇌에 베풀어 말씀으로 옮겨져 백성에게 충실히 전해지도록 한 빛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나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 또한 그들이 받은 모든 말씀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완전한 활동의 시기가 도래하면 나는 모든 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오늘 나는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의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나는 너희에게 아직 수확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아직 시간을 주지만, 스승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시간을 행동하고, 공부하고, 심오한 나의 가르침을 깊이 파고드는 데 사용하라. 그래야 너희가 이를 바탕으로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8. 나는 너희 각자를 위해 내 영 안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너희가 이 높은 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면, 너희는 내게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땅 위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내 뜻대로 너희를 보내려는 그 길 위에서 힘써 싸워, 너희가 내게 사명 완수를 바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내 시선이 어디로 가든 너희를 따르고, 너희 각자에게 내 보호는 무한하며, 너희의 고통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너희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9. 자, 백성들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아버지인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너희에게 계명과 사명을 주러 왔다. 너희는 인류를 위해 책임져야 할 백성이며, 스승이자 본보기이자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너희를 가르쳤고, 내 "말씀"은 잠잠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마침내 마음을 열고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들을 수 있는 긴 시간을 주었다.

10. 제2시대에 나는 단 3년 동안만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당시 나는 밤낮으로 제자들, 즉 나를 듣기 위해 다가온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았으며, 너희는 나의 모든 행적을 보았다. 너희는 나의 탄생을 목격했고, 인간으로서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나는 너희에게서 숨지 않았고, 나의 모든 행적이 알려지기를 원했으나, 너희는 재판관이 아닌데도 나를 심판했다, 백성아. 너희는 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판단했고, 나의 수난을 판단했으며, 비록 너희가 나의 피조물임에도 때로는 나를 오해했다. 너희가 나 자신의 일부이자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버지인 나의 행적을 정죄했다.

11. 나는 사랑이자 용서이다. 나는 너희의 판단을 불쌍히 여기며 너희에게 말하였다. "언젠가, 긴 시련과 삶 속의 큰 경험들을 겪은 후, 너희는 예수께서 인류에게 쏟아부으신 사랑, 곧 그분의 법과 자비를 깨닫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제시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과거를 후회하며, 모든 잘못을 만회하고 나의 가르침을 따를 기회를 나에게 간청할 것이며, 기꺼이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종으로 보고 싶지 않다. – 나는 너희가 언제나 나의 자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종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내가 나의 속성,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은총을 부여한 나의 피조물들이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 속해 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나에게 속해 있으며, 나는 그 세상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

인류여,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너희의 길에서 모든 혼란을 멀리하고 너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할 빛을 찾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12.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너희는 이 시기에 무수히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너희는 종종 비틀거렸고, 심지어 너희의 "육신"조차도 너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러나 영이 "육신"보다 더 강하지 않은가? 내가 너희가 모든 역경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너희는 내 영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너희에게는 힘과 능력, 그리고 에너지—너희가 마주하게 될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너희는 앞으로 가는 길에서 오늘 마주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길을 멈춰 서지 말고, 그 때문에 너희의 생각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13. 나는 너희에게 박해의 시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비난이 닥칠 것을 예고해 두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제자이며, 능력과 빛을 지니고 있으니, 이를 통해 너희는 모든 세계관과 사람들이 너희에게 내세우는 모든 '빛'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책이나 그 어떤 물질적인 작품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오직 너희의 믿음과 사랑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영적인 이 미덕들은 그들이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큰 믿음이 너희의 존재를 감싸고 있음을 내면에서 느낄 것이며, 이것만으로도 견뎌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너희는 다른 이들의 길 위에서 마치 무너뜨릴 수 없는 기둥과 같을 것이다.

14. 설령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해도, 설령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하려 한다 해도,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나의 사랑을 온전히 뛰게 할 것이며, 무자비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는 나의 법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며, 여러분에게서 태어날 후손들에게 이를 전수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백성을 다른 민족들의 스승으로 남겨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각자를 큰 나무의 뿌리줄기로 삼아, 내 뜻대로 그 나무에 가지를 뻗게 할 것이다. 너희의 미덕이 클수록, 너희의 발자취를 따를 이들의 빛도 더욱 커질 것이다.

15. 너희 가족을 위해 싸우고, 내가 너희의 보살핌에 맡긴 피조물들의 믿음을 위해 힘쓰라. 그들은 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영성화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말을 확증할 것이며, 너희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들은 지상에서 그들의 부모가 따랐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에 충실할 것이다.

16.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다. 내가 그들을 나의 빛과 지혜의 청지기로 불렀기에, 그들은 나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 너희는 인류에 대해 어려운 사명을 띠고 있으니, 때로는 이쪽 편에, 때로는 저쪽 편에 기울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알고 있다. 너희가 아직 나와 영과 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너희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알아라.

17. 나는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계시를 명료하게 하고 내 말씀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1950년이 지나면, 너희는 따라야 할 길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교감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직관이 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이 소중한 씨앗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마음들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 줄 것이다. 너희는 단 한 알의 씨앗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무작위로 뿌리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땅이 준비된 곳, 즉 너희의 직감이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이라고 알려주는 곳에 그것을 심을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마치 씨 뿌리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18. 너희는 사도들의 본을 따라 길을 떠나, 사람들의 길을 따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씨앗을 뿌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보여 주어야 할 책은 바로 너희 자신의 삶과 모범, 그리고 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신뢰가 담긴 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오늘부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굳은 결심을 다지라.

19. 나는 너희를 내 대신 남겨 둘 것이다. 말씀을 전하던 이들의 입술은 잠잠해지겠지만, 너희의 입술은 준비될 것이며, 너희 마음은 영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 끝없는 영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그러면 내일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가르침들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20. 나는 너희가 나를 기다리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사자로서 나아가, 한 사람을 통해 나를 들었을 때 느꼈던 경외심과 사랑으로 거룩한 계시들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입은 단련될 것이나, 너희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너희 입술은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높은 저 세상에서 너희를 지켜볼 것이며, 너희의 모범은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기록되어 남을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리라. 모든 일은 이해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가 충만함과 성숙에 이르러 영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었다.

21. 나는 너희의 옛 관습을 단번에 없애지 않았으며,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은 서서히 버리게 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침묵과 명상, 그리고 너희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려 주었다.

22. 그러니 너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 백성아. 기도는 너희의 방패가 되고, 믿음은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다. 시련의 시간에도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때와 같이 내 안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강한 팔이 너희 팔 안에 있다는 확신을 느끼게 될 것이며, 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 나로부터 축복받고 확증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23. 지금까지 너희는 마치 아이들과 제자들처럼 내 곁에 머물러 왔으며,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가르쳤고, 너희가 그것으로 양분을 얻도록 내 가장 사랑 어린 말씀들을 너희 마음에 심어 주었다. 영혼은 사랑으로 양분을 얻으며, 그 외에는 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사랑, 곧 내 말씀 속에 담긴 이 본질에서 멀어지면, 너희는 공허함과 버림받은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애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마음의 공허함을 이 수정처럼 맑은 물로 다시 채우게 될 것입니다.

24. 나는 너희가 목마름을 느끼지 않도록, 너희가 항상 은총과 영감으로 가득 차도록, 너희 마음속에 내 영의 사랑이 살아 숨쉬도록 이 샘물을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채워 두었다.

이 샘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아. 비록 내 말씀이 이런 형태로 멈추더라도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와 황홀경 속에서 나의 기운과 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해될 것이며, 그때 나는 낯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해 온 영적인 표현 방식으로 계속 너희에게

말할 것이며, 너희의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5.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계시를 줄 것인가, 백성아! 사람의 매개를 통해 말해지지 않은 모든 것을, 나는 그 후로 영과 영 사이에서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너희가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너희는 황홀경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 영혼이 고양되면 신성한 스승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명확히 하시는지, 한 문장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문장을 깊이 탐구하여 너희 이웃들에게 알려야 하며, 그리하여 백성들은 195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26. 나는 너희를 단 하루도 게으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준비가 되면, 나의 영감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가 준비된 모습을 볼 때마다, 영혼에 관한 위대한 가르침을 계시하고, 새로운 세대에 도움이 될 위대한 예언을 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많은 가르침을 글로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1950년 이후, 나는 너희가 이 영감들을 기록하도록 허락하리라. 이는 그것들이 약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고, 인류를 위한 유산으로 영원히 보존되게 하기 위함이며, 이 세상이 내게 보여주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갈망 — 사랑과 진리, 이해, 그리고 가르침을 통한 영적 계시에 대한 그 갈증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자로서 모든 지역과 수많은 군중에게 전해야 할 가르침을 통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7. 만물을 아우르는 심판의 때가 왔으며, 모든 행실과 모든 종교 공동체가 나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잘못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에 사람의 영혼에서는 비통한 울부짖음이 터져 나올 것이며, 오직 진리만이 빛을 발할 것이다. 인류에게 각성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할 참된 빛을 주소서." 그리고 그 빛과 그 도움은 성령의 가르침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이 될 것이며, 내가 모든 이의 아버지이기에 그들 모두에게도 속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28. 나의 영은 이미 사람들의 고아 같은 처지, 즉 각자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보고 있다. 나는 그들이 이 공허함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 애쓰지만,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은 사방에서 그 위안과 치유제를 찾지만, 역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문합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서 우리는 이 치유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인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으나, 너희는 그것을 찾는 법을 알지 못했다.” 너희는 여러 길로 길을 잃고,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다. 너희는 참된 사랑과 참된 빛이 없는 곳에서 그것들을 찾으려 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 안에서 너희 마음을 채워 줄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내 안에서 영혼의 평화와 빛, 그리고 치유의 연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미 그 찾음에 지쳐서 더 이상 내 영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너희는 어리석지만,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내 문을 두드리면, 문은 곧 열려 너희를 들여보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왕국의 모든 풍요로움을 보여 주고, 너희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에 대해 위로해 줄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허비한 시간을 후회하고, 너희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에게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너희 자신과 이웃을 온전히 하기 위해 나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의 풍요로움은 무한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보물을 구하면,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은총과 선물은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모든 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9.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왔노라, 백성아.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나를 세계 각국의 문을 두드리며 순례자로 보았다. 어떤 이들은 문을 열었고, 어떤 이들은 문을 닫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것이며,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너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로 인도하며, 너희에게 빛을 줄 것이니, 너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최종 목표는 사랑이며, 내 율법의 성취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지 않는 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한, 내 계명을 따르지 않는 한, 너희는 계속해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계를 정해 두었으며, 그 한계에 이제 곧 도달할 것이다.

30. 예고된 그 전 세계적인 큰 시련, 즉 너희가 고통의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할 그 시련이 지나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때 인류는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 인류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나를 찾아야 한다.

31.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 선포의 증인으로서 내가 말하고 인류를 심판하는 소리를 듣는 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도 이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너희도 내 영께 너희 마음의 공허함을 드러냈고, 너희도 목마르고 굶주린 채로 내게로 왔었다. 너희는 사랑의 샘에서 너희의 갈증을 해소했다. 그러므로 그들 안의 악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아직 나를 찾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언젠가 그 악은 결박될 것이다.

32. 인류는 내 율법을 지키고, 새롭게 되며, 나와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넓은 터전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들이 온갖 길을 걷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풍부한 경험을 쌓은 채로 내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온 나의 자녀인 인간은, 영혼을 괴롭히는 수천 가지 시련을 겪어왔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의 믿음이 굳건히 남아 있다면, 그가 얻게 될 상은 얼마나 클 것인가! 고난과 혼란, 위험을 겪은 뒤 그는 내 영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3. 그러므로 내 백성아, 시련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큰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 속에서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라는 무장을 베풀어, 그들의 감수성이 깨어나게 하리라. 시련과 경험, 그리고 그 결실을 거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리라. “보라, 이 시련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너희가 그 속에서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너희가 이제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해졌는지! 내 뜻은 너희가 파멸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영혼을 강인하게 단련하고, 시련과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며 나를 알아가는 것뿐이다.”

34. 불의 시련과 쓰라린 시험을 견뎌낸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나는 상을 마련해 두었다. 인내하며 고통을 견디고 나를 신뢰한 모든 이들은 영적인 평안을 누릴 것이며, 그 모든 시련을 초월하여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증언을 받아들일 것이다.

35. 내 말씀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노라, 백성아. 너희와 함께 지내며 나는 그 나라들의 고통과 궁핍에 대해 너희에게 말했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기도하라, 백성아, 절제하고 회개하여, 그 나라들이 시련을 겪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너는 견고한 땅을 밟았기에 강하다. 기도하고 준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보루가 되고, 손을 내밀어 자비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라.

너희는 비록 그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큰 능력을 지니고 은혜로 충만한 너희의 영은,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그 선함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하노라 – 너희가 나와 너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이다. 사랑은 내 율법의 근원적 원리이다. 사랑은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이며,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가르쳐 온 바로 그것이다. 사랑, 평화, 자비 – 이 미덕들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조차 없다.

36.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며,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창조되었을 때 사랑의 모든 능력과 특성을 이미 부여받았다. 그러니 너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내가 너희 본성에 심어 놓은 미덕들을 찾아내고, 너희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라.

37. 이스라엘아, 네가 인류 가운데서 네 사명을 수행할 수 있고, 네 은사를 펼치고 드러낼 수 있으며, 나의 신성에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열매를 심고 거둘 때, 네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완전한 활동을 펼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인류 앞에 서게 될 때이며, 너희의 발걸음이 확고하고 너희의 증언이 진실되도록 모든 빛과 모든 지혜 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38.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경고하노라. 내 말씀을 듣는 날마다, 너희는 아버지의 경고와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니, 내일 너희는 그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는 나를 듣기 때문에 평안 속에 있다. 그러나 큰 투쟁의 시기가 올 것이며, 나는 너희가 그 시기에 대비하고, 하나가 되어, 그 연합이 너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단 한 군데의 취약점도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내가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주위에 모여 내 마지막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한다. 마치 지상의 한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조언을 건네고, 자녀들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미덕 안에서 강해져, 인류를 이끄는 하나의 몸과 하나의 뜻이 되겠다고 약속하듯이.

그리하여 나는 너를 떠나보내려 한다, 백성아 –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은혜로 가득 차서, 네가 매 순간 강해질 수 있도록.

39.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희가 모이는 여러 집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내가 축복하노라. 나는 너희 마음에 더 큰 감수성을 주며 말하노니, 완전하지 않은 것, 나를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 적절한 때에 내가 심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또한 그들의 주님이 불완전함으로 인해 다시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라. 오히려 온 인류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하라.

40.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에게 양식이 되는 내 말씀을 주는 이 은혜의 날에, 나는 너희를 준비시키고 미리 경고한 채 떠나보낸다. 지금은 내 말씀의 마지막 때이며, 나는 너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듣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 말씀이 너희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너희를 깨우치며, 다가올 시기를 위해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41.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교훈이다, 백성아. 너희 자신을 위해, 그리고 큰 심판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큰 시련 앞에 선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고 이 모든 시련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지나가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간구를 들었으며, 내 뜻대로 너희를 들어주리라.

42. 내 자비를 바라는 겸손한 자들아, 너희보다 더 높은 뜻이 너희 위에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너희 삶에 대한 결정권을 내게 맡기는 너희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니, 너희의 십자가는 가벼울 것이다.

43. 너희 중 왜 시련을 겪었는지 끈질기게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나는 말하노라. 침묵하라, 그 이유를 묻지 말라! 너희가 나에 대한 너희의 죄를 알고 있느냐? 너희 영혼이 나로부터 나왔을 때처럼 순수하게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 영혼을 정화할지 알고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매일 너희에게 보내는 시련을 오직 인내와 준비로만 받아들이라. 내 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44.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올바르게 이끌고, 너희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빛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45. 나는 너희에게 모든 시련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너희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귀중한 선물을 허락한다. 오늘 아침, 나의 치유의 향유와 위안이 너희 모두와 함께하며, 세상과 나로부터 나온 모든 피조물과 함께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48

1. 사랑하는 백성들아: 스승께서는 너희가 이 가르침의 책을 마음에 새겨 간직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너희에게 주시고 계시다. 이 교훈들은 내일 너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되어, 너희가 지상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너희 영혼을 위한 상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여러분의 투쟁을 통해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며,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2. 나는 너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내 보물창고에서 취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다양한 길을 통해 나의 선택받은 자들이 와서, 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며, 나의 사역을 수호하는 전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온 창조물은 내 법에 복종하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나를 경배한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러면 내 지혜가 창조한 빛나는 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별들 속에서 순종과 조화의 본보기를 발견하고, 그 영광과 완전함에서 영감을 받아 깊이 성찰하며, 너희 양심을 통해 내 아버지의 음성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라. 나무들은 언제나 맛있는 열매를 맺어 줍니다.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가 드러나시며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깊이 성찰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순종하라.

4. 나는 부족과 민족, 국가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 모두에게 영적 발전에 필요한 것을 주었다. 너희는 별들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물들 속에서 나를 숭배해 왔다. 이제 너희 자신 안에서 나를 찾으라.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나의 임재를 느끼고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너희는 인간의 과학으로 훈련받지 않은, 미숙한 두뇌를 통해 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내 보편적 광선이 머무는 받침대가 되도록 준비시켰다.

6.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또한 아버지께서 너희 육신의 눈앞에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느낄 것이다. 이는 내가 이 고통의 시기에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시대에 예수로서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미 너희에게 약속했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이다.

7. 나의 모범과 나의 수난은 너희 영혼에 새겨져 있다. 그곳에는 내가 세 시대에 걸쳐 기록한 책이 있으며, 나의 사자들을 통한 말씀과 증언들, 그리고 행적들이 있다. 너희가 너희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법을 배우면, 이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8. 이 시대에 스승은 산 정상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 영혼이 나에게로 솟아오를 수 있도록 생명을 주노라. 나의 사랑을 느끼고 너희 안에 나의 평화를 간직하라. 이 세상에서나 영적 계곡에서나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내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이 대의를 수호할 용감한 전사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내게 말한 너희 중의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9. 내가 너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보여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인류에게 나에 대한 증언을 하고, 너희의 모범을 통해 다가올 세대를 준비시켜 그들이 내 사랑을 품고 내 평화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너희는 '제2의 시대'의 사도들을 본보기로 삼는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중 일부를 여러 지방과 나라로 보내어 길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 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온전한 겸손을 가지고 길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맡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흠 없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성령의 빛이 비추는 횃불과 같아야 한다.

10. 나는 내 선택받은 자들을 그들의 과오를 따지지 않고 내 말씀으로 가르친다. 나는 최고의 의사이기에 그들의 영혼을 치유한다. 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이 진리의 길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곧 내게로 올 것이다.'

11. 너희는 내가 14만 4천 명을 택한 이스라엘이며, 인류가 너희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내 신성한 인장을 지니고 있다.

12. 여러 나라의 남녀와 아이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며, 너희, 선택받은 백성은 중재자요, 내가 은총을 베푼 자들이니, 너희가 가는 길에 메마른 들판과 사막이 비옥한 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비유

13. 광활한 땅에는 소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언젠가 행성의 사방에서,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을 가진 방랑자들이 그 땅에 와서 에 거주하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 겸손한 청년이 그들에게 진리와 평화, 빛과 사랑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었다. 한 노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는 그들을 인도하고 준비시키며, 그 축복받은 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점차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그 청년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준비하여 이곳까지 인도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요." 그러자 청년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축복받으소서. 계속해서 온갖 길과 곁길에서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주십시오. 빛나는 등대처럼 땅의 네 모퉁이를 밝히시고, 길을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가십시오."

14. 그 노인은 큰 무리를 하나로 뭉치고 모으기 위해, 온전한 순종과 복종 속에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 땅의 주민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으로 준비시키고,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곧 도착할 수많은 군중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게 될 매개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영생의 빵으로 식탁을 차려 놓았으니, 바로 이 빵으로 너희는 인류를 먹여야 할 것이다."

비유의 끝

15. 내가 내 자녀들인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내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그 청년이 누구이며 그 노인이 누구인지 깨달아라. 너희를 가르치고, 다가오는 세계관 간의 싸움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는 이는 바로 나다. 그 노인은 엘리야, 곧 내 양 떼를 하나로 모으고 모아들이는 선한 목자이다.

16. 평화가 회복되고 고통이 누그러지기를 기도해 온 백성아, 너희는 이제 곧 기쁨으로 동료 인간들의 생생한 목소리의 증언을 듣게 될 것이며,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17.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나의 조언과 경고를 들려주는 것은, 내일 너희가 그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단합하여 강해지고, 너희 가운데 단 한 군데의 취약점도 없기를 요구한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 곁에 있게 하고 마지막 조언을 전하듯이, 나도 너희에게 말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덕으로 강해져 세상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하나의 영을 이루겠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기를 부탁한다.

18. 나는 너희에게 큰 사명을 남기지만, 너희에게 평화와 힘을 준다. 너희 스스로는 너희의 행실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나는 너희의 행실을 저울질하고, 너희의 열매를 받아들이며, 마침내 너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

19. 더 높은 뜻이 너희의 운명을 이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는 그것을 나의 신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며, 내가 너희 삶에 대해 처분할 권리를 인정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항상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라.

20. 너희는 아버지가 시선을 두신 영적 백성이라, 세상을 깨워 성령의 빛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21. 인류는 종교를 통해 나를 찾고 있는데, 그중에는 그 행실에서 영성을 드러내는 종교들도 있다.

22.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명을 맡겼고, 너희가 지칠 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말씀을 가꾸어 나가도록 너희를 깨우쳐 주었다. 곧, 너희가 율법의 깃발을 들고 나서서, 사랑으로 충만한 훌륭한 군인들로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대의를 수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3. 내 영은 선한 일꾼들의 수확을 기뻐하지만, 일꾼이 잠들어 있었고, 내가 그에게 맡긴 씨앗을 가꾸는 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면 고통스러워한다.

24. 너희가 고통의 잔을 비우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너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영적으로 너희를 위로해 주십니다.

25. 이 시기에 나의 사역 안에서 은총의 삶으로 태어난 이들의 수는 매우 많다. 그러나 너희는 가장 먼저 온 자들로서, 내일 너희가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너희 동료들이 고아처럼 느껴지거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26. 인류는 오직 태초의 법과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것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제3의 계시는 이제 사람들이 준비와 이해의 부족으로 왜곡해 온 것들을 통합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인류는 나의 메시지를 깊이 연구하여, 각 단어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단 하나의 이상, 단 하나의 진리, 그리고 영성화로 이끌어 줄 바로 그 빛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27.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보물을 지키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라.

28.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첫 번째 구성원부터 마지막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나의 영적 사역의 품 안에 있는 가정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들은 순종하는 가정이 될 것이며, 내가 인류에게 본보기로 제시할 축복받은 씨앗이 될 것이다.

29.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삶, 즉 너희가 내세라고 부르는 것과 나의 신성한 위엄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러나 이 가르침들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다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왜냐하면 순수한 자는 높은 저 너머의 삶, 즉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 영적 세계와 사랑의 유대를 맺고 있는 그곳의 주민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특권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 산의 정상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기다리고 계신다.

30. 나의 영적 세계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너희가 영성화에 이르도록 영감을 주고 양육한다. 너희가 사명을 수행하는 데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준다.

31. 오랫동안 너희는 나의 계시에서, 영성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가르치기 위해 너희가 스승과 같이 되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들어왔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온전히 비추고 깨우쳐, 여러분이 세상에 나의 사역과 이 시대에 주신 나의 말씀—모든 영혼을 신성한 고향으로 인도할 빛—을 알릴 때가 올 것입니다.

32. 내가 너희의 인간적 삶을 위해 맡겨 준 바에 따라 살아가라. 생명나무의 열매로 양분을 얻고, 그 가지 아래에서 안식과 보호를 찾을 것임을 깨달아라. 그 나무를 직접 가꾸어, 그 가지와 열매가 배가되는 것을 보게 하라.

33. 샘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방랑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이 힘을 얻도록, 수정처럼 맑은 물을 강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34.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길에서 너희를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심연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태양의 광선이 너희 존재 속으로 무자비하게 스며드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영적 세계가 너희의 길 위에 보호막처럼 드리워지도록 하리라. 너희는 이 인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나를 도울 것이다.

35. 너희는 내일 싸울 준비가 된 제자들이다. 너희는 용감하게 행동하며, 내가 인류를 위해 너희 손에 맡긴 많은 것을 전해 나갈 것이다.

36. 나는 너희가 율법을 어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 중 일부는 어둠에 압도되었는데, 이는 너희를 그토록 큰 사랑으로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내 말씀에 익숙해져서, 스승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찌하여 내 고귀한 뜻에 간섭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시기를 분명히 알려 주었거늘, 너희가 내게 "스승이시여, 운명의 타격과 전쟁이 세상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은 인류를 위한 시련의 때인데, 주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려 하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때 너희의 양심이 너희에게 대답하며, 내가 오랫동안 너희에게 내 말씀을 맡겨 왔음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나는 1950년 이후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기도를 통해 너희의 모든 간구를 들을 것이다.

제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은 모두 동등하게 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념하고, 여러분의 은사를 꽃피워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빛을 통해 참된 길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38. 언젠가 수많은 군중이 위로와 그들의 영혼을 위한 나의 자비를 갈망하며 너희에게 찾아올 때, 나는 너희를 깨우치고 영감을 주어, 그들이 너희를 통해 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리라. 나는 너희가 빛의 자녀로 인정받도록 내 은총을 너희에게 맡겨 두었노라.

39.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너희를 정화시킨 것은, 이 시대에 너희의 영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공덕을 쌓고, 인류에게 선을 베풀며 내 가르침의 진리를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내세에서 내 평화를 누리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의 영혼이 내게 이르렀을 때, "스승님, 저는 제 여정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왔으니, 당신의 신성한 자비에 따라 제 영에게 지침과 사명을 맡겨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40.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며, 군중들은 너희가 성령의 빛을 품고 있는 성숙한 영혼들임을 보고 너희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면 뒤처진 자들은 너희의 모범을 보고 올바른 길로 돌아와, 너희의 오른손을 잡 고 너희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들이 온순한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41. 이 시기에 악은 한 묶음으로 묶여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너는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모든 사건의 원인에 대해 세상에 전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크기에 내 진리를 너희에게 맡겼다. 너희는 위대한 계시와 예언의 수탁자들이다.

42. 너희를 통해 율법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미래를 위한 길을 준비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래야 장차 새로운

세대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인류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3. 이스라엘아,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 다양한 세계관이 생겨난 이 시대에, 종파는 종파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교파들은 서로 싸우고 너희를 배척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빛과 평화의 자녀들이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진리는 제3의 성서의 내용 속에 담겨 있으며, 그곳에 이 시대에 주님의 임재와 재림에 대한 증거가 있다." 너희는 인류에게 이 책을 알려 주고, 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그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44. 그러나 이스라엘아, 네가 잠들면 – 열방이 나의 공의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닥칠 것인가. 그들은 참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며,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너희가 그들의 거짓 신들을 인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45. 내 백성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가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내 말씀을 풍성히 맡겨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임재를 느낄 줄 알며,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의 뜻을 분별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46. 내가 떠난 후, 많은 이들이 내가 계속해서 그들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고 너희를 믿게 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뇌들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며, 나의 영적 세계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1950년 이후로는 더 이상 인간 뇌를 사용하여 너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영적인 방식으로만 너희는 나의 영적 빛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47. 어떤 속임수에도 빠지지 않도록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라. 내가 떠난 후에는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잠든 자들을 깨워야 하며,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로 마음을 드높이는 바로 그 순간, 나의 격려를 느끼고 나의 은총의 흐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가 어떤 오류에도 빠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너희에게 주리라.

48. 나의 시선은 언제나 너희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투쟁을 지켜보며 음모와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지켜 줄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법으로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나의 법을 지키라. 너희가 내게 기쁨을 드린다면, 세상 앞에서 굳건히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이웃과의 형제애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세상이 나의 빛을 깨닫고 나의 사자들을 물리치지 않을 때가 왔다.

49. 너희에게는 이웃들로부터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힘이 있으니, 그리하여 너희 이웃들이 서로에게서 생명의 실을 강제로 끊어내지 않도록 하라.

50. 잠시 동안은 세상이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지만, 그 후에는 온 세상에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류가 비워가고 있는 고통의 잔을 마주하며 깨어 기도하라. 세월은 흘러갔고, 시간은 너희에게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지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 주었고, 너희 영혼을 지켜보았기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영생의 양식으로 너희 영혼을 먹여 주었고, 너희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내 사역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잠에서 깨워 주었다.

51. 물질주의와 무지가 컸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한 채 익숙한 일상에 머물러 있었다.

52. 나는 언제나 사랑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역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너희가 소홀히 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어떻게 너희를 통해 나의 평화와 빛,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내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맡긴 바로 그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의 영이 지닌 위엄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였노라.

나는 너희가 어떤 공로도 쌓지 않았음에도 사랑과 나의 은총으로 너희를 선택하고 기름 부어 주었다고 말했노라. 나는 너희가 세상에 너희 마음에 새겨진 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사도들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노라.

53. 시간이 흘렀으나, 너희는 아직 어떤 공로도 쌓지 못하였다. 너희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해 팔을 뻗어야 한다. 어둠 속에 있는 너희 이웃들에게 대낮의 빛을 보여 주어, 내가 언제나 너희와 인류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 왔음을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

54. 첫 번째 시대에 나는 모세를 통해 너희를 파라오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그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55. 제2의 시대에 신성한 스승이신 예수께서는 내 뜻과 임재, 그리고 능력을 너희에게 증명해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중심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나를 거부했다.

56. 오늘날 너희는 다시 노예가 되었다. 이제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유혹의 노예이다. 유혹은 너희를 지배하기 위해 부와 쾌락, 권력을 안겨주었으며,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져 빛의 길에서 멀어져 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거두어 간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은총을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세상은 이를 깨닫지 못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결과를 동료 인간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57. "초기 신자들"이 빠진 오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너희도 그 오류에 빠진 것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따라서 너희가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58. 오직 한 분의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았고, 언제나 너희 마음 가까이 계셨다. 예수께서는 제2시대에 나의 신성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 길을 보여주었다.

59. 이 제3의 시대에 신성한 뜻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내 가르침, 곧 너희 영혼을 위한 영생의 양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1950년 이후로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으로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오직 너희 영혼의 성장을 통해서만 나와 영과 영으로 교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60. 나는 너희가 자신의 책임을 되새기고 이해하며, 익숙한 관성을 버리고 너희 영혼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3년 동안의 계시를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나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이해도 영적 고양도 이루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상세한 가르침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전념하지 않았느냐? 눈먼 자들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했고, 너희는 절름발이들을 고쳐 그들이 나를 따르도록 하지 못했으며, 군중들은 혼란에 빠져 과연 참된 길을 찾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61.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웃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일 뿐이므로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다. 그들이야말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온갖 인간적인 상상을 통해 참 하나님을 찾게 되는 원인이다.

62.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내 계시의 끝에서 마치 고아가 된 듯 뒤처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2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떠난 후에야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후에야, 내가 너희에게 자주 가르쳐 온 것을 깨닫게 되겠지만, 너희의 깨달음은 너무 늦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아, 나는 아버지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안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나는 인류가 내일 너희를 나의 신성한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으로 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 마치 너희처럼 나를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 나의 메시지를 믿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63. 나는 너희가 내 사역을 진리의 빛에 따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너희가 새롭게 되어 내게서 받은 것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너희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다.

64. 너희는 내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기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세상의 진정한 제자이자 미래의 전사, 교사로서 알리기 위해 내 망토로 너희를 감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 스스로 너희에게 내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가 오면, 너희는 말과 행실로 내 진리를 증언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러면 미래의 인류는 나의 계시를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완전함은 결코 너희의 불완전함과 섞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65.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증오, 나의 빛과 어둠, 겸손과 교만이 맞서는 이 싸움의 시대에 너희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내일, 너희가 깨어날 때, 너희가 허비해 온 시간을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서 끝없이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너희에게 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전도자들의 사명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49

1.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이 시대에 내가 오실 것을 믿었으며, 내 계시의 마지막 날들에도 내 말씀을 갈망하며 지치지 않고 서둘러 내게로 나아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그들 모두에게 이 샘물의 물을 베풀었으나, 나를 듣고 이해한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드러내셨고 온 세상에 사랑을 쏟아 부었다.

2. 제2의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고 내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희는 복이 있도다!"

3. 내 오심은 너희에게 놀라움이 되어서는 안 되었으니, 이미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올 그 시간을 알지 못하였다.

제2시대에 내가 작별을 고한 후, 제자들은 내 말씀을 기록하였고, 이를 다른 새로운 제자들에게 전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였다.

내 재림에 대한 약속은 나를 직접 따르던 이들에게 힘든 투쟁 속의 원동력이자, 아름다운 희망이었으며, 지식을 갈망하던

그들의 영혼에 양식이 되었다. 그리고 대대로 내 제자들은 스승의 재림을 목격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보라, 세대는 하나씩 차례로 이어졌다. 수많은 존재들이 지상에 환생하기 위해 왔다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 수세기가 지나갔고, 심지어 수천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가와 내 영적 현존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내 말씀을 지워버렸으며, 내 재림을 기대하며 깨어 있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4. 나는 화려함 없이 조용히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나 내가 나를 드러낸 방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의심할 이유가 되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노라. 오직 깨어 있는 영과 명석한 지성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이들만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어떤 형태로든 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모든 이에게 주어졌으며, 그 성취 또한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5.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의 계시이다: 인간은 모든 시대에 걸쳐 나의 대변자였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나의 자녀이자 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다. 비록 이 자녀가 아직 완전해지지 못해 나의 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나는 그 불완전함을 넘어 내 영의 일부인 그 빛의 입자, 즉 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인 이 특별한 피조물을 본다.

6. 너희 인간들은 – 혹시 착한 자녀들만 사랑하느냐? 나는 부모들이 병들거나 길을 잃은 자녀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더 큰 보살핌으로 돕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이 임무를 겸손하고 소박한 남녀들, 죄인들과 무지한 이들에게 수행하기 위해 이 시기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나는 감사함을 발견했고,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고양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7.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사람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너희가 너무나 물질에 얽매여 있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고 약해져 가는 너희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능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연 너희가 나의 영적인 목소리를 듣고 신성한 언어를 감지하며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8. 그러므로 나는 인간을 선택하여, 그가 나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 나는 믿음을 얻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해받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불신 속에 머물러 있었다.

9. 나는 영적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였으며, 영에 있는 존재들과 육체에 있는 존재들을 하나로 결합시켰노라.

10. 너희는 모든 고통의 잔을 '맛보아야' 하며, 고통과 평화를 모두 경험해야만 모든 것을 깨닫고 그것이 너희 존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는 내가 너희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 말보다 행실로 더 많이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모범은 말보다 더 큰 힘을 지니며, 너희는 내 사역을 모든 이웃에게 전해야 하며, 이것이 그것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1.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며, 끝까지 굳건히 버텨라. 너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너희가 달래야 할 고통은 크고, 너희가 제거해야 할 어둠도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 신뢰를 두고, 너희 은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12. 예수님께서 제2시대에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은 단 한 번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사람과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며, 그분께 다가온 피조물들의 내적 삶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 앞에 내어놓은 다양한 간구와 곤경,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혜롭고 정확하며 명료한 말씀은 언제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지만, "육체"보다 더 열려 있고 신성한 기운에 더 민감한 영적 영혼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깊이 숙고한 끝에 육체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직 더 높은 차원의 스승, 무한한 자비의 아버지만이 사람들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알아차리고, 그들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위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3.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기적을 기대했으나,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에 불과하며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임을 보고 종종 실망하곤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설교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스승으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빛나기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돌들이었습니다.

14.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자주 시도했는가? – 옳은 일을 하고 더 깊은 경건함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들도 제자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 아이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자리를 떠날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아픔을 느꼈던가!

15. 예수를 따르던 백성들은 예수와 제자들의 행적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평가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아 스승을 지키려 했을 때, 그의 행동은 군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가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내 대신 남겨 두겠다"고 말씀하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바로잡고 가르치셨습니다.

16. 모든 불완전함과 오류, 무지는 마치 쓸모없는 옷처럼 그들로부터 벗겨져 나갔고, 그들을 파송하신 분의 은사와 권능으로 옷 입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스승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령 백성들이 그들을 가차 없이 캐물어보더라도 그들에게 책망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었다. 그들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전파하는 데 필요한 고양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은 얼마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겠는가!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모범은 지워질 수 없다. 그들은 나의 사역을 증언하기 위해 그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겸손과 사랑을 베풀었으며, 그들의 모범은 이 인류에게 얼마나 풍요롭고 축복이 되었는가. 수 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들의 이름과 기억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으며, 나는 그 이후의 시대인 제3의 시대에, 그들이 나의 진리를 증언하는 법을 알았기에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증언한다.

17. 오늘, 내가 제2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기에, 나는 너희를 같은 방식으로 준비시키고 은총과 능력으로 너희를 입혀 주리라. 너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늑대들 사이의 양처럼 남겨질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또한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인류에게 본보기를 남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도록 하라.

18. 너희는 어느새 미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며, 너희의 발걸음은 너희를 점점 더 깊은 이해와 사명의 더 큰 성취로 이끌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본보기가 가질 힘과, 너희가 사명 수행에 전념할 때 발휘하게 될 영향력을 알지 못한다.

19. 나는 이 인류의 미래에, 고난과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 겸손한 백성의 업적이 빛나는 글자로 기록될 것을 봅니다.

20. 너희의 사랑과 자비의 행적이 얼마나 많은 어둠을 몰아낼 것이며, 너희 영성화의 위력 앞에서 얼마나 많은 광신주의의 제단이 무너져 내릴 것인가! 너희는 평화와 사랑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눈앞에, 입술에, 마음에, 그리고 너희 영의 모든 능력 속에 간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21. 오늘, 내 말씀이 머지않아 이 형태로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될 터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한 계시의 중단이 너희 마음을 차갑게 만들거나 서로 소원해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홀로 싸울 수 없다. 너희는 여전히 서로에게 온기와 생명, 그리고 용기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떠난 후에도 너희가 모임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의 일을 인도할 것이며, 이 사랑하는 모임들에 영감을 쏟아부으려고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지금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말씀과 나의 새로운 계시에 계속해서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한다. 신성한 빛은 앞으로도 너희 모두에게 무한히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2. 내 가르침을 연구할 때, 너희의 판단력을 결코 흐리게 하지 않도록 모든 논쟁이나 격정을 피하라. 경건함과 고양을 의미하는 영성화가 항상 너희 모임을 지배해야 하며, 너희는 오직 자신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병든 자, 약한 자, 혹은 삶에 지친 자들을 너희 가운데로 데려오라 – 그들이 실천하는 다양한 종교에서 실망을 겪는 이들, 영적 양식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이들, 그들의 사정이 이해받지 못해 비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 말이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며, 너희 모임에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에게로 오라. 나를 아버지이자 의사로서 찾으라. 그러면 그 행위만으로도 내가 치유의 향유를 부어주고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23. 너희의 모임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너희는 더 큰 기적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 가르침을 잘 해석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너희에게 그 해석을 알리기 위해 말할 때, 나는 그들을 깨우쳐 주고 그 순간 그들에게 영감을 받을 말을 전해 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허영심에서

말해서는 안 되니, 그래야만 자신의 귀중한 은사를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이 계시를 허락함으로써 너희의 준비를 보상해 주었듯이, 장차 올 그 시대에도 너희의 승화와 내 사역에 대한 열정을 위해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내 재림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메시지를 알고 싶어 하는 남녀들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며, 그들이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준 것과 제3시대에 내가 인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간절히 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황금 깃펜'들이 현재 집필하고 있는 그 책, 즉 음성의 전달자가 말로 옮겨 책의 페이지에 모아지고 정성스럽게 보존되도록 한 그 영감은, 빵을 갈망하는 모든 이와 영혼의 양식을 갈구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남기는 거룩한 유산이 될 것이다.

25. 이 페이지들을 잊혀진 구석에 방치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입술이 아직 필요한 웅변으로 말할 줄 모를 때, 이 페이지들은 투쟁의 날들에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약한 기억이 나의 가르침을 잊어버릴 때, 이 인쇄된 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설득력으로 말할 것이다. 이 가르침의 빛은 너희가 증언하는 이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이며, 그들은 깊은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서 내가 선포하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26. 너희에게는 싸움의 때가 올 것이며, 너희는 백성이 강하고 용감해지며,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왔는지 알기 위해 너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며, 대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부르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깨어 있을 것이니, 그들의 책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경외심과 사랑으로 그 세계를 꿰뚫어 볼 것이며, 그곳에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징조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그 성취의 시간을 너희에게 알려 줄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27.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밝혀 주는 이 소박하고 분명한 말씀을 통해 이미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 시대에 대해 더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너희도 같은 명료함으로 가르쳐야 하며, 그래야만 비로소 사람들의 진정한 스승이자 조언자가 될 수 있다.

28. 각 지역은 너희를 그들의 수호자로 여길 것이며, 예언자들은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말씀은 병든 자들이 갈망할 것이며, 너희의 조언은 간절히 구해질 것이며, 시련의 순간에는 너희의 기도와 중보기도 또한 간구될 것이다.

29. 이것이야말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겠는가! 너희 영혼이 꽃피고 너희의 은사를 펼치기에 얼마나 훌륭한 기회인가! 헛되이 살아왔던 많은 이들이 선한 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행하며 강해지고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너희는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웃을 구원하고, 그가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아 주어, 그가 신성한 은총에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박탈했던 모든 것을 다시 소유하게 되어, 신성한 평화와 신성한 지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30. 이 시기를 위한 너희의 준비에는 신비주의나 인간의 이론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어떤 교파나 형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활동의 시대로 들어서는 소박한 스승들이 되어야 한다.

31. 인류가 이제 영적 삶으로 깨어나고 있음을 깨달으라. 머지않아 너희는 인류의 진보를 드러낼 중대한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적대해 온 국가들이 연합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많은 대립하던 민족들이 하나로 융합될 것이다. 영성화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서도 민족들을 지배해 온 가르침들은, 이전에 그 가르침들을 구원의 길로 선포했던 바로 그 민족들에 의해 제거될 것이며, 고귀한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르침들이 등장할 것이다. 나는 그것들이 가장 순수한 영성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될 것이기에, 그것들이 자리를 잡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구상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인류의 영혼이 또 다른 위대한 시대의 끝자락에 다다를 준비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32. 오늘날 현자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은 그 시기에 골머리를 앓고 혼란에 빠질 것이나, 정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박해받고 모욕당했던 다른 이들은 그 균형과 도덕적 갱신의 시대에 자신들의 열망과 유익한 이상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3. 영적 삶이 이 행성에서 온전히 드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뚜렷이 느끼게 할 것이며, 물질주의자였던 자들은 입을 다물고, 책을 덮은 뒤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이 부정했던 그 삶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대중에게 닫아두었던 문을 열어줄 것이다.

34. 그들은 내 빛이 온 지구상에 비추고, 모든 영혼이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보물창고는 열려 있을 것이며, 그 내부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약간의 사랑으로 마음을 준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5. 그때 인류가 나의 가르침을 알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가르침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확실한 길이자 인도자라는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리면, 부모에게는 덕을, 부부에게는 충실함을, 자녀에게는 순종을 북돋아 주어 가정 생활을 밝게 비추고, 교사들에게는 지혜를 채워 줄 것이다. 통치자들은 너그러워질 것이며, 판사들은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도록 영감을 받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이 빛은 인류 전체와 인류의 영적 발전을 위한 위대한 비밀들을 그들에게 밝혀 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화와 진보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36. 영성주의—내가 이 가르침을 이렇게 명명한 바와 같이—는 신비주의나 광신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예배의 단순화와 영혼의 가장 순수한 고양을 권고한다. 그것은 너희를 이 길로 인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37. 나를 이해하고 내 가르침의 진정한 본질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나는 제자들조차도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본다. 이는 백성이 영적 준비에서 진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수많은 습관과 의식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자들, 그 연약한 영혼들을 도와 그들이 강해져서 첫 제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리라. 너희 모두는 하나의 결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8. 이 백성의 사명은 설교하고 그 길을 따라 내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 지상이 천상의 고향을 반영하고, 그 주민들이 내 왕국에 거하는 의인들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39. 이 세상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희는 싸우고, 고통받으며, 눈물을 흘려야 하겠지만, 그 투쟁 속에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인간의 마음의 불완전함과 냉혹함으로 인해 흔들릴 것이나, 너희 이웃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제2의 시대에 내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웃에 대한 정죄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나만이 나를 따르는 자들의 행실을 바로잡고 심판하였으며, 누군가 다른 이가 한 일에 분노하여 내게 다가와 "주님, 왜 그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의 인생 여정에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가

죄를 지었다면, 너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네가 더 완전하고 나에게 더 합당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그에게 벌이 내리기를 기대하지도 말라." 또한 내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던 날, 유다의 행적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나의 임재 앞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를 불의한 자나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꾸짖거나 배은망덕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제자들이 이미 스승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었으며,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한 것은 오직 그의 양심뿐이었습니다.

40. 너희도 이 시대에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아무리 무지하고 결점이 많아 보일지라도,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너희의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선한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본보기가 되어라. 너희가 허영심 없이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너희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그들이 너희와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영감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1. 깨어 기도하라, 백성아! 너희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힘쓰라. 너희는 이미 올해의 마지막 날들에 접어들었으니, 나는 너희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나는 모든 병아리들이 그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았던 종달새였다. 그러니 너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는 앞으로도 너희에게 온기를 베풀겠다. 나는 너희가 뒤따르는 자들을 가장 먼저 이끌 줄 알도록 자주 가르쳐 왔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이들도 있으니, 너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리고 나를 자주 들어온 이들 중에서도 약한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내 말씀을 되풀이해 주고, 그들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따뜻함과 생명을 주며, 너희의 행실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힘쓰라.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너희 이웃들의 삶을 밝게 비출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영혼은 평화의 종달새로 변하여, 스승처럼 땅 위를 날아다니며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내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42. 그러나 씨앗을 땅에 심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결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이 여러분이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은 장소에서 싹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씨앗이 7일 만에 싹트면, 영적인 씨앗은 7초 만에 싹틀 수도 있고, 영원의 7단계에 걸쳐 싹틀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가꿔야 하며, 언젠가 영생에 속한 너희의 영적 영혼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단 한 알의 씨앗만을 뿌렸음에도 그 열매가 배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3. 이와 같이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하며, 너희가 영적으로 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기에 매일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44. 자신이 약하거나 병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내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나의 위로를 느끼며, 자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일어서라. 바로 이 믿음이 몸을 곧게 세우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너희의 고통이 오래 지속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라.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보고 그것을 없애고자 한다면, 위로의 근원으로 오라. 그러면 너희는 그 고통을 매우 빠르게 평화와 미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이 없는 곳에서 죽음을 보지 말라. 나는 생명이요, 너희 모두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45. 영적 계곡에 거주하는 존재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그들을 부르고 그 피조물들에게 다가갈 날짜나 시간을 정해 두지 마십시오. 그들과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 주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영적 생명에 속해 있으며, 영원 속에서 살아가고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46. 이제 서로 가까이 있는 그 세계와 교감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십시오. 지상에서 여러분과 하나였던 그 존재들이 영적 사다리에서 여러분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뒤처져 있어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면 – 여러분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 –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조화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7.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조바심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러한 조바심은 그 존재들의 모습과 얼굴, 행동을 보고 잠시나마 그들을 기뻐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조바심을 다스리고, 진정한 영적 미덕으로 그 기쁜 재회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그 후 너희는 모두 내 오른편으로 이끄는 그 길을 함께 걷게 될 것이다.

48. 저 세상의 존재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너희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의 기도는 인사와 입맞춤, 영적인 포옹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너희의 기도는 시련과 속죄의 길 위에서 치유제이자 해방, 어루만짐,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목소리가 될 것이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고향, 그들이 속해 있고 그들을 기다리는 세계로 올라가지 못한 그 영적 존재들이, 기도를 통해 그들을 불러모으는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죽음에서 부활하여 구원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49. 그러나 인류는 이 존재들의 삶을 밝히거나 그들의 물질화를 해소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인류는 그들에게 짓누르고 있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

빛을 지닌 너희여, 기도하고 너희에게 낯선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며, 그들이 해방되어 본래 속해 있는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걷도록 도와주라. 그들의 존재를 꺼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너희가 함께 기도하고 내게로 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맞이하여, 모든 이를 감싸야 할 평화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50. 나의 신성한 영이 너희를 품에 안고 축복하노라. 너희가 빛과 힘과 지혜로 충만해지도록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알게 되도록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나는 너희가 받은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하노라.

51. 내 사랑의 표현을 통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베풀고 있음을 느꼈다. 너희는 나의 온기와 보호를 느끼며 더 이상 차갑지 않아,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된다.

52. 나의 모든 말씀은 사명이며, 나는 너희가 서둘러 나서서 이를 성취하기를 원한다. 단순하고 겸손한 피조물들을 통해 주어진 나의 예언들은 이루어질 것이며, 너희는 그에 대해 증언하게 될 것이다.

53. 내 일을 위해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나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직접 나서지 말고, 그 일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변호해 주겠다. 너희는 오직 이 빛을 전파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데만 힘쓰라. 누군가 너희를 공격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무기, 즉 사랑과 존중, 그리고 겸손만을 사용하라. 너희를 비판할수록, 나는 너희 안에서 나의 능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을 넘어 영의 영역을 바라볼 은사를 가진 너희는, 내 말씀을 확증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북돋아 주라. 또한 높은 저 너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적으로 승화할 은사를 가진 자들은, 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러한 높은 차원의 계시들은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너희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54. 너희의 행적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봉사에 헌신된 너희는 너희의 지성과 말의 은사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라.

55. 나는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씨앗으로 주니, 너희는 그것을 뿌리고 가꾸어라. 준비된 너희 마음이 일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느끼게 되면, 나서서 모든 굶주린 이들과 나누라. 그러면 그 씨앗은 배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니, 그들의 마음이 아직 이 교훈들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그 귀중한 열매를 훔쳐서 오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후회하며, 마치 '탕자'처럼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무지함으로 잃어버린 씨앗을 대신해 줄 것이며,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영혼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56. 너희가 내 가르침 속에서 너희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빛과 격려를 발견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너희는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피로를 느끼지 않을 것이며, 내 말씀을 널리 알리는 너희의 사명을 방해받지 않을 것이며, 역경도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한 교훈을 이해했다면, 다음 교훈을 깊이 탐구하고, 내가 너희가 공부하고 양식을 얻도록 남겨 둔 '끝없는 교훈의 책'을 계속 읽어라. 그 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취하라.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50

1. 나는 인류를 대표하여 너희를 맞이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무리여. 너희는 나의 연주를 듣고 물질이라는 경계를 넘어 바라보기 위해 세상에서 물러나 있다. 나는 너희가 나의 보호 아래 그 길을 걷게 할 것이며, 너희 각자는 지상의 여정이 끝날 때 비틀거리지 않도록 등불을 들고 갈 것이다.

언젠가 너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내게로 올라가 너희의 행적을 내게 바칠 때, 너희는 너희 삶의 책에 기록된 모든 행실과 발자취를 보게 될 것이며, 나와 함께 너희의 행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2. 오늘 나는 너희의 영혼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영감을 경청하며, 가까워진, 아주 가까워진 삶의 여정의 끝을 바라보며, 너희가 곧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느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나에게로 오라 –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던 너희여, 내 계명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과 용서를 뿌렸던 너희여."

3. 마음속에 내 말씀을 간직하고 삶에서 이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내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건강과 영감, 예언의 은사를 갖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내 제자들은 무식하든 학식이 있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린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내 율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배움이 부족한 자도 깨달음을 얻어 지혜롭게 말할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세상의 재물에 무관심해짐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보물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므로,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크게 성장한 아이들은 단호하게 말할 것이며, 그들의 증언은 새로 입문한 이들의 믿음을 불태울 것이다.

4. 나에게서 배운 너희는 겸손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며, 동료들의 실수를 용서하라.

5. 나는 너희가 나와 가장 완벽한 교감을 나눌 새로운 세대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켰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혼 속에 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6.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어떤 시련에도 대비하여 살아가라. 오늘 너희는 인류의 고통과 너희 자신의 고통을 내 앞에 가져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 ” 그 잔을 치워 버리고, 평화를 느끼며 그것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어루만지고 기쁨을 주리라. 너희가 한 영혼을 고통이나 악덕에서 해방시킬 때, 너희는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될 것이며, 신성한 일에서 너희 스승과 함께 협력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7. 나의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의 주님이신 내가 너희의 길을 동행하리라.

8. 나는 지금 너희 마음속에 성소를 세우고 있다. 나는 호화로운 저택도, 인간의 쓸데없는 사치도 찾지 않는다. 나는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소박하고 온화하며 겸손한 마음을 빚어내고 있다.

9.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와 소통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내일 세상에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나의 자비는 길을 잃은 자들을 파멸로부터 구원한다. 내가 오직 순수한 영혼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은 이미 나의 왕국에 거하고 있으니 말이다.

10. 인간은 다양한 신앙관을 통해 나와 소통하고자 했으나, 영적으로 정체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맡긴 것은, 너희가 내일 나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비춰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1.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매우 가깝지만,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의 언어로 너희에게 말해 왔다. 만일 내가 더 고상한 언어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면,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제자와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도록 쉬운 말로 말한다.

12. 너희가 준비되고 새롭게 됨으로써 인류는 선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된 너희 중 한 사람을 통해, 기도만으로도 인류를 괴롭히는 재앙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내가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내일 너희도 인류를 온전히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일 천 명의 지성인이 훈련된다면, 나는 그들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전파할 것이다.

14. 제2의 시대에 나는 내 자녀들 중 열두 명을 골라 사도로 삼았는데, 그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 재물을 버리고 가족을 떠났다. 또한 내가 "세상의 부를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15. 나는 자비로우시니, 너희에게 희생적인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 제자들도 자신의 뜻, 곧 나의 신성한 법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16. 오늘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라.

17. 제2의 시대에 간음한 여인이 군중에게 쫓기던 때, 내가 그 쫓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나는 그 간음한 여인을 다시 한 번 용서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웃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재판관이 되지 말라. 너희에게도 내가 말하노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18. 나는 빛이자 자비이며,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류가 내게로 오니,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라.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위로이며, 자비이며, 용서이다."

19. 이 시대에 인류는 스스로 키워온 관념들로 인해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때문에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제3시대에 너희 스승의 현존을 의심해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마음을 준비하고, 이 말씀이 나의 신성한 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라.

20. 나는 너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신성이 드러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준다. 말씀을 전하는 이는 단지 내가 준비한 도구일 뿐이며, 그를 매개로 하여 너희에게 말하기 위함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단순한 마음과 서툰 지성, 말솜씨가 서툰 입술을 통해 나를 드러내며, 너희에게 율법과 정의, 그리고 사랑에 대해 말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되어 있다.

21. 나는 모든 시대에 큰 빛을 지닌 영혼들을 지상에 환생하도록 보내어, 그들의 모범과 사랑을 통해 인류가 혼돈과 증오, 혼란에서 구원받게 하였노라.

22.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도 제2시대의 사도들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랑과 고통받는 자에 대한 자비를 품고 너희는 길을 떠날 것이다. 그때 그 길 위에서 어떤 마음이 너희를 외면하겠느냐? 혼란에 빠진 영혼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내 가르침의 빛과 수정처럼 맑은 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23. 악이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청년들은 파멸해 가고, 처녀들은 연약한 청춘 시절에 더러움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너희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인류는 현재 고통의 잔을 비우고 있음을 보라.

24. 이제 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 너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때, 너희가 나약함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기를 부탁한다.

25. 나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맡긴 가르침의 전령이 되도록 열방에 보내야 할 자들을 택하고 있다. 내가 너희 어깨에 얹는 이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빛나는 십자가이며 지기 쉬운 것이다.

나는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너희를 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나의 영적 군대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며, 너희가 제2시대의 사도들처럼 싸움에 나서서 땅에 속한 것을 버릴 때, 내가 인류를 회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26. 나는 너희에게 상징적으로 말했듯이, 14만 4천 명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구원의 배를 보여 줄 것이며, 너희를 통해 나는 인류에게 평화와 위로를 줄 것이다.

27. 너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 고통의 근원은 너희의 불완전함과 불순종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사랑하는 백성아, 깨어나라. 시련이 네 문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어 기도한다면 시련은 사라질 것이며, 유혹이 너희에게 다가와도 너희는 그 올가미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28. 내가 너희가 시련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내 빛으로 너희를 표식해 두었다. 이 선물은 세상의 모든 부와 보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이는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 영혼에 새겨 준 신성한 입맞춤으로, 너희가 가장 큰 불행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나의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9. 이 선물에는 너희가 육체나 영혼이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 연고가 담겨 있다. 이는 자연의 힘이 거세게 몰아칠

때 이를 막을 힘을 지니고 있으며, 불화와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 이는 너희가 이 시대에 활용하고 꽃피워야 할 영적 유산의 일부이다.

30. 너희 마음은 삶에서 위대한 무언가를 갖기를 갈망했으나, 그것이 너희가 얻게 될 세상의 소유물이나 부가 아니라 영적인 자산이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31.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되는 것보다 더 큰 포부를 품을 수 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너희가 품어야 할 가장 큰 소망이다.

32. 너희 주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의 삶과 본보기를 통해 너희가 사랑과 의로움 안에서 신성한 영을 닮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나처럼 되는 일에 너희 삶을 바친다면, 다른 길에서 헛되이 찾아 헤매던 그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될 것이며, 이 평화는 내면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이제 너희 양심은 더 이상 매 순간, 매일같이 너희의 잘못들이 그러하듯 너희에게 책망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3.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본보기로 삼으라. 내가 갈릴리의 그 겸손한 스승을 통해 너희에게 내 권능과 지혜와 풍요가 세상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음을 기억하라. 내 모든 행적은 모든 것을 창조한 생명과 힘과 빛의 근원인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34. 마찬가지로, 이 제3의 시대에 내 행적을 본보기로 삼는 자들에게 승리가 돌아갈 것임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싸울 무기는 그 당시 내가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5. 내가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듯이, 나도 너희가 이웃들의 삶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기를 원한다. 너희의 존재가 언제나 선한 영향을 미치고, 너희의 영향력이 치유가 되기를 – 너희의 생각이 순수하고 감정이 진실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희는 삶이 얼마나 쉬운지, 지상에서 살아가는 투쟁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공로를 통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36. 내 말씀의 영향 아래 너희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솟아나는가? 혹시 이 세상의 하찮은 열망들인가? 아니, 사랑하는

백성아. 내 말씀은 너희 안에서 너희 영혼을 진리의 길로 높이 올려놓고자 하는 고귀한 소망을 일깨운다.

37. 또한 너희가 내가 너희를 가난하고, 울고, 비참하고, 병들고, 누더기 차림이거나 굶주린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내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니요, 나는 너희가 물질적인 삶의 투쟁을 너희의 영적 사명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영이 그 은사를 발휘하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잠시나마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라.

38. 오, 백성아, 내가 너를 준비시키노니, 네가 인류 가운데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게 하리라 – 내가 다가올 사건들을 예고하고 너희에게 나의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선한 예언자가 되게 하리라.

3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언젠가 속임수와 거짓말을 퍼뜨린다면, 고통과 눈물로 그 오점을 씻어내야 할 것이며, 너희의 거짓말이 더 널리 퍼지고 더 큰 해를 끼칠수록, 너희의 정화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인류 사이에 악을 퍼뜨리는 자들이 과연 '빛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느냐? 아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40. 매일 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드는 너희 수많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주었는지 생각하라. 너희가 졸음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너희를 넘어지게 할 어떤 시련에 휩싸인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41. 너희의 마음은 고통에 차서 내게 이렇게 말한다. "스승님, 혹시 우리를 불충실하거나 배신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자들로 여기시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그렇다,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약속을 어길 수 있다고 확실히 여긴다. 제2시대의 그 열두 제자 중에도, 내가 제시한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세상의 정의에 넘겨준 자가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백부장이 나를 체포하던 바로 그 순간, 스승을 그런 식으로 지키고 싶었고, 기록된 것보다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었기에 백부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음에도, 도마는 감히 나의 영적 현존을 의심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내가 너희를 의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물론 시련의 순간에 모두가 내 말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운 이들이 있을 것이며,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순종하는 이들과 강인한 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2. 제자들아, 이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43.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마음이 차가워진 것을 보면 내 영은 슬퍼하고, 갱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마음을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나는 1950년 이후 너희에게 거센 폭풍이 닥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에 있는 내 말씀의 빛을 통해 모든 불행에서 구원해 낸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 가운데서도 많은 거짓된 말들이 너희 귀에 들려올 것이나, 나는 내 선택받은 자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나의 진리가 거짓을 물리칠 것이며, 내 성령의 빛으로 너희는 강해질 것이며, 나의 사역을 수호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혼란이 닥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4.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너희도 인류 가운데서 그러해야 한다. 사람들은 내 영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울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인도해야 할 자들이다. 너희는 방랑자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하며, 온유하게 그들에게 나의 평화를 주어야 한다.

45. 너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지막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임을 증명할 것이며, 비록 그가 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도 그의 마음에 나의 율법을 새겨 주리라.

46. 진실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빛과 평화를 주는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적절한 때에 나의 일을 옹호하고, 가장 완고한 자의 마음에도 온유함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이 온순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빠져 있었던 실수들에 다시 빠지지 말라. 그것은 너희 영혼에 후퇴만을 남겼을 뿐이다. 빛과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단결하라.

47. 자녀들이 선과 악의 결과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본보기를 그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은 내일 나를 섬길 자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기쁘고 평온한 마음으로 오직 선한 것만을 생각하며, 내 성령의 빛에 이끌리기를 바란다.

48. 나는 매 순간 너희를 모든 실족으로부터 지켜 주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사방에서 고통을 보라: 버림받은 아이들, 더러운 길로 빠진 청소년들, 아내의 불륜.

그러나 죄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여인을 만나면, 그녀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고 그녀를 둘러싼 원한과 동요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라.

49. 이스라엘아,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제2의 시대에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야 한다.

50. 나는 인류에게 제3의 성서를 남기리니, 그 안에는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다. 내가 너희를 그 보화를 받을 자격이 있게 하므로, 너희의 오점 을 보지 않고도 그 보화가 너희에게 전해지리니, 이는 내가 사랑이자 완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너희의 영혼을 점점 더 정화할 것이다.

51. 너희는 나를 듣기 위해 세상에서 멀어졌다. 나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마음에 성소를 세우기 위함이다.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너희에게 말씀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다른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아버지인 나는 계속해서 내 모든 자녀들을 깨우쳐 주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동료들이 어쩌면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길을 보여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축복받은 백성아: 너희를 비추었던 빛, 곧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은 내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를 따랐고, 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녀들을 강요하지 않는다. 각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나의 길로 들어와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현재 온 인류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나를 들었으니, 바로 너희,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직관을 통해 길을 안내하며, 계시를 통해서도 그들은 제3시대의 빛을 받는다.

52. 나는 모든 시대에 사랑을 설교해 왔으니, 사랑은 내가 온 힘을 쏟은 방패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점차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 사랑을 간직하고 자신의 길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행실은 그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 나의 자녀들아, 나를 아버지이자 영으로 인식하라. 그래야 너희가 더 이상 우상 숭배 속에서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너희 영혼 속에 성령의 빛으로서 나를 품고 있다.

54. 너희가 자비를 베풀 때, 나는 그 자비 안에 있으며,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나설 때, 행복하라, 축복받은 백성아. 내 축복이 너희 안에 영원히 머물 것이니라.

55. 너희는 더 이상 이러한 매체를 통해 내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너희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 정해진 것이었으며, 1950년 이후에는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헤어지지 않겠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준비된 자들을 통해 나는 계속해서 영에서 영으로 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 에게는 직관을 통해 말하겠고, 그들 안에 직관이 깃들게 될 것이다.

56. 축복받은 백성아: 제2의 시대에 나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하였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든지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라.

57.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축복받은 백성아: 너희는 준비된 제자들이다. 너희는 땅의 모든 길로 나아가 내 말씀과 내 사랑을 전해야 할 자들이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너희가 받은 것이 단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믿기 위해 다시금 내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야 할 것이다.

58. 나는 오랫동안 내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처럼 나를 배반하고 내 사역을 팔아넘길 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마음들에 다가가 나의 의로움으로 그들 안의 거짓을 제거할 것이다. 내 사역은 흠이 없고 순수하며 결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온전한 순수함으로 모든 마음과 영혼 속에 부활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59. 아버지께로 오라, 너희를 위해 준비된 잔치에 오라. 이 식탁 위에는 너희 영혼을 위한 영생의 떡이 있다. 나는 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니, 너희가 내일 아버지 곁에 있었음을, 그리고 너희가 그분의 성소로 삼아 준비했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리라.

60. 너희는 내 보물창고에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 스승과 닮게 하려는 것이다.

61.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준비하는 법을 안다면, 나의 영적 은총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가 이룬 영성화를 통해 너희 주변 사람들은 너희가 빛의 자녀임을, 비록 너희 안에 나의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에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62. 사랑하는 백성아, 높이 올라가라. 네 영혼의 진보를 막지 말라. 스승이 네게 준 가르침을 활용하고, 그것을 네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인간의 이성으로 나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은 짧기 때문이다.

63. 다가올 세대를 위해 제3의 성서를 준비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며, 너희가 준비되어 있다면, 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비유

64.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한 영주가 거대한 나무 한 그루 앞에 이르렀다. 그 나무 곁에는 수정처럼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지나가던 행인들을 불러 세우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며 그 샘물로 갈증을 해소하라고 초대했다.

65. 그 주인은 그 방랑자들 중에서 일곱 사람을 골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은혜를 구했으니, 이제 나는 너희 각자에게 이 땅의 넓은 구역을 맡기겠다. 너희는 그곳에서 성실한 일꾼으로서 수고하며 일하고, 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하라.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 주인은 그들에게 씨앗과 농기구를 맡기며,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무와 샘을 잘 돌보라고 모두에게 말했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밭을 갈아엎고 이 황금 씨앗을 그 안에 심어야 한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샘물의 물로 밭에 물을 주고, 그 열매가 언제나 좋은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위엄 있는 나무를 가꾸어야 한다. 너희는 함께 일해야 하며, 배고프고 목마르며 지친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들에게 나무의 그늘과 달콤한 열매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어 그들이 힘을 얻고 내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라." 그 주님은 남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떠나겠지만, 너희는 내 존재를 너희 마음 깊이 느낄 것이며, 내 시선은 너희를 바라볼 것이고, 내 귀는 너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비유의 끝

6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내 일꾼들을 불러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으니, 너희가 너희 아버지처럼 잔치를 준비하고 내 말씀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맞이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너희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영적 보화를 받게 될 것이다.

67. 너희는 영적인 우리로 인도된 나의 양들이다. 이 시대에 너희를 이끄는 목자는 엘리야의 영이다. 아무도 이 목자를 보지 못하지만, 모두가 그를 느낀다. 어떤 이들은 이를 자각하고,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한다.

68. 엘리야는 이를 행할 권한을 가진 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자마자, 생명책의 여섯 번째 장을 펼쳤다.

69. 여섯 번째 봉인이 너희에게 무엇을 드러냈는가? 그 책은 이 시대에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그 품속에 어떤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었는가? 영적인 삶,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너희의 모든 특성에 대한 계시, 영적 은사를 펼치는 방식, 지성을 통한 영적 계시, 그리고 영과 영 사이의 계시이다.

70. 너희의 영혼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느끼고, 사자와 천사들에게 보호받고 있음을 보기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 목자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 위를 걷는 내내 지금 너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축복받은 평화를 느낄 것이며, 그가 이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세상 앞에서 나의 공의를 선포할 때, 숨기 위해 도망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 백성들아, 엘리야가 너희 가운데 있으며, 거짓 신의 제사장들을 다시 시험에 들게 하고, 누가 참 신이며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인간이 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영적 존재가 지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육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한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의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한 엘리야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71. 영적 세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현존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곳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징후와 증거, 계시, 그리고 메시지들이 나타날 것이다.

72. 종교 지도자들이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과학계는 그러한 *사실들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것이기 때문에, 민족들 사이에는 분쟁과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일어나, 자신들이 받은 증거들의 진실을 증언할 것이다. 과학에 의해 포기당했던 이들 중 영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일어설 것이며, 그들은 기적적인 치유와 무한한 힘, 그리고 절대적인 지혜의 계시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빛으로 가득 찬 말이 신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남녀들이 대중 앞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논쟁이 가장 격렬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증언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 부정될 때, 바로 그때 엘리야가 학자들과 귀족들, 통치자들을 심판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시간에 거짓된 자들과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때 완전한 정의가 그들에게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영혼이 그 속에서 참된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며, 많은 마음이 믿음으로 부활할 것이며, 많은 눈이 빛을 향해 열릴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51

1. 나는 빛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용서이다. 너희의 유익과 인류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을 나에게서 얻기 위해 이리 오라.

2. 스승 주위에 모인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너희 삶에 방향을 제시하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3. 만일 너희 스승이 내 지혜 속에 담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해 준다면, 너희는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 내가 내 보물창고에 너희를 위해 간직해 둔 것을 발견할 만한 공로가

너희에게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영적 고양이야말로 너희로 하여금 나의 신성한 영감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4. 너희는 성장해 왔으며, 이 시기에 나는 너희가 이미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시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의 이해에 한계를 두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5.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의 교회를 너희 내면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통해 너희는 인류의 세계관을 통합하고, 이 가르침을 제2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1시대의 선지자들과 깨달은 자들이 전한 말씀과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오늘날 내가 오신 것은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으나, 너희는 인류를 제2시대와 제3시대의 내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7. 나의 백성들아, 이러한 형태로 나의 계시를 마칠 때가 가까워졌으나, 너희는 더욱 준비해야 한다.

8.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사역을 더 잘 이해하고, 육신을 다스릴수록, 너희는 점점 더 완전함에 가까워질 것이다.

9. 영적으로 성장하여, 너희 영혼이 영원한 완전함으로 향하는 상승의 길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고양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 영혼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10. 제2시대의 내 말씀을 기억하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육신에게는 마땅한 것을, 너희 영혼에게는 마땅한 고양과 진보를 바치라."

11. 이제 나의 "말씀"은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계시하기 위해 "영적으로"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다가옵니다.

12.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희의 길 위에서 유혹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그것은 너희를 참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방향을 잃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으며, 그로 인해 너희 마음속에 불안을 남겼다.

13. 계시와 직관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으며, 준비된 사람들, 곧 선택받은 영혼들을 보내어 그들을 매개로 인류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준비될 때마다, 너희는 내 영을 받아들였다. 나는 너희 삶 속에서 가르침과 자비와

평화로 나 자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의 계시를 믿었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승이자 아버지로서 나의 소망은, 너희가 양심과 너희의 평화, 그리고 고양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 나는 너희의 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고양되어 첫 번째 시대의 족장들처럼, 두 번째 시대의 사도들처럼, 그리고 세 번째 시대의 나의 제자들이 되도록 사랑으로 너희에게 말해 왔다.

15. 모든 발전 단계에서 너희의 영혼은 물질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바로 그 이유로 너희는 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오류에 빠지며, 나의 말씀에 다른 해석을 부여해 왔다.

16. 너희는 이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을 듣게 될 시간이 끝나가니,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익숙해져 버린 탓에 영적 고양을 거의 보이지 않기에, 나는 아버지로서 가슴 아파한다. 그러나 내가 과연 너희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인간의 뇌를 통해 나를 드러내겠느냐? 아니,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내가 완전함 그 자체이며, 나의 뜻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이 어찌 인간과 같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창조주도, 너희의 하나님도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차라리 왕의 별이 빛을 잃을지언정, 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17. 이미 태초에 선지자들은 이 은혜의 시기를 예고하였으며, 이 시기에 나는 내 성령의 빛을 통해 너희 영혼을 준비시켜, 너희가 날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 너희는 내 말씀을 어떤 매개자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 보편적 광채가 드러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는 자들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을 일으키실 때, 직관을 통해 나의 신성한 메시지와 지시를 받게 될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제2시대의 사도들처럼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마지막이 첫째가 되리라"는 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19. 이스라엘의 지파들아,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라. 인류에 대한 너희의 책임을 깨닫고, 너희가 내 율법의 전도자이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영성주의 가르침의 사자임을 깨달아라.

20. 이스라엘아, 하나된 마음과 하나의 의지로 단합하고 열정적으로 길을 떠나며, 나의 율법과 나의 신성한 뜻을 따르라. 네가 잘 알다시피, 내가 곧 네 구원이니라.

21. 나는 내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 두었으며, 나의 신성한 광채는 너희 영혼 속에 생명수처럼 스며들어 너희를 강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었으니, 이는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류 앞에서 마치 맏형제자매처럼 행동하며, 순종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나의 길로 인도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일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22. 너희 "마지막 자들"아: 내 백성을 낯선 존재로 여기지 말라. 이 시대에 내가 이 영혼들을 환생하도록 보내신 것은, 인류가 그들을 통해 나의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23.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기만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뇌가 나의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물질주의와 이교주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미숙한 인간들이 감히 스스로를 "나의 신성의 대리자"라 칭하며, 나의 신성한 목소리와 사랑, 그리고 빛의 대변자라고 자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기심과 어둠, 광신, 거짓, 그리고 불화를 조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영성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완전함이다.

24.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에, 인류는 유혹에 빠져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25. 스승께서는 인류에게 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실 것인가? 바로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다.

26. 영적으로 스승님 주위에 모여라. 너희는 나의 제자들로서, 내가 너희에게 펼쳐진 책과 같이 나의 가르침을 주었으며, 그와 함께 성령의 빛의 명료함을 주어, 너희가 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며,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너희 마음에 새기게 하였노라.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너희의 행실을 통해 인류에게 영성, 사랑, 그리고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인류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27. 스승께서는 이 제3의 시대에 영적으로 너희에게 오셔서,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 가르침은 마치 빛의 광선과 같아서, 너희 영혼을 깨우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자 주님의 음성, 곧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려 온 것이다 – 가르침과 본보기, 숭고한 원칙 속에서 말씀으로 흘러나오시는 스승의 음성이니, 이는 너희 영혼이 내 신성한 영의 속성을 입게 하려는 것이다.

28.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나를 본보기로 삼기를 원한다 – 나는 너희가 "나의 형상과 비유"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목소리의 매개자들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너희에게 왔노라. 바로 이들이 내가 선택하고, 준비시키고, 정화한 자들이니, 너희가 그들의 영적 은사를 통해 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들은 단단한 바위들이었으나, 나는 그 바위들에서 너희 영혼을 위한 수정처럼 맑고 순수한 물을 솟아나게 하였노라.

29. 나는 이 시대에 "눈먼 자들"이 나의 빛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날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나는 내 임재를 너희에게 증거하고, 너희 가운데 의심이 없도록 내 사랑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 너희에게 왔노라.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너희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30.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고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졌기에 깊은 회개를 보이기를 원한다. 또한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너희 마음이 아버지께 드리는 성소가 되어, 그분의 사랑과 평화, 빛, 그리고 영생을 너희 안에 간직하기를 원한다.

31. 내 자녀들아, 너희 영혼이 모든 물질적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준비하라. 너희 눈앞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나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라. 세상의 감각적 속박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했다.

32. 내가 너희 영혼에게 준 가르침은 얼마나 완전하고 순수한가! 이는 너희가 나의 영적 은총에 합당해지고, 내 신성한 영의 감동을 받아 내일 고통받고 도움이 절실한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나서야 할 그 보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안에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항구, 곧 구명정을 보여 주겠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땅 위에 사는 백성과 민족들, 수많은 무리들은 길을 잃었고, 은총의 삶을 죽여 버렸다.

33. *너희는* 더 이상 "죽은 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 내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과 이 힘이 너희로 하여금 나와 하나 되게 하도록 허락하라. 이 빛과 이 영광 앞에서 너희 눈을 감지 말라. 내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34. 너희는 내가 신뢰를 둔 백성이다. 너희는 인류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나는 횃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나를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을 통해, 또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말입니다. 여성들과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 탄식하며 나를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 그들에게 평화와 위로, 자비를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오겠다고 한 그 구세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 — 이 인류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정화되고 맑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나와 조화를 이루며 이 인류를 위해 깨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너희를 통해 나를 듣고, 내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35. 나는 가장 완고한 마음조차도 내 사랑의 감동을 느끼게 하여, 그들이 더 이상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리라.

36.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이야말로 네가 준비를 갖추고, 어려운 사명을 완수해 나가며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37. 나는 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영적으로 해방시키고, 너희가 짊어졌던 짐을 덜어주며, 너희를 이 세상에 묶어 두어 너희 영혼이 내게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사슬을 풀어 주기 위해 왔다.

38. 너희는 내가 의인들의 영성화를 보고자 하는 백성이다.

39. 사랑과 겸손, 온유함으로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내가 너희의 시레네오*가 되어 주리라. 인류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되라. 자비롭게 행동하며 너희의 힘을 이웃과 나누라. 나는 너희가 미소를 통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자연의 무자비한 힘 앞에서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혹과 큰 시련이 너희의 길을 가로막을 이 큰 위험의 시기에, 너희는 나를 아주 가까이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세상이 내 신성한 정의의 현현을 마주하며 느끼는 그 두려움을 품지 않도록 하리라.

**스페인어 원문에서 'Zyrenäus'는 'Cirineo'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셨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왔던 남자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도 부릅니다.*

40. 율법을 어기지 말고, 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말며, 세상의 악에 물들지 마라. 오직 너희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만을 두려워하라. 그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 지혜를 통해 너희는 지극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1. 항상 준비된 자세를 유지하며, 내가 그의 손에 맡긴 일을 잘 지켜보는 자는 내 보물창고에서 하늘나라의 자비와 나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며, 바로 그가 인류 앞에서 충실하고 참된 증언을 할 자일 것이다.

42. 나는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마주하게 될 핍박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빛의 무기, 곧 강력한 무기들을 너희에게 맡겨 주었다. 유혹은 매 순간 마치 맹금류처럼,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은총과 은사들을 너희 영혼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즉 너희에게서 좋은 씨앗을 빼앗고 쭉정이를 남겨두려고 기다리고 있다. 유혹은 너희를 삼키려는 굶주린 늑대와 같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모범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길을 보여주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

43. 너희가 깨어 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때, 유혹은 회오리바람처럼 너희에게 닥쳐와 너희의 성소를 무너뜨리고, 너희 횃불의 빛을 꺼버리며, 너희에게서 가르침을 빼앗아 갔다. 그러자 너희는 나의 자비를 잃어버린 듯, 궁핍함을 느끼며, 내 면전에서 마치 피고인처럼 서 있었다. 너희는 울며 회개하는 마음을 품었다. 너희는 아버지께 다시 자비를 간구했고, 그러면 내가 너희 손에 다시 빛의 책을 쥐어 주고, 너희의 이성을 맑게 하며, 너희 마음을 준비시키고, 새 옷을 입혀 주며 이렇게 말하리라.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44. 사랑하는 백성아, 하나가 되어라. 그래야 아버지가 자녀들의 순종과 의무 이행을 기뻐하실 것이다.

45. 나는 너희가 마치 한 명의 제자처럼 되어, 세상에 단 하나의 가르침을 전하기를 원한다.

46. 내 백성아, 내가 내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맡겨 준 빛의 칼, 즉 기도로 싸워 유혹을 이겨내라. 내 사랑의 불로 싸워 잡초를 뿌리 뽑고, 성령의 빛으로 싸워 혼란에 빠진 자들, 무지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타락한 자들로부터 어둠을 몰아내며, 물질적인 성소에서 나를 찾았던 순수한 이들을 인도하라.

47. 이 소박한 모임의 장소를 이끌고 있는 너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내 말씀의 소박함으로 그들에게 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죄인들을 갈망하며 왔다고 말해야 한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알게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그들의 영혼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의 눈의 실명을 고쳐 주어, 그들이 나의 임재를 느끼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다. 너희, 선택받은 백성아, 인류를 위해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 두었으니, 너희가 준비가 되면 내 신성한 영이 이 축복받은 책을 통해 너희 이웃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나는 영혼들이 양육되고 힘을 얻도록 이 빵을 불려 주리라.

49.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너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너희는 그저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전쟁 무기를 내려놓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육신을 벗어던진 후에도, 사람들이 평화와 선의를 품고, 성령의 빛을 품으며, 고양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볼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싸우고 일할 것이다.

너희는 대대로 싸워 나갈 것이며, 그렇게 하여 산을 오를 것이며, 정상에 도달하여 너희 행위의 열매로 힘을 얻게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50. 1950년 이후, 너희가 더 이상 이러한 형태로 나를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황해서는 안 되며,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이 길에서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영감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 영혼은 나를 듣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너희가 이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따라야 할 길을 보여줄 것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눈이 나를 찾는 이들, 곧 나를 부르는 이들을 보게 하고, 너희의 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며, 너희는 나를 찾는 이들이 곧 너희를 찾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를 영감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통해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리라.

51. 인류는 고통 속에서 정화되었으며, 영혼들이 깨어나 그들의 열매가 괴로움과 죽음을 품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더욱 정화될 것이다. 그들은 구세주를 찾게 될 것이며, 그들이 벗어나

버린 길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빛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나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 세상에 전할 것이다.

52. 너희는 은혜의 시대, 신성한 빛이 모든 사람의 길을 비추는 새로운 날에 살고 있다. 나, 스승은 너희를 맞이하여 내 품에 안고 축복하노라. 내가 이곳의 백성을 어루만지듯이, 온 땅에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으리라.

53.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이 시대의 나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를 마쳤다. 너희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다가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희망을 품고 이곳에 왔다.

54.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길은 율법의 길이다. 너희가 그 길을 걸을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넓고 명확하게 정해진 길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 구원의 대가이다. 너희는 구원받고 이 길의 목적지에 도달하여 의인들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고자 하는가? 너희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면에 갖추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미덕을 베풀어 준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상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55. 너희의 영이 승리하기 위한 투쟁이 힘겨운 것 같다면, 너희가 가진 힘을 활용하라. 이 세상의 불행이 너희를 짓누를 때, 인내로 무장하라.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고, 바로 이곳에서 나와 하나 되어 너희의 탄식을 잠재우고, 근심이나 복수심 없이,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좋은 제자로서 너희 세상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라.

56.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이 가르침을 너희가 가는 길에 널리 전파하여, 세상이 그 가르침으로 양분을 얻게 하라. 사람들이 겪는 굶주림과 갈증은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57. 동료 인간들이 너희에게 그들의 고통을 보여줄 때, 그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영혼에 위로를 전하라. 그들의 영적 가난과 병은 육신이 겪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짓누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58. 제자로서 너희의 말은 이웃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안개와 슬픔을 몰아낼 힘을 가질 것이다.

59. 나는 너희가 내게 보여준, 너희 영혼을 완성하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여 신성한 보물창고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축복받은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너희의 간구를 귀담아듣고 너희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나는, 너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말씀을 풍성히 주었다.

60. 오늘날의 시간이 지나가고, 오직 이 계시의 기억만이 너희 안에 남게 될 때, 너희는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길 것이며, 책에서 나의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나에게 베푸는 사랑과 다정함으로 기록된 그 페이지들에 눈물을 흘릴 것이다.

61. 이미 너희가 내 진리의 증인으로서 이 인류 앞에 서게 될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부터 결심을 굳히고 용기를 다져야 한다. 너희를 기다리는 시련은 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겁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말씀이 너희에게 사랑과 진리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도 인류 가운데서 이 씨앗을 쉬지 않고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62. 너희의 지팡이는 기도가 될 것이며, 기도는 너희를 위해 선한 것을 준비하고 마련해 줄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 너희는 준비가 더 철저해질수록 너희 영혼이 다른 차원, 더 높고 숭고한 단계로 옮겨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평화를 호흡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 거하는 존재들—의롭고 덕스러운 자들—로부터 영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를 나의 임재로 인도할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너희에게 나의 새로운 계시와 사명을 주리라.

63. 나는 너희가 이제 긴 방랑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 지상의 골짜기에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영적으로 고양되기를 원한다.

64. 나는 너희에게,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 추구, 사랑과 자비의 결핍이 초래한 결과로서 세상에 가장 큰 재앙들이 닥칠 것을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임을 알린다. 이스라엘아, 네가 모든 자연의 힘을 풀어놓고 네 이웃들이 채찍질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시기에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물이 제방을 넘쳐흐르며, 바다의 일부는 육지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찾아 자신의 고향은 물론, 심지어 모국까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대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물의 홍수가 많은 도시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오직 소수만이 이 가혹한 심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65. 이토록 많은 비참함과 고통에서 도망쳐 이 나라에서 구원의 방주를 찾는 이 사람들을 너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너희는 내 뜻을 따르고 너희의 빵과 집을 그들과 나눌 것인가?

66. 머지않아 세상에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 땅이 흔들리고, 태양은 이 세상에 불타는 듯한 뜨거운

광선을 내리쬐어 지표면을 태워 버릴 것이다. 대륙들은 한 극에서 다른 극까지 고통에 시달릴 것이며, 온 지구가 정화될 것이고, 그 가혹함과 속죄를 느끼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67. 그러나 이 거대한 혼돈이 지나간 후, 각국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며 자연의 힘도 가라앉을 것이다.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그 '폭풍우 치는 밤'이 *지나면* 평화의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며, 모든 것이 그 법칙과 질서, 조화로 돌아갈 것이다.

68. 너희는 다시 맑은 하늘과 비옥한 들판을 보게 될 것이다. 강물은 다시 맑아지고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다.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들판에는 꽃이 피며, 수확은 풍성할 것이다. 정화되고 건강해진 인간은 다시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의 승화와 나를 향한 귀환의 길이 평탄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9. 모든 이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목격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근본적으로 순수하고 정화될 것이다. 이는 내가 새로운 인류를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70. 이 세상에 미덕이 다시 태어날 때만을 기다리며, 내려와 내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려는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다. 그 때가 오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자비의 행실을 통해 너희의 정화 기간을 단축하라.

71. 나는 모든 가정에 들어가 그들의 양심을 통해 통치자들의 영혼, 즉 가장들과 재판관들, 교사들에게 말하며, 그들 안에 법을 깊이 새겨 놓을 것이다.

72. 오랫동안 이 세상을 지배해 온 악의 통치는 이제 곧 사라지고, 영의 통치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인간 안에 내재한 영적 은사와 능력이 해방되어, 이를 통해 인간은 지극히 높은 소명을 갖게 될 것이다.

73.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예고하는 이 사건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불신으로, 너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4. 이 예언들이 성취되기를 깨어 기다리며, 어떤 시련도 너희를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 두라.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어, 너희가 삶 속에서 이를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안다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75. 기도하며 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된다면, 너희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겪게 될 새로운 시대를 의식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행동할 때와 모일 때 내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며,

나로부터 영감을 받아 나의 제자로서의 품위에 걸맞은 업적을 이룰 것이다.

76.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너희 영적 형제자매들의 소망과 이상에 따라 살아가라. 너희 영혼은 그들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너희 모두는 나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77. 내 말씀을 들을 때 내 격려를 느껴라. 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일 내 율법을 지키는 내 제자가 되게 하려 함이며, 소돔과 고모라에 양식을 주지 않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주는 것은, 영혼의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내 왕국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78. 너희가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너희에게 성령의 빛을 준다. 너희가 마음속에 나를 모시고, 그곳을 나의 신성을 모시는 성소로 바꾸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79. 이 시대에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오만, 허영, 적대감, 그리고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타락한 쾌락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러한 육체적 쾌락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므로, 너희 영혼에게는 오직 흰 옷만을 남겨 두었다.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나는 너희를 아버지의 품에 안아 주며 이렇게 말하리라. "내 율법 안에서 사는 법을 알고, 내 일꾼이 되기 위해 세상과 단절했던 너희를 환영한다."

80. 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 보물창고에서 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맑은 거울처럼 비칠 것이다. 그에게는 치유의 은사와 예언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는 내 말씀에 목마른 이들에게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과 같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신성한 말씀을 심어 주고, 나의 치유의 향유를 맡겨, 그가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베풀게 하리라.

81. 나는 그가 정착하는 곳마다 평화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으며, 그가 모든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에게 칼을 맡기겠다.

82. 너희 자녀들에게 알 수 없는 곳에서 나를 찾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나와 함께 내 식탁에 앉았으며,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나를 거부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83. 열방은 국경을 정하고, 전쟁을 벌이며, 죽음을 퍼뜨린다. 그러나 나는 영으로 오셔서 몇몇 사람들을 준비시키려 하였으니,

바로 너희가 그들이다. 너희는 내일 영과 영으로 나를 찾게 될 새로운 세대의 일부이다. 그 때에는 땅의 민족들이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 안에서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84. 나는 너희가 "가장 먼저" 되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이웃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

85. 더럽혀진 자는 내게 이르지 못하며, 그럴 때 너희의 고통은 매우 크므로, 너희가 정화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내게로 올라오라.

나는 너희 영혼에 평안과 기쁨이 깃들게 하려고, 너희에게서 악을 제거하노니 – 그리하여 너희가 영적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86. 너희 스승과 인류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나의 자비를 아끼지 마라. 동료 인간들을 광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나의 영적 세계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통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리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52

1. 내 영이 너희 곁에 머무는 순간은 축복받은 순간이니, 그날은 내 빛이 길을 비추어 제자들이 내 말씀을 갈망하며 이 모임 장소로 모여들게 되는 날이다.

2.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맞이하노니, 환영하노라!

3.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진심 어린 간청에 따라 인류 위에 나의 자비를 베풀어,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나의 사랑스러운 어루만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리라.

4. 너희는 선한 의지와 믿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신성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육체적, 영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5. 이러한 준비를 통해 너희는 나의 사랑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하도록 이끕니다.

6. 제자들아, 태초부터 나는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지점, 즉 너희 아버지와의 영과 영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할 길을 준비해 왔노라.

7. 이를 통해 나는 너희가 결코 제멋대로 길을 걷게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내 율법을 이행하는 너희의 발걸음이 신성한 뜻에 순종해 왔음을 너희가 깨닫게 하노라.

8. 마치 내가 너희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 나는 언제나 너희를 따라다니며, 너희가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왔다. 왜냐하면 일단 너희가 그 길에 들어서면, 내가 *너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 바로 이곳, 나의 길 위에서 너희는 너희 영혼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너희 영혼이 여정 중에 도사리고 있는 수천 가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0. 많은 이들에게 삶의 여정이 힘들고 길게 느껴진 것은, 바로 자신들의 실수와 약점 때문에 존재의 십자가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 그들에게는 이상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질주의적인 삶의 품에 안겼을 때 결국 혐오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지친 이 영혼들, 수세기에 걸친 피로를 인간적인 측면에까지 투영해 온 이들에게, 나는 이 시기에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정교한 끌과 같아서, 이 마음들의 거친 바위 덩어리를 조금씩 다듬어, 마침내 아름답고 조화로운 형태 를 부여할 때까지 – 단순한 형태나 겉모습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 영적인 생명이다.

12. 나는 이 바위에서 오직 그 단단함만이 남기를 원한다. 그것은 훗날 오직 진리만이 거하는 성소의 기초가 될 것이며, 내 율법이 보존되고 양심의 목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13. 이 제3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려는 나의 노력은 신성한 인내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이 계시가 끝날 때, 나의 말씀이 너희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일, 너희가 증언할 때가 왔음을 깨달을 때, 너희 영혼이 이 본질로 충만함을 느끼고, 너희 입술이 내가 너희 안에 부어 주는 영적 영감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수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고독은 겉으로만 드러날 뿐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와 연결되기만 하면, 내면의 사랑 어린 도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있는 빛의 세계의 임재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4. 영적 삶과 연결해 주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너희는 혼자이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 너희 본성 속에 스승의 힘이 깃들어 있음에도, 너희는 역경에 굴복하고 말겠느냐? 아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여러분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며, 사명의 길에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천민으로 여기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이 내면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보려 하지 않았던 보물 위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15. 지금부터 너희의 보물 상자를 채워라.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의 각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한 채로 채워라.

16. 나는 너희가 단지 입술로만 '너희는 내 왕국의 상속자들이다'라고 되풀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왜 내 상속자인지, 그리고 너희의 유산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

17. 오직 자신의 영혼 속에 품고 있는 것을 근본부터 아는 자만이 나의 일을 널리 알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자신이 알고 소유한 모든 것을 자각하는 자만이 큰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18. 내가 보기에, 너희는 나를 경청하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해 왔다. 왜냐하면 너희가 양심의 빛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 도덕적으로 더 나아졌으며, 믿음이 더 커졌고, 내 말씀이 발산하는 힘의 일부를 너희 안에 받아들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까지 이룬 것에 안주하지 말고, 정체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함을 향한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한다.

19. 이제 너희는 너희가 걷고 있는 길을 알고,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며, 높은 이상을 품고 있다.

20.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삶의 투쟁에서 패배한 채, 행함에 인내심 없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 채, 목표도 구원받을 희망도 없이 도착했느냐. 그러나 오늘 너희는 신뢰와 이상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너희 영적 여정에서 한 걸음 전진한 것이 아니겠느냐?

21. 나의 빛은 믿음과 희망의 빛을 갖지 못한 영혼들이 빠지는 심연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이미 오랫동안 여러분의 길 위에 비추어 왔습니다.

22. 인간에게 닥칠 고통을 잘 아는 나, 나는 그들에게 재앙을 견디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과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을 밝혀주기 위해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23. 나는 너희를 하나로 모으고,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었던 나의 약속에 따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기 시작하기 위해 너희에게 왔노라.

24. 너희가 평온하거나 명상하는 순간에 종종 무언가 영적인 것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내 약속이 너희 영혼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며, 그 때가 되면 직관이 선명하게 드러나 너희가 가는 길에서 내 임재의 순간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25. 이 예감이 오직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만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것은 모든 영혼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새로운 백성은 인종, 가문, 성별, 피부색, 언어를 가리지 않고 온 인류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오늘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쓰라린 잔인한 고통을 비워내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시련을 겪은 후 명상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많은 동포들을 보았다. 나는 큰 죄인들과 완고한 방탕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27.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마음에 나의 약속을 계시해 주셨고, 사람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 있는 이 희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것은 나의 신성한 영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나의 정의의 지팡이가 너희 마음의 바위를 두드려, 그곳에서 회개의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게 하리니, 너희는 그 물로 너희의 오점을 씻어내어 갱신을 이루고, 그로부터 사랑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29. 너희가 내 공의를 아무리 엄격하고, 무자비하며, 가차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안에서 언제나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0.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는 고통을 통해 끊임없이 정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치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다.

31. 인류여,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초창기의 율법 속에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영혼의 미성숙함과 이해력의 서툼으로 인해,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함을 통해 율법의 내용을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32. 그러나 인류의 세대들은 내 말씀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 시대에 첫 번째 시대의 율법과 두 번째 시대의 내 행적 및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33. 나는 지금 마음을 찾고 있다.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마치 첫 번째 시대에 내 계명이 새겨졌던 돌판처럼 내 율법의 계명을 새기고자 하며,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무와 같이 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34. 그렇다, 인류여, 사람들 사이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큰 후진성이 존재하여, 그들이 깨어나고 – 일단 깨어난 뒤 – 이전 시대에 계시된 모든 것에 대한 해설인 나의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거의 일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5. 나는 자기 성찰에 몰두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순간을 잘 활용하여, 그에게 참된 삶으로의 부활의 시간이 왔음을 알린다. 그것은 영혼이 세상을 묶어 두었던 사슬을 끊어내고 , 자신의 존재에서 가장 순수한 곳에서 자유를 향한 외침을 터뜨리는 순간입니다. 마치 오랜 감금 끝에 마침내 자신의 눈앞에서 고통의 원인이었던 철창이 열리는 것을 보는 포로처럼 – 마치 거친 바다와 필사적으로 싸워온 난파선 생존자가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그리워하던 해변을 바라보는 것처럼.

3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시련들은 매우 무겁다. 이는 그것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7.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통해 신의 정의가 실현되어, 모든 인간 피조물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38. 자,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내 임재를 예감했던 자들아 – 보라, 내가 내 말씀을 인간화하여 너희가 그것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노니, 바로 여기 내가 있노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영원에 대해 깊이 성찰한 순간들이 많았던 여러분은, 현재 인류에 대한 큰 영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 새로운 메시지, 즉 '제3의 시대' 산기슭에서 들었던 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39. 너희는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여전히 그들과 많이 싸워야 하며, 너희 마음을 매우 정화하여 그것을 내 말씀의 합당한 전달자로 만들어야 한다.

40. 그러므로 내 사역이 여러분을 끊임없는 투쟁 속에 두어야 하며, 여러분이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에서 지혜로운 교훈이 되는 시련들이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41.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노니, 고통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한 자가야말로 평생 동안 내 율법에 가장 확고한 신념으로 충실할 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 때만 믿음이 살아나는 것처럼 느끼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청하거나 바라는 것이 그들에게 닿지 않으면,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니며, 이것이 인생의 거대한 전투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보루가 될 수는 없습니다.

42. 사람이 영적 속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만 영혼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랑과 인내, 존중, 심지어 기쁨으로 자신의 고통의 잔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오점을 씻어내고, 빚을 갚으며, 법 앞에서 공로를 쌓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43. 사랑으로 고통받지 않고, 나의 정의에 대한 존중과 각자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에 대한 순응을 갖추지 않는 한, 고통 속에서 영적 고양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이러한 시련 속의 고양만이 사람들에게 영적 속죄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4. 이 계시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 말씀이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형벌에 대한 관념과, 과거에 너희에게 전해졌던 영원한 불에 대한 모든 해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하라.

"불"은 영혼을 괴롭히며, 도가니 속의 금이 정화되듯이 영혼을 정화할 고통과 자책, 회개의 상징이다. 이 고통 속에 나의 뜻이 있으며, 나의 뜻 속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

45. 만약 불이 인간의 죄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의 육신은 이 지상 생활에서 불 속에 던져져야 할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할 테니, 살아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결코 영적 공간으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단 그 임무를 마치면 땅속으로 가라앉아, 자신들이 생명을 얻었던 자연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46.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불"이라고 부르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또 다른 중대한 오해이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는 물질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이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에서 태어난 것은 물질이며,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47. 나의 말씀은 어떤 신앙적 신념을 공격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말씀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아 인류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온 오류를 낳은 모든 것의 진의를 밝혀 줄 것이다.

48. 내 법과 가르침이 영혼들을 오류와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영원히 끝없는 속죄 속에서 파멸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49. 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많은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는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갈망하는 모든 계시들, 즉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과 너희의 의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0. 인간이 자신의 삶의 길을 그 존재의 차원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영적 삶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내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해 주리라.

51. 그리하여 너희는 영적 발전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될 것이며, 영혼이 거치는 단계들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속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주의의 차원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노니, 그곳에서는 너희가 진리의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2. 이성만으로는 이 저작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영적 가르침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적 감수성과 직관도 필요합니다.

53. 이것이 바로 내가 제자들에게 '영과 영의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 방식 없이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이성의 깨달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54.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시대, 즉 진리의 영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실 그 시대가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예언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이러한 형태로 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너희를 놀라게 하고자 했다. 그 예언들에는 내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영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55. 오늘, 내가 인간을 통해 그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기도와 영적 고양의 방식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 내 계시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이성, 그리고 마음 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56.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 제3의 시대에 인류를 향해 내 영적 현존을 선포하는 것이, 도시를 파괴하는 격렬한 자연 현상들과 폭풍, 지진, 땅을 황폐화시키는 바다, 그리고 땅이 바다로 변하는 현상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사건들을 미리 막아내는 것이, 여러분 입장에서 더 영적이고 인간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57. 진리와 영 안에서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믿음이 굳건한 노아처럼 사용하겠으며, 그들에게 영적인 방주를 지을 것을 권할 것이니, 그 품 안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 믿음과 영성, 자비로 지어진 이 방주는 진정한 평화와 안전의 성전이 되며, 물질적·영적 재난이 닥쳤을 때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58.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나의 계시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와 징조를 조사하고 탐구할 때, 그들은 이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이 세상에 나의 계시의 끝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린 수많은 징조 중 하나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59. 제3시대의 예언자들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가! 그들은 드물게만 눈을 뜨고 다가올 일을 볼 준비를 한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미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다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수세기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준비되고 경고를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60. 오늘 내가 너희에게 신성한 정의가 지상의 권세자들 또는 통치자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날, 그들도 자신의 영혼을 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나의 말씀이 너희를 경고하고 깨우쳐야만 했다. 그들은 점점 더 심하게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시련의 시기에 뒤이어 올 평화와 번영, 그리고 화합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61. 새로운 대홍수 이후, 무지개가 평화와 인류가 주님과 영적으로 맺게 될 새로운 언약의 상징으로 빛날 것이다.

62. 너희는 힘든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너희 모두는 악의 용과 싸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용의 무기는 명예심, 증오, 세속적 권력, 방종, 허영, 이기심, 거짓, 우상 숭배, 광신주의이며 –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태어난 악의 세력들이며, 너희는 그들을 물리칠 때까지 큰 용기와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63. 너희의 빛의 무기로 너희 열정의 용이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 비록 같은 세상이지만 *새로운* 세상; 그러나 그것은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모든 행위에 영성화의 이상을 불어넣음으로써, 그 세상을 자신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64. 마음은 고귀해질 것이며, 사람들의 이성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영은 자신의 존재를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선한 것 은 번성할 것이며, 모든 고양된 것은 인간 행위의 씨앗이 될 것이다.

65. 물질적인 면에서도 너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강에는 물이 풍성해지고, 불모의 들판은 비옥해질 것이며, 자연의 힘은 본래의 궤도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신의 창조물 사이, 인간과 생명의 창조주가 정하신 법칙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66. 내 말씀이 너희에게 환상처럼 보이나?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가 지상의 한 시기가 끝나고 영적인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거니는 여러분의 여정은 너무나 짧아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물질적 삶이나 영적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러한 전환이 완성되기까지 수세기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과 선함, 기도를 통해 고양된 지성을 통해 연구할 때만, 시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67. 나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듣는 너희가 언젠가 영적인 세계에 이르게 되면,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지구에 거주했던 여러 시기에 걸친 너희의 삶을 비교해 볼 것이며, 각 지상 단계와 각 영적 시대의 발전 과정, 목표, 그리고 원칙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제자였던 자들에게 걸맞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영혼이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탄하게 될 것이다.

68. 나는 이 말씀들을 너희의 영에 새겨 두니, 너희가 그 성취를 목격하게 될 때, 내 말씀을 축복하고, 내 가르침을 증언하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예언하는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하라.

69. 나는 내 말씀을 믿지 않거나 거부했던 자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 그들의 후회가 매우 클 것임을 알고 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서는 의심했던 것에 대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열정으로 가득 차서, 내 가르침을 전하는 지칠 줄 모르는 전도자로 거듭날 이들도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

70. 인간은 자신의 믿음을 살아있는 불꽃처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그를 성찰하게 하고 감정을 고양시키는 비범한 사건들을 필요로 해 왔다. 영적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리가 수수하게 드러나고 신비의 베일로 감싸이지 않은 채 다가올 때, 그는 그 진리를 의심한다.

71. 너희는 언제나 고통을 통해 나를 찾아왔으나, 사랑과 감사함으로 나를 찾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72.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만, 자신이 단지 물질일 뿐만 아니라, 영이라는 고귀하고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73.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이른 이들은 마리아를 특정 형상을 부여하지 않고 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아야만 믿는 이들은 영적 미성숙함으로 인해, 자신의 영적 자질을 나타내는 형상을 찾아야만 한다.

74. 너희가 영적 은사가 꽃피도록 몸을 다스리며 스승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를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스승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75.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영적인 것, 선한 것, 자연의 경이 속에서 그분을 찾으라. 그러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

76. 마리아는 신성과 그토록 깊이 융합되어, 세 가지 계시 형태, 즉 아버지, 말씀, 성령의 빛이 나타내는 신성의 한 측면을 이루는 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리아는 신성한 보살핌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다.

77. 마리아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공덕을 쌓도록 격려하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시련을 순종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독려하는 분입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 영적 행복을 찾게 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더 큰 고양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78. 영혼은 하느님을 기뻐하며 그분과 하나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영혼은 여러 육신을 거치며 성장해야 하며, 그 후 높은 삶의 차원에서 발전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영원한 완전함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79. 내 백성아, 내 말씀을 단지 듣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라. 그래야 너희가 더 이상 이 형태로 나를 듣지 못하게 될 때에도 힘을 얻고, 인류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 스승의

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행위는 언제나 나의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53

1.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랑으로 열려 있다. 이는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고, 너희에게 나의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다.

2. 은총의 샘이 이 제3의 시대에 넘쳐 흐르고, 제2의 시대에 내가 내 말씀으로 사도들을 준비시켰다면, 이 시대에는 성령의 빛으로 온 인류를 비추고 있다. 이는 내가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을 갖추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3.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강하고 총애를 받은 백성이며,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이기에 온 인류의 무리들 앞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나는 죄인을 선택하고, "탕자"에게 그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준다.

4. 나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며, 너희 중 누구도 내 품에서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니, 나의 사랑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의 자비와 완전한 사랑이 있다.

5.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도 않으며, 너희 마음속의 오점도 쳐다보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 저희는 흠 없이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의 회개를 듣는다. 그러면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한다.

또한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미덕으로 가득 찬 이 길을 걸어가라. 그것은 너희 마음에서 죄가 제거될 순수한 길이다."

6. 너희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고 있으며, 실로 이 은총의 날에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은총을 마지막으로 허락하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올해가 지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계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빛을 구하는 그 영혼들은 이제 오직 영과 영 사이에서만 너희에게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영혼이 점점 더 고양되어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7. 너희는 결코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백성아.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서 결코 멀어진 적이 없으며, 언제나 나의 자비의 온화함으로 너희를 보호해 왔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었다.

8. 오늘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위한 아버지, 즉 너희를 참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비를 베푸시는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

9. 한 사람이 너희 눈에 어두운 눈가리개를 씌우고, 너희를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심연과 한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축복받은 백성아: 나는 너희가 파멸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노라.

10. 나는 지금 너희 각자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방어수단이며, 온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너희를 진정으로 빛의 왕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11. 예전 너희는 '탕자'처럼 세상의 길을 걷던 길을 잃은 자들이었다. 영혼은 혼란스럽고, 마음은 실망에 차 있었으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근심을 안고 있었으나, 너희는 위로의 말도, 너희를 이끌어 줄 손길도 찾지 못했고, 때로는 사막의 신기루가 너희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길을 발견했다고 믿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착각했음을, 눈앞에 나타난 빛이 단지 환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12. 이 시기에 너희는 빛의 길로 들어섰다. 너희를 이 길로 이끈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 그것은 나의 뜻이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하는 백성아: "내 뜻 없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피조물의 운명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13.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2시대에 예수님의 육신을 무덤으로 옮길 때, 내 영은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려 하셨다. 그 순간부터 "영원한" 밤에 저주받았던 그 영혼들은 빛을 받게 되었다.

14. 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며, 영혼들은 나의 은총과 사랑을 통해 부활을 얻고 영적인 계곡에서 점점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줄 주님, 구세주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께 '호산나'를 노래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또 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그들을 너희의 수호천사로 변화시켜, 1950년 이후로 너희를 인도하게 하리라. 너희는 직관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와 조언을 받게 될 것이며, 시련의 순간에는 내 이름으로 그들을 부를 수 있으리라. 그들의 뜻은 나의 뜻이며, 너희를 향한 그들의 사랑 속에는 나의 사랑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가장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15. 너희는 인류가 그 법을 따라 다스려지도록 그 법이 전해진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내 계명을 따름으로써 빛과 진리의 길로 일어나야 할 때이다.

16. 나는 세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나의 신성한 빛을 전해 주었으나, "다른 맛의 열매"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이 제3시대에 내가 전하는 가르침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맡겨 온 것과 동일한 영적 가르침이다.

17. 모든 시대에 걸쳐 영혼은 물질화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방향을 잃었고,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을 영적으로 스스로 이끌어 갈 줄 모른다.

18. 스승은 너희를 선택하고 준비시키기 위해 너희 곁에 계셨으며,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속에 내 말씀을 심는 일꾼으로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의심과 영성 부족이 바로 내 사역이 아직 온 인류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이다.

19. 이 시대에 나를 들은 자들의 수는 적다. 나의 보편적 광선이 너희를 비추고 준비시켰으니, 이는 모든 나의 자녀들이 너희를 통해 나의 부르심을 듣게 하려 함이다.

20. 이스라엘아,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사랑의 칼을 잡을 준비를 하라. 그 칼로 너희는 내 계시가 이 형태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들에도 여전히 너희를 노리고 있는 어둠과 싸울 것이다.

21. 나의 신성한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계시되었으니, 이는 내 말씀의 본질을 통해 너희 영혼의 고양을 위한 무기와 생명을 주어, 너희가 인류를 위한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22. 나는 너희 영혼 속에 나의 가르침을 심어 두었으니, 너희 영혼이 육신을 유연하게 만들어 고양되도록 함으로써, 너희가 나의 말씀의 전령이 되어, 사람들이 영의 사역이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3. 세상은 이교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광신주의를 조장하거나, 내 사역에 내재된 영성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결코 준 적이 없다. 자연의 힘들은 나를 증거했으나,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영혼이 심연과 어둠 속에 머물게 내버려 두고 있다. 이스라엘아, 순종과 네 영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일어나 세상에 말하고 그들을 깨우라.

24. 너희가 준비하지 않았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연구하지도 않았으므로, 나는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으리라. 아니, 나의 뜻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온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서 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함으로써 드러나기 때문이다. 1950년 이후에도 나는 영과 영 사이에서 너희를 계속 인도하고 영감을 줄 것이다.

25.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영혼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그 투쟁 속에서 공로를 쌓아, 나의 꿰뚫어 보는 시선 앞에서 순수한 결실을 펼쳐 보여야 한다.

26. 용기를 내어 어둠과 기만에 맞서라. 이 시대에 너희가 받은 진리를 드러내라.

27. 목자 엘리야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설명해 줄 것이다. 스스로를 단련하여, 내 신성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양들처럼 되어라.

28. 마리아께서 그분의 망토로 너희를 덮어 주실 것이며, 그분의 모성적인 마음에서 신성한 자애가 흘러나와 너희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너희의 용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29. 백성아, 준비하라. 너희에게 힘든 시기가 닥칠 것이니, 준비 부족으로 인해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눈먼 자와 궁핍한 자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나는 이 시기에 눈먼 자에게 빛을 비추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나 자신을 드러냈다.

30. 스승님께서 오래전에 너희에게 거짓 대변자들의 기만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다가올 시대에 거짓 일꾼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31. 너희가 약하거나 지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내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 계시된 바와 같이, 내가 스승으로서 더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나의 가르침을 전할 스승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32. 인류는 나를 찾게 될 것이며, 나의 사역을 찾게 될 것이며, 너희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가장 심하게 비방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나를 찾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는 그에게 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33. 이스라엘아, 결코 나의 자비를 부인하지 말고, 나의 진리를 숨기기 위해 입을 다물지 말라. 그 누구도 너희만큼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장 한계가 있는 지성조차도 적절한 순간에 너희의 말 한 마디도 무시하고 지나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 입술에서 세상이 경탄할 만한 말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34. 이스라엘아,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언제나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베풀어라. 내 말씀을 믿으라. 시간이 흐르면, 이 땅 위에서 오직 단 하나의 가르침만이 남을 것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 바로 사랑의 가르침이다.

35. 내일 수많은 무리가 길을 떠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인도를 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를 없애야 한다. 또한 내 빛이 그들의 이성과 영혼 속에 비추어, 그들이 무한함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나의 임재를 보게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맞이하리라."

36. 태초부터 나는 너희 영혼을 덕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준비시켜 왔으며, 너희에게 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37.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의로움과 사랑, 그리고 내 율법에 대한 순종을 눈앞에 보여주었다. 이 투쟁은 너희에게 고된 것으로 보였고, 이 길을 걷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그러므로 나는 끊임없이 너희 마음을 다듬고 있다.

나의 말씀은 단단한 바위 덩어리에 다가가 끊임없이 다듬어 형태를 부여하는 끌과 같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미덕들이 제단 위에서 빛나는 성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곳에서 나는 너희의 믿음을 바라보고 너희의 기도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곳에서 너희는 내 뜻에 따라 내 신성한 말씀을 마치 상자 속에 간직하듯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내일, 너희가 스스로를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생의 역경에 둘러싸였을 때, 너희 마음속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보물의 주인은 바로 너희 영혼이라는 사실, 그리고 목마름에 시달리며 진리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영혼을 양육하는 생명의 빵을 그들에게 주라.

38. 나의 말씀은 마치 큰 종소리와 같아서, 지금 이 순간 영혼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용기와 힘, 그리고 믿음을 주고 있다.

39. 너희는 길의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방랑자처럼 방향을 잃고 방황해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위한 이 투쟁의 시기에 너희에게 다가오셨다. 삶의 우여곡절이 너희를 짓누르고 불의가 절정에 달한 이 때, 나는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한 빛으로 오셨다.

40. 너희는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이므로, 내가 너희를 부르셨다. 나는 너희 영혼이 나의 평화를 느끼지 못한 채, 그리고 내가 내 식탁에서 너희에게 베풀어 준 최고의 음식을 잔치 자리에서 맛보지 못한 채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치 않았다.

41. 나는 너희 영혼을 환영하고,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며, 너희에게 율법을 보여주고, 너희가 성령으로서 나의 신성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 같은 두 팔을 벌린다.

42. 내가 너희에게 온전히 자비를 베풀기 위해, 너희가 고양되고 영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여전히 죄의 사슬이 너희를 묶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힘든 싸움에 내맡겼으나,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힘을 너희에게 주었다.”

43. 죄에서 벗어나고, 증오와 악에서 자유로워지며, 내 가르침을 통해 준비하기 위해 내게로 오라. 내일 너희는 이 진리의 전령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4.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온갖 신앙관을 내 사역에 덧붙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길을 왜곡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등불을 끄고 내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잠자리에 든 나쁜 제자들로서 책임을 물을 것이니라.

45.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길은, 너희 영혼이 나에게 이르기 위해 정화되는 도가니와 같다.

46.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 안에 두시는 그 도가니야말로, 너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깨닫게 하고, 선한 행실과 사명 수행, 그리고 영적 속죄를 통해 너희 영혼을 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47. 너희가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신성한 영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48. 나의 평화가 모든 가정에 임해야 하며, 너희 자녀들은 평화의 씨앗과 같아야 한다. 너희는 의로움과 사랑, 자비, 그리고 좋은 본보기를 통해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나는 모든 가정에

순례자로서 머물며, 거기서 가족의 가장들의 양심 속에 있는 나의 법 에 대해 말해 주어, 그들이 나의 뜻에 따라 행하도록 할 것이다.

49. 나는 사람들의 거처에 들어가 그들의 탐욕을 없애 주겠다. 나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형제자매처럼 살아가도록 가르치겠다.

50. 축복받은 백성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곧 끝날 것이며, 이 시기는 악의 종말, 즉 이 시대에 세상을 휩쓸었던 타락의 절정을 알리는 시작이 될 것이다.

51. 성령의 빛이 온 땅에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며 비칠 것이다. 나의 모든 자녀들은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빛은 그들이 평화로 가득 찬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2. 내 백성아,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너희 마음에 예언을 새겨 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 임재를 느끼고 영과 영 사이에서 내 음성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53. 내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대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길을 떠나 너희의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이상,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54. 축복받은 백성아: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고 탐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남겨 둔 이 양식의 맛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길을 떠나 너희 가족들에게로, 여러 지방으로 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그 전달자로 삼은 내 평화와 빛과 은총의 사자가 될 것이다.

55.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구석구석에, 내 영의 빛이 내려와 너희의 삶을 비추고, 너희를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웃의 진정한 형제자매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56. 내가 내 말씀 속에서 너희를 “내 밭의 일꾼들”이라 부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꾸는 완전한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57. 나는 아직 너희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합당한 열매를 바칠 수 있으려면, 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계시가 이 형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것이며, 너희는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마음에 새겨야 한다.

58. 너희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영적으로 너희를 모임으로 부르던 그 우렁찬 종소리가 이제 마지막 울림을 내고 있다. 그

소리는 무겁고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무지한 자들을 영적 잔치로 초대하는 환호하는 외침도, 병든 자들에게 내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라고 촉구하는 부름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은 오랫동안 신성한 가르침을 받아 온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각성의 외침이다. – 그것은 나의 진리와 은사, 사명, 그리고 은혜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이자 스승 주위에 모여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과 마지막 삶의 규칙을 듣도록 명하는 목소리이다.

59. 이 순간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상의 유혹과 헛된 쾌락에서 벗어나 영으로 나와 함께 하려는 영혼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나의 신성한 계명을 해석하고 따르는 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포도나무를 가꿀 수 있을 것이며, 하루의 일을 마치고 성령을 통해 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들의 영성화, 사랑, 그리고 고양에서 비롯된 기쁜 열매를 나에게 바칠 수 있을 것이다.

60. 1950년은 이 백성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 이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 단계가 끝나는 해로, 나의 뜻에 따라 정해진 해이기 때문이다.

61. 내가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보내신 것은, 너희가 그 안에서 고통 속에서도 용기와 빛을 찾게 하려 함이다. 인류에게 큰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나는 내 백성이 그 시련을 무사히 이겨내고 승리로 극복하기를 원한다.

62. 나는 여전히 너희의 믿음이 약한 것을 본다. 자연의 요소들이 거세게 몰아치기만 해도 너희 마음은 곧바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린다. 왜인가? 너희가 내 율법이 제시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자연의 힘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고 너희를 존중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63. 아, 백성들아, 이는 너희 양심이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좋은 제자답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64. 내가 너희에게 자연계의 존재들이 너희 목소리를 듣고 너희에게 순종하며 존중한다고 말할 때,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 진리의 증거로 기록되었으며, 그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자연의 힘과 원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혹시 내 능력이나 인류에 대한 내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무리여, 내 영의 빛이 너희를 감싸고 있으니, 내 능력과 내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없다.

65. 이제 나는 이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 믿음과 힘, 그리고 영적 빛으로 가득 차 인류 가운데 나타나, 마치 태초의 그 백성이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공의를 증언했던 것처럼, 세상에 내 존재와 내 사랑, 그리고 내 공의에 대한 증거를 전하기를 원한다.

66. 너희는 '새로운 이집트'인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이며, '파라오'는 너희를 노예로 만들고 고문하는 지배적인 물질주의임을 기억하라. 그러나 너희는 결코 적들에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 투쟁 속에서 단결하고, 함께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과 위대한 업적들이, 비록 지금은 영적인 형태로지만,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7. 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아: 만일 네가 진정으로 영의 자유를 사랑하고,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며, 네가 짊어지고 있는 수치와 비참함의 사슬이 진정으로 네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면, 영적으로 단결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결의를 굳게 다지고, 믿음과 영감, 그리고 이상이라는 빛으로 깨달음을 얻어,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 땅의 존재는, 옛날에 광야의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며 마침내 신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버텨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토록 확실한 것이다.

68. 너희를 깨우는 것은 나의 목소리니, 만일 너희가 이를 무시한다면, 내일 너희를 깨우러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69. 이스라엘아, 내가 네 마음과 영혼에 심어 놓은 나의 가르침을 향해 지칠 줄 모르고 나아가라.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내 사랑의 불꽃을 느끼게 하여 너희 영혼을 내 신성한 영의 빛과 은총으로 끌어올리는 스승이다.

70. 나는 너희를 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내 자비를 베풀고 있다. 의사로서 나는 내 향유로 너희를 기름 바르고,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 위로하며, 너희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해 준다.

71. 축복받은 이스라엘아, 내가 묻노라. 내일 스승께서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아직 내 사역의 위대함을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광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해야 한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말했고, 모두와 함께 내 식탁에 앉았으며, 모두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다. 너희도 겸손해지기를 바라며, 내 영의 겸손함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72. 사랑하는 백성들아,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라. 그래야만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본질과 사랑, 그리고 능력을 품은 참된 영성인들이 되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성령의 빛으로 너희를 가르쳤으니, 비록 지금은 제자일지라도 내일은 스승이 될 것이니라.

73. 나는 너희가 세상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는 여러 나라와 민족, 마을과 지방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영감을 통해 너희는 이웃들에게 빛과 은총, 사랑, 그리고 가르침의 무궁무진한 원천이 될 것이다.

74. 나는 결코 너희에게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 나의 법과 나의 사역은 순수하며 물질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나는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를 없애고, 심지어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물질적 표상들조차 너희에게서 제거했다.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는 순수하고 완전한 방법을 가르쳤다.

75. 이스라엘아, 내 뜻은 네가 내일 기도처를 광신주의의 소굴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활용한다면 영과 영 사이의 직접적인 교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가운데에는 언제나 조화와 형제애가 있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54

1. 오, 제자들아, 가능한 한 빨리 산기슭에 다다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너희여, 다시 한 번 스승께로 오라.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인사와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무한한 곳에서 너희에게 보내는 이 목소리의 울림을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의 영혼은 상승하기 시작하여 정상에 도달하고, 내가 사랑과 지혜에 대한 영원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2. 이와 같이 너희는 나의 모든 계시 때마다 산기슭에서 올라와, 나의 가르침이 끝날 때 정상에 도달하여 나의 영과 하나 되어 통합되도록 준비한다.

3. 나는 지금 인간을 통해 전하는 이 계시의 단계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고 있으며, 너희는 이를 간절히 듣고 그 정수를 한 방울 한 방울 마시며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너희는 내 영을 기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 말씀이 이러한 형태로 끝날 때, 너희는 충실한 증인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준비된 상태로 남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4.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를 내 보호 아래 두어 진정한 사도로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단지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시련과 사건들 속에서도 너희를 다듬고 정화해 왔으니, 이는 너희를 진리의 전도자로 남기고자 함이다.

내 말씀을 마음속으로 느끼지도 않고, 내 가르침을 실천하지도 않은 채로 입으로만 말하지 마라. 그래야 이 시대에 너희의 행실이 지난 시대의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너희가 겸손과 순종, 그리고 영적 고양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세상이 너희가 고통받으며 영혼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신뢰하고 심지어 미소 지을 줄 배우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를 때, 너희의 행적은 이웃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남길 것이다.

5. 너희는 더 이상 인류를 속일 수 없다. 인류는 진리와 속임수를 모두 간파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6.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백성 위에 군림하며 거짓 모범으로 그들을 현혹하고 속였던 일이 너희에게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내 백성의 품 안에서는 그러한 파벌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내 새로운 사도들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도 사두개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 제자로 거듭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손을 모아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 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는 보물을 넘쳐흐르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많은 말씀을 한 것은, 너희를 준비된 상태로 남겨두어 세상이 그 이론들로 너희를 현혹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마음속에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가르치기로 한 이유이다. 내 말씀이 너희 영혼을 정화하고, 믿음이 깊은 뿌리를 내리며, 심지어 너희 육체조차도 영성화에 동참하게 하여, 너희가 준비된 상태로 세상에 나가 내가 너희에게 입혀 준 능력과 은총을 드러내는 나의 도구가 되게 하려 함이다.

7. 나는 이 시대의 인류에게 나의 사랑의 씨앗을 전하기 위해 과학자나 철학자, 학자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나는 겸손한 자들, 영적 고양을 갈망하고 목마른 자들, 즉 영원을 갈망하며 우주의 평화를 사모하는 자들을 택하였다. 이 갈망하는 자들과 세상의 재물을 포기한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에 속한다.

내가 이 피조물들을 불러 이토록 위대한 사명을 맡기려 했을 때, 나는 그들을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각 영혼을 지혜롭게 골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고, 그들에게 갈 길과 매일의 일을 지정해 주며, 경작할 땅과 씨앗, 그리고 농기구까지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 이 땅의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일단 준비가 되면,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어, 너희를 행복으로 채워 줄 이 빛을 보여주고 전하게 할 것이며, 그 빛은 그 후 온 지구상에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8.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했으나, 비로소 지금 이 시대에야 너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너희는 과거의 환생들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나 영생을 지닌 너희의 영혼은, 투쟁 속에서 찢겨 버리는 옷처럼 일시적인 육신을 벗어 던지고 희망을 굳게 붙잡았으며, 마침내 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너희의 믿음과 신뢰가 보상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오늘 너희는 나를 향한 그 먼 길이 너희 영혼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9. 옛날의 내 율법과 가르침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는 길과 다르지 않았느냐? 나 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태초부터 너희에게 가르치고 계시했던 내 가르침 속에서, 나는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준비시켜 왔노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알려 준 것은, 너희가 서로 정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살아가며, 신중하고 질서 정연한 삶을 통해 나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는 선을 행할 때에만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과, 너희의 행실이 율법의 규정을 따를 때 내가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너희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으며, 너희 양심이 너희의 불충실함을 책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내 사자들을 통해 그토록 지혜로운 가르침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여러분을 영적인 삶의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될, 그리고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인 그 경이로운 삶의 문턱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10. 세월이 흘러, 나는 너희에게 예수를 보내었으며, 그분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의 삶과 모범으로 가르치셨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가르침이 천상의 메시지이자 참된 삶으로의 초대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눈과 마음, 영혼을 열어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깨달았다.

너희는 그분의 모범과 기적,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그분 안에서 영적 삶의 아름다움을 엿보았다. 여러분은 그 겸손한

스승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며, 지상에 머무르러 오신 것도 아니며, 단지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신 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뒤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셨던 본향으로 돌아가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1. 그러나 인간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오셨던 그 스승은 어디로 돌아가셨는가? 자애와 지혜의 원천이셨던 그분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그 생명의 빵과 사랑의 포도주를 어디에서 찾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분이 돌아가신 고향까지 기꺼이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혼이 스승의 목소리에 부름받고 어루만져지는 것을 느꼈을 때 생명의 기운이 깨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 인간의 사랑, 물질적 본성, 그리고 영적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 그 가르침 덕분이었다.

12. 나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경멸하게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나 유익한 기쁨, 혹은 가족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빼앗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사람들을 이 지상 생활의 도덕적인 길로, 그리고 영혼을 나에게로 이끄는 무한한 길로 인도했을 뿐이다.

그 신성한 가르침을 통해 미덕이 꽃피었고, 영혼은 내 계명을 따르는 모든 존재를 위한 상승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내가 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내 말씀으로 올 것이며, 예수님 때 너희에게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계시할 것임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13.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위로자가 너희에게 올 것이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은 자신의 보물 창고에 간직한 것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끝이 없는 성령의 삶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했던 너희에게는, 한 생애 또 한 생애, 한 시련 또 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각각은 바로 그 말씀들 중 하나가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을 어기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대에 너희는 너희의 소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14. 보라, 이것이 내 사역의 연속이며, 기록된 대로 내 큰 천사 무리를 거느리고 위로의 영으로서 제3의 시대에 내가 오신 것이다.

내 곁을 따르는 이 영적 존재들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위로의 일부를 나타내며, 그들의 유익한 조언과 덕행의 모범을 통해 너희는 이미 그들의 자비와 평화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 나는 그들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그들은 너희와 내 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겸손함을 깨달았을 때, 너희는 그들이 너희 삶 속에서 이루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행실을 실천하고자 하는 영감을 느꼈다. 그들이 너희 가정을 방문했을 때, 너희는 그들의 영적 임재로 인해 영광스럽게 여겼다.

15. 너희가 그들의 너그러움을 깨달았다면 복이 있도다. 그러나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이 항상 덕이 있는 존재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 중 상당수가 이 땅에 살면서 약함과 중대한 과오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나 지금 그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흠도 없다. 바로 그들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으로 깨어나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그들은 정화되어 당당히 승화할 자격을 얻었으며, 오늘날 인류에 봉사함으로써 나를 섬기고 있다.

그들의 영혼은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임무를 맡아, 지상에 살던 시절에 소홀히 했던 모든 것을 만회하고자 했으며, 신성한 선물로서 이전에 뿌리지 못했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완전한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들의 겸손과 인내, 온유함을 경이로움으로 목격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이 속죄를 위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는 장애물보다 더 큰 그들의 사랑과 깨달음은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들은 자기 희생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이해심을 갖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애정을 보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적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면 내일 여러분은 그들이 오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사랑과 노력, 그리고 회개가 여러분 안에 남아 있는 얼룩을 씻어내어, 여러분이 그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너희의 끈기와 선에 대한 사랑은, 지상에서 불행과 악에 얽매여 남겨진 이들에게 기도를 보내게 할 것이며, 너희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비록 제 형제자매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형태일지라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와 건강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가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천사처럼 될 것이며, 아무것도 너희가 속죄의 세계를 방문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맡겨 준 그 은총과 선함의 원천을 너희 안에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영혼을 넘치게 흘려보낼수록, 너희는 더욱 평온해지고 더 큰 고양을 얻게 될 것이다.

17. 내가 마지막으로 종을 울리고 내 자녀들을 불러 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게 할 때, 이 영적 군대들의 선포 또한 끝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은사자들을 통해 그들을 듣지 못할 것이며, 그 형태로 그들의 조언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수호천사이자 인류의 보호자로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며 그들의 조언을 구하기만 하면, 그들은 곧바로 너희를 돕기 위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을 느낄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고, 그들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토록 높은 영성 단계에 이른 존재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자비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18. 이 시대에 영적 세계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것은 오직 나의 계시에 대한 해설과 해석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말하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계시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다. 그것은 나의 가르침을 미리 앞지르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시가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가 가까워졌을 때 예언자이자 선구자, 그리고 선포자의 역할을 해왔다.

19. 너희가 이 존재들의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 지성적 능력을 바칠 준비를 했을 때, 그 능력을 지닌 너희는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고유한 진실함과 권능의 표징을 받았다. 너희의 영적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말 속에서 얼마나 큰 겸손을, 그리고 나의 사역에 대한 얼마나 큰 순종과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의 삶을 얼마나 환히 비추었는가!

20. 나의 마지막 계시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 목소리의 전달자들과 말씀의 전도자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남겨야 할 마지막 계시들과 명령들, 지침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 내 보물창고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할지 모른다. 너희는 너희의 귀중한 은사를 통해 받아야 했을 것을 영에서 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공덕을 쌓아야 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나의 영적 세계는 순종하는 종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멈출 것이며, 비록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더라도 더 이상 인간의 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부르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유익한 조언을 심어주는 데 그칠 것이며, 모든 이에게 자비를 쏟아 부을 것이다.

나는 내 영을 계시해 온 모든 시대나 기간마다 그 한계를 정했던 것처럼, 이 날도 정해 두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적 군대들에 둘러싸여 온 이 시대에서, 1950년이 그 끝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모든 대변자들을 통해 말해 온 바와 같다.

21. 이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인내하라, 제자들아, 분발하라, 제자들아! 나는 여전히 너희 중 일부에게서 무기력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너희가 현재 겪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백성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에 대한 무지를 발견한다. 나는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영적 세계 를 부르려는 의도를, 또 다른 이들은 내가 내 결정을 번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그들이 내게 청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22. 시선을 뒤로 돌려, 모세가 생의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너희 영혼이 기억하게 하라. 백성들은 그 사람 안에서 너희 아버지의 화신을 보았다. 너희는 그가 영적으로 강력하고, 그가 내린 법과 명령에 있어 의롭고 지혜로웠음을 알았다 –
싸움에서는 용감하고 시련 속에서는 순종적이며, 믿음과 활력,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성들이 고되고 긴 여정 중에 쉬고 있을 때, 모세는 깨어 있었고, 그의 영혼은 나를 향해 솟아올랐으며, 기도로 힘을 얻은 그는 백성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백성이 전투에서 흔들리고,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불평할 때, 모세는 두 팔을 들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힘과 용기를 간구하였고, 기도를 마친 후 백성에게 돌아가 그들의 싸움을 힘차게 독려하여, 마침내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다.

23. 수많은 전투와 시련을 겪은 후, 백성들은 비로소 그들의 지도자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언젠가 그들을 떠나야 할 것임을,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상의 삶을 떠나 하늘로 날아오를 것임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 둔 그 날이 마침내 찾아왔다. 모세의 날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날보다 단 하루도 *더* 지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끝을 예감하고, 그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산에 올랐다. 그 산 위에서 그는 백성을 한눈에 훑어보며 말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라."

24.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이자 율법 제정자, 예언자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자, 나에게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간구했다. "주님, 그를 우리 곁에 남겨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가나안의 성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게 허락하시고, 그 후에야 그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남녀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어른과 아이들 모두 울었지만, 그 시간이 다가왔고 지도자의 생명은 단 한 순간도 더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이 나의 화신으로 여겼던 그 사람에게 보인 사랑을 보고 내가 감동받지 않았 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나의 뜻은 지혜로우며 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 모세가 내게로 왔고, 백성은 그의 후계자를 따랐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들에게 부여한 힘을 체험했다. 그들은 장애물을 알아차리고 거세게 몰아치는 자연의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싸워 적들을 물리쳤다. 그들은 고난을 견디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주님께서 모세를 당신 곁으로 부르셨을 때 그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내가 내 선택한 자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실천하고 따르는 법을 배웠다.

26. 예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둘러쌌다. 그 제자들에게는 스승께서 신성한 가르침을 설교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들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않았고,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물도 없었으며, 그 무리를 둘러싼 분위기 속에는 온통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특히 황홀해하던 어느 날,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너희 곁을 떠나고, 너희는 마치 늑대들 사이의 양처럼 남겨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너희는 한동안 홀로 있게 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을 사랑과 의를 갈망하고 목마르게 기다리는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일하라. 그러면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영원한 고향으로
데려가겠다."
27. 그 말씀에 제자들은 슬퍼하였고,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서는 작별을 말씀하시며 그 예고에 더욱 힘을 주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영이 떠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다. 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그분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할 때, 그분은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28. 신성한 영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공 질서를 어지럽힌 자로 재판받기 위해
군중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그분을 로
고발하는 자들에게 맞서 일어섰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흩어 버리고 스승님까지
징벌하려 했다. 그러나 자신을 넘겨주어야 할 시기를 아셨던
그분은, 그 백성이 시련을 용감하게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계속 이어가셨다.
29. 그러나 그분이 원수들의 손에 자신을 넘기시자, 제자들은
분개하며 항의했다. "왜 그분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넘기시고
저항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분이 자신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으시는가?" 그러자 제자들 중 한 명이
칼을 뽑아 스승을 체포하려던 자들 중 한 명을 베었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그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런 식으로 나를 지키지 마라! 예고된 때가 왔으니,
기록된 바가 이루어져야 한다."
30. 그 남자와 여자들은 군중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자, 이제
영원히 그분을 잃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그분의 신성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임을 느꼈다 – 스승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영역에 머물게 하시고, 황홀경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발치까지 데려가 주셨던 그 날들이 영원히 지나가 버릴 것이며,
오직 그 행복한 교제와 기쁨의 날들에 대한 기억만이 그들 안에
살아남을 것임을 느꼈다.
31. 이 제자들은 무고한 스승님을 위해 자비를 구하며, 그 짧은
세월 동안 보았던 것처럼 다시금 그분이 길과 마을에서
설교하시는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했던 군중들의 눈물과 간청은 충분하지 않았고,

스승의 생명은 정해진 그 시간 이상으로 연장되지 않았다–단 한 순간도.

32. 희생이 이루어지고, 그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이 진정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연구하기 시작했고, 심오한 성찰을 거듭하며, 스승께서 그 사역을 미완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수하셨음을 깨달았다 – 그분은 알 수 없는 왕국에서 오셨고, 사명을 완수한 후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삶과 신성한 사자로서의 삶이 모범이 되었으며, 이것이 그분이 신실한 제자들의 마음에 지혜의 보물을 남기시고, 그들이 약속된 왕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길을 보여 주실 소중한 시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3. 얼마 후, 그들은 스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를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었으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그분의 영이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이 첫 제자들은 진정으로 그분의 대표자들이었으며, 그들을 가르치신 분을 본보기로 삼았기에, 죄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재현해 냈습니다.

34. 이러한 사명 수행을 통해 그들은 스승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분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을 느꼈다.

35.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던 신성한 “말씀”은, 그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남성과 여성들을 통해 나를 드러냈다. 그들은 인간적이고 소박하며 겸손한 사람들이며,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할 줄 알았고, 이 시기가 끝날 때에도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서 살며, 계속해서 활동하고, 나와 영적인 교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36. 모세는 상징적으로 산에 올랐고, 생의 여정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 나에게로 올라갔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지셨고, 그곳에서 나를 향해 치솟아 나와 하나가 되셨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온 제3의 시대에, 나는 오직 나의 보편적 광선만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바로 그 강력한 광선은, 내가 사용했던 도구들 위로 내려올 때 이 세상을 한 극에서 다른 극까지 비추고 뒤흔들었던 바로 그 광선이다.

모든 피조물은 내 영의 지혜이자 권능인 그 빛을 받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나를 섬긴 대변자들은 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한동안 이 세상에 머물게 될 것이다.

37. 나의 대변자들아: 기도에 전념하고, 검소하게 지내며, 내 말씀을 너희 영혼 속에 항상 생생하게 간직하라. 그리고 내 계시의 마지막 날이 오면, 모세와 하나가 되어, 그 시간이 마치 사자이자 율법 제정자가 나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바칠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던 그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스승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의 고통 을 체험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기도하며, 그분이 그 죽음의 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55

1. 이 시대에 지상의 계곡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이 백성에 속하여 영적인 계곡에 거하는 존재들 또한 축복하노라. 이는 양쪽 모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열망 속에서 단 하나의 결심을 품었기 때문이니, 곧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었도다. 너희는 이 목표를 통해 하나가 되었으며, 이제 양쪽 모두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하느니라.

2. 나는 너희가 각기 다른 고향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형제자매들의 영혼에 빛과 정의의 광선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를 파송하였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그 위대한 백성의 일원으로서, 가장 큰 시련의 시기에 이 땅에 내려와 선과 악의 이 전투에서 전사로서 싸우고 있으며, 이 싸움에 맞서면서 너희는 강하고 확고하며,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다.

3.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한 채로 내 말을 들어라. 너희의 이성조차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계시하는 이 시간 동안 온전히 감수성과 주의력, 그리고 열정을 다해 내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너희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4. 너희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너희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걷고 있다. 너희는 지식에 대한 갈망과 영적 삶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나의 모든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5. 나에게서 배우고, 너희에게 필요한 작용하는 힘을 너희 안에 받아들이라. 나는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자만심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물의 창조주이긴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 너희의 이성에 빛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라. 너희가 계획에 있어 약할 때,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의지력을 주리라. 너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 그 능력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능력과 자질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단지 너희 영혼 속에서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라. 그것들을 깨워 풍성하게 진동하게 하고 활동하게 할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6. 나는 지금 너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물질주의자들을 나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이 사람을 통해 전해진 말씀은 인류의 극히 일부만이 들었으나, 모든 이가

너희의 증언과 내가 에 기록한 책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7. 나는 더 이상 너희 영혼 속에 무지와 억눌림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멍에를 이겨내고, 너희 몸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영혼과 몸을 나의 법 안에 머물게 할 힘을 준다. 이는 내가 땅 위에서 너희에게 허락한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고, 너희를 높은 저 세상으로 인도할 길을 마련해 두게 하려는 것이다.

8. 너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 속의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이를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권한다. 이는 너희 각자가 소유하게 될 '영적 지혜의 책'을 이루는 수많은 가르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생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경험과 공덕을 쌓아, 너희의 길을 단축하라.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걸음을 서둘러야 합니다.

9. 양심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영적 발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제공하는 열매를 절제하며 누리십시오. 이 생은 그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른 세계에서 누리게 될 지극히 완전한 삶의 희미한 반영에 불과합니다.

10. 나는 너희에게 지구를 일시적인 거처로 주었으며, 너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때, 너희는 이 인류의 일부를 이루었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의 키가 되어 그 행로를 이끌고, 이 육신이 마치 순종하는 배처럼 이 광대한 대양 위에서 조종될 수 있도록, 나는 너희 영혼에 빛을 주었으니, 너희가 내가 정해 놓은 길을 따르며, 너희의 운명을 나타내는 표징에 항상 순종하여, 너희를 기다리는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11. 나는 너희를 빛의 광선처럼 공동체와 사회의 품으로 보냈으며,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세상에서 너희의 은사를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며, 그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동료 인간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곳에 지혜롭게 너희를 두었다.

12. 너희의 임무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너희가 얼마나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지! 그렇기에 나는 항상 너희에게 기도를 권해 왔다. "깨어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심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며 , 너희의 양심은 항상 너희의 행동이 의로움과 사랑으로 향하도록 조언할 것이다.

13. 너희는 내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이 시대에 나와 함께 악과 싸울 수많은 군대들에 둘러싸여 올 것이며, 나는 지금 내 말을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 영적인 존재들과 육신을 입은 존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들이 나를 따라와, 모든 영혼을 제자리에 되돌리기 위한 이 정화와 회복의 사역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14. 나는 너희에게 묵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너희가 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게 될 중대한 순간, 엄숙한 날이 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깨끗하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므로, 너희는 모든 불순함을 떨쳐내야 한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모아 내게 바치라. 내가 그 열매를 배가시켜, 위로와 희망, 평화의 메시지로 인류에게 전하게 하겠다고 너희에게 약속했으니 말이다.

15.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는 내 제자인 이 백성을 심판할 때, 나는 또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며, 너희가 내가 모든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사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나의 사랑의 유산인 제3의 성서를 남기리라.

16. 지도자들이 엄격하고 완고하여, 자비 없이 백성들을 고통의 심연으로 몰아넣은 그 나라들은 멍에를 견뎌냈으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굽히지 않았고, 나를 향해 눈을 들지도 않았으며, 해방을 간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만심에 빠져 있으며, 오만하게 치켜든 머리를 숙여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현재 모든 피조물의 길에 나타나 그들이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악랄한 전쟁의 가혹함을 감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17. 증오로 굳어진 이 인류는 나의 현존을 느끼려 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알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갈망하는 자유와 승리를 기꺼이 허락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선한 것들은, 내가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게 주리라.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그들을 그토록 얽매어 온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주겠다. 나는 그들이 물질주의를 이겨내게 하여 영적 선물의 소유자가 되게 할 것이며, 내 영인 그 지혜의 보물창고 로 들어가게 하여, 그곳에서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삶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리라.

18. 권력과 우월성을 향한 여러분의 열망을 영혼에 유익한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 언제쯤 너희는 나를 알아보고, 나의 법을 지키는 법을 아는 조화롭고 순종적인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인가? 그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시련을 겪은 후, 너희는 평화로 돌아와 상호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하나님 숭배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20. 나는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있으며, 나의 심판이 무자비한 만큼, 나의 사랑과 용서도 너희 각자에게 드러나고 있다. 만일 내가 너희의 행실을 저울질하여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그러하듯 너희를 정죄하고 돌이킬 수 없이 책임을 묻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너희의 변호인임을 깨달아라. 나를 이해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깨달아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21. 오늘날 사람들을 덮치고 있는 시련들과 앞으로 닥칠 시련들은 그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자리에 서게 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이미 시작된 영성화의 시대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순수해질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화의 시간이 끝나면, 너희는 나에게 감사드리기 위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겪었던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승천을 위해 싸울 힘을 느낄 뿐이다.

22. 그러나 너희가 고통의 잔을 비워가는 동안, 스스로 비천하다고 느끼거나 나의 자비로 인해 천대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사랑으로 인해 순결하고 건강하며 강하게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23.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삶은 얼마나 풍요롭고 긴가! 그 안에서 영혼에 필요한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말이다! 너희가 걷는 이 길에서, 너희는 영혼에 타고난 미덕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니—아직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24. 오늘 너희는 오랫동안 살아오며 성장해 왔기에, 나의 현재 계시를 이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여러분의 공부와 탐구를 위해, 나는 귀중한 사랑의 유산인 '생명의 책'이라는 가르침을 남겨 드립니다. 그 책의 모든 페이지에는, 내가 에서 여러분의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분의 이해력을 활용하여 담아 둔 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너희의 기도가 더

이상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언어, 즉 고귀한 영혼이 자신의 하느님께 품는 진실한 표현과 사랑의 표명을 사용할 때, 너희가 나와 완벽하게 소통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를 알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노니,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계시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받는 이 예언들과 지시들은 너희 이웃들에게 알려야 한다. 일단 너희가 그렇게 준비되면, 지금까지 닫혀 있던 너희 입술이 열릴 것이다. 큰 말의 은사가 드러날 것이며, 너희가 오늘까지 숨겨왔던 것들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25.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 치유의 은사를 구했던 너희는, 이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기도와 말, 그리고 시선이 병자들에게 치유의 연고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평화와 사람들 사이의 화합과 형제애를 구하는 여러분은 – 그 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는 길에 평화를 뿌리며, 또한 평화가 부족한 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의 은사가 살아나 완전한 명료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될 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26. 이 시기에 어떤 이들은 내 부르심을 마치 너희 영혼에 닿은 요란한 종소리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모든 길에서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27. 너희는 다양한 신앙 고백과 서로 다른 세계관 속에서 나를 찾았으나, 구원의 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고,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리라.

28. 이 제3의 시대에 엘리야가 모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유 의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나에게 믿음을 표명하고, 나를 따르며 나의 밭에서 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29. 너희는 궁핍하고 목마르며 굶주린 채로 이곳에 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거대한 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게 하였고, 너희를 치유하였으며, 수정처럼 맑은 물과 영생의 양식을 주었다.

30. 너희 가운데 진리를 마음에 품고, 거친 파도 속에서 표류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 자들은 복이 있도다.

31. 백성아, 나는 너를 통해 크게 나를 드러냈고, 최고의 음식으로 너를 먹였으며,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보석을 너에게 맡겼고, 너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었으며, 가시들을 느끼지 않도록 너희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다.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신성한 스승님,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 인류에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빛을 세상에 전할 당신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32.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준비시키고 내 율법을 맡겨 주었으니, 너희가 제2시대의 제자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33. 나는 너희의 영혼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평화와 성령의 빛을 너희에게 주었다.

34.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허락한 계시들은 얼마나 반가운가. 영감은 빛나는 횃불처럼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솟아난다. 그들은 내가 점점 더 다듬어 형태를 부여하고, 가장 순수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도록 하는 바위들이다.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다.

35. 그 샘을 보라. 좋은 열매로 가득 찬 가지들을 가진 거대한 나무가, 방랑자에게 그늘을 드리워 너희가 정욕과 야망, 유혹으로부터 쉴 수 있게 해 주는 그 나무를 보라.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귀머거리나 눈먼 자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듣고 이 빛이 너희 영혼 안에 머물게 한다면, 곧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나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36. 영성 수양에 전념하라. 그러면 너희 생각의 어둠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빛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영감을 받고 그분의 광채를 느끼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인류 앞에서 맑은 거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얼굴에는 타인에 대한 기쁨과 선함이 비쳐질 것이다.

37. 선행을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내세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사역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너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은 내가 직접 너희에게 주도록 하라.

38.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다른 인종과 피부색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너희가 모두 한 명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39.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영혼들이며, 내가 내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다.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고 너희를 나의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르침을 맡긴다.

40. 과거에 너희에게 약속을 드렸으니,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오겠다.

41.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평화와 빛과 사랑의 전령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나팔을 울려야 할 나의 사자들로서, 그 나팔 소리에 인류가 깨어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영적인 종과 같아서, 그 소리가 모든 영혼과 모든 마음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으니, 너희가 땅의 모든 곳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42. 사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육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영혼은 환희와 승리의 기쁨으로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43. 1950년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영과 영으로 너희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때 너희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너희 스승처럼 나의 교리를 전파할 것이다. 너희는 모범을 통해 가르치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44. 너희는 "황금 깃펜"에 의해 기록된 나의 가르침을 온전한 순수함과 명료함으로 널리 알릴 것이며, 이 모든 텍스트를 모아 한 권의 책을 엮어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서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받아쓰게 하신 제3의 성서이다. 그 안에서 나는 너희가 그것을 깊이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내 가르침을 전한다. 내가 이런 형태로 말씀하실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되어 있고, 너희 마음이 나의 신성을 모시는 성소가 된다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45.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너희가 내일 스승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지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오직 고통의 잔만을 비워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인 너희에게는, 그들의 입술에서 그 쓰라린 잔을 치워내고, 그들에게 자비와 평화를 주며,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일어나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나를 사랑하며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하나된 뜻을 품으라.

46. 그들의 흠과 죄를 바라보지 마라. 이미 제2시대에 내가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죄인이 내 발 앞에 엎드렸을 때, 나는 그녀를 정죄하던 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들은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네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도 이웃을 심판하지 말라. 오직 나만이 너희의 행위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47. 영혼은 눈송이처럼 순수하게 내게로 와야 한다. 축복받은 백성아,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어도 고아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 대신 너희 마음속에 나를 간직하고, 영과 영이 서로 교감하며 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

48.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길을 보여 주었고, 너희 영혼을 비추어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의 신성한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49. 너희 중 일부는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 확증한 율법을 이행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 중 다른 이들은 그 길에서 멈춰 서 있다.

50.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스승님, 제 삶에서 공덕을 쌓기 위해 어떤 길을 따라야 합니까?” 그리고 너희가 무지하지 않도록 지칠 줄 모르고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빛을 주었고, 영감을 주었으며, 너희의 양심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가 나의 밭에서 일하도록 했다.

51. 나는 너희가 힘을 얻고,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위대한 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베풀어 주노라.

52. 나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내 자비로 너희 영혼을 가득 채워 주었다. 나는 내 말씀의 정수로 너희의 갈증과 굶주림을 해소해 주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석과 같은 내 일을 너희 손에 맡겨 주었다.

53.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빛의 길을 걸어왔고, 그 길에서 활력을 얻었다. 다른 이들은 삐뚤어진 길로 방황했으며, 고통과 피로가 그들의 삶을 덮쳤다.

54. 나는 인종이나 피부색,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그들이 지성을 단련했는지 아니면 무지하고 둔한 지성을 가졌는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았다. 나는 세상에서 그들을 선택하여, 나의 빛과 은총으로 그들을 준비시켜 그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게 하였다. 나는 세상에 지치고 실망한 남성, 여성, 어린이, 그리고 성인들을 불렀다.

쓴 잔을 마신 여성들을 나는 정화시키고 위로하여 나의 여종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제3의 시대에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 파멸해 가는 청년들에게 나는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식탁의 음식을 베풀고, 이 시대에 나의 일꾼과 제자의 수를 늘리도록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55. 너희는 내 봉사에 헌신하였고, 삶의 여정 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달라고 간구한다. 나는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너희를 격려하고, 도우며, 너희의 영혼과 몸을 강하게 해 주겠다.

56. 너희가 심연으로 떨어질 뻔하고 굶주린 늑대의 먹이가 될 뻔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너희를 향한 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스스로 초래한 고통만을 나에게 보여줄 뿐이다.

57.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나에게 봉사하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해 달라고 간구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지친 발과 이 삶의 우여곡절로 인해 상처 입은 마음을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 모두가 이 행성에 거주하며 너희 영혼의 승화를 위한 공덕을 쌓도록 보내어 놓았다.

5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내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자기 뜻대로 살면서 나에게 그들의 고통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고통이 너희를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라. 엘리야를 지칠 줄 모르는 목자로 알아라. 그는 너희가 곁길로 벗어나 덤불 속에 있을 때 너희를 찾아내어 다시 양 우리로 데려가려 한다.”

59. 그는 너희를 목자의 품에 안아 쉬게 하고, 너희를 내 면전으로 데려온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양 떼를 위해 간구하여, 너희가 다시 내 자비와 용서, 그리고 축복을 받게 한다.

60. 오늘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청하느냐?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중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는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싸움에서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말하며, 또한 너희가 고통을 겪었으니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에게는 간과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너희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도둑처럼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 너희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너희가 내게 구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61. 영 안에서 나의 임재를 찾는 너희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의식이나 예식에 참석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나의 뜻에 따라 모여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소박한 모임 장소에 오며, 이곳에서 나를 찾기 위해 마음을 들어 올린다.

62. 나는 현재 제2시대의 사도들을 본보기로 삼는 선의의 영혼들을 찾고 있다. 오늘 나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며, 나의 계시는 미묘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징표나 암시를 감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화되어야 한다.

63. 지치지 않는 목자이자 싸우며 사람들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엘리야를 본보기로 삼으라. 그의 어려운 사명을 돕고, 너희의 은사를 발견할 때 기뻐하라. 영혼의 눈을 뜨고, 이미 이 세상에서 다른 이—영적 세계에 있는 이들의 완전함을 바라보라.

64. 의로운 자들, 즉 고귀한 존재들이 그러하듯, 너희의 사명을 완수한 공로를 나에게 바치라. 나의 일을 피상적으로 탐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 완전함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내가 인류에게 남길 '제3의 성서'로 받아들이고, 내가 과거에도 같은 사랑으로 너희에게 말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시대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정의의 목소리를 지닌 여호와, 그 후 구원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고 오늘날의 위로의 영은 모두 인간의 영혼을 하나의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 위에 빛나신 분은 바로 그 하나이자 동일한 신성한 영이십니다.

65. 너희의 고통이 누그러졌을 때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그 후로 멀어지지 말라. 날씨가 험해도 꽃들이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간직하는 모습을 보라. 너희도 평화로운 날에는 물론 시련의 날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비유

66. 한 청년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었다. 그러나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청년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파당한 듯 보이는 열두 명의 소박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배로 끌어올리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항구로 데려다주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겠다." 그 남자들은 구세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 청년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내어 내 은총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병든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건강을 주려 합니다."

그 난파당한 이들이 이 말을 듣자, 거친 파도 속에서 죽을 뻔한 자신들을 구해 준 그 청년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우리와 모든 곤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 새로운 날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거친 바다를 건너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자 구조된 열두 사람은, 구세주의 음성에 따라 배가 지나가는 길의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계명과 법을 무시하여 죄인이 되고 곤경에 빠졌던 그 난파자들은 회개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 번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가르침이 기록된 펼쳐진 책을 보여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이 배를 너희에게 맡기니, 너희가 난파당한 자들을 구원하라." 그들은 그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순종하겠다고 서약했다.

그 배가 항해하는 동안, 그 바다에서 침몰하던 이들이 구원받았고,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을 확신하며 놀라워했다.

비유의 끝

67. 스승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타락의 절정에 치닫고 있는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가르침을 통해 너희를 이 배로 구원하여, 너희가 그것을 인류에게 보여 주게 하려는 것이다.

68. 이 가르침의 시기가 지나면,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호천사들 의 동반을 받게 될 것이며, 믿음과 의로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는 무지를 단호히 물리쳐야 하되, 가르치고 바로잡는 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비와 인내도 함께 발휘해야 한다.

69. 나는 너희의 기도를 이해하고, 너희의 간구를 들으며, 너희의 소망과 희망을 알고 있노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영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게 될 것이며, 육신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70. 이 은혜로운 아침에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희의 진실한 기도는 마치 한 벌의 망토와 같아서, 내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축복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감싸주리라.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가르침 356

1. 너희는 나의 오심을 믿은 자들이다. 이미 나의 계시가 끝나는 마지막 해들이 되었으나, 너희는 마치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한 그 시절인 양, 여전히 나를 듣기 위해 서둘러 찾아오고 있다.

2.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나를 따르기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내 영의 빛이 내려왔다. 내가 그 '제2의 시대'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듯이, 이제 너희를 위해 다시 말하노니, "보지 않고도 믿고, 나를 따르며, 인내로 남아 있는 너희 중의 자들은 복이 있도다!"

3. 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겠지만, 제2의 시대에 이미 나에 의해 예언되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계시와 이러한 형태의 내 임재에 놀라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니, 그것이 나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 너희가 놀랐고, 많은 이들이 나의 계시를 듣고 경악했던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4. 제2시대에 제가 떠나신 후, 저를 믿는 신앙을 간직한 이들 사이에서는 대대로 저의 재림이 기대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신성한 약속이 전해졌고, 저의 말씀은 저의 귀환을 목격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매 세대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자신들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세대라고 믿었습니다.

5.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의 약속은 점점 더 밀려나갔으며,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6. 수세기가 흘렀고, 인류가 내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올 것이라고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을 때 – 사람들이 진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나는 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의 영적 임재를 느끼게 하였다.

7. 내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형태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으며, 심지어 그들이 나의 과거 계시들에 대해 미리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그것을 비난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형태를 선택했더라도,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깨어 있고 준비된 자에게는 내가 내 계시를 위해 사용한 어떤 형태도 놀랍지 않았을 것이니, 그는 어떤 계시의 형태 속에서도 나를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9. 이 시대에 나를 믿은 모든 이들, 나를 느낀 모든 이들, 그리고 나를 따랐던 모든 이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영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나의 재림을 갈망하고 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10. 그 당시 나의 약속은 단 하나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빛은 목소리의 매개자를 통해 나를 듣는 이 무리들에게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그들에게 실감하게 하기 위해 온 인류의 길 위에서 천 가지 방식대로 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너희에게 말하건대, 하루하루,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나를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본 그 모습으로 내가 오시는 것을 보고는 믿지 못하고, 나의 임재를 부정하며 떠나간 자들이 있었다. 왜인가?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내가 선택한 모습과는 정확히 다른 현현의 형태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11. 나의 결정과 영감은 그 어떤 인간의 추측이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12. 나는 내 행적이 인간이 진리와 완전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많은 증거를 너희에게 주었다.

13. 어떤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 것 중 하나는, 제한된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표현된 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당혹감을 느끼는 이들이 내 말씀의 깊이를 헤아려 보려 한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내가 왜 하필 교육받지 못했고 심지어 부정결한 사람을 선택하여 내 가르침을 전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이 수단을 선택한 이유가, 인간의 영혼이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영원한 법칙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영혼의 속성과 육체의 능력이 동시에 참여하는 소통의 형태이다.

14.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이런 은총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현재 모습을 넘어 바라보고 있으며, 너희의 불완전함을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는 것 또한 하고 마땅한 일이다.

15. 너희는 나의 일부이므로,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은 너희가 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정화되고 온전해지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아라.

16. 다른 이들이 죄인들을 위해 공덕을 쌓아주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으나, 그 공덕들은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17. 오늘날에는 죄인 자신이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의 인도자, 스승, 구세주가 되고자 한다.

18. 이 땅에서 부모들이 언제 오직 착한 자녀들만 사랑하고 나쁜 자녀들을 혐오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세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 *너희가* 내 사랑과 용서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스승이 제자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일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19.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내 백성 중 누구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따라서 구원의 길은 너희가 그 길을 걷도록 영원히 초대하고 있으며, 빛과 평화와 선함인 내 왕국의 문들도 율법과 진리에서 멀어져 있던 자들의 도착을 기다리며 영원히 열려 있다.

20. 이 모든 이유로, 나는 죄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내 말씀을 전할 도구로 삼을 자들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21. 내가 이 사역을 위해 선택한 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진정한 갱신의 사례가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회개와 참회의 증거가 있었는가!

22. 나는 내 재림이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었다. 내가 찾던 대상이 바로 사람들인데, 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이 아닌 다른 수단을 선택해야 했겠는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그들의 예민한 감수성 덕분에 내 존재와 본질을 감지하고, 이러한 방식의 계시를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23. 너희에게 말하건대, 첫 순간부터 내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 줄 충분한 감수성을 지닌 채 온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려야겠다. 왜냐하면 ‘’는 깨어 있는 영적인 시선으로 이 빛을 보고 내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온 반면, 다른 이들은 탐구하는 육신의 눈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평가, 관찰은 피상적이었고 항상 겉모습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의 의미나 본질을 탐구하기보다는, 언어의 정확성을 더하거나 덜 따져보고, 그에 따라 말씀을 전한 이들의 삶과 생활 방식, 말투, 심지어 옷차림까지 파헤치려 했기 때문이다.

24. 후자들에겐 당연히 이 일에 있어 초보자인 이들에게서 불완전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가르침에 어떤 진리도 없다고 부정했던 반면, 전자들은 나의 종들의 실수와 한계, 그리고 빈약함을 간과했다. 그들은 그들이 단지 인간일 뿐이므로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했고, 오직 그 말씀의 의미와 본질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꽃다발” 속에서 나의 영의 현존을 발견한 것이다.

25. 내 말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내용에 깊이 몰입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 진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심의 해명이나 해결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26. 제자들 사이에 사소한 오류나 의심조차 없도록, 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분은 바로 저입니다.

27.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의 본질, 즉 너희 언어의 인간적인 형식을 초월한 그 진의를 찾도록 배워야 한다고 얼마나 자주 말해왔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말의 세속적인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본질을 찾지 못할 것이며, 내가 죄인들, 즉 훈련되지 않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 교육과 학문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드러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너희가 말의 겉모습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나의 계시에 그 본연의 진실을 인정하며, 그 육신들에게는 그들에게 귀속되는 바를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8. 모든 사람이 나의 빛을 찾았던 것도 아니며,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제자들도 아니었음을 깨달으라. 이제 왜 많은 이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여전히 나의 일꾼들 때문에 실망을 겪었다고 주장하는지 알아라!

29. 그들은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 곁에 있었으나, 배불리 마시기 위해 몸을 굽히지 못했던 목마른 마음들이다. 그들은 내면에 매우 큰 공허함을 품고 있으며, 계속해서 찾고 부르짖지만, 그들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이 길에 다시 다가설 것이며, 그때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더 이상 겉모습에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은 나를 간절히 경청했던 이들, 즉 스승 곁에 머물렀고, 그들의 믿음과 영성화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큰 비밀과 가르침을 밝혀주는 빛이 쏟아져 내렸던 이들 안에서 지혜가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0. 너희 모두가 내 계시를 듣기 위해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너희 모두를 시험하였다. 나는 제자들 각자에게 지혜로운 증거들을 보내어, 그들이 너희에게 내 임재를 증언할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이들은 순종하고 겸손하며 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른 이들은 비록 나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의지도 없이 남아 있었으며, 종종 교만과 반감, 심지어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성이 흐려지고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 영혼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성품의 사람은 오직 불완전함만을 보게 될 뿐이다.

31. 나는 너희 모두를 시험한다. 나를 따르는 자들조차도, 너희의 온 존재가 강해지도록, 그리고 – 이 수단을 통해 더 이상 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될 때 – 그들이 내 말씀에 담긴 지혜를 갖추고, 동시에 이 가르침을 참된 순수함으로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험한다.

32. 나의 제자들은, 지금처럼 더 이상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의 모범이 매우 중요해질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그때에는 뛰어난 제자들이 그들의 행실을 통해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말씀에 대해 증언할 때, 그 증언이 언제나 행동과 함께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33. 내 백성이 내일, 이 백성을 위한 증거의 때가 왔을 때, 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 그들의 행실을 나의 진리에 맞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완벽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34. 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는 사랑을 입어야 하며, 자비로 충만해야 하고, 겸손과 인내를 쌓아야 하며,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는 가장 굳고 가장 완고한 마음조차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나의 말씀에 의해 흔들리고 감동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5. 너희는 많은 동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너희의 불완전함을 발견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으니, 너희의 모범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능한 한 내 율법을 어기는 일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라.

36. 나는 너희가 스스로에게 만족하기를 원하며, 너희 양심이 결코 너희를 책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즉, 너희가 그들에게 내 사역의 순결함과 진리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웃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말이다.

37. 내가 제2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말씀은 – 의미와 형식 면에서 완벽하여 – 모든 이에게 들렸다.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나의 시선은 각자가 내면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어떤 이에게는 의심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나에게 기적을 바랐던 병자들이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할 때, 조롱을 숨기려 하는 이들도 있었고, 나에 대한 증오와 나를 침묵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의도를 품은 마음들도 있었다.

38. 그들은 나의 진리에 상처를 받은 교만한 자들, 곧 바리새인들이었다. 왜냐하면 내 말씀이 그토록 분명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위안이 넘쳤음에도 – 그리고 항상 강력한 기적들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인간 예수로서만 판단하고, 내 삶을 파헤치며, 내 옷차림의 소박함과 물질적 소유의 절대적 결핍에만 주목함으로써 내 존재의 진실을 알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은 내 제자들까지 정죄하며, 그들이 말을 하든, 길에서 나를 따르든, 식탁에 앉든 간에 그들을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때, 제자들이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청결을 영혼의 순결과 혼동한 가련한 자들이여! 그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빵을 만질 때, 손은 깨끗할지 몰라도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9. 내가 이 세상에 계셔서 설교하던 동안, 나는 제자들이 이미 스승이 되었다거나 *그들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그들은 아직 제자들에 불과했으며, 내 말씀의 빛에 매료되어 기꺼이 나를 따랐지만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그들이 변화하여 나중에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성한 사랑의 끌로 다듬어지고 있던 바위 조각들이었으며, 훗날 그들도 돌을 다이아몬드로 변모시킬 수 있게 될 것이었다.

40. 내가 너희에게 내 제자들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할 때, 내가 군중에게 말씀하셨던 그 때를 떠올려 보라.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손이나 품에 안고 있는 몇몇 여성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나를 방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내 말씀이 오직 어른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기에 그 어머니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라고 말한 실수를 저질렀던 그 때를 떠올려 보라. 그들은 내 말씀이 노인이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영을 위한 것이며, 성별은 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1.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다가갔던 그 어머니들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그리고 제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며 내가 내 말씀 속에서 흘러넘치게 한 자비와 사랑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고 말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다.

42. 나는 그 실수들을 이용하여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내가 감람동에서 체포되었을 때,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나를 변호하려다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베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니라."

43. 나는 제자들과 헤어졌고, 그 후 그들은 내 자리를 대신하여 그들의 행실과 말로 증언하기 위해 남았다. 나의 영은 그들에게 빛을 넘치게 부어 주었고, 세상에 나의 씨앗을 퍼뜨리고 사랑과 겸손, 고양의 본보기로 남을 모든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아이들이 아니었고, 불타는 제자로 변모하여 지상에서 스승의 합당한 대리자가 되었다. 소심함과 의심, 그리고 오류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드러내는 진리 앞에 물러났다.

44. 사랑하는 백성아, 너 또한 이 시기에 내가 계시를 전하는 동안 실수를 저질렀고, 연약함을 보였으며, 유혹에 빠지기도 했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계시를 잠시 중단하고,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며, 강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이다. 너희 또한 땅에 남아 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너희의 행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5. 그러나 너희의 사명이 고되고 고통스러울지 여부는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어렵거나 힘들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46. 여러분은 어느새 미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진리에 대해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47. 너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여러 번 기적을 행해 왔음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너희 내면의 영성이 온전히 꽃피게 되면, 너희의 행적은 더욱 위대해질 것임을 기억하라.

48. 나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본보기의 중요성을 아직 그다지 크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본다. 너희는 너희의 말과 기도, 그리고 행실 속에 깃든 힘에 대해 명확히 깨닫고자 하지 않았다.

49. 나는 너희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씨앗을 아는 유일한 분이며, 그 씨앗들이 시들지 않도록 생명과 사랑의 이슬을 너희의 씨앗 위에 내리도록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막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너희 행위의 진실을 믿어야 한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는 눈들이 항상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그 시선들이 언제나 내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본보기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50. 너희의 여정에서 무지의 눈가리개가 많이 벗겨졌다. 너희의 말을 통해 많은 동료들이 악의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가 보여준 평화로운 모범 덕분에, 불화의 회오리에 휩쓸렸던 많은 가정이 다시 화합을 되찾았다. 많은 병자들이 너희가 그들에게 쏟아부은 치유의 향유를 고통 속에서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며, 너희는 또한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 맞서 많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다.

51. 그런데도 왜 너희는 너희의 행위에 그 본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가?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도, 널리 알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 단지 내가 내 자비를 쏟아붓는 모든 경우에서, 너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빛이 이웃들의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뿌린 씨앗을 내버려 둘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2. 사랑하는 씨 뿌리는 이들이여! 세상에 내 평화를 전하라. 그 안에는 나의 사랑과 자비, 진리, 그리고 치유의 향유가 담겨 있다! 기도와 생각, 말과 시선, 다정한 손길, 너희의 온 존재 속에 이 치유의 향유를 간직하라. 그리고 분명히 말하노니, 땅 위에서 너희가 행하는 영적인 일만이 너희에게 풍성한 만족을 줄 것이며, 결코 쓰라리지 않을 것이다.

53. 머지않아 나는 더 이상 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힘과 빛으로 가득 찬 채 너희 곁에 남겨둘 것이니, 내가 너희를 마치 늑대들 사이의 양처럼 내버려 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54. 내 말씀이 멎는다고 해서 너희가 냉담해져서는 안 되며, 이러한 계시가 중단된다고 해서 너희가 서로 멀어지면 안 된다. – 오히려 그 때일수록 너희는 더욱 단결하여, 투쟁과 시련에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5.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때는 아직 멀었다.

56. 현재 너희는 서로를 보고 듣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현재 너희는 서로에게 온기와 힘,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57. 나는 너희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계속 모여서, 너희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 너희 모임 속에서 나의 영적 임재를 증언할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한 번 굳건해지고, 결심이 성숙해지며, 영과 영으로 나를 찾고 영접하는 데 익숙해지면, 너희는 영혼을 해방시키고 고양시키는 이 가르침의 씨 뿌리는 자로서 다양한 길로 흩어질 준비가 될 것이다.

58. 나는 언제나 너희의 모임에 임할 것이며, 그 안에서 모든 이성의 기관에 나의 영감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 날들에도, 내 광선이 내려오기를 기다릴 때 지금 너희를 사로잡는 것과 같은

감동을 계속해서 느끼며 이 가르침을 전파하는 마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59. 나는 너희의 모임이 평화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의 묵상이 깊어지고, 내 말씀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 그러나 그 자리에서 결코 다툼이나 격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오직 어둠만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0. 나는 너희에게 모든 유혹의 문을 잠글 보이지 않는 열쇠를 주겠다. 그러나 동시에 영감의 문을 열어 주겠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의 전달자들을 통한 이 계시는 오직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기에, 바로 그때 제3시대의 계시가 풍성하게 너희에게 쏟아질 것임을 항상 명심하라.

61. 영성화, 내면의 집중, 그리고 사고의 고양이 바로 새로운 계시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며, 그 빛 속에서 너희는 모든 비밀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62. 너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들은 곧 새로운 제자, 즉 "마지막 자들"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너희의 마음은 타인의 고통에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 지친 자, 영적으로 굶주린 자,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자비가 가장 크도록 해야 한다.

63. 너희는 너희의 모임이 영적인 힘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힘은 이 시대에 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처럼, 너희의 이웃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64. 그 모임에서 너희가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이웃들의 사정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받아들일 때마다, 너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에게 위로와 육체적·영적 건강이 쏟아지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그들을 참된 삶으로 이끌어 올리는 빛이 비치는 것을 느낄 것이다.

65. 내 임재에 대한 그 모든 증거를 마주할 때, 너희 마음은 현재의 시기가 끝나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말씀을 글로 기록해 두었기에, 이를 가장 철저히 준비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66. 내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맑은 안목과 진실한 말을 가진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더 영적인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심어 놓은 치유의

힘은 먼저 병자의 영혼에 닿아, 쓰러진 육신을 일으키도록 자극하고, 영혼이 고통과 정욕을 극복하여 진정한 자유를 되찾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67. 너희의 모든 일은 겸손하고 은밀해야 하며, 누구도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허영심이 싹트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영과 영 사이의 대화라는 기적을 목격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단계가 일단 끝나면 너희가 실천하기 시작해야 할 일이다.

68. 내가 계시의 마지막 날들 동안, 계시와 정수, 가르침으로 가득 찬 내 말씀으로 너희가 — 이를 듣기 위해 — 기울인 준비를 보상해 주었듯이, 너희가 영과 영의 대화를 나누는 날들에는 영감을 통해,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 예언들을 통해 너희의 승화를 보상해 줄 것이다.

69. 제자들의 열정과 경외심, 순종은 영적인 은혜로 보상받을 것이다.

70.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예고했는지 묻기 위해 찾아올 것이며, 그때 너희는 나의 말씀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러나 내 가르침 중 일부나 많은 부분이 너희 기억에서 지워진다면, 너희는 현재 '황금 깃펜'이라 불리는 제자들에게 내 영감이 받아 적게 한 그 책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71. 이 책은 내 말씀이 모든 이를 위해 있었듯이, 예외 없이 그리고 특권 없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가르침은 소수의 마음속에 묻히지 않고 영원히 그 빛을 비출 것이다.

72. 나는 이미 지금 이 백성에게, 곧 소유하게 될 이 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당부한다. 그 교훈들이 망각 속에 묻히지 않도록, 그 책의 페이지들이 닫혀 있지 않도록 하라. 앞으로 닥칠 투쟁의 날들에, 너희는 이 교훈들 속에서 전투에 필요한 무기와, 인류가 너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답변, 그리고 너희가 직면한 시련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73. 이 책은 기억력이 약한 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말솜씨가 서툰 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오직 그의 의도가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가 내 말씀을 되풀이하는 순간에 소리 내어 읽을 때 내 존재를 느끼게 하고, 목소리를 통해 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도 그 존재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러한 형태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너희의 증언이 순수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과 마음이 굳은 자들조차도 떨게 될 것이다.

74. 이미 지금부터 나는 너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이 권고들을 너희에게 남긴다.

75. 내가 떠난 후에도 단합을 유지하고, 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며 숙고하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싸움에 맞설 만큼 강해질 때가 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6.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 위해, 그 시간이나 날짜를 누구에게도 묻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는 과거의 선지자들이 내면의 신성한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그 충동에 순종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떠났던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서 내가 정하신 시기를 느낄 것이다.

77. 그 날들에는 예언자들의 임무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백성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깨우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들의 책임은 매우 클 것이다. 내 빛의 명료함이 항상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들은 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결코 허영에 현혹되거나 거짓말에 유혹되어 넘어가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78. 또한 세상에는 너희가 출발할 때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표징이나 단서가 될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79. 그때 너희는 무엇을 알지 못하게 되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겠느냐? 너희가 대답할 줄 모르는 질문들이 너희에게 던져질 수 있겠느냐?

80. 내가 너희 삶에서 가장 심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과 나의 모든 사역을 소박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었으니, 너희도 이웃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그와 같은 소박함으로 설명해야 한다.

81. 그러면 너희는 약한 자들과 빛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보루가 될 것이며, 그들은 너희의 조언을 구하고 시련의 순간에 너희의 기도를 청할 것이다.

82. 이 백성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할 줄 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활동의 시간이 될 것이며, 모든 은사를 풍성히 누리게 될 너희 영혼에게는 빛으로 가득 찬 기회가 될 것이다.

83. 너희는 얼마나 많은 회심의 사례를 목격하게 될까! 육체나 영혼이 병든 이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까! 그전까지 천민처럼 살아왔던 너희 동료들이, 너희가 에서 그들의 본성 속에서 발견하도록 가르쳐 준 은사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는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자신들이 상속권을 박탈당했다고 여겼던 이들도, 여러분의 은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나의 상속자임을,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결코 다시 빼앗지 않을 것임을, 비록 나의 완전한 사랑의 법칙에 따라 때때로 그것을 보류하더라도, 확인해 줄 것입니다.

84. 내 말씀이 여러분이 확고한 발걸음으로 행동의 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성화와 겸손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85. 이제야말로 너희가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인류는 이미 깨어날 시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86. 나는 너희가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남겨두겠다. 너희는 지상의 모든 민족을 뒤흔들 큰 사건들의 목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전쟁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와 교리 간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기근과 전염병, 죽음이 국가와 도시를 황폐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한 시대, 한 시기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너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수세기 동안 적대 관계로 살아온 민족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족과 인종 간의 화해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 화해가 굳건히 다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종교 공동체의 세속적 권력이 사라지고, 곳곳에서 영성화의 결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자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는 위대한 대변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정의와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항상 박해받거나 모욕당해 온 사람들은 지평선 너머로 자유와 정의의 태양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87. 이때야말로 인류의 영적 진보가 온전히 드러나고, 인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적 삶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체감되는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다.

88. 오직 이 세상만을 사랑해 온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참된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주범들이 종종 진리를 부정했던 자신들의 책을 불에 던져버릴 때, 바로 그때 물질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89. 누구에게도 나의 빛을 거절할 수 없는 나는, 모든 이에게 그 빛을 주며, 이를 통해 지혜와 영원, 그리고 고양으로의 초대로서 지성 기관의 문을 영감에 열어줄 것이다.

90. 오, 제자들이여, 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여, 그 어떤 부분이라도 퇴보나 후퇴, 정체, 혹은 혼란을 의미하는지 말하라.

91. 내 말씀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완전하다면, 그것을 너희 영혼에 훼손될 수 없게 새겨 두어, 너희의 모든 행동에서 영성이 드러나게 하라.

92. 나의 말씀은 내 뜻에 따라 너희 마음속에 세워질 왕국을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그것이 너희 삶을 비추고, 그 빛이 가정과 부모, 결혼 생활, 자녀, 그리고 이웃에게 미치게 하여, 통치자들은 너그러워지고, 교사들은 지혜로워지며, 재판관들은 공의로워지게 하리라.

93.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고 실현하기만을 추구하는 그 어떤 학문과도 이 가르침이 뒤섞이게 두지 말라.

94. 나는 나의 가르침을 영성주의라고 불렀다. 이는 영혼의 승화를 가르치며, 인간이 완전해지기 위해 지닌 모든 은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95. 지금까지 이 가르침의 진정한 본질을 짐작하는 이들이 얼마나 적은가! 나를 서서히 이해해 가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너희 대다수가 여전히 너희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전통과 관습에 빠져 있는 것을 본다.

96. 너희가 내 사역 안에서 만들어 온 이러한 습관, 전통, 그리고 행위들을 버려야 할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너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전통을 따르기 위해 내 율법의 진정한 성취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자 하지 않는다.

97. 외형적인 신 숭배가 모든 시대에 걸쳐 인류의 영적 정체 원인이 되어 왔음을 깨달아라. 그러나 너희는 다시는 이 실수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영적으로 진보하고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숭배가 내면적이고, 순수하며, 깊고, 영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98. 나는 내 백성을 지혜와 정의로 시험하여 무지나 오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광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며, 또한 그 때문에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99.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를 전파하며, 나의 말씀을 알리고, 자비를 베풀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즉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너희는 외적인 예배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가 모이는 예배당에서도, 너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100. 명심하라. 너희가 진정한 영성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한, 너희의 기도는 이웃들에게 실감 나게 전달될 만한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101. 이 말 때문에, 스스로를 충분히 순수하다고 여겨 이웃을 심판하려는 자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쪽이든 다른 쪽이든 그들의 행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뿐이다.

102. 비록 너희가 형제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을 목격해야 할 때가 온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오직 나만이 영혼의 순결함이나 불순함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판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좋은 조언을 해 주고, 이웃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면,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 길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가 내 계명을 꾸준히 지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103. 깨어 기도하여, 너희가 하나 되고 평화로워지도록 하라. 너희는 이미 내 말씀의 마지막 날들에 들어섰으니, 마지막 날이 올 때 내가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104. 나는 너희 형제자매 중 누구도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나를 거의 듣지 못한 이들은 약할 수 있음을 깨달아라. 그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라. 나를 자주 들은 이들 중에서도 확고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는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그들에게 따뜻함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105. 오, 백성들아, 너희가 일단 하나가 되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너희의 영혼을 생각의 날개로 평화의 비둘기로 변모시켜 열방으로 보낼 것이다.

106. 너희 기도의 결과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지 말라. 때로는 조금 기다려야 할 것이고,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며, 가끔은 너희가 내게 구한 것이 실현되는 것을 조차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의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107. 너희는 평화의 씨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때가 되기 전에 수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며, 그 후에야 비로소 수확을 거두고 너희 영혼이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한다.

108. 제자들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너희 형제자매 중 한 명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라. 내가 그를 나의 도구로 변화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내 능력이 서툰 피조물을 영적으로 모든 이에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키고, 또한 죄인을 순수한 마음과 지성을 지닌 존재로 변화시켜 내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너희가 목격하게 하려 함이니라.

109. 나는 또한 너희가 그들을 발전시키고 온전하게 하도록 내 음성 전달자들을 너희에게 맡겼노라. 그리고 이제, 나의 계시가 끝나는 이 마지막 날들에, 음성 전달자들을 고양시킬 수 있었던 교회들은 인내와 사랑으로 돌보아 온 성숙한 열매가 주는 영적인 "맛"을 누리고 있노라.

110. 모든 이가 이를 실천하는 법을 알지는 못하였으니, 그들 중 많은 이가 대변자들을 소홀히 여기고 버려두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배려나 자비 없이 그들의 생명력을 빼앗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잘라버렸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종 단맛 대신 쓴맛을 느꼈던 이유이며, 그로 인해 '음성의 매개체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간주하거나, '음성의 매개체의 불순물, 물질화, 불완전함'을 나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많은 오류가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너희가 밀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즉, 너희가 이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내 말씀에 섞여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111. 왜 내가 그토록 많은 대변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냈는지 묻는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전 예수님 때처럼 오셨더라면, 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나의 계시는 소박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나의 메시지는 매우 방대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인간 지성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었고, 필요한 만큼 많은 수가 필요했을 수밖에 없었다.

112. 내 계시의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말했던 로케 로하스부터, 이 시대에 내가 첫 말씀을 전했던 다미아나 오비에도를 거쳐, 마지막 대변인들에 이르기까지 – 그들 각자는 내 사역의 일부만을 전했을 뿐, 내 메시지 전체를 전한 것은 아니다.

113.예를 들어, 나는 로케 로하스를 통해 인류에게 제3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너희에게 알렸다. 나는 여섯 번째 봉인이 열렸음을

너희에게 계시하였으니, 그 안에는 그의 지혜와 심판, 은사들, 그리고 수많은 옛 예언들의 성취가 담겨 있어, 모든 영과 모든 육체에 그 빛을 쏟아 부으려 함이다.

114. "표징" 또는 "표식"의 비밀은 그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 알려졌으며, 그는 제3시대의 선택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를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115. 그 후 다미아나를 통해 내 오심의 목적, 즉 각 제자가 내면에 지닌 은사들과 내 계시가 끝날 날짜가 너희에게 계시되었다. 그 입술을 통해 이 시대에 내 영이 전한 말씀이 나왔으며, 그것은 첫 제자들을 위한 단순한 가르침과 작은 비유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그러나 영적인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전해졌는데, 그것은 슬픔에 잠긴 모든 마음을 위한 무한한 다정함과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116. 로케와 다미아나에게 있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이자 약속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을 뒤따른 음성 전달자들은 음성 전달자의 사명에 담긴 신비를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고, 이를 통해 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고, 나의 사역이 뚜렷한 형태를 갖추며, 신비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117.내 선택받은 자들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는가! 중재를 통해 나를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어둠에서 구원받았는가!

118.나는 스스로 준비하며 내 사역에 헌신한 나의 대변자들을 축복한다.

119.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내 자녀들이 대변자들의 영성 부족으로 인해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부인하였노라. 나는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오점을 씻어낼 기회를 주노라.

120.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계시의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여, 너희가 영에서 영으로 이어지는 내 계시의 새로운 단계를 확고한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57

1. 오늘, 한 청년과 한 처녀가 내 앞에 서서, 그들의 결합이 나의 사랑으로 축복받고 확증되기를 간구하러 왔다.

2.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맞이한다, 나의 자녀들아 – 단지 이 순간에만 아니라, 너희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고, 나도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3. 너희는 너희의 결합을 축하하러 왔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명에 의해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합, 즉 결혼을 증언하는 의식을 거행하여, 그것이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4. 너희는 단순히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다정한 어루만짐과 조언,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온 것이다.

5. 너희는 두 영혼, 두 마음으로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존재와 하나의 뜻을 이루었다. 너희는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에 있다가 지구로 내려왔으니, 먼저 한 사람이 왔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으며, 이 전환의 과정에서 너희의 사랑과 인내심이 시험을 받았으나 나에게 변함없이 충실했다. 너희는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약속을 지켰다.

6. 너희는 너희 주님의 면전에 서 있다. 주님께서는 너희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격려하시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이

어려운 사명을 통해, 내가 인간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숭고한 것을 성취하게 하신다.

7. 너희는 이제 이상 실현을 위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생명—운명에 대한 포기 및 순종—의 이 기관에 들어선다.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길 위에서 확고히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빛을 갈망하며 나아오니, 내가 그 빛을 너희에게 풍성히 쏟아 부으리라.

8. 이여, 남자여: 내가 지상의 첫 번째 남자에게 허락했던 능력들을, 나도 너에게 주었노라. 재능과 의지, 에너지 – 또한 힘과 생명, 그리고 씨앗을 말이다. 너는 오른손에 상징적으로 검을,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다. 왜냐하면 지상의 삶은 너희 남성들에게 싸움에 나서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며, 그 싸움에서 너희는 병사이자 평화와 정의, 미덕의 수호자, 인류의 수호자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싸움의 병사로 삼고, 너희 왼쪽, 심장 가까이 처녀를 세워 주겠다. 그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가꾸는 사랑스러운 정원의 꽃 중 하나입니다. 그 정원은 인간의 정욕이 탐내는 쾌락의 정원이기도 한데, 신성한 어머니 마리아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녀의 동정심과 순결함이라는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물로 가꾸어 주십니다.

9. 너는 이 꽃을 겸손히 나에게 청하였고, 나는 그것을 사랑으로 네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이 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

너희는 부모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너희는 부모 곁을 떠나 삶의 투쟁이라는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도 때가 되면 너희 곁을 떠나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부모의 집을 떠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남자의 마음 곁에 남는 것은 오직 그의 배우자뿐일 것이다. 그가 선택한 그 여자, 그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며, 오직 죽음만이 그와의 결합을 끊을 수 있는 그 여자 말이다.

10. 너희를 하나로 묶고 너희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나의 사랑의 말씀이다.

11. 고개를 들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며, 서로에게 지팡이가 되어 주라!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스러운 망토가 되어라, 내가 너희 둘에게 말하노라. 영적으로 너희 둘은 동등하며, 영 안에는 성별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둘 중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러나 일단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나는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첫 번째 자리에 두었다.

12. 남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영혼에게 부과하는 시련이다. 여자가 되는 것은 영혼에게 마찬가지로 속죄이다.

13. 남자에게는 힘이 있으며, 그는 이 힘을 항상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 섬세함과 감수성을 지니고 창조된 여성 안에는 사랑과 희생이 깃들어 있으며,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한다. 이 결합, 즉 영혼과 육체의 교감에서 생명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솟아난다. 이 씨앗과 비옥한 땅에서 끝없이 싹트는 씨앗이 돋아난다.

14.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나의 주님의 팔과 신성한 입맞춤으로 너희를 하나로 묶어 주리라. 너희가 영적인 준비와 경외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으므로, 나는 너희를 이 백성 가운데 모범으로 남겨 두리라.

15. 이 백성은 너희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나는 그들을 너희에게 책임을 지게 하리라. 나는 그들이 이 순간 고양된 마음으로 너희의 길에 행복을 뿌리고, 너희의 미소와 평화를 볼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내가 너희를 축복하듯이 너희가 번성할 때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16. 너희의 언약을 확증한 것은 성직자의 손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법, 곧 나의 사랑이었다. 내가 너희를 성취의 길로 인도하며, 너희의 생애가 끝날 때 너희는 주님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너희는 다시금 이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희 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영혼의 길을 제시해 주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목적지에 도달했으니, 우리의 업적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거기서 나는 너희가 주님을 뵙도록, 산 정상에 있는 나의 거처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나는 그 순간 너희를 맞이하여 나의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리라.

17. 오늘 나는 너희에게 씨앗 하나를 주겠지만, 내일 너희는 그것을 배가시켜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일이 내게 기쁨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너희 마음이 너희를 기쁘게 하고 만족감을 줄 때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께서도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따뜻함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그 덕과 인내를 항상 간직하며, 덕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권고하십니다.

18.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하나로 묶어 주노라.

19. 백성들아, 이것이 인간을 통해 전하는 나의 마지막 계시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 결혼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합니까?”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대답하리라. 너희 교회의 품 안에서 거행하라. 이 가르침의 사도로 준비된 이들 앞에서 결합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결합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임무를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운명의 주님이시다. 나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의 생애의 결속은 영원한 책에 지워지지 않게 기록될 것이다.

20.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 사랑과 자기 부인과 희생의 길을 걷기 위해 결합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너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의 가르침을 낭독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나의 말씀을 통해 그 결심에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너희의 발걸음은 확고해질 것이다.

21. 나는 너희가 이러한 소박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만족과 기쁨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이들을 복된 자라 칭한다. 그들은 삶의 여정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다양한 종교 공동체에 속한 너희의 동료들이 모여들 것이며, 어떤 이들은 이 영적 행위의 진실성을 이해할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이에 대해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덕스러운 행실로 너희가 나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을 증명할 것이며, 너희의 결합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23. 나는 오늘 너희에게, 이 의식을 거행하는 순간은 단지 너희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너희는 이미 그 이전에 서로 만나기로 정해져 있었으며, 너희 사이에는 이미 끌림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결혼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가족과 친구들, 부모님 앞에서 이 의식을 거행하도록 허락하며 명령한다.

24. 아직 인간의 깨달음과 직관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거룩한 언약 속에 결합된다는 사실을, 비록 민사관이나 성직자에 의해 결합되지 않았더라도, 인식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 그러나 그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날 때 그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정하신 때를 깨닫고, 확신과 안정을 가지고 결혼의 결합을 맺을 준비를 할 것이며, 사회는 그들이 제단 앞에서 성직자에 의해 축복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가 올 것이나,

우선 세상이 영적으로 발전해 가는 동안에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행하라.

25. 제2의 시대에 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혼한 많은 부부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내가 그들 중 많은 이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느냐? 다투며 평화와 사랑, 신뢰의 씨앗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과 식탁, 그리고 침상에서 적대감과 불화를 보았다. 또한 나는 – 법에 의해 결혼 생활이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 서로 사랑하며, 마치 둥지 속의 종달새처럼 함께 살며, 그들의 작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루만지고 보호하는 많은 이들의 집에도 들어갔다.

26.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의 형벌이나 인간의 법, 혹은 사회의 판단을 두려워하여 그 분열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이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교제도, 진실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위의 유대감을 과시하며, 가족과 교회를 방문하고 산책을 즐기는데,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숨기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반면, 서로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숨어 지내며 진정한 유대감을 감추고, 타인의 무지와 불의를 견뎌내야만 한다.

27. 인간은 이웃의 삶을 꿰뚫어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영적 및 세속적 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례들을 처벌하기 위해 진정한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고하는, 인류가 완성될 그 이해와 통찰의 시대가 올 것이며, 그때 너희는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와 같이, 사랑하는 이들의 결합이 오늘 내가 내 자녀들에게 행한 것처럼, 즉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그 미래의 시대에 그렇게 할 것이다. 결합할 이들의 부모와 친구들,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극한 영성과 형제애, 그리고 기쁨 속에서 말이다.

28. 평화와 선의를 지닌 사람들이 지상에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되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제도가 꽃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나의 법들은 너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평화와 화합, 그리고 번영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며, 이는 너희의 문명이나 과학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간이 고양과 사랑, 자비가 부족하여 자기 수양에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자연의 수많은 비밀을 밝혀냈다면

– 그가 나에게로 나아가, 내가 그에게 비밀을 드러내 주고 그의 본성을 깨우쳐 주어 위대하고 자비로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면, 얼마나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나의 지혜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므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빛과 구원, 그리고 번영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리라.

29. 나는 내 보편적 광선의 빛으로 너희를 감싸주노라. 그 빛은 내려와 너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그곳에 거처와 성전을 세우노라. 그 안에서 나는 너희의 헌물, 곧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바치는 예물을 받아들이며, 내 뜻에 대한 간구이자 동시에 순종인 너희의 목소리를 듣노라.

30. 너희가 겪고 있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적 고양 덕분에 강인함을 드러내며, 나의 제자가 된 것을 행복하게 여긴다. 너희는 거대한 영적·세속적 투쟁에 휘말려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이 투쟁을 통해 정해진 때에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라.

너희가 안식을 취할 때, 땅에서의 너희 수고는 날마다 결실을 맺을 것이며, 너희가 내 율법을 온전히 이행하며 사명을 완수할 때, 너희의 영적 업적은 온전히 꽃피게 될 것이다.

31. 너희 영혼은 너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평화와 안식을 간구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쏟아내고 있다.

파멸과 절망, 죽음에 대한 소식이 너희 나라에 전해져, 너희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는 너희 자신의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너희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의 이웃인 다른 이들의 목숨을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의 간구를 들을 때, 그리고 이 나라들에 평화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연민을 느낀다.

32.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이 대륙의 중심부에 살고 있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이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보내기를 기뻐하였다. 이곳에는 눈부신 태양과 빛나는 하늘, 푸르름으로 뒤덮인 계곡과 산들, 아름답고 물이 풍부한 강들, 그리고 경이로운 꽃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지상 생활을 상쾌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 한가운데서 무자비한 전쟁이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비명, 탄식, 신성모독, 모욕이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서 전쟁의 기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오직 정의에 대한 순종과 인간의 악함에 대한 혐오만을 엿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모습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영혼을 준비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33. 오늘날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류는 전쟁에 휘말려 살고 있다. 인류는 평화의 씨앗을 가꾸려 하지 않았으나, 이 씨앗은 마치 광야의 만나처럼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언제나 내려올 것이다.

34. 나는 가족의 품에 지극히 고귀한 존재들을 육신으로 보내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인종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사명을 지닌 천사들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 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의 메시지를 의심하고, 박해하며, 죽여 버렸다.

35. 나는 인류가 태초부터 살육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다. 고대 페니키아와 시리아에서, 그리고 로마인과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했다. 그들 자신 사이에서도, 한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에서도 존중과 사랑,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강자가 약자를 일으켜 세운 적도 없었고, 권력자가 궁핍한 이에게 손을 내민 적도 없었다. 문명의 빛을 과시하던 자들은 어둠 속에 있던 민족들에게 사랑과 진정한 이상주의로 그 빛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의 정복은 언제나 폭력, 적대감, 권력 추구, 또는 불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 아버지께서 한쪽과 다른 쪽 모두에 무지가 만연해 있음을 보셨을 때, 나는 세계관과 관습이 서로 다른 민족들의 품으로 나의 예언자들과 선구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유일한 진리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하나이자 동일한 목표로 인도하게 하셨다. 그들은 오늘날 너희가 '제2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내가 오실 것을 알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내가 오실 때가 되자, 나는 그 충실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확증하였고, 모든 것이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36. 나의 가르침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그 민족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가장 초창기부터 큰 시련을 겪으며 정화되어 그 품 안에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맡긴 유언은 모든 인종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 민족 가운데서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며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법을 알았던 수많은 남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향 땅들과 유대 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서도, 나의 첫 제자들이 전한 나의 말씀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37. 그러나 이 "새로운 세상"에는, 나를 열렬히 사랑하고 찾으며 나에게 그들의 선물과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살아야만 했고, 그곳에 빛이 비추어져야 했으며, 나의 사랑의 메시지와 가르침이 전해져야만 했다. 그 가르침은 오직 너희가 서로를 나 안에서 사랑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38. 나는 나를 사랑했던 그 피조물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바친 불완전한 경배를 받아들였다. 나중에 두 대륙 사이의 거리가 극복되고, 씨앗이 이곳으로 옮겨져 이 새로운 세상에 뿌려지고 그 주민들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 심어졌을 때 – 나를 제자라고 자칭하던 자들은, 순진한 마음과 고귀한 영혼을 지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의와 폭력을 가했는가!

39. 그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예배 행위와 관습은,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겼으나 실은 지극한 후진성을 드러낸 자들의 비난과 가혹함만을 받았을 뿐이다. 이 백성은 충실한 제자들을 통해 서서히 나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그 신성한 순수함과 기원을 이해하게 되었다.

40. 오늘 나는 너희가 다시 위협받고 있음을 본다. 너희의 유산을 탐내고 너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강대한 민족들에 둘러싸여 있다. 너희는 아직 영광의 정점에 이르지 못했으나,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빛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며, 기도하고 너희의 유산을 지키라고 당부한다.

41.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와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의 유산을 전한다. 나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거센 폭풍에 휘둘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삭이 자연의 힘에 의해 뜯겨 나가더라도, 알갱이들은 땅속으로 떨어져 다시 싹을 틔우고 끊임없이 번성할 것이다.

42. 너희가 모든 형태의 평화와 선을 사랑하는 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들 앞에 횃불이 될 것이다. 이미 너희 가운데 평화의 사도가 될 이들이 있다. 나는 그 빛이 그들의 말과 가르침 속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켰다. 그러면 영적으로 활동하는 너희는, 이 백성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통치자들과 함께, 평화와 진리,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너희의 선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3. 빛은 상징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둘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문명, 인종들이 그러하듯 하나의 것으로 융합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너희는 빛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신성한 영으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온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44.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한다. 그러나 율법의 곧고 좁은 길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다.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재능,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내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언제나 선과 자비와 분별력을 촉구하는 길이다. 너희는 큰 시련에 짓눌려 그 무게 아래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로움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것이니, 오직 선함만이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45. 너희가 어떤 민족을 위해 평화를 갈망한다면, 그들에게 직접 갈 필요는 없다. 너희 마음속이나 너희 가정에 평화를 이루라. 이것만으로도 그 민족의 영에 화합과 일치를 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46. 선과 악은 모두 멀리서도 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준비된 마음으로 도움을 주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전쟁을 부추기는 생각을 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떤 나라의 패배와 다른 나라의 승리를 바라지 마라. 그러한 영향은 전달되어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라.

47. 전쟁의 무자비함을 겪은 부상자들의 고통에 마음이 아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평화와 위로를 보내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환자를 찾아가 그 사람을 부재 중인 이들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기고 내 이름으로 그 안에 자비를 담아주라. 그러면 내가 그 고통에 잠긴 나라들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리라.

48. 너희의 집이 빛이 비추는 성전이 되어, 너희를 둘러싼 이들을 감싸고, 그 경계를 넘어 다른 이들도 안녕을 느끼며 너희가 준비한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

49. 머지않아 너희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인류가 이 사건을 되새기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평화롭게 살고 있는 민족들은 기쁨으로 이를 기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 나라들에는 환난의 시기가 닥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잠시나마 공포와 두려움을 잊고 내 영을 부르며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려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미 전쟁의 여파로 고아 신세가 되고 비참함에 빠졌으며, 온갖 형태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50. 나는 모든 이를 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며, 빛의 강이 이 인류 위에 비추어질 것이다.

51. 너희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내가 두 번의 강림 때 너희에게 드러낸 온전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서로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언제나 참된 정의의 옹호자이자 중재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통해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58

1. 이곳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곁에 머물기 위해 모이는 모든 곳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너희 모두에게 복이 있도다.

2. 내 대변자들의 입을 통해 내 가르침을 받아, 그 후에 영적 고요함 속에서 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순간들처럼 언제나 너희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이다.

3. 나는 어디에나 계시며, 온 우주와 나의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신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아버지의 가까움과 너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4. 나는 너희 마음속에 나의 성소를 두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열 수 있도록 열쇠를 주었다. 그러나 이는 너희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5.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의 일부인 영을 주었고,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육신을 주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생에서 겪어야 할 시련들을 극복하는 법을 안다면, 너희는 영적 해방을 이룰 것이다.

6. 첫 번째 시대에 나는 깨달은 영적 존재들에게 이 행성에 육신을 입고 예언자로서 인류에게 말하라는 사명을 주었다. 두 번째 시대에는 나의 큰 자비로 인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신성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사랑에 대해 말하기 위해 왔노라. 그리고 이제 제3의 시대에 나는 다시 한 번 – 영으로 와서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러 왔노라.

7. 인류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두 가지 극단에 빠져 왔습니다. 하나는 더 큰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물질주의였으나, 이는 실제로 영혼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해롭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또 다른 극단, 즉 '육체'를 죽이는 것, 이 생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로서 살게 하기 위함이며,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8. 나는 이 세상을, 그 모든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담아 너희를 위해 창조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인간의 몸 을 주었으니, 이를 통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

9.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선한 것을 스스로 거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는 육체를 영혼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육체는 덧없지만, 영혼은 영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10. 영혼의 완전함을 얻기 위해 힘써라, 힘써라. 나는 너희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나는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배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물질적 무기보다 우월한 '무기'인 기도를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가장 훌륭한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11. 기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기도는 간구, 중보, 경배, 그리고 영적 묵상이다. 기도의 모든 요소는 필수적이며, 하나는 다른 하나에서 비롯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구란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갈망을 충족시켜 달라고 청하는 것, 즉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내 자녀들아, 아버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익이 될 때마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의 구원에 반하는 것을 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오직 물질적 재물과 육체적 쾌락, 그리고 덧없는 권력을 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쇠사슬에 묶어두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육체적 쾌락은 오직 고통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로 넘어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적 욕망의 영향은 그곳까지 미치기 때문이며, 영혼이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갈망에 시달리게 되고, 환생하여 물질적인 삶을 계속하기 위해 거듭거듭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오직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

13. 두 번째 기도의 형태인 중보기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사랑이다. 가까운 형제자매와 먼 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이들,

이 세상의 덧없는 통치자들의 폭정을 견뎌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14. 오, 나의 자녀들아, 준비하라. 너희 이웃을 위해 기도하되, 이 중보기도에서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이다. 형제나 부모, 자녀가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것이 영혼이 필요로 하는 바가 아니라면 그들이 이 생에 머물도록 고집하지 말라. 차라리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고통 속에서 정화되기를, 그 고통이 영혼의 상향 발전을 촉진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므로 스승께서는 이미 제2시대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는 그 어떤 자녀보다도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15. 기도의 세 번째 유형인 신성한 영에 대한 숭배는, 온전한 모든 것에 대한 숭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온전함과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배를 통해 여러분은 모두 도달해야 할 완전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경배는 여러분을 영적 묵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영적 묵상은 경배와 함께, 영생의 근원이신 신성한 영과의 합일을 이루게 해 주며, 그 근원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왕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16.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간구 기도에서 시작하여 영적 묵상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17. 너희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단지 너희 자신을 위해 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이웃들이 이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너희는 오직 너희 자신만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분투해야 하기 때문이다.

18. 사람들은 외칩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 때문에, 의로운 자들은 죄인들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진실로, 내 자녀들아,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누구도 오로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이다.

19. 인간의 몸에서 나머지 장기가 병들었을 때, 건강하고 온전한 장기도 고통을 겪지 않겠느냐?

이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물질적인 비유이다.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형제자매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선한 자들 역시 완전히 무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각자는 자신만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내

영의 일부이자 그분과 닮았기 때문에, 모든 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지와 지성을 지니고 있다.

20. 태초부터 나는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나의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 왔으나,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지났고, 인간의 영적 영혼은 발전하여 성숙에 이르렀으며, 이제 영적 영혼으로서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심연과 파멸에 그토록 가까이 다가선 인류는 너희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21. 이것은 어둠과 빛 사이의 싸움, 마지막 싸움이며,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싸움이다. 현재 모든 어둠의 영들이 연합하고 있으며, 모든 빛의 영들은 그 힘에 맞서야 한다.

22. 나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을 품고 계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세속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목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류를 위해 싸우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힘써 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부터 가장 교양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에게* 부여하는 사명입니다.

영적 세계는 너희와 함께하며, 그 모든 이 *위에*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계시다. 바로 그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고통을 무한한 아픔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23.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이며, 너희 각자는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야 한다. 기도하라, 나의 자녀들아, 온 마음을 다해. 이 은혜로운 아침에 아버지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르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스스로 영성을 성취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이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24. 이미 너희가 인간의 도구를 통해 내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게 될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1950년 이후로, 너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25. 내가 오직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을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나는 길을 잃은 자들, 더러워진 자들, 즉 나의 자비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또한 내가 편애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치스럽게 사는 자를 편애하지도 않고, 가난하게 사는 자를 편애하지도 않는다. 나는 빛이 필요한 영혼, 즉 병든 자, 슬퍼하는 자, 굶주린 자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26. 나는 모든 이에게 나아가, 사랑이 가득한 정의의 가르침을 통해 빛과 위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샘에서 마시려고 다가오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실하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내 말씀에는 이 시대에 너희 세상이 가득 찬 거짓말이 없다!

27. 너희가 이 땅에서 의심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은, 너희 동료들이 너희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으나 ,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 점에 있어서는 너희 말이 옳다. 그렇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한 번의 실망에서 또 다른 실망으로 희생양으로 전락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세상을 지배하면서도, 참된 길로 이끄는 유일한 빛인 양심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28. 내게로 돌아오되, 이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없이 다가오라. 내게로 와서 내 말씀이 너희 영혼 속에 믿음의 빛을 다시 한 번 밝혀주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원한은 너희에게서 사라지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대신 삶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29. 내 빛이 모든 마음속에 스며들고, 민족을 이끌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이들이 양심이라 불리는 그 더 높은 빛으로부터 인도와 영감을 받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서로를 믿을 수 있을 것이며, 형제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빛이 모든 이 안에 있을 것이며, 내 빛 속에서 내 임재와 사랑의 정의가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30. 너희는 오늘날 영적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너희는 악을 선이라 부르며,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보는 듯 여기고, 본질적인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더 선호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도움을 주시는 나의 자비는 제때에 개입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멀어진 그 빛나는 진리의 길을 보여 줄 것이다.

31. 민족들은 전진하고 있으며, 그들의 과학적 지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사람들이 그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생명의 근원과 기원이 있는 *영적*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32. 그것은 인간의 과학이며,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병든 인류가 이해하는 방식의 학문입니다.

33. 그렇다면 그 지식은 그릇된 것이며, 그 과학은 나쁜 것이다. 너희는 그것으로 고통의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빛 대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민족들을 점점 더 파멸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34. 과학은 빛이며, 빛은 생명이고, 힘이며, 건강과 평화이다. 이것이 너희 과학의 결실인가? 아니, 인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의 빛이 너희 이성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너희의 행위는 결코 높고 영적인 기원을 가질 수 없으며, 결코 단순한 *인간의* 행위 이상일 수 없을 것이다.

35. 참된 지식, 즉 선에 대한 지식은 내 안에 있으며, 나를 위해 자신의 이성을 나의 계시를 간직할 보금자리로 바친 이들에게 그 지식을 불어넣는 이는 바로 나이다. 그들은 자기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발견과 계시에 바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빛의 길을 개척했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평화와 건강, 위로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한 업적을 이루었고, 다른 이들은 길을 닦은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들은 그들의 행실을 통해, 선과 사랑, 그리고 영혼의 고양이 승리의 열쇠였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을 행하고 평화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겠다는 이상을 품고 있다면, 너희는 내 보물창고의 가장 비밀스러운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부름을 거역할 수 있는 문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기적이고 오만한 목표에 이끌려 학문과 지식,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훔치고 강탈해야만 한다.

37. 이 모든 것에서 너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너희의 과학이 인류의 복지와 더 높은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보물창고의 문은 열려 있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삶의 무한한 비밀을 드러내 줄 것이다.

38. 너희는 너희의 복을 위해 얻은 것은 얼마나 적으며, 반대로 너희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훔친 것은 얼마나 많은가!

39.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아, 기도로 일어나 내 임재를 느끼라. 기도를 통해 내 신성한 영의 영향을 느끼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 말씀이 대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멈춰도 그들은 고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0. 사랑과 순결함으로 기도하며, 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고양시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나는 너희의 기도가 훌륭하든 불완전하든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간구를 귀담아듣지만, 나는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다. 나는 완전하며, 너희가 어떤 불완전함도 범하지 않도록 너희를 바로잡아 준다.

41. 사랑하는 백성아: 아버지께서는 지상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영역 안에서 완전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아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아직 영적인 영역 안에서 완전한 일을 내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물질화를 벗어던진 후에야 비로소 영적인 완전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백성아, 너희의 영은 더 높은 삶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내 얼굴을 보고 내 사랑 어린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과거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영생 속에서 누구가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42.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보내어 환생하게 한 이 육신의 껍질 안에서, 너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완전함을 꿈꾸며,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 힘써라. 너희의 사명은 인류에게 길을 닦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미덕, 가르침과 계시의 길을 닦는 것이다.

43. 선택받은 백성아, 너희의 사명은 인간의 영혼이 자신의 본성 안에서 창조주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44. 세 시대를 거치며 너희는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을 찾았으니, 이는 너희의 양심이 타오르는 횃불이 있는 빛나는 등대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연약했고, 이 길에서 영적 영광을 깨닫지 못했다. 허영과 오만이 너희 영혼을 지배했고, 너희는 너희의 은사를 오직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데만 사용했다. 너희가 속하지도 않는 왕국들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인이 되어 부를 소유하고, 하인을 두며, 작위를 얻었고, 다른 이들보다 우월함을 내세우며, 너희 아버지를 잊고, 너희의 사명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 후 세상조차도 너희에게 맞서 일어나 너희를 굴복시키고 정복해 버렸다. 하지만 이스라엘아, 네가 빠진 그 속박

속에서도 너는 나를 잊지 않았고, 준비의 시간을 활용하여 다시 나를 향한 길로 들어섰으며, 너희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45. 아버지께서는 왜 이러한 몰락을 허락하셨는가? 아버지께서는 왜 너희가 이 생의 모든 허영과 모든 궁핍, 그리고 거짓된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렇다, 나의 택함 받은 백성아, 나는 타락과 인간의 죄로 이루어진 탑이 내 앞에 우뚝 서는 것도 허락했다. 나는 내 창조물 안에서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큰 죄가 생겨나는 것도 허락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나에게 그 기원이 있지 않다. 나는 단지 너희 영혼이 경험을 쌓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실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 너희가 완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불완전한 것 또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죄가 존재하도록 허락했을 뿐이다.

46.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만하라! 나는 너희가 갇혀 있고, 사슬에 묶여 있으며, 고난과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도 너희는 나를 잊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너 자신을 믿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해방시키리라!"

47. 너희의 성장은 위대하고, 너희의 영혼은 위대하며 나를 알고 있다. 너희는 그 안에 진리와 진실함, 자비와 사랑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 은사들로 너희는 세상에 평화와 화합, 빛과 구원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48. 이 세상에서 누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여러 나라를 휩쓸고 있는 전쟁을 막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함을 기초로 하는 너희의 진정한 위대함이다. 축복받은 백성아, 결코 사랑의 말씀이나 진리를 세상의 돈과 바꾸지 말고, 아첨으로 자비의 행위를 훼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증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9. 이 제3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과 온유, 영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완전함의 길을 걸어가라. 축복받은 백성아,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 영혼에 부어주는 평화와 지혜, 가르침이 단지 너희가 그것을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나누고 전하며 인류에게 널리 퍼뜨려야 함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를 행할 사명자들이다.

50.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나의 천국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선을 행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었으며, 나의 말씀과 피와 눈물로 너희의 모든 오점을 씻어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내가 계신 삶의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싸우고 노력하기를 요구한다.

51. 백성아, 너희가 창조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깨달아라. 이것이 지구에 거주할 마지막 기회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남겨둔다면, 나는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리라 – 어떤 이들은 수확을 거두게 하고, 다른 이들은 시작된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 중 일부 는 더 이상 지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싸울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하리라.

52. 나는 너희에게 높은 저 너머의 위대한 교훈들을 계시해 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현재 너희를 영적인 삶, 즉 진정한 삶 –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삶 – 에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준비시키고, 길을 보여 주며, 문도 보여 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항상 길을 가르쳐 온 장자(長子)들이기 때문이며,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길을 보여 주었듯이, 너희도 높은 저 세상에서 그 길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영혼들을 진정한 평화로 이끄는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게 될 것이다.

53. 백성아: 너희가 기도하는 법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땅에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으며, 입술로 기도하거나 아름다운 기도의 말로 나를 부르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나에게로 향하고, 너희 영혼을 들어 올리면, 내가 언제나 내려와 너희로 하여금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너희의 회개와 생각, 고통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하며, 너희의 사랑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하리라.

54. 이것이 바로 내가 듣고 이해하는 언어, 즉 말 없는 진실과 성실의 언어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이다.

55.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너희는 나의 평화와 안식, 그리고 희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56. 내 말씀 안에는 불이 있으며, 이 불로 내가 잡초를 태워 없앤다.

57. "서로 사랑하라"! 너희 이웃이 숭배하는 거짓 신을 조롱하지 말라. 아무리 그 가르침이 그릇되었더라도, 이웃의 가르침을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를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희가 존중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와 말씀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이다. 일어나서 말하고, 이웃들을 설득하라. 말씀 속에는 치유와 사랑, 힘과 생명이 있다. 말씀 속에는 너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

58. 나의 말씀은 영원히 기록되어 남을 것이며, 너희는 이를 바탕으로 제3의 시대의 책, **제3의 성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엮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세 시대 모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지혜를 남기기 위해 "황금 깃펜"*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다.

** 이 용어는 신성한 계시에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을 속기로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을 지칭한다.*

59. 모세는 아버지께서 제1시대의 사건들을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두루마리에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신 첫 번째 "황금 깃펜"이었다. 모세는 여호와의 "황금 깃펜"이었다.

60. 제2시대의 나의 사도들과 후계자들 중에서 예수께서는 네 명의 "펜"을 두셨는데, 이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성한 스승의 "황금 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성경이 사랑과 깨달음, 영적 진보의 끈으로 제2성경과 통합되어야 할 때가 이르자, 그것들은 하나의 책으로 합쳐졌습니다.

61. 이제 너희가 다시 내 말씀을 갖게 된 제3의 시대에, 나는 그 말씀이 글로 남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황금 붓"들을 임명하였다.

때가 되면, 너희는 단 한 권의 책을 엮게 될 것이며, 이 '제3의 시대'의 책은 – 그 때가 되면 – '제2의 시대'와 '제1의 시대'의 책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그때 세 시대의 계시, 예언, 그리고 말씀들로부터 모든 영혼의 유익을 위한 '생명의 **위대한 책***'**이** 탄생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첫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진리와 영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모든 예언이 인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미리 정해진 역사의 흐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된 생명의 책』 제85장 24절의 해설문: "너희는 이 (현재 집필 중인) 유언서나 책이 이전의 것들과 통합되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책에 세 시대의 계시와 가르침을 통합하여, 그 본질만을 추출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62.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그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 것이다.

63. 나는 나의 새로운 선택받은 자들에게 모세와 제2시대의 네 제자가 받았던 것과 같은 충분한 준비를 베풀어 주었으니, 이는 나의 말씀이 완전한 순수함과 명료함, 그리고 진리 속에서 기록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그 책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삭제하려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64. 자,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편찬하기 시작한 이 책을 누가 중요하게 여기겠느냐? 진실로 –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인류가 갈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너희의 책을 요청할 때가 올 것이며, 그때 그들은 깨어나 나의 말씀을 탐구하고 토론할 것이다. 그 사상적 논쟁 속에서 과학자, 신학자, 철학자 등 여러 진영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 말씀의 증거와 지혜의 책이 열방에 전해질 것이며, 모든 이가 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전투, 즉 말과 사상과 이념의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나, 결국 모든 이가 진리와 영 안에서 '생명의 위대한 책'이 주님께서 쓰신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나의 뜻대로 형제처럼 서로를 껴안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65. 왜 첫 번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만으로는 세상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를 이루지 못했는가? 왜 이 시대에 내가 1866년부터 내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기에 충분하지 않았는가?

66.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세 권의 책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그러면 인류는 그 빛을 따르게 될 것이며, 바벨의 저주는 해제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참된 생명의 위대한 책'을 읽고, 모두 같은 가르침을 따르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59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뻐하며, 이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는 길로 나아가 나와 대화하라. 평화로운 날에도, 시련의 날에도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만 시련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 시기는 나의 계시를 해석할 줄 아는 이들에게 영적 지평을 넓히고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고, 받은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토록 안전함을 느끼고, 신념이 그토록 확고해졌으며, 또한 그토록 사랑받았기에, 이제 오직 자신의 보물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기억하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자녀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나의 가족이며, 비록 소수만이 인간을 통해 나의 계시를 직접 목격했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나로부터 빛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3. 모든 사람은 나와 만날 약속이 있으며, 너희 모두는 내게로 올 것이다.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이들이 다가올 것이다. 그들은 반항심과 허세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굽힌 마음으로 내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그들의 겸손과 자기 성찰을 이유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4. 내가 모든 이를 부르실 그 때에, 고집 센 자들은 순종하게 될 것이며, 마음이 굳은 자들은 감수성이 풍부해질 것이며, 교만한 자들은 참된 순종으로 몸을 굽히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모든 이를 가르치시고,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우치고 축복하실 것이며, 그들의 영혼에서 아버지이자 창조주를 향한 하나의 기도, 단 하나의 사랑의 노래가 솟아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들에는 큰 덕을 지닌 영혼들이 이 행성에 들어올 것이며, 이미 이곳에서 회심한 이들은 완전함에 대한 큰 열망을 품고 다른 영적 고향으로 떠날 것이다.

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을 따랐던 너희는, 이 대변자들이 침묵하고 더 이상 내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느낄 것이며, 너희 내면의 성전에 나를 모시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계속해서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통해 나의 인도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6. 1950년 이후 이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해 너희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며 말하노니, 인류가 현재 마시고 있는 그 쓰라린 잔의 바닥에는 아직 찌꺼기가 남아 있으며,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인류의 속죄가 끝날 때 그 잔은 그들로부터 치워질 것이며, 기쁨의 새로운 잔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7. 영적 세계는 사람들의 삶과 완성을 지켜보는 세심한 수호자로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

8.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 끝난 후에도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계속해서 나의 말씀을 연구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인류를 돕고 보호하는 하나의 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9. 신성한 어머니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다정한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게는 보호의 망토가 되시며, 병자와 무력한 자들에게는 세심한 보살핌이 되십니다. 모든 이를 위해 나서시는 그분의 영은 시련의 순간에 이 세상을 돕습니다.

10. 마음속으로 너희 세상을 훑어보며, 이웃들에게 위로와 형제애의 메시지를 전하라. 내 계시의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도로 남겨,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로 가도록 하리라.

11. 내 품에 안겨 평안을 느끼고, 너희의 고난을 잊으라. 내 계시의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 앞에 가져오는 큰 문제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12. 준비하라. 시련의 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으니! 내 영감을 헌신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전한 전도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13. 예언자들은 마치 내 안에서 새로운 희생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듯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영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 수난을 끝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이 모든 사랑의 증거들을 기억하라.

14. 마리아께서는 너희의 긴 여정에서 너희를 돌보시고, 제2시대에 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 곁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고 다정한 어머니이셨으며, 그 다정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셨으며, 고통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실 때면, 어머니의 생각 또한 하늘로 치솟아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셨다.

15. 오늘날 마리아께서는 다가오는 시련에 너희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분의 영적인 망토로 너희를 덮어 주실 것이다.

16. 너희는 너희의 영혼과 마음으로 성령께서 현현하실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세상에 순종과 영성화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다.

17. 내 말씀은 마치 새로운 새벽의 빛처럼, 모든 민족의 주민들을 서서히 비추고 깨울 것이다.

18.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별이다. 여기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말씀의 선율이 있으니, 이는 너희 영혼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19. 고통이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끌었다면,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맞이하리라 – 나를 신뢰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도 나와 함께 하여, 너희와 내가 이 조화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나는 너희의 동반자가 되어 너희의 성장을 위한 길을 보여 주겠으며, 항상 너희 앞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

20. 나는 너희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며, 너희 마음을 다정함으로 채워, 그것이 너희의 말과 눈빛, 그리고 행위에 드러나게 하는 스승이다.

21. 우주적 하모니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여 내 말씀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내 사랑의 헤아릴 수 없는 크기를 느끼며, 너희도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게 하라.

22. 나는 너희의 고통 속에서 위로를 주겠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여 오직 경험의 빛만을 너희 안에 남겨 두리니, 이를 통해 너희가 깊이 성찰하고 너희 영혼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라.

23.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너희의 행실은 내 앞에서 향기로운 장미와 같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나는 목소리도, 말도 없이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되는 진동으로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내 어루만짐을 응답으로 느낄 그 순간은 얼마나 고양되는 순간이겠는가.

24. 인류여,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중 그 누구도 파멸하기를 원치 않는다.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라. 많은 이들이 고통의 길에 흩어져 뒤처져 있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내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양우리로 나아가야 한다.

25.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 너희가 나와 대화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불어넣은 사랑을 통해 가장 심한 모욕조차 용서할 수 있도록 하라. 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26. 제2의 시대에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27. 그 당시 나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재산으로만 커져만 가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 약속된 메시아가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큰 당혹감을 느꼈다.

28. 나는 내 백성이 황제의 신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빛과 평화, 그리고 위로를 주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따르도록 가르치며, 파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다.

29. 어린 시절부터 나는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길을 잃은 자들을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구원의 별과 같으셨다.

30.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도들이 내 가르침으로 인류를 준비시키기 위해 치른 투쟁은 험난했다. 내가 떠난 후, 그들은 주저함 없이 싸우러 나섰고, 동료 인간들의 악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신뢰하며 날마다 나의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러나 인류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을 배척하고 피의 형틀로 끌고 갔다. 그들은 박해받고 조롱당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사명을 다했다.

31.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순교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인류를 위해 빵과 물을 전할 준비를 갖추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너희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32. 너희는 인류의 강자인 이스라엘이며, 내가 너희를 동료 인간들의 버팀목으로 세웠다. 너희를 통해 그들은 너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과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33. 제2의 시대에, 너희가 '동방박사'라고 부른 현자들은 그들의 깨달음을 증명하기 위해 금과 유향, 몰약을 나에게 바쳤다. 평범한 목동들 또한 그들의 예물을 내 발 앞에 놓았다. 그러나 오늘 나는 너희 영혼으로부터 사랑의 제물로서 너희의 경배와 기도를 받는다.

34. 사랑하는 백성아: 모든 시대에 걸쳐 내가 너희에게 말해 왔으며,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나의 말씀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나의 "황금 깃펜"에 의해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가르침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식탁에서 여러분에게 베푸는 양식은 여러분의 입맛에 아주 맛있게 느껴질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5.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너희의 고통을 잊으라. 이 세상의 유혹에서 멀어지고, 이 영적인 식탁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 영혼을 위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36. 유혹은 너희의 순결한 옷을 빼앗아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슬픔과 깊은 고통을 보게 되면, 나는 다시 내 영적인 망토로 너희를 덮어 주리라.

37. 이 생의 시련 앞에서 강인해지라.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빛으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라. 너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길에서 치워라. 너희 마음속의 광신과 위선을 없애고,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 사랑과 형제애의 사슬을 만들어라.

38. 너희는 영성주의자들이다. 청동 종을 단 물질적인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과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교회로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나 자신이 바로 그 교회의 빛이 될 것이다.

39. 내가 이 시대에 너희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고, 새로운 날을 보여 주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왔음을 깨달아라.

40.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 사람들이 나의 사역 속에서 발견한 비밀들을 밝혀 모든 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41. 너희가 내 사역에 덧붙인 모든 옛 관습들을 버려야 할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단 하나의 목표와 단 하나의 의지로 영적으로 거듭날 것이다.

42. 너희는 악에 짓눌리고 물질주의에 얽매여, 사람이 지은 돌로 된 교회의 지붕 아래에서 나를 기다렸다. 너희는 내가 이 시대에 영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려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여기 있으며, 겸손한 자들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어, 그들이 인류를 영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게 하리라.

43.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을 베풀기 위해 너희에게 온다. 심판자이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영적 나체를 내 망토로 덮어 주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심판자로서, 나는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며, 너희 영혼이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을 기회를 준다.

44. 이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이행할 때가 되었다. 설마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가 다시 너희를 심판하기를

바라는가? 너희는 제3시대의 선하고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잠들지 말라! 나의 상처에서 여전히 신성한 피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명심하라.

45. 내 정의가 너희 가운데서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일어나라,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맡긴 씨앗이 배가된 것을 내게 보여 주라.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준비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46. 이스라엘아, 준비하라. 너희는 길을 떠나 내 가르침을 전파해야 하니, 인류가 이를 이해하고,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너희 안에 고통이 없도록 하라.

47. 선택받은 백성아, 영적으로 깨어나라. 시대의 흐름이 너희를 준비되지 않은 채로 덮치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가라. 높은 저 세상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라.

48. 스승이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때가 왔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얻은 준비를 잃을 수 있는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나의 힘을 활용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빛이 비칠 것이다.

49. 나는 너희 영혼의 인도자이기에 너희의 길을 밝혀 주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다스린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아버지로서 너희가 더 이상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말씀을 주었다.

50. 내 자녀들아, 너희 마음속에서 나를 찾으라. 내가 그곳에 거하기 때문이다.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회개하라.

51. 나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빛이다.

52. 나는 너희에게 "언제 내게로 돌아오겠느냐?"고 묻는 "영원한 말씀"이다.

53. 복이 있도다, 축복받은 백성아. 나의 평화와 빛, 그리고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54. 나의 백성아: 오늘은 온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념의 날이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간구를 드리며, 세상의 평화를 간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 말로만 그칠 뿐이다. 영성화에서 비롯된 진정한 기도는 극소수만이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영성화된 백성의 준비와 합쳐져 이루어내는 이 준비는, 나에게 닿는 하나의 기도, 하나의 간구 기도를 이룬다.

55. 내가 스승으로서 세상에 설교한 사랑은 이해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인간은 적대감으로 살인적인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너희가 후에 거두게 될 열매는 바로 너희의 행실이다. 너희가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선을 행할 모든 기회가 주어져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쏟아 부어, 너희가 사명을 온전한 완결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의지와 이기심을 관철하려 하면서 내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초래한 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6. 영적 백성들아: 세상을 돕기 위해 우주에서 활동하는 영적 힘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다. 또한 평화와 평온, 사랑과 번영의 세상을 꿈꾸는 이들과도 하나가 되어라.

57.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말씀은 너희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씀은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모든 이, 즉 인류를 위해 선과 자비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영감으로 흘러넘칩니다.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영적으로 고양되어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극복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나는 나의 은총과 영감, 그리고 용서를 베풉니다.

58. 국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제2시대에 세상에 가르치셨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는 기독교 원칙들을 따르는 것이다.

59.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사랑과 이해, 자비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영적 성장이 부족한 이들에게도 나는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나의 사랑과 은총을 베푼다. 나는 너희 모두를 나의 양떼로 여기며,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나의 용서는 온 세상을 아우른다. 비록 너희가 나의 법에 반항하고 적대감을 키운다 해도, 나는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 영원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한 번, 천 번이라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60. 영성주의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지침으로 세상에 전파했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 이해와 용서에 관한 나의 가르침이다.

61.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의 영적, 육체적, 지적 발달에 따라 단지 더 명확하게 너희에게 말해 왔을 뿐이다.

62. 영성주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깃들어야 한다. 나는 영혼에게 말하여, 영혼이 육체와 함께 고양되게 하고, 육체가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아 이를 자신과 공동의 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보편적 법칙이 성취되도록 한다.

63. 나의 영적 사역은 모든 시대에 깨어났고 영원한 완전함을 향해 발전해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어 왔다. 그들은 나의 은총과 신성한 지혜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영적 세계의 영감을 받아 인류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왔다. 인류를 위한 모든 과학적 발전과 자선 활동은, 공동의 선을 위해 활동할 준비를 하는 이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끄는 스승으로서의 고귀한 영적 존재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64. 이러한 방식으로 뇌는 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의미와 나의 지혜가 주는 영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 준비 상태, 즉 그 사람의 성향과 사고의 자유에 따라, 그는 이러한 사상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65. 과학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여 인류의 파멸과 멸망을 꾀한다면, 이를 고귀한 영적 존재들의 영감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66. 이 영적 존재들은 그가 자연을 이해하고, 탐구하며,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고, 자연의 모든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의 뇌에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영감과 은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활용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의 감정이 고귀하지 않거나, 타락한 본능이나 영성 부족으로 인해 이 영감을 악을 저지르는 데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67. 이것이 바로 내가 인간에게 허락한 의지의 자유로,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행위를 통해 공덕 을 얻거나, 자신의 불완전한 행위가 초래하는 정화를 받게 된다.

68. 인간은 영적 본성 면에서 자신의 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니, 이는 그가 신성한 영과 동일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육체는 땅에 속하지만, 너희의 영적 영혼은 나로부터 나왔으며, 순수하고 완전한 상태로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므로 영혼의 길은 긴 발전의 과정이다.

69. 영원한 존재로서 너희 영혼에게는 단 하나의 육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 육체에게 단 하나의 옷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발전에는 환생이 필수적이다. 각 단계에서 너희는 부와 가난, 건강,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온갖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 너희는 이기심, 교만, 근심, 자비심의 결여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용서와 사랑, 고귀함과 너그러움도 배우게 된다.

70. 너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육신에 환생해 왔다. 너희의 영혼은 점차 그 오점을 씻어내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영혼은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나로부터 나왔을 때 지녔던 순수함과 완전함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71. 너희는 제3의 시대에 이르렀고, 너희 영혼은 발전해 왔으나, 육체의 본능을 완전히 통제하고 전적으로 영적인 단계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72.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 영혼의 발전 여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설명하였다.

73. 축복받은 백성아: 제2시대에 내 제자들이 나를 듣고 내 위대한 행적을 목격하던 동안에는 내 가르침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행동을 가능한 한 내 가르침에 맞추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행실이 나의 사역에 합당하고 가치 있게 되도록 영적 지혜를 너희에게 남기며, 이 지혜가 너희에게 기초와 영감이 되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계시하셨으며,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준비된 이성을 통해 그분의 영감이 은혜와 지혜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흘러나오고 있음을 전하게 하리라.

74.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로, 너희의 영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기적으로, 온 우주에서 움직임과 작용을 일으키는 힘으로, 가장 단순한 식물 속에서도, 그리고 우주에서 수백만 개가 궤도를 돌고 있는 그 세계들 속에서도 드러나는 생명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쳤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다스리는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75. 그 법칙은 바로 나, 너희의 하나님이며, 인간을 놀라게 하고 그에게 광활한 연구의 장을 열어 주어, 자연의 신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끊임없는 발전의 법칙이다.

76.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능이 드러나는 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감도 확증될 것이다.

77.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상징도, 현상도 아니시다.

78. 모든 피조물은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듯이 — 생명의 시작부터, 즉 내가 원자 속에 생명을 드러낸 그 순간부터, 그것이 분자로 전개되고, 분자가 원소로, 그리고 이 원소들로부터 세계들이 생겨났으며, 이 세계들은 동일한 논리적·자연적 발전의 법칙에 따라 생명체로 채워졌습니다.

79. 나의 가르침은 모든 지식과 모든 활동의 기초이며, 영성 부족으로 인해 인간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기적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빛이다.

80. 인간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하느님께서는 벌을 주시지도 않으시며, 사형 집행자도 아니시다.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며, 권능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시다. 그분은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나시어, 이 땅에서 너희와 같이 살며 같은 유혹에 직면하셨고, 그로 인해 너희를 더욱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며, 이해이시며, 우주적 평화이신데 –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 내가 인간에게 그토록 많은 은총과 선물을 베풀어 주면서도, – 내가 그를 영원한 영적 삶을 위해 준비시켜 주면서도, 내가 그를 벌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인류여, 여러분을 덮치는 이 모든 고통의 시련을 자초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동료 인간을 상처 입히는 창을 던지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살인적인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의 신성한 정의에 따라 정화를 자초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희의 행실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전함을 지향한다면, 너희는 그 공로로 인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너희의 행실이 나쁘다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정화를 받게 될 것이다.

81. 악을 대표하는 세력들은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위해 점차 강력한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척하고 곳곳에 파괴가 횡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82. 올해는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사랑과 용서의 기독교적 원칙을 상기시켜 주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83.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며, 이

제3의 시대에 성령의 빛으로 계시된 너희의 스승께서도 마찬가지로 인류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84. 나의 백성아, 위로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어라. 너희의 모든 행동이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 나의 가르침이 말보다 너희의 행실을 통해 더 잘 이해되도록 하라.

85.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걸어다니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육신의 형상으로, 예수께서 33년 동안 지니셨던 그 육신을 통해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빛과 영적 지혜를 통해 말이다.

86.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 영혼 속에 있는 고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며,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 너희의 육신이 타락과 불결함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유혹에 직면하더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라.

87. 너희 몸을 영혼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연약한 존재로 여기라.

88. 다른 가르침들을 불완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그저 선을 행하는 데에만 전념하십시오.

89. 나는 나의 순수하고 청정한 사역을 너희 손에 맡기며, 영성주의가 펼쳐지는 방식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90. 나는 너희에게 정해진 예배 의식도, 특정 의식을 행해야 할 의무도 남기지 않는다. 너희가 다시 광신에 빠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모이고, 다른 이들도 이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1. 모든 민족이 동일한 세계관을 갖게 될 때, 영성화가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92. 기독교적 원칙이 널리 퍼질 것이며, 영성은 인류를 다스릴 공정한 법들을 제정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93. 너희는 얼마나 자주 모여 내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며, 공동의 선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고, 영적인 도움을 구하며, 영적으로 기도하느냐. 너희 자신에게 집중하라.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각자가 너희를 대변하고 조언을 해 줄 것이다. 그 안에서는 스승께서 대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들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황홀경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로지

영감만으로도 그는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이 나의 사역을 인식하고 체감하게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94. 백성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자비와 동일한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라.

95. 그들에게 세속적인 재물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고양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라. 만질 수 있는 것 이상을 믿고 희망하게 하는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라.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이므로,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라.

96.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고, 너희 행위의 진리와 너그러움을 품고 길을 떠나거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복이 있도다. 너희는 나의 일부가 되었으니, 내 신성의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라." 물질적인 것을 잊으라.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을 잊으라. 그러면 다시는 고통을 느끼거나 무수한 유혹에 시달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97. 너희는 오직 자신의 공로로 완전함에 이르는 사다리를 올라간 영적 존재들이 될 것이다. 바로 야곱의 천국 사다리, 즉 땅에서 시작되어 무한한 곳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사다리 말이다. 너희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갔을 것이며, 마침내 그 사다리는 너희를 영생과 빛의 왕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가르침 360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신성한 스승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다시 한 번 내게로 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내 식탁의 자리를 내어주리라. 너희가 사랑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음을 보노라. 가장 쓰라린 날들 속에서도, 너희는 지극한 고통 한가운데서 희망과 믿음을 품고 미소 지을 줄 아는데, 이는 내 가르침에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라.

2. 내가 너희를 바로 그렇게 보고 싶다. 언제나 평화와 용기, 그리고 신뢰로 가득 찬 모습으로 말이다. 너희는 이제 내 존재를 너희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온전히 느끼고, 매 순간 내가 너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깨닫는 시점에 이르렀다. 너희는 더 이상 "아버지, 왜 시련 속에서 저를 잊으시나요?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날 너희는 시련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기도한 후에는 순종하며 내 평화가 임하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스승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도록 순종하며 받아들인다.

3.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공로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법을 이해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큰

빛으로 비추어져서, 언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렸는지, 언제 그분을 상처 입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는 냉담함과 낙담의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이 지나가면, 사랑과 믿음의 불꽃이 다시 너희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내적 경배의 제단이 다시 밝아지며, 너희는 성소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현존을 느낀다. 바로 그 아버지, 너희 안에 항상 계신 그분이다. 너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말이다.

4. 나는 내 자녀 중 누구도 저주할 수 없으니, 그것은 곧 그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창조했다.

5. 오, 제자들아! 이 시대의 사람은 일곱째 날에 쉬며, 감사의 마음이나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잠시나마 영혼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깨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깨어 살아가는 이들, 즉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나는 세상이 나의 평화의 망토 한 조각과, 나의 신성한 향유 한 방울, 그리고 나의 용서가 담겨 있고 내가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베푸는 기회가 담긴 나의 사랑의 입맞춤을 얻게 하리라.

6. 지금은 영혼들에게 결정적인 때이며, 참으로 투쟁의 시기이다. 모든 것이 다툼과 싸움이다. 이 전쟁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족의 품 안에서, 모든 제도의 내부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상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예언자들이 상징적인 형태로 예견했고, 오늘날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환상 속에서도 엿보이는 '대격전'이다. 그러나 이 격전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지만, 인류는 그 일부이자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의 행보는 가속화되고 있다 – 그러나 어디로 향하는가? 인간은 이토록 서두르며 어디로 가는가? 이 현기증 나는 길에서 과연 행복을 찾게 될까, 간절히 바라는 평화와 모든 마음이 이기적으로 갈망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얻게 될까?

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간이 그 분주함으로 실제로 얻는 것은 완전한 피로가 될 뿐이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삶에 대한 환멸과 지침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 심연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8. 그는 이 심연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 극도의 피폐함 속에서, 적대감과 쾌락, 충족되지 않은 권력욕, 죄와 간통, 영적·인간적 법칙의 모독이 뒤섞인 이 혼돈 속에서, 그는 영혼에 대한 겉보기

죽음, 마음에 대한 일시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이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그가 부활하게 하겠으며, 이 새로운 삶 속에서 모든 이상들의 재탄생과, 모든 원칙과 미덕들의 부활을 위해 싸우게 할 것이다. 그것들은 영혼의 속성이자 유산이며, 영혼의 근원이자 알파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나로부터 솟아났고, 나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며, 나의 완전함에서 마셨고, 나의 은총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9. 이 위대한 영적 투쟁의 시기에 기도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들이 우는 것을 보거든, *그들을* 울게 하는 이유 때문에 함께 울지 말고, 그들을 위해 울라. 그들은 너희의 이웃이며, 너희의 사랑의 눈물이 그들에게 향유와 위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온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너희는 평화의 자녀들이니 그들의 불안에 동참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두 평화의 천사가 되어라. 너희 영혼에서 평화가 이슬처럼 내려오게 하라. 그것은 온 지구를 위한 사랑의 열매이니라.

10. 그들이 다른 이들의 견해에 반대되는 논쟁을 일으키고 사색에 잠긴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모든 것 위에 서 있으라. 그 순간 내 사역과 내 말씀을 되새기며, 성령의 빛과 너희의 기도, 본보기, 그리고 말로써 사람들이 싸움과 전쟁 속에서 고무받는 이유들을 극복하라. 그들이 무기를 어깨에 메고 나서서, 자비 없이 자신의 형제를 향해 그 무기를 겨누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도 사랑과 자비와 용서, 영생의 무기를 들어라.

11. 평화의 왕국을 위해 영혼들을 얻어라! 죄인들을 은총의 삶으로 회심시켜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종들이 배가될 것이며, 너희의 투쟁을 통해 죄와 파멸과 죽음의 왕국은 몰락할 것이다!

12. 이토록 큰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나를 찾을 힘을 찾거나, 마음속에 약간의 순수함을 간직하여 잠시나마 그곳을 성소로 바꾸고, 양심이 나에 대해, 그들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말하도록 허락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도다.

13. 나는 너희에게, 인간의 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시기를 예고해 두었다. 그 시기에 인간은 내가 태초부터 나의 완전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에게 전한 바와 같이, 아버지께 영적인 경배를 드릴 것이다. 나는 언제나 위대한 계시를 내려왔고, 언제나 스승이 되어 왔으며, 아버지로서도 인간 피조물들이 나를 더 잘 알아보고, 그로 인해 내가 더 완전하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내 신비의 베일을 걷어내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 땅의 삶은 너무나 경이롭게 보였고, 이 세상이 품고 있는 보물은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는 영적 삶에 대해 말해 주는 가르침을 항상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작품이자 높은 저세상의 삶을 희미하게 비추는 거울인, 그 화려한 물질적 창조물에만 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고, 만지고, 갈망하기 위해 눈과 이성, 감각을 열어 놓은 반면, 영의 눈은 감아 버렸으며, 그 모든 것 위에 또 다른 경이로운 존재, 더 풍요로운 삶, 그리고 진정으로 더 위대한 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러한 사랑, 즉 세속적인 재물에 대한 인간의 집착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물질화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나를 잊지 않았으며, 나의 존재에 대한 예감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줄 수 없는 양식을 갈망하며 나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반쪽짜리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최선의 길을 통해 나를 찾는 것은 아니다.

14. 인간은 물질화되어 있으므로, 감각적인 숭배를 통해 나를 찾아야 하며, 그의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기 위해 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영적으로 감수성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존재를 믿기 위해 항상 물질적인 기적과 증거를 요구하며,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며, 내가 그에게 주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돌려주기 위해 나에게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모든 교회, 모든 종교 공동체, 모든 종파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것들은 물질주의와 광신주의, 우상 숭배, 비밀주의, 사기, 그리고 신성 모독으로 가득 차 있다.

15. 내가 그중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오직 의도뿐이다. 이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이 내게 닿는가? 내 자녀들의 영적 또는 육체적 궁핍, 그들의 작은 사랑,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게 닿는 것이며, 나는 모든 이와 함께 있다. 나는 교회나 형식, 의식을 보지 않는다. 나는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다가간다. 나는 기도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들인다. 나는 그들을 내 품에 안아 포옹하며, 그들이 나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이 온기가 시련과 시험의 길에서 그들에게 격려와 원동력이 되게 한다. 그러나 내가 인류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에 휩싸인 채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16. 나는 인간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영혼이 나를 향해 상승하여 그 상승 속에서 아버지의 참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전례와 의식의 허울뿐인 화려함을 잊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이 진정한

승천에 도달했을 때, 새롭게 태어나 인간의 궁핍에서 벗어나 감각에 얽매임과 정욕, 악덕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찾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결코 아버지께 자신이 '땅의 벌레'라고 말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그들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17. 오,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이 바로 이 제3의 시대에 네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이유이다!

18.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인류는 내가 비옥하게 만든 밭과 같으며, 이러한 비옥함 속에서 그들의 은사와 잠재된 능력이 깨어나는 것이다. 인류는 현재 직관을 통해, 영적인 꿈을 통해, 그리고 여러 다른 형태를 통해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나의 영적 세계 또한 사람들을 깨우고 준비시키고 있다.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은 마음과 영혼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인류는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인류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고 있으며, 중요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느낀다. 또한 신성한 정의가 모든 피조물 위에 무자비하게 내려앉아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살아 있는 말씀과 그들의 눈앞에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와 이 말씀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백성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는 이 계시의 전달자이며, 이는 신성한 사랑의 씨앗으로, 너희는 나의 완전한 지혜로 이미 비옥해진 밭에 이를 뿌리게 될 것이다.

19. 계속해서 기꺼이 기도에 몰두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다듬을 수 있고, 너희를 조만간 이 사역의 종과 사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이 사역을 영성주의적, 삼위일체적, 마리아적이라고 명명했으나, 세상이 일단 나의 법을 이행하게 되면 이러한 이름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에는 이름도, 상징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 모두가 내면 깊은 곳에 마치 영적인 돌을 품게 될 것이며, 그 돌은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너희의 아버지이자 창조주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 참된 성소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 과연 온 인류가 삼위일체적인가? – 아니오, 제자들아. 모든 이가 자신의 영혼 속에 세 시대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나간 두 시대의 유언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으며, 어떤 이들은 첫 번째 시대의 유언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위일체의 씨앗 – 내가 세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맡긴 나의 법, 나의 가르침, 혹은 지침이라 부르든 간에 – 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줄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고통을 주며 내 가르침을 강요하지 마라. 그저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맑은 모습 그대로 제시하기만 하라. 이 영원한 지혜의 샘을 내어주고, 목마른 이들이 그 수정처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마름이 해소되었다고 느끼는 이들은 그 때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내게 맡겨두라. 마시기를 거부하는 다른 이들도 있겠지만, 그 샘은 영원히 존재하므로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오늘 이 물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내일도 이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갈증은 내일 더 커질 것이다. 그들의 갈증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며, 그때 그들은 그 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샘을 가까이에서 찾지 못하면, 사막을 가로질러 먼 길을 헤매며 그 샘을 찾을 것이다. 그 물이 상쾌하고 활력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샘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닐 것이다. 비록 나에게 그 물이 거절당했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에게 그 물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 인류는 아직 영적이지 않지만, 이미 영혼들이 깨어나 그들의 우상들이 귀머거리이자 눈먼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거짓 제사와 참회의 무익함을 깨닫고 있으며, 나는 광신주의에 지치고 피곤해하는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있다. 그들은 영적인 미각에 달콤하고 기분 좋은 양식을 갈망하며, 영혼을 진정으로 소생시키는 포도주를 갈망하고 있다.

22. 나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들, 작은 종파들, 그리고 큰 모임들을 보는데, 그들은 영적 성소, 곧 영혼의 거처로 들어가고 있다. 그중 일부는 영적 의도에 가까운 길을 걷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내게 이르는 길이다. 나는 언젠가 그들에게 상을 줄 것이며, 참된 영성주의, 즉 가르침과 계시, 위로, 그리고 성령의 영적 양식으로 가득 찬 심오한 교리가 갈망하는 자들과 목마른 자들, 심지어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들에게까지 모두 드러날 것이다.

23. 온 인류가 마리아를 숭배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다. 많은 이들은 마리아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인류의 일부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고, 또 다른 큰 부분은 그녀를 통해 극심한 광신주의와 가장 심한 우상 숭배, 신성 모독, 이윤 추구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인류와 종교 공동체 중 또 다른 일부는 그녀를 인류의 영적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4. 내가 너희를 "마리아의 백성"이라 불렀으니, 이는 너희가 인류에게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25. 오,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리아는 단지 제2시대에 구세주를 잉태한 여인일 뿐이 아니다. 방금 언급한 인류의 모든 부분, 모든 종파와 종교 공동체,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리아는 항상 존재해 온 모성적이고 신성한 본질이다. 그녀는 너희가 창조의 모든 작품 속에서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여성적이고 보편적인 본질이다. 그녀는 다정함이며, 중보자이며, 양육하는 품이다.

이미 과거의 시대에도 마리아의 존재와 그녀의 지상 강림이 여러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진실로, 첫 번째 자부터 마지막 자에 이르기까지 – 모든 이에게 나는 아버지로서, 심판자로서, 스승으로서 말씀해 왔습니다.

26. 이미 태초부터 족장들과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단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고, 한 여인에게서 육신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성적 영 또한 인간이 되어야 했고, 순결의 꽃으로서 여성이 되어야만 했으니, 그 꽃의 화관으로부터 예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7. 그 여인이 처녀의 나이가 되자, 약혼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녀의 사명을 알리셨다. 그러나 천사는 그녀를 어떻게 만났으며, 약혼한 처녀를 어떻게 놀라게 했을까? 바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된 모습을 보고, 천사는 그녀에게 말하였다. "은총을 받은 마리아여, 평안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태중에는 야곱의 집에서 다스릴 분을 잉태할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28. 마리아는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왕을 잉태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스스로를 인간들 가운데 여왕으로 자처했습니까?

29. 그녀의 입술이 광장이나 거리, 초라한 오두막이나 궁전에서,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아버지의 "독생자"가 그녀의 태에서 나올 것이라고 선포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 안에는 지극한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은혜가 있었으며,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아이를 낳기 전부터 – 그 시점부터 그리고 그 후 아들의 일생 내내 – 그녀는 예수님의 소명, 즉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수행해야 할 사명과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영적으로 알고 있던 가장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 소명에 저항하지 않았으니, 그녀 역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 때때로 그녀가 눈물을 흘렸을 때, 그것은 인간 어머니로서의 울음이었고, 아들, 즉 자신의 살과 피인 그분의 고통을 육신의 본성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스승이시며 아들이신 분의 *제자였을까*? 아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 안에 계셨으며, 그 아름답고도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을 뿐이었다.

그 훌륭한 어머니의 마음이 단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데에만 국한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작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은 위로와 숭고한 말씀, 조언과 자비로운 행실, 기적, 빛, 그리고 진리 속에서 드러났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고, 스승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요람이 되어 준 구유 곁에 계셨던 것처럼, 온 창조물의 아버지이시며 스승이신 아들이 죽으시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십자가 곁에도 계셨습니다.

31. 그리하여 그녀는 인간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다했으며, 모든 어머니와 모든 사람에게 숭고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인류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그녀의 모범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던 스승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일곱 말씀 중 하나를 어머니께 바치시며 "어머니, 이분이 당신의 아들이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주님의 사도 요한이었던 아들에게 "아들아, 이분이 네 어머니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 이를 통해 스승께서는 요한을 인류의 대리자로 남기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편적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성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33. 사도 요한은 그 모성애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독차지했는가? 아니, 진실로 그는 자신의 동료들, 즉 투쟁과 가르침을 함께한 동지들인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고, 제자들은 마리아께서 무한한 곳으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 곁을 지켰다.

34. 오순절 날, 즉 사람들이 태초부터 유월절로 기념해 온 그 명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가운데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흰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그분에게 빛을 쏟아 부으시고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35. 제자들은 마리아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들, 즉 영혼의 의사들이 구세주의 어머니를 인간으로서 그토록 숭배했다면, 그 뒤를 이은 후세들이 어찌 그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너희에게 마리아가 영원하다고 말했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분께로 향하면 너희 중 많은 이가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36. 나의 제자 요한이 파트모스 섬의 은둔처에서 홀로 지내며, 다가올 시대의 위대한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 높은 저세상으로 들어가 상징으로 감싸이고 형상으로 나타난 주님의 위대한 비밀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 마리아의 형상도 보았다.

아버지께서 요한에게 미래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맡기신 이 위대한 계시 속에서, 그는 큰 표징을 본 후, 해로 옷을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으며 이마에는 열두 별이 달린 왕관을 쓴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출산의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요한은 악이 용의 모습으로 그녀를 쫓아다니며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려 삼키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가 다가올 시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제3의 시대에 마리아께서 마리아의 백성을 세상에 낳으시기 직전에 마리아를 보았으며, 주님의 백성을 노리고 있던 악을 보았다.

요한은 또한 탄생의 순간, 인간의 악을 상징하는 용을 상대로 천사들이 벌이는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투는 현재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백성이 태어나 이미 지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그 백성이 큰 최후의 전투에 나설 수 있도록 사랑의 방패와 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7.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것이 바로 이 계시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아는 자들은 그녀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녀를 단지 한 여인으로만 보고, 인간적인 어머니로만 여길 뿐이며, 그녀를 둘러싸고 숭배와 의례, 축제와 광신적인 열광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스승의 말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38. 아버지는 세상이 마리아를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나 또한 사람들이 그녀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마리아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듯이, 마리아는 신성 안에 존재하며 모든 피조물 안에서 드러나는 모성적 본질이다.

39. 밤의 고독 속에서,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저 우주 속에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의 형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꽃의 향기 속에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너희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얻게 될 것이다. 처녀의 순결함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곳에서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그분의 온 창조물 속에 깃든 영원한 여성성이 반영된 무수한 작품들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40.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하고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육신의 길을 나서게 되면, 마리아의 사랑의 본질과 그분의 이름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닫힌 문을 만들어 놓은,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본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 백성들아,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벽과 문을 무너뜨려 마리아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오. 나는 너희에게 내 일을 단지 나타내고, 내 가르침을 단지 보여 주기만 하면 되지만, 그토록 깊은 영혼을 담아, 그토록 진심을 담아, 그토록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노라. 그래야만 그 완고한 자들 중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니, "진실로, 우주 어머니의 본질이 온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구나. 이 가르침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우구나. 이 가르침은 마시라고 초대하지만, 강제로 마시게 하지는 않는 생명의 샘과 같다."

4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권능으로 모든 영혼을 불러 모아 이 물에 씻기고, 이 물을 마시게 하여, 너희 모두가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통해서도 나에게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영과 의지, 지성, 능력과 감각을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계시하고 필요한 시간을 주었으며, 너희 영혼을 발전과 진보,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 나는 너희의 마음과 말이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원하며, 너희의 목소리가

너희가 전파해야 할 나의 말씀을 마시도록 겸손하게 초대하기를 원한다.

42. 이 물이 수정처럼 맑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대로 그토록 맑고 흠이 없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사람들은 그 물 속에서 건강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때 목청껏 외치며, 너희를 통해 나의 진리를 찾았다고 고백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제3시대에 이스라엘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니, 이것이 영성주의-삼위일체주의-마리아주의 백성에게 주어진 짐이다.

43. 너희의 온유하고 겸손한 행보는 종교 공동체를 뒤흔들 것이며, 그 기초와 원칙을 뒤흔들 것이다. 언제나 나의 것이 될 너희의 말씀은 거짓 성소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곳에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상들을 쓰러뜨릴 것이며, 하느님을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낸 모든 우상 숭배, 또한 마리아와 그녀의 이름을 둘러싸고 가장 극단적인 과장까지 이르렀던 모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하며, 내가 너희 안에 심었고 앞으로도 계속 심을 성령의 말씀의 불길에 의해 태워져야 한다.

44. 이 내 말씀이 대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멈춘 후, 나는 너희를 제2시대의 제자들처럼 유월절에 모여 있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며, 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리라. 성령은 영과 영이 서로 연결된 채, 이 제3시대의 선구자들인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성령과 인간의 영 사이의 완전한 교감을 이끄는 선구자들이 될 것이다.

45. 그 시점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실 것인가? 바로 내가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정한 성화와 영성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광신주의와 물질주의의 모든 흔적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위대한 준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의 연구를 통해, 그 후의 발전을 통해, 나중에는 너희의 참된 사랑을 통해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1950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계시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서도, 이런 방식의 계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1950년 이후 너희의 황홀경은 점점 더 완성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적 고양은 더욱 커질 것이며, 나의 계시는 오직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46. 나의 대변인이었던 이들은 긴 여정을 걸어왔다. 나의 광선을 자주 받아들였던 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위대한 영감이나

계시를 전할 것이다. 나의 신성한 광선을 몇 번밖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의 말씀이 드물게 전해졌던 이들에게는 그때 나의 영감이 크고, 매우 클 것이다. 그들은 이 길 위에서의 성장과 행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계시 기간 동안 인간의 이성으로는 얻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는 영과 영 사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의 영혼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47. 그러나 나는 성스러운 대변자였던 자들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나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도 나의 신성한 영이 영광스럽게 비칠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총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질 것이다. 나의 영적 세계 또한 빛을 발할 것이며, 영감과 생각으로 변모된 그 흐르는 광선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비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빛의 존재들이 계속해서 이 행성의 존재들에게, 즉 교회 지도자들과 "초석들", 예언자들과 "황금 붓"들, 표식을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을 통해, 상징적인 표식 의식을 경험한 자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내 백성의 일원이 되기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비칠 것이다.

"첫 번째"와 "마지막"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부어 주실 불의 혀들이 임할 것이니, 그리하여 너희가 내일, 곧 아주 가까운 "내일"에, 모든 이웃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곧 다가올 그 새벽에, 너희는 내 말씀을 너희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48.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선한 의지, 노력, 열정,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곁에 있어 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리라. 나는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에서 내 뜻에 따라 준비된 선구자들과 사자들이 나오도록 하겠으니, 그들은 다른 언어를 구사하여 하나님의 세 번째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에게 전할 것이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며 인간의 손에 의해 물질적으로 파괴된 바벨탑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점차 무너질 것이며, 그 위에 성령의 탑, 참된 교회, 참된 예배의 장소이자 성소가 우뚝 솟아오를 것이며, 그곳에서는 모두가 서로 손을 맞잡고, 모든 언어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모든 인종과 성별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49. 오늘 이 은혜로운 아침, 너희가 수많은 모임 장소에서 내 말씀을 받았으나, 그곳들은 하나된 백성을 이루고 있는 이 날,

스승은 너희에게 세상을 위한 중보와 자비, 기도를 청한다. 너희 마음속의 모든 불화와 편견을 떨쳐 버리고 영적으로 서로 가까워져, 영적으로 강한 백성을 이루라.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이 인류를 돕게 될 것이다.

왜 너희는 아직 너희 영혼과 생각으로 큰 기적을 이루지 못했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기도의 무기가 이 시대에 아직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50. 너희의 준비 부족 때문이니라, 백성아 – 너희의 일치 부족으로 인해, 너희는 항상 매복해 있는 유혹이라는 맹금류가 너희 안으로 침투하여 너희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도록 허용했다. 이는 유혹의 교활한 수로, 너희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비록 나의 사랑의 말씀이 항상 너희와 함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악한 속삭임에 기울어져 있으며, 여전히 너희는 헛불의 허상과 거짓에 현혹되고 있다. 그러나 깨어 있으라, 백성들아, 깨어 있으라, 오, 영성주의자요, 삼위일체-마리아주의 제자들아, 너희를 위한 이 준비의 시기 – 현재 다시금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는 인류를 위한 이 시련의 시기 – 에 너희의 힘을 증명할 수 있도록 – 수많은 무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빛의 검을 들어, 그 검으로 유혹의 밧줄과 속박의 사슬을 끊고, 벽을 허물며, 문을 열어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제3의 시대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라.

51. 백성들아, 너희는 생각의 힘과 기도를 통해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불어넣고 있는 참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온 지구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심연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인류가 머지않아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순간, 즉 증오와 물질주의, 육욕과 쾌락 속에서 영혼이 느끼는 혐오와 권태, 증오와 물질주의, 육욕과 쾌락 속에서 영혼이 겪는 피로와 지침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에게 형제애의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깨워, 이렇게 말하게 하라:

52. "보라, 더 이상 자만심의 궁전은 없다. 통치자들은 왕좌를 떠났고,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사라졌으며, 전쟁 무기들은 더 이상 입에서 죽음을 뿜어내지 않는다.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패배했다. 네 얼굴을 들어 올려 지평선에서 새로운 날의 빛, 새로운 삶을 비추는 새로운 새벽을 바라보아라."

53. 이제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드리는 영혼을 맞이한다. 나는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고자 하노니,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 번 이 세상에 나타나, 다양한 형태로 인류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 나는 너희의 중재 없이는 이를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나의 자비를 베풀고자 하노라.

54. 그리하여 이 은총의 아침에, 나는 너희를 이 자리에 남겨 둔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고양된 채로 – 영적으로 고양되어, 너희 본성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61

1. 나는 너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내 영이 너희 곁에 머무르노라. 나는 너희의 사랑과 믿음으로 힘을 얻노라. 나는 너희의 열매를 맛보았으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평화를 베풀노라.

2. 너희의 영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을 때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내가 너희를 버렸느냐'고 묻곤 하며, 곧바로 내 곁에 있게 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혼자가 아니며, 너희의 믿음 덕분에 이 시대의 고난과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3. 나를 찾아 먼 길을 헤매던 너희는 마침내 나를 찾았고, 내 말씀을 듣자 너희의 의심은 사라졌으며, 너희의 간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 어디서나 너희는 나의 영을 향한 간구와 호소를 들었으며, 비록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도,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로 갔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이 고통의 날들에 너희의 고난 속에서 너희 곁에 있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4. 나는 너희에게 예민한 감수성을 주었으니, 이는 다가올 일을 미리 감지하고, 모든 영적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5. 나는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사랑과 지혜로 너희에게 말씀하며, 과거의 말씀들을 확증하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6. 요한은 그의 위대한 계시 속에서, 이 시대에 내 영이 어떻게 드러날지, 여섯 번째 봉인이 풀릴 때 지혜의 책이 영혼들을 어떻게 비출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의 거대한 전투와 그들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책이 봉인되어 있다가 마침내 흠 없는 어린 양에 의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너희의 영을 위해 보여 주었다. 그 안에는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주었던 율법이 담겨 있다.

7. 나의 일을 판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헤아려 보라. 온 과거를 기억해 내고, 그것을 이 계시와 결합하여 너희 영혼 속에 모든 것이 살아 숨 쉬게 하라. 나는 사람들의 물질적 삶을 위한 법과 규례를 제정하였고, 도덕적·영적 삶을 위한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너희를 영의 영역으로 인도하였으며, 너희는 그 고향의

평화와 행복을 호흡함으로써, 그것을 온전히 알고 내 법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8. 고귀한 이상을 위해 살아가라. 너희 영혼이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삶의 용기와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 너희 삶의 여정에서 평화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다시 창조주에게 합당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초대하라. 처녀 같은 경작지이자 나의 가르침을 위한 비옥한 땅인 그들의 마음을 가꾸어라.

9.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일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따를 때, 너희 영혼은 강해질 것이며, 너희는 기뻐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며,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투쟁 속에서 다양한 신앙 고백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모든 종파 위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표현인 나의 말씀을 전하되, 이를 동료 인간을 대적하는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이는 모욕하지도, 상처를 주지도 않으며, 오직 영혼을 위한 생명일 뿐입니다.

10. 그 그릇의 안팎을 깨끗이 씻어,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줄 본질을 담을 수 있게 하라. 너희의 사명은 위대하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모든 민족과 어우러지고, 모든 인종과 하나가 되어, 모든 이에게 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후, 나는 너희를 '그 계곡'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곳에서는 너희 모두가 평등해질 것이며, 인간의 비참함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오직 영적 존재로서만 남게 될 것이다.

11. 나는 너희가 당분간은 너희의 불화를 속죄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가 자신의 연약함에 지쳐 서로에게 다가가, 단합과 화합을 통해 강해질 날이 올 것이다.

12. 나는 너희가 순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현재 고통을 통해 정화되어, 영혼에게 본래의 순수함과 미덕을 되찾아 주고 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시련들은 너희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너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 너희가 영혼의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할 뿐이다.

13. 비록 지금까지 너희가 행한 일들로 인해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 백성의 겸손과 인내, 사랑과 믿음이 마땅히 칭송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많은 이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미덕을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이름이나 칭호를 부여하거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리며 겸손히 몸을 숨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14.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한다면, 진실함으로, 지극한 진실함으로 말하라. 너희의 말과 행실에서 믿음을 얻도록, 가장 겸손한 이들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지내라.

15. 인류의 도덕적, 영적 폐허 속에서 너희의 일이 솟아나는 것을 보실 때, 내 영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너희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병에서 나은 자들, 믿음 없는 자들 중에서 새로 태어난 신자들, 새롭게 태어난 죄인들을 보라. 아직 너희의 일은 작지만, 나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며 그 열매를 배가시키리라.

16. 이스라엘아, 스승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너희 곁에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정해 놓은 길 위에서, 나는 끊임없이 내 사랑의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

17. 나의 "신성한 말씀"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것으로, 너희가 내가 너희 손에 맡긴 사역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18. 나는 너희에게 본보기가 될 나의 사도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나는 너희가 육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너희 영혼에 내 자신을 쏟아 붓는다. 나는 단단한 바위를 만져 그 안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오게 하였다.

19. 너희가 이미 사명 완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1950년 이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사랑하는 백성아.

20. 제3의 시대에 너희의 영혼은 환생하도록 보내졌으니, 이 시대에 내 신성한 영의 임재를 활용하여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려 함이라.

21.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큰 사랑으로 너희 곁에 있으며, 너희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힘을 준다.

22. 나는 은총과 사랑의 근원이다. 마시라. 너희 마음과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라.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23.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고, 너희가 만족과 희망을 가득 안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영혼과 육신을 강하게 해 주리라.

24. 나는 자신의 고통을 나에게 토로하기 위해 무리 지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경청한다. 이들은 다양한 종파와 교회에서 이 소박한 모임 장소로 모여, 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온 무리들이다.

25. 그들이 이 나무에 다다르면, 그늘의 시원함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게 되고, 내 꾀꼬리들의 지저귐을 들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임재와 이 나무 열매의 달콤함을 느낍니다.

26.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성령으로 오시어, 인류에게 위로와 양식, 영적인 물을 베풀기 위해 큰 종소리처럼 그들에게 부르짖으리라. 나는 내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내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의 엄숙함과 고요함 속에서 너희는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가 명상과 기도를 통해 내게 아뢰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교회 안에서 너희는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27.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선택한 백성의 열두 지파를 준비해 두었으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 빛을 받게 하려 함이라 – 나팔 소리에 잠든 자들을 깨워,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28. 인류는 방향을 잃었지만, 나는 성령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29. 세월이 흐르면서 내 제자들이 남긴 그 경전들은 사람들에 의해 변질되었으며, 그로 인해 교파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그러나 나는 인류를 하나의 빛과 하나의 뜻으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내 모든 가르침을 설명해 주겠다.

30. 1950년이 이제 곧 끝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상세한 가르침을 남겨 두었으니, 이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알려 그들이 영혼의 평화와 생명을 찾게 하라.

31. 나는 '제3의 성서'를 너희 손에 맡기니, 이를 통해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32. 너희 마음은 이미, 이 형태로 나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때 느낄 향수를 예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내일 일어나서 내가 여전히 그들의 지성을 통해 드러난다고 속임수로 주장할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33. 너희는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자들이나, 내 백성 가운데 불순종이 없도록 깨어 살아야 한다. 너희는 연약하고 아직 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내 진리를 설명하고 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며, “마지막 자들”을 통해서도 빛과 영감으로 나를 발산할 것이다.

34. 나는 인류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길을 잃은 자들을 구원하고, 이러한 형태로 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을 내 식탁으로 부르리라. 엘리야는 계속해서 군중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니, 너희가 그들에게 내 말씀이 담긴 책을 보여 주게 하라. 너희를 통해 나는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를 제거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인류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돌들이 말할 것이며, 너희는 가장 무식한 자조차도 나의 참 제자가 되어 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35. 너희는 내 사역을 왜곡하지 않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너희 스승처럼 겸손해야 하고, 동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36. 너희는 내 가르침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오직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만을 가르쳐야 한다. 나는 너희가 인류 가운데 지도자이자 사자가 되도록 내 가르침을 풍성히 주었다. 너희가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너희는 서로 돕고 사랑하여 너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 너희는 인류가 너희를 통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현재 하나로 모으고 있는 백성이다. 나는 지극한 자비이시며, 너희에게 가장 훌륭한 양식으로 먹여 주었다. 너희가 겪게 될 싸움은 거대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사랑으로 말하여, 너희가 나의 사역에 돌리는 오해들을 없애고자 한다. 그래야 때가 왔을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8. 영적 군대가 너희 영혼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들은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이 세계관 간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영적 세계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영적 존재들은 너희에게 평화와 조화를 불어넣어, 너희가 인류 앞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9. 너희의 싸움은 거대할 것이다. 너희는 순종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너희 마음속에 스승의 법을 드러내야 한다. 너희는 사람들을 격려하겠지만, 나의 우주적 광선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영적 세계도 너희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께서는 더 높은 형태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이며, 성령으로서 힘과 축복, 자비를 주실 것이다.

40. 1950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만, 잠들어 있는 인류는 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울 것입니다.

41. 이 사건들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때가 가까워졌다. 내가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전하는 계시가 끝나는 때가 곧 다가왔다. 이 마지막 날들에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터득한 대변자들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크고 분명한 가르침과 사랑이 담긴 사명을 주었으니, 너희가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42. 나는 너희 앞에 나의 지혜의 책을 펼쳐 놓고, 너희가 어떻게 사명을 완수해야 하며, 어떻게 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위험들을 지적해 주었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43. 내가 이 형태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기 전에, 너희가 내일 새로운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할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켜야 한다.

44. 만일 너희가 이 가르침을 박탈당했다고 느낀다면, 나를 탓하지 말라. 나는 너희 영혼을 위한 영생의 양식인 나의 말씀을 넘치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45. 나는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온전한 방식으로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가르침에 속하지 않는 것을 덧붙인다면, 너희 양심이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니, 그래야만 내일이면 인류가 오직 나의 온전한 가르침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6. 인류에게 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는 내가 너희 영혼을 모든 발전 단계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47. 백성아, 너희는 나의 신성한 빛 앞에서 나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너희의 물질주의는 항상 영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목표와 이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자비는 너희를 한데 모아, 너희가 나의 사랑의 불꽃을 느끼고 나의 성령의 평화를 깨닫게 하셨다.

48. 나는 베푸시는 이니, 너희가 내게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육체의 궁핍을 알고, 영혼을 알며, 너희의 고통과 근심을 알고 있다.

49. 루카, 마르코, 요한, 마태오는 나의 뜻에 따라 선택되었다. 나는 각 영혼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었으며, 그들은 끈기와 단호함, 그리고 사랑으로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여 '제2의 시대'의 유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오늘 너희의 영혼을 깨워, 그 시기를 깨닫고, 나의 신성 앞에서 맹세한 서약을 느끼고 이해하며,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리라.

50. 예수께서는 신성한 능력을 증거하셨으니, 그분 안에는 세상이 그분을 알게 하려고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 계셨기 때문이다. 말씀과 사랑, 진실함, 그리고 빛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 자신이었다.

51. 황금으로 된 기억의 책에 기록된 바는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52. 이스라엘아, 내가 이 시대에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얽매여 있었기에, 내가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 그리고 오늘날 세 번째 시대에 너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너희의 결단과 소망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나의 신성한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목소리의 매개자를 통해 나를 드러내며 너희가 나를 따를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영혼이 저항하고 육신이 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너희는 내 앞에서 상세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자로서 나는 부름을 내리겠고, 너희 운명의 책에 기록된 바를 너희가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일단 지극히 높으신 심판자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속죄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재탄생을 간절히 청하게 될 것이다.

53. 나는 너희의 영혼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체에게도 말하였다. 나는 영혼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육체에게 추가로 생명과 힘,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54. 나는 나의 신성한 말씀을 사랑으로 쏟아부었으며, 나의 영과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너희는 나의 신성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55. 너희는 음성 전달자의 이성을 통해 전해진 나의 계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희가 더 이상 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빵과 물 없이 사막에 버려둔다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56. 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 마음에 심어 준 것을 깊이 연구하라.

57. 너희의 뇌가 내 빛의 진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 큰 재앙이 인류에게 닥칠 것이니, 자연의 힘을 막아낼 수 있도록 너희의 은사를 펼치라.

58. 나의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 가장 뒤처진 자조차도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나의 신성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리라. 나는 열린 책이며, 진리이자 법이다.

59. 나는 인류에게 나의 영적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 조화의 가르침을 주었다. 단지 이 시대에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다. 나의 신성한 영이 너희 영혼을 지상에 맡긴 첫 순간부터, 나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 왔으며, 결코 너희를 어둠이나 광신, 우상 숭배로 이끌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내 눈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 영혼을 빛과 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혼을 나태하게 만들며, 구원의 시기를 늦추고 너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60.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이해하며, 그들의 마음이 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혼이 물질주의에 묶여 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고,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영혼들에게 부르심을 보내어, 그들이 훌륭한 군인과 일꾼으로서 인류의 선두에 서서, 점점 다가오는 싸움에서 인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61. 신성한 스승께서는 인간의 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내려오시지만,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찾으라. 내가 바로 그곳에 있노라.

62. 백성들아, 깊은 명상에 잠겨라. 눈을 감고 영적인 시선으로, 내 현존을 증언해 줄 증거를 갈망하며 너희에게 다가올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63. 자비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나를 갈망하며 목마름을 해소하러 왔던 것처럼, 사랑을 갈망하고 목마른 이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64. 준비되지 않은 채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겠다고 마음먹지 마라. 더 큰 영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한 마디 말, 한 번의 기도, 혹은 한 번의 사랑의 행위가, 너희가 허영심에

사로잡혀 이루고자 했을지도 모르는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65. 자비, 그리고 또다시 자비,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서 일깨워 준 것이다. 자비는 내가 나의 가르침을 통해 가장 깊이 일깨워 준 감정이다. 자비는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앞으로 찾아올 이웃들을 자비로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가장 따뜻한 환영을 베풀게 될 것이며, 내 진리에 대해 너희가 줄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증거에 저항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수단을 통해 그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이해시키려 한다면, 너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상은 말과 가르침, 철학에 이미 지쳐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갈망하고, 죽을 지경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말하노니, 자비의 행위는 비록 작더라도 진실하고, 진심을 담고, 참된 것이라면, 내용도 진리도 없는 아름다운 말들로 이루어진 천 번의 설교나 대화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매일 듣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바로 그런 말들 말이다.

66. 너희가 할 말에 대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라. 비록 너희의 말솜씨가 도움이 되고, 성경이 너희 기억의 지팡이 또는 버팀목이 되어 줄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너희 영혼이 실현하는 것, 즉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 너희가 뿌린 씨앗 중 가장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임을 잊지 마라. 바로 그것을 통해 너희는 이웃에게 가장 큰 선행을 베풀게 될 것이며, 동시에 너희가 상을 받을 때가 되면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67. 사랑하는 백성아, 내게로 오라. 생각을 양심과 하나로 합쳐, 내 평화를 느끼도록 하라.

68.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일 너희의 방패이자 검이 될 것이며, 너희가 영성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 종교 공동체가 너희에게 다가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69. 나는 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가 너희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도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의 신성한 음성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다.

70. 이 새로운 날의 빛이 비추자, 너희는 인류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큰 종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이 빛의 광채를 보았으나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으며, 나의 자비로 인해 이 길로 인도받는 것을 느낀 자들이다.

71. 너희는 내 제자들이며, 내일 내게로 올 수많은 무리를 위해 길을 닦는 자들이요, 평화와 생명, 사랑과 빛의 이 메시지를 전령으로서 전파할 자들이다. 너희의 모범을 통해 너희는 너희가 전파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게 될 것이다.

72. 너희가 겪은 시련과 좌절은 너희에게 경험의 빛이 되어, 내일 너희가 의로움으로 내 길을 걷게 하리라.

73. 나는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고통스러운 시련의 이유를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바로 이 가장 타락한 시대에 성령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고, 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하나로 연합시킨 이유이다.

74. 너희가 첫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참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는 이미 정상에 너희를 기다리는 위대한 도시가 있는 그 산을 오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75. 내일 너희는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と 나의 영적 세계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인류에게 내 가르침의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알려 나가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76. 너희의 사역은 1950년에 끝나지 않겠지만, 너희 중 많은 이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굳건히 버티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은 내 성전의 기둥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77. 너희는 스스로 묻는다. "아버지의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될까? 스승님께서 떠나시고, 우리 영혼의 기쁨이자 격려가 되어 주셨던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까?": 아니, 나의 백성아, 아버지는 떠나지 않으시며, 스승님께서는 빛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실 것이다. 오늘 너희는 이러저러한 지각 기관을 통해 나를 들었으나, 내일이 되면 너희의 준비에 한계가 없을 것이니, 그때는 너희 모두가 나와 영과 영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비된 모든 이를 통해 나는 나의 영감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진정한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스승의 계시는 더 이상 한계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높은 영적 단계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계시도 받게 될 것이다.

78. 너희는 조용히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헌물을 받아들이고, 내 축복으로 너희를 장식함으로써 응답하리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62

1. 스승께서는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로 너희를 맞이하신다.

2.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영적으로 너희에게 맡긴 것을 깨달아, 인류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할 준비를 하라. 곧 너희가 대변자를 통해 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예고했거니와, 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1866년부터 나는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 능력을 준비해 왔으며, 이 계시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4. 나의 사역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인류가 발전한 제3의 시대에 들어섰다.

5.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말씀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했느냐? 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희를 만났다. 어떤 이들은 광신에 빠져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사람들의 운명을 별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시대에 내 존재를 부인했기에, 나는 너희가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영적으로 오셔서 내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고자 했다.

6. 세 시대에 걸쳐 내가 너희를 가르쳤으나, 이 제3의 시대에 어떤 이들은 나의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적 사역의 진실성을 부인하고, 내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우상 숭배와 혼란에 빠졌다.

7. 이미 첫 번째 시대에 내 사역은 너희로 하여금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8. 오늘날 나는 훈련받지 않은 마음을 준비시켜, 그들을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였다. 이는 내가 언제나 단순함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9. 같은 방식으로, 나는 미덕으로 가득 찬 소박한 사람이자 위대한 영성을 지닌 모세의 지성을 단련시켰다. 나는 그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끌었다.

10. 제2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견했던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분의 길을 닦았습니다.

11. 이제 너희는 제3의 시대, 곧 성령의 시대에 있다. 1866년부터 나는 인간의 이성 기관이 나의 신성한 광선을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도록 준비해 왔으며, 그 때부터 나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

12. 이 시대는 영혼이 몸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고, 몸이 영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13. 영혼은 사다리의 한 단에서 다음 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그리하여 지상의 육신으로는 끝맺지 못했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14. 어디에 기만이 있는가? 어디에서 나의 일을 장사로 만들었으며, 어디에서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주신 말씀을 잘못 해석했는가? 나는 항상 너희 영혼 속에 나의 성전을 세우기를 너희에게 청해 왔다. 그러나 너희는 그 대신 화강암으로 된 교회들을 세우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 장식과 조각상들로 그것을 풍성하게 장식했을 때, 큰 혼란에 빠졌다.

15. 인류여: 나는 너희가 내 영을 제한된 형상 속에서 찾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강가로 너희를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 당시 너희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던 적이 있느냐?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찾고 있다. 너희가 널리 알릴 나의 사역이 나의 가르침처럼 맑고 순수할 것이기에, 그 성전은 어떤 자연의 힘으로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는 사라질 것이다.

16. 나는 너희 마음의 성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한다. 너희는 들꽃으로 그 성전을 장식해서는 안 되며, 너희 마음의 선한 행실과 기도로 장식해야 한다. 이 성전에서 나는 그 빛이 결코 꺼지지 않는 횃불, 곧 믿음을 보고 싶다. 그리하여 자연의 요소들이 거세게 몰아칠 때, 너희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배가 될 것이다.

17. 오, 사랑하는 백성아, 내 말씀의 만나가 너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게로 오라. 그 본질이 너희 영혼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라.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다시금 나의 율법과 진리, 그리고 사랑을 주기 위해 왔다.

18. 죄로 인해 곤경에 처한 인류를 바라보라. 너희는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여 그들이 기도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서야 한다.

19. 이스라엘아, 너희를 위한 투쟁의 때가 이미 왔으며, 인류가 매우 쓰라린 잔을 마시게 될 순간이 머지않았다. 그때 너희는 기도로 일어나 너희 이웃들의 큰 고통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피를 흘림으로써 사명을 완수할 길을 보여주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는 내 말씀으로 — 바로 너희를 통해 — 세상을 준비하러 왔다.

20. 나는 슬퍼하는 자들의 위로자이며, 너희의 길을 격려해 주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다. 열방은 탄식하며, 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나를 찾으나 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회오리바람에 휩쓸리고, 그들의 악의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용감한 군사로 일어나, 이 시대에 인류가 나와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21. 이스라엘아,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준비시키리라. 내 율법을 의지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의 세상이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22. 내 말씀이 너희에게 진리의 빛을 준다.

23. 나는 이 땅이 시체로 뒤덮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인류가 마치 새로운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능력으로 그들이 영생을 찾도록 돕기를 원한다.

24. 백성아, 너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무엇이 부족했느냐? 사명을 완수하는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라.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왕국에 들어올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환영하노라, 사랑하는 백성아. 네 마음을 열린 책처럼 준비하여, 그 안에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기록하라."

25. 너희가 나의 빛을 필요로 하기에,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는 아직 마음을 영적으로 정화하지 못했으나, 나는 사랑으로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

26. 나는 너희에게 위로를 베풀며, 너희가 내 말씀을 잘 활용했는지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시험하였다.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참된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할 때마다 너희는 오직 고통만을 느꼈을 뿐이다.

27. 많은 이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올라왔습니다. 물질주의에 지친 세상 또한 그들의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말씀으로 양육한 나의 선택받은 자들이니, 너희 이웃들에게 외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

28. 내가 너희를 준비시킨 것은, 너희가 나처럼 참된 사랑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9.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고통의 잔을 비우고 있지만, 내가 내 사역 속에서 그토록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유혹에 굴복하고, 비록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30. 제3의 시대에 나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였다. 어떤 이들에게는 선한 뜻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감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내 가르침에 대한 순종과 따름을 발견하였다.

31.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유혹은 내 백성을 찾아와 그들을 나의 은총과 빛에서 뺏어가려 한다. 주님의 싸움은 거대하나, 내가 그들에게 준 흰 옷이 찢겨 있는 것을 보기에, 나는 나의 택한 백성에게 자비를 쏟아 붓는다.

32. 너희 영혼에 부족했던 모든 것을 내가 채워 주었다. 너희가 마음을 영적으로 고양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33. 준비하라, 나의 백성아, 세상은 너를 필요로 한다. 세상이 어떻게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유혹이 그들을 덮쳐 왔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없음을 깨달아라.

그러나 나는 지금 인류가 나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비추고 있다.

34. 나의 왕국은 평화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내 백성인 너희에게 약간의 선의와 확고한 결심, 그리고 인류를 섬기려는 끝없는 열망을 요구한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직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란다. 내 자녀들아, 모든 곳에서 고통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인류가 흔들리고 있으며, 죄를 지은 자가 정화되고 있음을 깨달아라.

35. 너희 이웃들 사이에 사랑의 씨앗을 퍼뜨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너희의 은사를 사용하라. 너희는 이를 행할 능력을 가진 자들이니, 내가 인류에게 나의 새로운 계시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너희 손에 맡겼기 때문이다.

36.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면, 나는 너희가 뿌린 씨앗이 배가된 열매를 받아 주리라. 너희는 민족들의 어둠을 비추어야 할 등불이니라.

37.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 영혼 속에 심어 놓았으므로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일할 수 있도록 내 사역을 너희 손에 맡겼다. 나는 열방이 다스려져야 할 법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길에서 길을 잃지 말라. 너희가 이 영적 사역에서 아버지께 협력할 때, 어떤 의식도 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도 조장하지 말라.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탐구하고, 내가 너희 영혼과 하나 되어 영감을 통해 너희에게 심어주는 나의 신성한 뜻을 깨달아라.

38.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 너희는 나의 종들이다. 어떤 이들은 육신을 입고 왔고, 다른 이들은 영으로 와 있으며, 이들은 준비된 두뇌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다. 그들은 속죄를 위해 왔다. 이 나의 종들 안에는 사랑이 존재하니, 이는 그들이 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내가 나의 신성한 빛으로 그들을 가득 채우고 그들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함으로 인류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것이다.

39. 엘리야는 제2시대에 나의 오심을 위한 선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진리의 예언자였으며, 인류가 거짓 제자들에게 이끌리고 있었기에 내가 그를 보냈고, 모든 이가 천국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모두가 양우리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40. 제3의 시대에 나는 엘리야를 다시 보냈으나, 이번에는 영으로 보내어 로케 로하스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게 하였으니, 이는 인류가 그 후에 대변자들을 통해 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1. 인류가 구명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새벽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느껴 보라.

42. 과거 시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영으로 오셨으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셨다. 나의 영은 "구름" 위에서 인류를 비추고 있다.

43. 나는 진리이며, 사람들이 나의 길을 깨닫고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았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

44. 나는 너희 곁에 펼쳐진 책과 같이 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옛날에 너희 영혼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성숙해졌으므로, 나의 신성한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드러났다.

45. 나는 너희 영혼을 가르치고 깨우치며, 그 속죄가 무엇이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나의 우주적 광선을 보내노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고, 여러 환생을 거치면서도 필요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46. 너희는 너희 몸을 다스려, 그것을 기꺼이 내 법에 순종하게 만들 줄 몰랐다. 너희는 내 신성한 말씀의 본질로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연약하게 여기고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47. 비록 내가 심판자이자 전능자이긴 하지만, 너희가 나를 상처 입히고 나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다.

48. 내가 너희에게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제시해 둔 완전한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었다.

49. 너희 모두는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가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너희에게 말을 걸고 책임을 물었다.

50. 나는 내 신성한 말씀을 수정처럼 맑은 물처럼 너희에게 쏟아 부었다. 나는 내 사랑과 내 말씀의 정수를 완전하고 독보적인

가르침으로 너희 마음에 심어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웃들에게 보여준 본보기는 무엇이었는가?

51. 세상은 너희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손에 맡긴 일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내 신성한 영의 평화를 느끼지 못했고, 분열되어 서로 다른 이상을 품으며,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칭하기 위해 새로운 신들과 새로운 법을 찾고 있다.

52. 나는 너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정의로 너희에게 말해 왔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며, 세상의 맛과 소금이며,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53. 나는 너희의 스승이며, 너희에게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내 가르침을 따르며 이웃을 회심시키는 훌륭한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내 빛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54. 나는 제2의 시대에 나의 자비를 받아 선택한 사도들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믿고 따르도록 그들에게 증거를 주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스승 곁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나를 따르겠다고 청하며, 나의 제자이자 나의 율법과 나의 사역을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다.

55. 그들의 마음은 너희의 마음만큼이나 연약했다. 스승께서 그들을 훌륭한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글자 한 글자 그들의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만 했다.

그들이 나의 가르침과 내가 그들에게 베푼 모든 사랑의 증거를 받은 후,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들은 바를 전하도록 그들을 파송하고자 했다.

56. 그러나 스승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신뢰와 용기, 그리고 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각기 다른 길로 보내었다. 그러나 스승의 곁을 떠나자,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졌고, 용기가 꺾이며 의지가 약해졌다. 아직 그들 내면의 고양감과 자신감은 미약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괴로움을 겪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그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불어넣기 위해 그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았다.

57.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나는 그 어떤 인간의 이상에서도 영감을 얻지 않았으며, 어떤 종교나 과학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자체로 지식이자 완전함, 곧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사람들이 오해했던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이었다.

58. 군중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자, 나의 사도들은 그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 한 마디만으로도 그들은 "신성한 말씀"의 무한한 자비를 깨달았다. 단 한 마디만으로도 그들은 내가 막 전파하고 있던 가르침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담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완전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인데, 그리하여 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인류 앞에 나서서 그들을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이해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59.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으며, 언제나 너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해 왔고, 너희 영혼이 강해져서 물질주의에 묶여 있는 끈을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다.

60. 나는 다시 이 시대에 영으로서 권능과 사랑으로 이 인류 위에 내려왔다. 인류가 길을 잃고 사람들이 전쟁을 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자연의 힘이 풀려나고, 시련과 질병이 각국을 휩쓸며, 집집마다 상복을 두르고 있는 이 때, 마음들은 흐느끼고, 고통받는 육신들은 방향감각을 잃은 채 삶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들에게 자비롭게 빵과 힘, 그리고 도움을 건네줄 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1. 자애로운 아버지는 불확실함과 고통, 그리고 슬픔 속에 있는 인류를 저버릴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준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

62. 내가 너희에게 준 신성하고 영적인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라. 그 법은 완전하고 순수하며 빛으로 가득 차 있어, 너희가 생명과 자비를 발견하고, 사랑과 이해, 도덕의 길로 나아가는 법을 알게 해 줄 것이다.

63. 너희의 마음은 내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너희의 어둠과 무지 때문에 내가 너희 영혼에 쏟아 붓는 완전한 빛 속에서 내 가르침의 진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너희의 귀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혹시 너희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가? 그리하여 너희가 그분을 곁에서 느끼고, 손으로 그분의 상처와 옷을 만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 그 시대는 이제 지났다.

64. 사랑하는 제자들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지금 너희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 주고, 내 말씀의 정수를 너희 마음에 심고 있다.

65. 아버지로서 나는 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와, 내 뜻이 가리키는 모든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된 모든 이를 받아들이노라.

66. 내가 이 시기에 오는 것은, 너희가 다시금 믿음과 신뢰, 그리고 내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너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며, 힘을 얻고 마치 펼쳐진 책처럼 나의 계시와 가르침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67. 이 시기에 나의 신성한 영은 너희 영혼 앞에 빛나는 별과 같다. 나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이자 창조주에 대해 항상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내 빛과 사랑을 베푼다. 이제 내가 너희 영혼이 준비된 모습을 보고자 하는 때가 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서 멀어지셨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68. 나는 너희가 가는 길에서 영혼이 동요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정오의 빛이 너희 마음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69. 이 시기에 나는 내 보물창고에 너희를 위해 간직해 둔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를 위해서는 너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 너희가 길을 잃지 않고 이웃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깊이 탐구하여 이를 따르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신성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에서 너희의 영적 눈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을 것이며, 너희의 귀는 내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세상의 구세주이신 스승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심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70. 이 세상이 정화되려면, 너희가 삶을 영성화하고, 살아있는 성소가 되며,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너희 영혼을 나병과 더러움에서 정화해야 한다.

71. 너희는 무엇을 위해 왔는지, 아버지께서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알지 못한 채 이곳에 왔으나,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고 사랑으로 준비시켜 주었다. 잠시 동안 고통이 너희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 후에 너희에게 위로를 베풀고, 너희가 악한 행실을 회개하도록 나의 자비로 너희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생명을 주었다. 이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내 앞에 깨끗하고 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72.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식탁에 앉게 되지 않았을 것이며, 너희를 정화해 주는 물을 사용하기로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희는 그릇된 길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이 너희 마음속에 울려 퍼져 너희의

감수성을 되찾게 하였고, 그리하여 너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73. 너희의 믿음이 꺼질 위기에 처할 때,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을 불태운 것은 바로 나이며, 너희가 그것을 가꾸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믿음이 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준비를 통해 흠을 씻어내기를 원한다. 너희는 참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며, 나는 너희가 언젠가 너희 이웃들을 어둠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횃불을 밝혀 내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자 주님께서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이며, 인류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74.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고양시키고 신성한 영과 하나 되라고 가르쳤다. 나는 너희에게 갱신을 요구하며 말하노니, 너희 아버지는 온전히 사랑과 자비이시며, 나는 내 창조의 충만함 속에서 나를 드러낸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으며,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속박 속에 있지 않다. 내가 너희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을 태워 버렸고, 그 불이 너희의 행실과 생각을 정화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묶어 두던 끈을 끊어 버렸다.

75. 너희는 그릇된 길, 곧 너희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므로 내 말씀은 너희를 바로잡아 주고 깊은 잠에서 깨워 준 목소리로서 너희를 가르쳤다. 나는 너희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너희를 고귀하게 만들었고, 너희의 마음을 성소로 변화시켰다.

76.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눈을 가리던 눈가리개를 벗겨 주며, 너희로 하여금 나의 진리 안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나의 투쟁이다. 너희가 예전에 천민이었던 자들에서, 나는 너희를 빛의 자녀들, 즉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선택받은 자녀들로 변화시켰다. 너희가 나의 임재를 깨닫고, 준비하여 내 왕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나를 보고 느끼며, 이를 동료 인간들에게 증언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 때가 왔으니,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도록 그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라. 사람들에게 내 왕국이 그들 자신의 영혼 안에 현존한다고 말하라.

잠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 집집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라. 그들에게는 죽음이 지배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77. 사람들은 덧없는 왕좌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가서 그들에게, 악과 싸우기 위해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전하라. 그러나 이 싸움은 사랑과 빛의 무기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과부들의 한숨과 울음, 고아들의 통곡을 들었고, 사람들의 불안과 적대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8. 그들에게 가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도, 물질적인 성전도 필요 없다고 말하라. 사랑과 빛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부르시어, 그들이 새롭게 되고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다고 말하라.

7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탕자"를 환영하라. 너희는 악을 마주하고 나의 영원한 자비에서 멀어졌기에 많이 울었다. 너희는 오직 심연과 광야만을 보아왔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준 생수의 샘을 바라보라. 너희에게 열매와 그 나뭇잎 아래 그늘을 베풀어 주는 생명의 나무를 보라. 나는 너희에게 보호와 양식을 제공하며, 과거의 물질주의를 없애 주리라.

80.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맡기니, 너희는 이를 전파하여 인류가 나를 알아보고 내 사랑을 갈망하며 높이 올라가게 하라. 너희 이웃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두 팔을 벌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라. 이제 그들의 영적 연합을 위한 때가 왔으며, 그들의 경계를 허물고 그들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야 할 때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들이며,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며, 너희의 여정에서 나를 본보기로 삼아 너희의 말이 격려와 위로,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라.

81. 너희 삶의 여정에서 싸워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라. 마음속의 우상 숭배를 없애고, 모든 이가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라. 너희가 그 부르짖음을 울려 퍼뜨리는 곳마다,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일 것이며,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82.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준비하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거할 것이니라. 너희가 그에 합당하고 너희 영혼이 강하다면, 인류에게 선물을 베푸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지닌 나일 것이다."

83.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것임을 깨달아라. 너희는 나를 증거하고, 난파당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피난처로서 인류에게 평화와 율법의 깃발을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한다. 영성화에 관한 이론이나 그릇된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아버지께서는 인류의 파멸을 원치 않으시며, 모든 자녀의 구원을 갈망하신다고 그들에게 전하라.

84. 너희도 아무런 선한 점 없이 내게로 왔으며, 진리에 대해 귀머거리이자 눈먼 자였다고 말하라. 믿음을 잃은 고질적인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내가 그의 영혼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할 줄 안다고 말하라. 그러므로 너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산에 올라가 그곳에서도 베풀어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덕을 갖추어라. 인도자로서 나는 온 우주에 부어진 성령의 빛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85. 너희 이웃들의 그릇된 해석이 너희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나를 향해 높이 올라가라. 내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파괴하며, 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나의 빛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눈에서 어둠을 걷어내고, 원한과 악한 의도를 뿌리째 뽑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하고,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겼던 자들이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며, 교만한 자들이 내 앞에 엎드리게 하리라.

86. 나는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며, 이 큰 투쟁의 시기에 너희는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에게 말해야 한다.

87.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를 단련하라. 너희가 약함을 느끼거나 무언가 부족하다면 아버지께 구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그러나 올바른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 은총으로 너희를 채워 주리라.”

88. 너희가 준비하면, 나는 너희를 내 사랑을 드러내는 사도들로 삼으리라.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길을 잃지 않도록 너무 큰 걸음을 내딛지도 말라. 때가 되면 엘리야가 성령의 빛으로 너희를 무장시켜 줄 것이다.

89. 내가 너희에게 준 은사는 되돌려받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 영혼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너희가 산 정상에 도달하면 너희가 겪은 투쟁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90. 나의 가장 완전한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고, 마음속에 평온과 평화를 간직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63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를 강하게 해 줄 말씀을 들으라. 내 사역의 진리를 확신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너희의 모범을 통해 이웃들에게 보여 주라.

2. 사람이 새롭게 되고, 내 진리가 그 안에 지배하며, 그의 영적 능력이 세속적인 정욕을 이겨낼 때, 비로소 그는 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3. 내 일꾼들의 수고는 크고, 걸어야 할 길은 매우 길다. 그들의 일은 시작되었고, 씨앗은 뿌려졌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기 위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씨앗을 뿌리기 위해 다른 일꾼들이 올 것이다. 내 백성아, 이 시대에 내 사역을 인식하게 하고,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느끼지 못했던 내 무한한 지혜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다.

4. 내 빛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모든 가르침 속에서 내 진리를 찾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의 이유이다.

5. 이는 예언된 바가 성취된 것이다. 그들 중 누가 진리를 대변하는가? 누가 양의 가죽을 쓴 굶주린 늑대를 숨기고 있는가? 누가 *순결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내적 순수함을 장담하는가?

6. 너희는 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영성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인류는 인간 사고의 발전에 따라 너무나 많은 신앙 고백과 세계관으로 분열되어 왔기 때문이다.

7.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종파와 교파가 생겨났으며, 너희로서는 그들 각각에 담긴 진리의 내용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8. 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을 깨우치며, 점차로 모든 이가 자신의 행실을 완성하고 이를 더 완전하고 높은 길로 이끌기 위한 기초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9. 영성주의는 과거 시대의 신앙 교리들이 이룬 발전을 따라잡으려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제1시대와 제2시대의 계시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종교의 *기초이며*, 나는 이 분열의 시대에 인류가 그 기원을 잊지 않도록 이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람들의 행실과 관습, 그리고 다양한 종교 속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은,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사역과 상반됩니다.

10. 나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도록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가르침을 남겼다. 그 가르침의 영향은 세상에 축복이 되어 왔다. 이제 사람들은 다시금 기독교의 원칙들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원칙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인류가 현재 겪고 있는 시련들만이 스승께서 본보기를 통해 가르치신 사랑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11. 내 가르침은 인류 사이에 항상 평화가 깃들도록 너희가 찾아야 할 빛이다.

12. 선한 의도가 담긴 모든 행동 속에서 나의 역사가 드러난다. 이는 인간이 자선적인 목표와, 인류를 돕고, 민족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사람들을 더 높은 발전과 고귀함의 길로 인도하려는 정직한 의도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13.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치는 영성화는, 비록 그 규모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한 행위로 드러나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는 신성한 업적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고, 어떤 종교 공동체의 의식에 얽매이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불변의 진리라고 정립해 놓은 관념들을 따르지도 말라.

14. 나는 내 사역이 너희를 분열시켜서는 안 되며, 너희가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내 가르침을 이웃과 나누며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의

교리가 어떤 형태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영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15. 내 사역의 영적 본질을 이해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얻는 만족감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다.

16. 내 말씀이 더 이상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들리지 않는 때가 오면, 내 이름을 남용하며 말하려 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듯이, 그들은 사기꾼들이 될 것이다!

17. 나는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이성은 끊임없이 나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말과 행동 속에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계속해서 모여 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글로 남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너희 모임에서 감각을 현혹하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가 의식과 전통으로 타락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18. 나는 내 사역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 각자는 한 길을 따르고 한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너희의 필요를 내 가르침에 맞추어라. 너희의 모든 행동 속에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기회, 즉 동료 인간을 용서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신비로운 관점이 아니라, 너희가 겪고 있는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은 점차 내 사역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9. 만일 인류가 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깊이 탐구했다면, 지평선 너머로 진리와 사랑의 길이 열렸을 것이며, 인류는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시련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20. 아무도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너희의 잘못은 크고, 너희는 스스로와 씨름하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21. 내가 택한 그 제자 무리가 예수님의 이별을 슬퍼했으나, 그 후 신성한 영감을 받고 마음이 밝아져 내 사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너희도 스승의 가르침과 관련된 이별을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열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불타오를 것이며,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22. 그러면 나의 진리가 영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모든 것이 더 위대하고, 더 공정하며, 더 진실해질 것이다.

23. 인류는 온 창조물을 다스리는 우주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자연의 힘에 의한 폭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24. 인간은 원자를 분열시켰으며, 발달된 뇌를 통해 이 발견을 이용하여 막대한 힘을 얻고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

25. 만약 인간이 자신의 과학과 지성과 같은 수준으로 *영적으로* 발전했다면, 새로운 자연의 힘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만 활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 후진성은 크며, 그로 인해 이기적인 이성은 창조적 힘을 인류를 해치는 데 동원하고 파괴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예수께서 가르치신 한 사랑과 자비의 원칙에서 멀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서 불의 홍수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는 하늘 자체가 열리거나 태양의 불이 너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죽음과 파멸을 뿌릴 인간의 소행이다.

26.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으며, 내일 너희의 손주들은 그들을 향해 이를 기억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더 큰 힘이 존재함을 깨닫도록 촉구하는 나의 목소리의 울림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27. 나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너희에게 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쓰라린 시기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크다면, 모든 것이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오직 적대감과 파괴를 위해 일해 왔음을 깨닫게 될 때, 인류의 유익을 위해 자연의 힘이 해방되어 사랑을 일으키고 평화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때 영혼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더 유리한 터전을 만나게 될 것이니,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해 말해 주었고, 너희 영혼이 세상에 보여 줄 수 있는 위대한 기적들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너희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내 사랑의 말씀으로 영혼이 병든 자들을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절름발이들이 침대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도록 이끌어 낼 것이다.

28.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고 영성화됨에 따라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가 된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너희 영혼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모두 깨어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어, 세상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대로의 순수함으로 나의 축복받은 사역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29. 모든 종파와 교회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내 사역에 속한 것을 찾으려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을 찾으려면,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0. 오늘도 스승께서는 너희를 계속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

31.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너희 사명의 끝이 언제 올지, 너희의 투쟁에서 언제 승리를 거둘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인류 속에 영성이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 대대로 계속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국경과 바다를 건너, 내 진리를 알리기 위해 각 지방과 나라, 민족들에게로 갈 것이다.

32. 제2의 시대에, 내 제자들이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내 가르침을 전파하러 나섰던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를 단련하고 때가 되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

33. 이 시대에 나는 최고의 스승이었으며, 결코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항상 단순하고 소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해 왔으니, 이는 너희의 영혼과 마음이 나를 느끼고, 힘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본질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4. 나는 너희를 알고 있으며, 너희를 환생시키기 위해 보내었던 모든 시기에 나는 너희 곁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너희의 뇌는 과거의 환생들을 기억할 수 없다.

35. 나는 결코 너희를 의무 이행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적이 없으며, 다른 법을 준 적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릇된 길로 인도한 적도 없다. 언제나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랐으며, 군중들에게 자신들의 뇌 속에서 만들어 낸 신들을 보여 주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거짓된 말과 기만적인 예언이 나왔고,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연약한 마음과 속박된 영혼들이 있었다.

36. 그렇다, 이스라엘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물질적인 것들을 숭배하기를 갈망해 왔고, 귀는 듣기 좋은 말에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제2시대에 기독교 교리로 가져온 것을 "종교"로 변형시키면서 그 내용을 바꿔 버렸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이기심과 탐욕, 허영심이 깨어났으며, 이들은 스스로를 왕과 주인으로 자처하여 백성이 그들 앞에 절하게 하고, 백성을 속국으로, 노예로 만들며, 죄에 묶어 어둠과 방향 상실, 혼란 속으로 이끌었다.

37. 세상은 예수인 나를 배척하고, 나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 오늘날 너희는 물질주의와 적대감, 악의를 부추기고 있다. 인류는 오늘날 지극히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다.

38. 삶의 여정에서 어른과 청소년, 처녀와 아이 모두 길을 잃었고, 내가 사랑과 자비의 모범으로 제시해 둔 완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39. 수많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영혼들은 물질에 휘둘려 왔고, 오늘날 그들은 내가 그들을 땅으로 보내던 그 순간 내 자비가 그들에게 주었던 은총과 권능을 잃어버렸기에 울고 있습니다.

40.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인류는 오늘날까지 무엇을 겪어 왔는가? 모든 이가 그들의 길에서 무엇을 마주했는가? 오직 엉겅퀴와 가시, 그리고 세계관의 전쟁뿐이었다. 온 인류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지럽혀 놓은 것, 그가 잘못 판단한 것을 누가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까? 인류가 이 법과 이 가르침, 그리고 이 빛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누가 주어야 합니까? 바로 나, 위로자이다. 나는 제3의 시대에 "구름 속"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말하고 가르치며, 그들이 그 길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창조주인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내 길로 인도하여 영적인 삶을 알게 할 것이다.

41. 내일, 중대한 사건들이 내가 너희에게 예언으로 전한 바를 증언할 것이며, 자연의 힘이 각 나라와 민족에게 초래하는 고통을 통해 사람들은 길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찾게 될 것이다.

42. 전쟁의 기운과 재앙, 질병, 기아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인간은 마음속에서도, 가정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이를 원했겠느냐? 내 성령이 과연 너희의 고통과 고난을 즐기려고 내려오시겠느냐? 아니, 사랑하는 백성아, 내 신성한 영 안에는 끝없는 슬픔이 존재한다.

43. 인류는 내가 제2의 시대에 그들에게 주신 축복받은 최상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44. 나는 인류가 순종 속에서 높아질 시대를 준비해 두었다. 너희의 손주들은 내가 이 땅에 쏟아 부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상의 낙원으로 맡겨 준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하고 투쟁해 온 영혼들이 이 행성에 올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신성한 빛이 지구를 비추고, 나의 율법의 성취가 이 땅에 지배할 것이다.

45. 물질 세계에서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의 영은 너희가 내 말씀에서 들었으나 이성이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46. 그 마지막 순간에, 너희 영혼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단 한 순간이라도 더 살기를 바랄 것이나, 너희의 운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7. 나는 혼란과 불순종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때 그 "일꾼"이 일어나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나의 계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사람이 나의 뜻에 저항하고자 할지라도, 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올 *것이다*.

48. 내가 사명과 은총을 맡긴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가. 1950년 이후 내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무지가 퍼지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

49.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간은 나의 돕는 사랑과 권능, 은총을 가로막고, 율법과 조화, 진리의 참된 길에서 벗어나 있다.

50. 나는 수년 전 너희에게 주었던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1866년부터 첫 번째 대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했고, 내 말씀이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서 선포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낙담이 스며드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1950년이 대변자들의 이성을 통해 나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임을 간단한 말로 그들에게 알렸으니, 바로 "다미아나 오비에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 기도실에서 전해진 말씀이었다.

51.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지파마다 갈라질 것이며, 또다시 분열되어 내가 그들의 손에 맡긴 순수하고 맑은 율법을 짓밟으려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예전의 길을 찾아가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이단에 기울어 혼란과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듣기 좋지만 거짓된 말들에 탐닉하게 될 것이다.

52. 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종들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의심과 불확실성을 품고, 그들의 무지와 이기심 때문에 내가 백성들 곁에 더 오래 머물 것이며, 그들의 인간적 의지에 따라 내 보편적 광선을 다시 한 번 내려 보내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내가 내 말씀 속에서 언제 우유부단함이나 불확실함, 혹은 의지의 갈등을 보인 적이 있느냐? 결코 없노라, 진실로 그러하노라. 만일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자 창조주가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 나 안에는 단호함과 단 하나의 의지가 있으니,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이가 나의 현존과 본질, 그리고 권능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영이 (*근본적인*) 이성과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밝은 대낮의 빛처럼 분명하게 말씀한다.

54.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건물을 세우고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으며, 그곳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경의를 표하고, 광신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을 숭배하고 있다. 이는 내 눈에 혐오스러운 일이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처음에 알고 들었던 모든 것을 네게서 제거하여 네가 광신주의를 버리도록 하였다.

55.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처는 인류에게 알려져야 하며,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연약하고 길을 잃은 자, 지치고 병든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준비와 내 지극히 높으신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내 율법을 따름을 통해, 나는 내 신성의 참된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 나를 증거할 것이다.

56. 거짓 대변자들과 거짓 교회 지도자들, 거짓 "일꾼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신성모독적인 입술로 백성들에게 말하며, 내 말씀과 내 보편적 광선이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가르침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는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내 뜻대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지, *누가* 오로지 자기 뜻만을 표현하는 자인지 밝혀낼 것이며, 그가 저지른 행위와 *그가* 만든 율법을 드러낼 것이니, 그들은 배척당하고 추방될 것이다.

이는 내가 신성한 은총과 능력을 거두어 들일 것이기 때문이며, 유혹이 그들을 그물의 덫에 가둘 것이므로, 그들을 찾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내 성령의 은총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57. 교회와 이단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서로를 부인하며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보석을 빼앗기 위해, 새 언약의 성막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내일 *그들이* 인류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이자 나의 신성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기 위해 구실을 찾게 될 것이다.

58. 너희 모두는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알고 있다. "너는 부모와 자녀보다, 너 자신보다, 그리고 땅 위에서 소유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너희는 영혼의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며, 너희의 고통은 가벼워질 것이고, 자연의 힘들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영혼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시련들을, 실패감을 느끼지 않고 겪어낼 것이다.

59. 이 계명을 한 번 이해하고 따르게 되면, 너희는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행실에는 의로움이 깃들 것이며, 너희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60. 비록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길이 즐거운 길은 아니며, 오히려 절제와 내 계명을 엄격히 따르는 삶이겠지만, 그것은 희생의 길이 아니다. 사랑과 자비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위한 기쁨과 생명이며, 나는 너희가 진정한 영적 행복을 알게 되도록 이 기쁨을 너희에게 선사한다.

61.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길에서 멀어졌을 때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다. 전쟁의 확산과 그 결과를 막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며, 너희의 빵을 나누라. 그러면 너희는 더 큰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지혜와 정의로 가득한 신의 법칙이 지닌 효력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그 법칙을 통해 보호받을 것이다.

62. 자신의 행실을 살피는 영혼이 되어, 기도와 끊임없는 준비 속에서 살아가라. 그래야 유혹에 맞서 굳건히 버티고, 만연해 있는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더욱 강해지고 지식을 쌓아가며, 이 땅에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은사를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63.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너희는 큰 미덕을 지닌 사람이 되어 육체를 다스리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삶의 여정에서 양심을 등대 삼게 될 것입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친구이자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양심은 언제나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며, 그 지침은 정확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선을 보여주는, 나의 언제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입니다.

64. 너희 삶의 아버지이자 주님이신 나를 누가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너희가 아는 모든 것과 알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창조하였다. 너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을 의심하지 말라. 나의 수난이 지닌 의미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 일단 깨닫게 되면, 너희는 경건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사랑을 바치고, 순종적으로 나의 법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65. 나는 너희에게 하늘의 연주처럼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나의 말씀을 전한다. 너희 중 일부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오늘 나는 너희 영혼을 은총의 삶으로 깨워 주겠다. 나의 힘을 사용하여 일어나라. 그리하여 너희를 영의 삶, 곧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걷기 시작하라.

66. 신성한 스승께서 그 말씀을 거두시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정해 놓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신성한 시선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 합니다.

67. 지금 나는 너희의 이성에 내일 읽고 해석해야 할 책을 전해 주노라. 그 책 속에서 너희는 내가 떠난 후에도 내 사랑의 불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지성과 지식, 그리고 권능—내 신성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증언하는 그 신성한 가르침을 너희의 이웃들과 나누어야 하리라.

68.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 모두가 한 분 아버지의 자녀이며, 나의 무한한 자비 안에서 모두 형제자매이며, 내가 모든 영혼에게 동등한 은사를 부여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69. 축복받은 백성아, 너희에게는 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도록 부름받은 새로운 성취의 단계가 시작된다. 너희는 나의 제자요, 내가 택한 자들이며, 나처럼 사람들의 길에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동료들이 너희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 중 많은 이로부터 너희는 조롱과 경멸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씨앗은 여전히 싹을 틔울 것이며, 그들은 내게로 올 것이다.

70. 언젠가 모든 자연계와 온 창조물이 내 의로움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내놓을 때, 그것을 벌 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은 단지 시험일 뿐이며, 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인류가 혼란과 고통을 겪은 후, 자연의 힘이 풀려난 것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혼란에 빠지지 말고, 참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이 시련을 승리로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71. 오, 이스라엘 백성아, 준비하라. 너희가 계속해서 강인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은총을 남겨 두노라. 인류에게 이 부르심을 전하라. 나는 모든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 모든 영혼 속에서 나를 느끼게 하며, 그들에게 양식과 힘을 주는 물과 빵을 주리라. 인류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광야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64

1. 나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오니, 너희의 이성을 깨우치고, 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감수성 있게 하려 함이라.

2. 이 시기에 나는 이 가르침을 듣는 자와, 이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즉 나를 잊은 자와 마음 깊은 곳에 성소를 마련한 자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3. 스승께서는 너희가 씨앗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곡식에서 짚을 제거하여 오직 황금빛 밀 이삭만을 나에게 바치는 훌륭한 일꾼들임을 보실 때 기쁨으로 가득 차시나니.

4. 이렇게 일하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씨앗과 밭을 맡겨 주기를 바라며 내 면전에 왔던 그 순간에 너희 아버지께 드렸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너희의 순종을 통해 너희는 나에게 배가된 씨앗을 떠올리게 한다.

5. 나의 일꾼들의 수가 배가 되었다. 그러나 밭을 갈고 가꾸는 법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6. 내 아버지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적인 쾌락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내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세웠다. 고통이 그들을 깨우게 될 것이며, 양심을 통해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다.

7. 내 율법을 따르는 자는 사람의 법도 따르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내 사역 안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장벽은 없을 것이다.

8. 인류가 나의 율법 안에서 살았다면, 정욕의 노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고통의 잔을 비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9.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은 눈물의 골짜기로 변해 버렸다. 곳곳에서 고통의 통곡이 들려오고, 종파와 종교들 사이에는 생각의 일치도 없으며, 그들 사이에 형제애도 없다.

10. 나는 이 백성을 여기에서 준비시켜, 아버지의 권능과 지혜로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평화와 빛,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칼과 방패, 그리고 깃발을 맡겨, 내 뜻이 그들에게 끝을 알릴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싸우게 하였다.

11. 사랑하는 백성아, 준비하라. 그리고 태초 때처럼 여정을 떠나 이 "계곡"을 떠나 약속의 땅 으로 향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물이 물러나 너희가 지나갈 수 있게 할 것이며, 광야에서는 다시 만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12. 인류가 한 번이라도 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스스로 초래한 고통스러운 정화를 그들의 길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13. 오늘, 이스라엘아, 내 말씀이 너희에게 내려와 너희의 성장을 돕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여, 너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 온 인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거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스라엘의 정신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

14. 나는 너희의 이성을 밝혀, 너희 모두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나를 증거할 수 있게 하리라. 너희는 초보자이지만, 인류 가운데서 나의 위대한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스승이 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곧 성령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한 스승이 되어야 하며, 물질주의에 물든 자도, 옛 관습에 얽매여 무지해진 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

15. 그러므로 나는 오늘날 너희에게, 나의 율법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처신에 있어 영성화, 고양, 소박함, 그리고 순수함을 요구한다.

16. 엘리야는 온 세상, 곧 이스라엘의 영을 내 임박한 작별에 대비하여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있으니, 너희가 너희를 기다리는 싸움을 위해 용감하고 빛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라.

내가 떠난 후 무기력함에 빠지지 말고, 이미 닦여진 길에서 멈추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겸손하고 품위 있게 나의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이어받으라. 너희는 – 자기 부인과 준비, 그리고 영적 고양,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 모든 길과 오솔길에 영성주의적·삼위일체적·마리아적 씨앗을 뿌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곳은 마음이 너희를 기다리는 곳,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 팔을 벌리는 곳, 나의 진리와 사랑을 갈망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나의 선택받은 자들의 도래를 기다리는 곳이다. 왜냐하면 곧 너희는 세상을 깨우기 위해, 더 이상 잠들게 두지 않기 위해 길을 나설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17. 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엘리야는 너희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도록 도왔다. 그는 너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의 로 통합했다. 그는 모든 영혼을 하나로 모아, 나의 축복받은 광채가 이스라엘의 영 안에 직접 깃들게 했다.

18. 엘리야는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걷기 쉽게 만듭니다. 바로 그분이 너희를 정화하시며, 너희 마음속의 가장 작은 얼룩 하나까지도 깨끗이 씻어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는 너희 양심이 언제나 평온하여, 나의 신성을

섬기고 너희 이웃을 섬길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슬퍼하고 낙담해 있는 모습을 보실 때, 그 길 위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며, 위험을 미리 알려 주시고, 미혹과 어둠의 순간에 너희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단 하나의 통합 지점으로 이끄는 분은 엘리아스이시니, 그곳은 모든 영혼이 부름받은 곳인 높은 저세상이며, 여러분은 영혼의 고양과 참된 기도, 참된 하느님 숭배를 통해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19. 사람들의 심판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시대에 나 또한 정죄받고, 논쟁의 대상이 되며, 채찍질을 당하겠지만,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나의 사역과 나의 빛, 그리고 나의 진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인 영성주의는 사라질 수 없으며, 사람들의 무지, 불순종, 배은망덕, 불신, 그리고 허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나의 신성한 영과 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드러나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에서 영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세상에서 세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 영과 내 빛을 막을 수 있는 힘도, 권세도, 법도, 장애물도 없으며, 내 우주적 빛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빛이 될 것이며, 진리가 될 것이며, 언제나 영이 될 것이다.

20.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내가 제자로 삼은 나의 자녀들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본보기로 삼아 나의 신성과 닮아가게 하고, 성령이신 너희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영성주의적·삼위일체적·마리아적 가르침을 통해 영성화를 이루어 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21. "선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새로운 세대들, 즉 너희 뒤를 이을 이들을 위해 일하라. "선구자들"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 너희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하며, 너희 뒤를 이을 이들은 세 번째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는 대대로, 시대마다 영적으로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마침내 진정한 영적 고양과 내 신성에 대한 완전한 숭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의 평화는 *한* 사람의 마음이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이며 영적인 나의 사역이 널리 퍼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나의 뜻에 달려 있지만, 나의 자비와 끝없는 사랑 안에서 나는 너, 이스라엘아, 네가 영혼의 완성과 전 세계적 평화라는 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나의 사역, 이 사랑의 사역, 빛과 어둠의 이 싸움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22. 세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내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 숭배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자신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이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듣고, *나를* 보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가* 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영혼과 행실 속에 나의 얼굴과 나의 사랑이 비치기를 원한다.

23. 광신에 빠지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물, 굶주린 자를 배불리 하는 빵,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옷을 주어야 한다.

24.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냈으며, 내가 "발판"으로 은총을 베푼 이들은 성령의 가장 위대한 은사 중 하나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세상을 위해 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통해 나의 신성한 광채를 전달하는 은사였다. 그리고 너희는 매우 겸손하고, 무지하며, 보잘것없는 마음들을 경험하였으니, 나는 그 마음을 통해 너희에게 완전함, 지혜, 건강, 자비, 그리고 격려의 말씀으로 너희를 놀라게 하였노라 – 나의 말씀은 언제나 무한한 시선으로서,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제3의 시대에 너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 들을 때마다, 너희는 스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바라보시고, 너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너희의 가장 사소한 간청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 그분께서 너희가 맡은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 행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이다.

25.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성령께서는 높은 저세상의 문을 완전히 열어 두셨으니, 이는 발전으로 가득 차 있고 사명 완수를 갈망하는 나의 영적 빛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나의 신성한 말씀을 설명하고, 영적 기운으로 영적·육체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제2시대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바로 그 유체, 즉 사랑과 생명, 그리고 영적 건강의 유체입니다.

26. 나의 영적 세계는 너희의 친구이자, 의사이자, 형제가 되어 왔으니, 사랑과 인내, 자비로 가득 찬 완전한 형제이다.

27.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 손에 새 언약의 궤를 맡겼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자들이며, 나는 너희를 수정처럼 맑은 물의 샘으로 변화시켜 인류가 너희에게서 생명을 주는 물을 찾게 하리라.

28. 나는 너희 안에 나의 영적 은총을 쏟아 부었으니, 너희는 나의 빛과 사랑이 깃든 나의 성전이다. 너희는 광신과 우상 숭배에 빠진 군중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나의 진리를 숨기고 나의 율법을 왜곡한 자들에게 나의 빛을 보여 주어야 할 자들이다.

29. 백성아,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느꼈기에 나의 영적 현존을 믿었다. 시간이 흐르며 발전해 온 것은 바로 너희의 영혼이다.

30. 나는 너희가 내 왕국을 찾도록 가르치기 위해 죄인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사역에 속한 것을 물질화해 버렸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는 다른 삶의 단계를 만들어 냈다. 너희는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물질적으로 형상화했다. 어린 양이 신성한 본보기를 통해 너희를 구원해 준 그 십자가는 –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미 그 제2시대에 너희의 물질적인 눈앞에서 사라졌다.

31. 이미 제1 시대에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유혹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제2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에게 나의 사랑과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나는 너희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으니,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32. 이미 제2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했고, 나는 내 말씀을 이루었다. 아무리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가 심하더라도 – 여기 다시 한 번 너희의 스승이 영적으로 현현하였다. 나는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너희의 마음을 내 말씀으로 정화하여 고양시켜 주리라.

33. 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빛을 받은 후, 파멸로 치닫는 자를 구원하는 법을 알고, 기도를 통해 "영적 계곡" 에 거하는 존재들 –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어두운 세력들 – 을 비출 줄 아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34. 너희는 겸손하도다, 선택받은 백성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영 안에서 위대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너희가 인류에게 방향과 위로를 주게 하리라. 나는 여러 대변자를 통해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인류의 갱신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 일하게 하려 함이라.

35. 너희는 내가 영성화를 가르친 백성이라, 이를 통해 너희 아버지께 대한 충실한 증언을 하도록 하라.

36. 내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여, 영과 영이 서로 교감하며 나를 경배하라.

37. 물질주의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더 이상 혼란과 어둠의 그물에 빠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죄의 수렁에서 구원해 내는 이 시기에, 나의 빛과 사랑, 그리고 의로움을 통해 나를 알아보아라.

38. 나는 너희가 분열되거나, 나의 지시를 어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39. 왜 너희 가운데 폭풍이 몰아쳤느냐? 바로 내 말씀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계시가 이 형태로 끝날 때, 나는 너희가 내 계명을 따랐다는 만족감을 안고 너희 스승 앞에 서기를 원한다.

40. 내 백성아, 준비하라. 악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너희에게 *그들의* 법을 내세우게 두지 말라. 내가 보기에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숨기고 오직 자신들의 가르침만을 알리며, 나의 사역을 사업으로 삼아 온갖 비밀과 물질적 해석으로 포장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순수함과 영성 함으로 내 사역을 널리 알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 사역은 내 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인류의 갱신을 위한 내 말씀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41. 나는 너희 모두가 진정한 사명 수행에 매진하여, 내 사역에서 너희의 불완전함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내 계시가 시작된 이래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나의 투쟁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아라.

42. 나는 여전히 내 양들이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지만, 현재 엘리야가 빛나는 등대처럼 너희를 하나로 묶어 단 하나의 길로 모으고 있다. 그는 내 선택받은 백성이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울리는 종소리로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전하고 있다.

43. 첫 번째 시대에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는 이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였다. 그는 에 순종하며 용기 있게 너희를 이끌었고, 백성들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44. 제2의 시대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셨다.

45.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이었으며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했다.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직접 함께 살아야만 했다. 나의 말씀은 본질과 현존, 그리고 권능으로 드러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 주었다.

46. 나는 인류에게 항상 직관으로서, 예언적인 환상을 통한 계시로 말해 왔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나는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성령 안에서 오셨으니, 인류가 새로운 새벽의 빛을 깨닫고 일어나게 하려 함이다. 그 징조들은 이미 첫 번째 시대에 예언되었으며, 이것들은 이 세 번째 시대, 즉 성령의 시대에 성취되어야만 했다.

47. 나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도록 너희에게 아주 분명히 말하노라. 내가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에 오늘 너희에게 계시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말씀을 성취하였으며, 지금 너희 곁에 계심을 너희에게 증언하고 있다.

48.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나는 때가 되면 너희가 나서서 인류에게 나의 임재를 증언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나의 말씀을 전한다.

49. 이 형태로 내 계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너희는 마치 한 명의 일꾼처럼, 마치 한 명의 교회 지도자처럼 하나가 되어라. 그리하여 내가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뜻을 갖게 하였기에, 내 마음속에 기쁨을 품고 너희 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라.

50. 나는 인류의 죄에 의해 결코 패배하지 않으며, 너희는 너희의 불완전함으로 나의 빛과 사랑, 자비를 파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며,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나의 지혜와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서 알아보고, 나를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51. 내 밭의 일꾼들아: 나는 너희에게 내 말씀을 좋은 씨앗으로 맡기니, 너희가 일을 마칠 때 그 씨앗이 배가되어 나에게 보여지도록 하라.

52.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여, 아버지께서 너희 영에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하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내가 주기를 바라는가?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뿌리지 않은

것 을 거두기를 바라는가? 그 전에 너희는 노력하고 일해야 한다. 나는 너희 양심이 너희를 책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이상을 얻고자 하므로 축복을 받으라. 너희는 이 목표를 위해 싸워야 하며, 사람들이 물질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면, 너희는 목숨을 잃지 않을 그 영적인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너희가 끝까지 인내한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로를 쌓으라. 그곳에서 너희는 그 큰 투쟁에서 쉬게 될 것이다.

54. 내 선택받은 자들 중 두세 명이 모여 그들의 영혼을 나의 신성으로 드높일 때, 나는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는 모든 곳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죄 있는 자나 죄 없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눈이 나를 볼 것이며, 모두가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55. 너희 일꾼들은 그 거대한 나무 아래에 있다. 너희는 내가 두 팔을 벌려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맡은 임무를 완수한 것을 나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심판할 수 있으니, 이는 나의 일이며, 너희에게 상을 주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나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신뢰를 두고 있으며, 비록 나의 책망이 아무리 엄할지라도, 그 책망과 함께 너희에게 나의 자비와 긍휼을 쏟아 붓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며, 나의 책망이라는 충격을 견뎌낼 힘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너희 각자는 내 밭에 한 뙈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해야 한다. 아버지인 나는 너희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인다. 나는 너희의 눈물을 보고, 너희가 계속 나아가, 영원까지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내 말씀으로 너희를 격려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65

1. 제자들아, 나는 너희를 내 식탁에 앉혔고, 그곳에서 내 가르침의 풍성한 잔치를 너희에게 베풀었다. 곧 내 몸과 피,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의미이다. 이는 너희가 이 양식을 통해 삶의 거대한 전투에서 불멸하고 무적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너희는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스승은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 너희의 슬픔을 보신다. 왜 그러느냐,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참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왔으니,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이 시간 동안,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 보였던 바로 그 시간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인류와 소통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 중 가장 좋거나 가장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 영의 눈이 곧 "구름 위"에서 오시는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너희 영혼도 승천한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비적인 계시였습니다.

3. 스승과의 가장 완전한 교감은 내 말씀이 끝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계시가 중단됨으로써,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의 가르침을 해석할 줄도 모르는 많은 이들의 믿음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사랑의 행실로 시간을 보낸 이들은, 내가 적절한 때, 즉 유리한 시기에 나의 계시에

한계를 두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너희를 무한과 영원, 영적인 세계에 맡기려 함임을 알게 될 것이다.

4. 깨어 기도하라. 이 시점은 결정적이며, 오 나의 백성아, 이는 시험의 시간이다! 너는 인류와 너 자신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네 기도는 그들을 덮어주는 망토와 같아야 하며,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혹이 천 가지 형태로 너희를 노리고 있으니, 유혹에 빠지지 말라.

스승께서 너희에게 이 예언들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백성 스스로 준비한 매우 쓰라린 잔을 마셔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저 세상에서 마셨던 그 잔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강해졌으니, 내가 내 지혜와 기꺼움을 너희 영혼에 심어 두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깨어 있다면, 시련과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5. 이 잔에는 무엇이 들어 있어 스승님의 입술에 그토록 쓰라린 맛을 남겼는가? 그것은 이 백성의 불신이며, 그들의 불순종, 물질주의, 우상 숭배, 광신, 갱신에 대한 부족함, 그들이 이룬 미미한 영성, 그리고 가르침의 시기 에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활용했던 극히 적은 것들 – 이 백성 사이에서 노동자들 사이와 교회들 사이에 항상 지배해 온 불화와 분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이제 너희가 직접 마시게 될 한 잔을 이룬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리라.

6.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이 잔을 채우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에서 조금은 마시게 될 것이니, 너희는 투쟁 속에 있을 것이며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겉으로는 항상 깨어 기도해 온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일상의 루틴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자들의 무감각함을 너희가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너희는 내 사역의 전사로서 너희 가운데서도, 외부인들 사이에서도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과 많은 이들의 신성 모독으로 인해 약해진 자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맞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7. 나는 너희가 내일 방어의 방패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단 한 순간도 약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영적인 힘을 모아라. 이 말로 나는 너희에게 기도를 권면하며, 너희가 내 품, 곧 내가 계신 산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싸움을 준비하게 한다.

8.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백성아, 그리고 내 계명을 따르라. 이스라엘아, 내게로 와서 내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라. 그래야 굶주림과 목마름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내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류가

이 양식을 찾게 될 때가 올 것이니, 너희는 내가 내 사역 안에서 너희에게 맡긴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9. 그 시절은 지나갔고 너희 영혼은 성장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진보와 영성화를 이룬 시기에 이르렀다.

10. 세 시대에 걸쳐 내가 내 율법을 너희 손에 맡겼다. 나의 사역은 내가 이미 첫 번째 시대에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율법판을 맡겼을 때와 같으며, 모세는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의 인도자였다.

11. 제2의 시대에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율법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제3의 시대에 나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그 동일한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

12. 그 후 너희는 인류에게 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으려 하다가, 결국 나를 부인해 버리는 바로 그 인류에게 말이다.

13. 지금은 세상에 혼란이 팽배한 때이며, 너희에게는 투쟁의 시기이다. 1950년이 끝나기 3년 전, 나는 너희가 준비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상세히 말씀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1950년이 저물어 가는데도,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길을 잃었다.

14. 싸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전사로서 일어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기를 맡긴 것은 너희가 싸움에서 무적의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먼저 너희 자신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하라.

15. 수년 동안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맡겨 주었다. 그러나 스승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내가 인간 지성을 통해 한동안 더 나를 드러내 주기를 청한다. 그러나 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며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16. 거짓 제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인류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면 인류는 외치며 말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의 진리는 어디에 있으며, 주의 역사는 무엇이며, 주의 택하신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17. 내가 떠난 후, 너희는 나의 현존에 대해 증언하고 나의 율법에 순종하여, 이 일을 온전한 순수함 그대로 세상에 알리도록 하라.

18. 대변자들을 통한 나의 선포가 끝난 후, 세상은 영성화, 빛, 평화로 부활할 것이며, 새로운 세대가 오면 더 이상 광신주의도 우상 숭배도 없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머물게 될 성령의 성전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19. 이 은혜의 날에, 나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는 열두 지파를 산기슭에 모아 한데 모을 것이다.

20.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는 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통해 준비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고, 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며,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신성을 전하는 사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21. 오늘 나는 너희의 준비 상태를 살피고 너희의 영혼을 받아들인다.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것을 내게 보여라.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과 생명, 그리고 영성을 주기 위해 내 신성한 말씀을 너희 안에 부어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영적으로 "나를 닮은 형상과 모습"이 되게 하려 함이다.

22. 오늘, 나의 아버지 같은 시선이 너희의 존재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모든 것을 살핀다. 나는 너희 영혼이 준비된 것을 보며, 그들에게 나의 사명을 부여하노니, 너희가 이를 이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태초부터 기록된 바 와 같으며, 이 시대에도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다.

23.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 곁에서 지칠 줄 모르고 너희를 내 제자로 삼기 위해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너희를 정화시키고 내 피로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희를 다른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며,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를 너희에게서 제거하였다.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과 영혼에 진리를 심어 주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너희를 영적으로 변화시켰고, 오늘 나는 너희에게 지혜의 책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전한 빛, 곧 계시는 내가 영과 영 사이에서 너희에게 전해 줄 것이다.

24. 너희는 마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고양시켜, 영과 영 사이의 완전한 교감을 통해 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25. 너희는 너희의 은사를 꽃피우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리라.

26. 오늘, 내 면전에서, 마리아와 엘리야, 그리고 초기의 족장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는 너희 영혼들아, 내가 너희를 성별하노니, 내가 너희를 준비시킨 위대하고 숭고한 사명을 성취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리라.

27. 내 사랑의 어루만짐을 받아들이고, 인류 가운데서 너희의 사명을 다하는 데 전념하라.

28. 모든 길에 발을 내디디고, 이웃들에게 나의 일을 보여 주며, 나에 대해 증언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들에게 나의 율법을 보여 줄 것이다.

29.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자비를 모든 이와 나누고, 내 영혼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역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세상을 영성화하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라.

준비된 자들은 내 가르침으로 사람들—'첫 번째'와 '마지막'—을 가르쳐라. 영혼을 비추는 횃불처럼 되어, 굶주린 자들과 내 지혜를 찾는 자들을 위해 영생의 빵으로 식탁을 차려라.

30. 너희 영혼 속에 품고 있는 자비의 행실로 증언하라. 날마다 지칠 줄 모르고 싸우며 인류와 너희 자신을 위해 '깨어 있으라'. 이는 내가 너희가 나의 신성한 영 앞에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31. 나는 내 손에 '생명책'을 들고 있다. 이스라엘아, 네 이름을 그 책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고, 태초부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게서 받게 될 것이다.

32. 나는 너희에게 나의 임재와 엘리야의 임재, 그리고 마리아의 자애를 베푼다. 나는 영의 군대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너희와 하나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니라.

33. 내 숭고한 사랑이 축복받은 그늘처럼 내려와 너희의 길을 덮어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가 처한 순간과 너희 영혼이 겪고 있는 시련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34. 너희는 큰 염려를 안고 오늘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축복받은 백성들아: 스승께서는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84년 동안 너희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여전히 첫 음절조차 더듬거리고, 나의 계명 앞에서 약해져 왔음을 보고 있다.

35. 인류는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굶주린 늑대의 먹이가 되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나의 이별이 그리 멀지 않았음에도, 너희는 이 순간부터 너희 영혼이 겪게 될 큰 시련을 알지 못한다.

36.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3년의 시간을 주어 큰 준비를 갖추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마치 양처럼 내 사랑의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모이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힘써 일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려 함이요, 이날 너희가 고개를 숙인 채 내 면전에 나아와 황금빛 이삭만을 내 눈앞에 내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37. 그러나 너희는 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내 영감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너희는 제자리에 멈춰 서 있으며, 길 위에 십자가를 버려두고 불순종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너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계시와 직관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리니, 너희가 계속해서 내 사역에 힘쓰고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바란다.

38. 내가 떠난 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서로 갈라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 시선이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동일한 준비를 갖추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깨어 있게 하리라. 나는 나의 말씀과 그 의미를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으며, '황금 깃펜'들이 나의 가르침을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제3의 성서가 될 것이다.

39. 스승은 결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리니, 나를 찾기 위해 진정으로 준비하는 법을 아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고양과 영성화에 따라 영에서 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계시로서, 직관으로서, 영감으로서 나를 드러내어, 너희가 군중을 이끌고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게 하리라.

40. 나는 너희를 큰 시련에 처하게 할 것이니, 모든 시련은 너희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41. 오늘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엘리야가 선택한 양 떼에게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로서 너희의 사명 수행과 노력, 그리고 기꺼이 나서는 마음을 받아들이노라.

42. 나는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1950년의 마지막 날에 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게 될 것이며,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나의 광선이나 나의 영적 세계를 부르는 자는 거짓과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반복한다.

43. 1951년이 시작되면, 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영과 영의 대화를 위한 깨달음을 주실 것이며,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에게서 내 시선과 사랑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44. 오늘, 내 영의 사랑의 눈물이 너희에게 내려오니, 이는 너희가 나의 영적 은총을 누리고 너희 영혼 안에서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45. 너희는 땅 위에서 나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니, 내가 보기에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고, 가르침과 힘과 지혜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46. 너희는 나의 뜻에 순종해 왔다. 나는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고, 너희 안에 있던 물질주의를

제거하였으며, 너희 영혼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었다.

47. 나는 더 큰 문을 열어 주리니, 그 문은 빛과 영적 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너희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갈 것이며, 또한 그 문을 통해 너희의 이웃들이 영성화의 왕국에 이르게 할 것이다.

48. 나는 예언과 계시, 직관, 그리고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는 내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인류를 깨우는 클라리넷과 트럼펫과 같아야 한다.

49. 나는 산 정상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너희가 나의 사명을 완수하면 나는 너희에게 월계관을 상으로 주리라. 나는 너희를 아버지의 품에 안아 줄 것이며, 너희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리라:

50. "완전한 가르침의 책 앞에서 제자를 환영하노라."

51. 너희가 나의 신성한 빛으로 표식을 받은 그 순간부터, 너희는 인류를 위해 나서는 어렵고도 위대한 사명을 받았느니라.

52. 내가 너희가 겪은 불행을 보고 있으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길에 고통을 놓은 것은 내가 아니었다.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으며, 오늘 나는 너희 영혼에게 마땅히 돌아갈 것을 돌려주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너희에게 말했노라. 너희는 인류의 강자가 되어 그들에게 나의 빛을 전해야 한다고.

53. 너희가 이웃들에게 나의 일을 보여 줄 때, 사랑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있었던 자녀들이며, 나는 너희가 언제나 내 말을 듣고 스승의 발자취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고 있다.

54. 오랫동안 나는 너희에게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해 왔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며, 빛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진실로 그들에게 보여 주어, 그들이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며 나를 찾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의사이자 또한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찾게 될 것이다.

55. 철학자들이 너희에게 오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며, 과학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내 지혜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내 성령의 빛은 내 모든 백성에게 함께 있기 때문이다.

56. 스승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1950년이 끝나면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너희에게 예고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에 따라 행동을 바로잡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내일 스승과 닮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지침이 되는 말씀들을 남겨 두었다.

57. 인간이 진리를 찾기 위해 자기 자신과 다양한 세계관과 씨름하는 이 영적·정신적 발전의 시대에, 너희는 인류가 과거의 관습과 의례, 습관을 버리고 영성을 포괄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58. 오늘날 세상은 서로를 오해하고 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여성들은 수치심과 존엄성을 잊으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오해한다. 생명의 가치는 충분히 높이 평가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상을 따르며, 그들 사이에는 일치가 없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59. 그러므로 나는 영으로 오셔서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내셨으니, 이는 내 사역이 구원의 배임을 세상이 깨닫게 하고, 내가 제2의 시대에 그들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가르침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60. 스승께서는 너희와 헤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더 이상 이 형태로 나타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영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며, 이 단계에서는 너희가 가진 은사를 펼칠 필요가 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잘 활용했으며, 나의 사역을 널리 알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61. 아버지의 "말씀"이 그 모든 능력과 사랑의 힘을 지니고 완벽하게 준비된 육신, 즉 예수의 육신 안에서 단 한 번만 현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나의 영이신 위로자의 영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너희가 준비한다면, 다가올 시대에 내 영감을 포괄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62. 내 자녀들아, 내가 왜 다시 왔느냐?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본능과 정욕으로 인해 영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에 점점 더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너무나 다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나의 사역을 이해하려다 오히려 그것을 왜곡해 버렸다.

인간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영적 발전이 과학적 발전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식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으며, 처벌이나 행위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마찬가지이다.

63. 이 몸이나 저 몸에 환생한 영혼은 선의 장점과 악의 추악함을 깨닫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이처럼 너희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며, 영원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4. 나의 사역은 사랑이며, 사랑은 이기심 없이, 스스로를 위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헌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와서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했다.

65. 너희 각자는 나의 빛을 통해 준비되었으며, 너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희 곁에서 도와주신 고귀한 존재들의 임재를 느꼈을 것이다. 너희는 스승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느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슬픔과 의심의 순간에 그들과 함께했다. 이 시대에 인류를 위로하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현현들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66. 나는 누구에게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사역을 꽃피우고, 너희가 준비된 대로 이를 널리 알리도록 하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며, 이 미덕을 통해 너희는 영적으로 고양될 것이다.

67. 너희가 나로부터 대변자를 통해 받아온 이 계시들은 이제 끝나가지만, 너희의 영혼이 나로부터 빛을 받고 영과 영의 대화를 위해 준비되었으므로, 너희는 계속해서 나의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68. 나의 영적 사역은 물질적인 상징이나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2시대에 남기신 가르침의 연속이다.

69. 영성주의는 종교도, 종파도, 새로운 가르침도 아니며,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법칙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2시대에 세상에 남기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빛이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를 때, 비로소 너희는 스스로를 영성주의자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 것이다.

70. 1950년부터 계속해서 동료 인간들에게 내가 여전히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할 것이며, 때가 되면 그 대가를 치르고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71. 아버지는 더 이상 현재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나, 내가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글로 기록되어 보존될 것이다.

72. 나는 너희 모두가 그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말씀을 남기고 내 사랑을 쏟아부었다. 나는 용서와 사랑 그 자체이며, 의로움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모욕을 용서했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 즉 내가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으로 너희를 멸망시킴으로써 벌을 준다고 여기는 방식은 아니다. 아니요,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깨우쳐 주어, 너희가 나를 이해하게 했을 때, 너희 자신의 행실을 보여주고 너희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를 깨닫게 했을 때, 그리고 세상이 자초한 것과 인류가 너희를 통해 받아야 할 것을 드러냈을 때, 바로 그때 나의 정의가 너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73. 너희는 기록으로 남게 될 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모일 것이며, 그것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74. 나는 너희가 단합된 채로, 그리고 내 사역이 미래에 세상에 미칠 중대한 영향력을 확신하며 떠나게 한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씨를 뿌리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의 생애 동안 그 열매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뿌릴 씨앗은 내일의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75. 나의 사역은 너희에게 마치 수정처럼 맑은 거울과 같아서, 너희의 행동을 비추어 주고 너희 스스로를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76. 나의 백성아, 나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네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면 내가 그곳에 있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리라.

77. 너희의 준비 상태에 따라, 너희가 나와 조화를 이룰 때마다 나로부터 생명과 영감, 사랑, 지식, 이해, 힘, 치유의 능력, 그리고 너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8. 너희의 정화 단계는 끝나고, 이제 승천의 단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가 될 때, 너희 영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66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새 시온의 산꼭대기에서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한다. 본질과 현존, 그리고 권능 안에서, 나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수단을 통해 마지막으로 나를 드러내노라. 이는 제3의 시대에 나의 신성한 뜻이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쏟아 부으며, 영과 영 사이의 완전한 계시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이러한 준비를 통해 인간으로부터 나의 신성에 대한 완전한 숭배를 받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다.

2. 이는 준비의 시간이었으니, 그 동안 아버지께서는 영적 군대들에 둘러싸여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너희 앞에서 '생명의 위대한 책', '신성한 지혜의 책', '일곱 봉인의 책'을 열어 주셨다. 이는 이 백성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며,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한 신성한 해설을 듣고, 성령의 제자이자, 자신의 모범과 사고방식, 그리고 말로 내 사역을 이 인류의 마음, 이 세상의 마음에 전하는 강력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이 순간, 이 인류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자신의 피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3. 나는 너희에게 왔고, 너희가 준비된 모습을 보았다. 오,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나는 나를 그 안에 모시도록 초대하는 성소가 세워지는 것을 본다.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입니다, 오 나의 자녀들아. 그 안에서 나는 너희의 제물, 너희의 향기를 받아들이며, 영적 제단 발치에서는 너희의 수확을 봅니다. 그것은 너희가 오랜 세월 동안 일하고 거두어 온 것이며, 이제 내 일꾼으로서 그 정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판사이자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나의 시선은 너희 모두의 씨앗을 평가한다. 그 안에는 너희의 투쟁과 영적 진보에 대한 열망, 고통, 그리고 너희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던 이상들과 아직 꽃피지 못한 이상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의 겸손함은 제물을 바쳤고,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이 내게 바치는 열매를 받아들이기 위해 뻗어 있다.

4. 내 백성의 의식이 맑아지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기억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여러분은 그 순간들—여러분의 영혼에 행복을 안겨주었던 그 아침 기도 시간,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을 처음 밟았던 때, 광야에서 울려 퍼지던 그 음성을 들었던 때,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을 향해 로 울려 퍼졌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러분은 역경과

장애물, 가시덤불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5. 너희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마침내 내 백성이 두려워하던 그 날에 이르렀는가! 심판과 양심의 성찰, 그리고 준비의 날인 바로 그 날에!

6. 아버지께서 현재의 지상 삶과 지금의 육신 속에서 나의 마지막 계시를 목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츰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일꾼, 하나의 꽃을 이루어 냈으며, 그 꽃이 풍기는 향기는 나의 보좌 높이까지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준비 덕분에, 나는 다시 한 번 힘과 빛, 평화와 은혜로 충만하여 너희에게 오며, 오,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슬픔이 너희 마음에 스며들게 하지 말라 – 이 전달자들을 통해 더 이상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낙담에 사로잡히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라. 내 사역의 핵심 속에서, 너희를 한 걸음 한 걸음 목표까지 이끄는 용기를 찾으라.

7. 백성들은 준비를 마쳤고, 저 너머, 너희 위에서도 하늘이 준비되어 있다. 하늘은 신랑의 도착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차려입었으며, 이 우주적인 준비는 처녀의 순결함을 지니고, 꽃의 향기를 풍기며, 새로운 새벽의 빛을 띠고 있다.

여러분 너머, 그러나 이 영광과 심판의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도달한 그곳에는, 아버지를 둘러싼 위대한 영들이 있습니다 – 아직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적 존재들, 내일이면 여러분이 마치 친형제자매처럼 보고 사랑하게 될 그분들, 무한한 곳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여러분의 존재의 길을 비춰 온 여러분의 사자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영 안에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족장들, 사도들, 예언자들, 순교자들, 성자들, 의인들, 순결한 자들, 그리고 위대한 참회자들입니다. 모두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8. 영적인 계곡이 너희 위에 빛을 비추고 있으며, 심지어 자연의 힘들조차 전령처럼 목소리를 높여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뒤흔들며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시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셨던 그 시간과 같다.” 사실, 나는 이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외쳤던 제2시대의 일곱 가지 말씀 을 다시 되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씀들은 이미 신성한 피로 인류의 의식에 새겨져 있다.

9. 나는 새로운 말씀으로 왔으나, 그 말씀에는 동일한 빛과 본질, 지혜가 담겨 있으니, 이는 사람이 성령께서 단지 과거에 계시되었던 가르침만을 반복하셨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0. 너희가 준비하고, 이 순간 너희에게 비추고 있는 빛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때, 너희는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자를 뵙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 그분의 얼굴은 볼 수 없는 분 –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단지 암시해 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새 시온 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고개를 들고 준비된 모든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장로들로 둘러싸여 계십니다 = 오른쪽에 열두 명, 왼쪽에 열두 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지파들을 이끈 족장들, 제2시대의 사도들, 즉 예수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아버지를 둘러싸고 계시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들입니다.

한 무리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에게 생명, 즉 피와 힘, 그리고 여정의 시작을 줍니다. 다른 무리는 나의 사역과 수난, 그리고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아버지께서와 함께 그들의 백성을 심판하고, 그들의 씨앗을 평가하며, 자신들의 열매를 살피고, 또한 신성한 심판자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11. 그러나 이 순간 나의 심판은 제3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는 육신을 입고, 다른 일부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열두 영적 지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영혼은 이 순간 나의 신성한 저울에 올려져 저울질된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후, 그들은 나에 의해 다시 한 번 안전한 길로 인도된다.

12.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나의 계시가 시작된 이래, 너희에게는 대변자에서 대변자로, 세대에서 세대로, 일꾼에서 일꾼으로, 나의 정의가 정한 나의 계시 종말을 알리는 그 날이 예고되어 왔다.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을 영원 속에서 단 한 순간으로 여기셨으나, 이 백성에게는 준비와 영적 변화, 인류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길고도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이 기간의 끝은 나의 뜻에 따라 195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13. 올해를 나는 오직 여러분에게만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아버지께서 각 양심 속에 스승의 빛을 비추시고,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며, 종파와 교회에서 성직자들의 임무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뒤흔드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는 인류가 이 시대, 이 해에 깨어 기도하며 자각에 이르러, 평화와 화합, 형제애를 얻고, 고통의 잔을 입술에서 치워내며, 살인적인 무기를 일의 도구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 1950년 초,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 나는 영적으로 내 모든 자녀들에게 평화와 격려, 그리고 빛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모든 길을 축복하였고 모든 씨앗에 결실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연말이 되어, 내가 인간의 손에서 수확을 거두러 오고, 인간의 양심을 캐물어 볼 때 – 그가 내게 무엇을 바치는가? 이 세상이 내게 바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물질주의, 나의 신성한 정의에 대한 불신, 나의 권능 앞에서의 경외심 부족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르친 이 백성은 온 인류의 거울과 같으며, 세상에 만연한 불화의 반영이다. 너희가 이 세상이 권력 블록들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본다면, 너희 또한 영적인 권력 블록들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의 거대 민족들과 강대국들이 나머지 민족들을 흡수하고, 편입시키며, 노예로 삼으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면, 나 또한 이 백성 가운데서도 1등이 되고자 하며 다른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을 많이 보노라. 그리고 너희가 인류 가운데, 그 거대 민족들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육적인 전쟁을 목격할 때 –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새로운 무기들 아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이 민족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세우며, “첫 번째”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들을 굴욕시키고 서로를 배척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는 자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세상이 나를 불신했다면, 나는 그 불신을 받아들이고, 시험에 내맡기며, 진정으로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 오, 백성아, 어떻게 내 심판을 통과하겠느냐?

15. 내가 너희의 열매를 받아들이고, 너희에게 축복을 쏟아 부은 후,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인 것은 죽을 수 없다. 오직 죄만이 사라질 것이다. 정욕은 사라지고, 이 인류의 교만한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것이며, 그들 중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악과 파멸을 위해 봉사하려는 그 인간적 과학은 나의 정의에 의해 파괴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의 기만과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불화를 제거할 것이며, 오직 내가 여섯 번째 봉인의 빛을 심어 놓은 너희의 영혼만을 보존하리라 – 바로 이 시대에 열렸으며, 그 안에 너희가 주님의 신성한 정의의 위대한 날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그 장 말이다.

16. 오늘은 중대한 날이며, 이 날은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너희는 심판의 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희는 이미 시대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주님의 심판 아래에서 살고 있다.

17. "이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 너희는 나의 씨앗이며, 나의 제자이며, 내가 이 땅의 다른 민족들 가운데로 보내고, 어둠 속으로 인도할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빛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병든 자, 나병 환자, 절망에 빠진 자들의 무리에 들어가게 하여, 그곳에 빛과 위로, 치유와 평화를 전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 앞에 고아와 과부들, 온갖 형태의 비참함, 가장 저열한 수준의 죄를 보여 줄 것이다. 이는 너희 영혼이 이 고난과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의 광경을 마주하며 고양되고, 너희 감정이 깨어나며, 너희 마음이 사랑의 샘처럼 열려, 마침내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태초부터 너희를 위해 예정해 둔 신성한 소명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18. 너희 세상에서 언제 다시 정의의 태양을 보게 될 것인가? 언제 다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보게 될 것인가? 오, 사랑하는 백성아, 언제 비로소 사람의 영혼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평화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인가?

19. 사실, 그 때가 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큰 사건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봉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너희 가운데서 일곱 번째 봉인이 풀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많은 페이지를 넘겨야 할 것이다.

20. 인류를 위해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고 있음을 전 세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어떤 징조를 주겠느냐? 온 세상에 큰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이다. 이것이 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 백성아, 너희가 경탄하는 인류 앞에서 이것이 한 시대의 끝이자 다른 시대의 시작임을 증언할 수 있게 해 줄 이 큰 고요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21. 전쟁이 잠시 멈추고, 자연의 힘이 가라앉으며, 내 법과 가르침에 대한 박해가 그칠 때, 인류에게 큰 고요함이 찾아올 것이며, 이 고요함은 일곱 번째 봉인이 열려 인류에게 그 비밀을 드러낸다는 예고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알아야 할,

너희의 영이 아버지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깨닫기 위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다.

22. 영성화가 온 인류에게 나타날 것이다. 투쟁의 때가 매우 가까워졌으며, 전조들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그 전조들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교회의 수장들과 사제들, 모든 성직자와 목회자들을 나의 정의로 심판할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심판을 느낄 것이다. 이 시간에 평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들은 흐느끼며, 또 어떤 이들은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애쓴다. 그러나 모두 나를 느끼고, 모두 나를 감지한다. 왜냐하면 이 순간 나는 그들 모두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23. 나는 인류 속에서 베드로가 세운 교회를 발견하고자 하나, 그 초석 위에 성소가 세워지지 않았음을 본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을 희생한 이는 얼마나 적은가.

나는 거대한 교회들과 거대한 종교 단체들, 그 화려함과 부, 영광과 권력을 보지만, 영적인 위엄은 보이지 않고, 미덕의 예복도 보이지 않으며, 나의 우주적 권능의 일부인 어떤 권력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영적인 골짜기에서, 자신들을 따르며 인류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어간 자들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것을 본다. 이 시대에 사도이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입술은 비록 사랑과 그리스도, 세계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의 말 뒤에서는 살인적인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베드로는 죽음을 뿌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나는 그에게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고 가르쳤다. 나는 그에게 *자신의* 피를 흘려, 그것이 사랑의 씨앗이 되고, 진리의 증거가 되며, 자신의 행적에 대한 진정한 인장이 되게 하라고 가르쳤고,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실천했다.

24. 그러므로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인간들 가운데 본보기와 사도로 남겨 둔 자들의 씨앗을 심판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며, 인간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주님께 참된 교회를 세워야 했던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법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능 중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대중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목자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양 떼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종소리가 더 이상 양 우리로 부르지 않을 때, 양들은 어디로 발걸음을 돌리겠느냐?

25. 그때, 백성아, 양들이 저 너머를 향해 울부짖고, 산 정상에서 목자를 찾게 될 때, 내 왕국이 모든 이에게 임할 것이다. 나는 나의 약속대로, 나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 "구름 속"으로 올 것이며, 죄인이나 죄가 없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뒤흔들리고 진리에 두려움을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며, 발밑에 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화강암으로 지어진 성소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귀도 더 이상 종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인류는 – 마음에서 마음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깨어나며 – 보물 상자를 열어 그 보물을 드러내고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 보물을 안겨 주신 성령을 갈망하며 일어설 것이다.

26. 그러나 그 때에 – 누가 나의 계시를 해설할 것인가? 이미 아버지께로 깨어난 인류에게 성령의 비밀을 누가 설명해 줄 것인가?

27. 너희는 잘 알고 있다.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될 것이며, 너희가 나에 의해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임을. 그리하여 너희의 입이 한밤중의 나팔 소리가 되고, 너희의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역사가 되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여섯 번째 봉인이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 보라, 제6의 봉인이 그 시대의 절정에 이르렀다! 보라, 성령께서 인간의 영과 교감하시니 – 목자가 양을 찾아, 그 어떤 물질적인 매개체도 없이 자신의 목소리와 말씀, 그리고 하모니를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니, 너희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서 망설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입술에는 더듬거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명확하고 심오하며 포괄적인 증언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로 여겨질 것이며, 예언자로 귀를 기울여질 것이며, 교회와 가정, 기관의 품 안에서 나의 신성을 알리는 선구자이자 사절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28. 오, 백성아, 강해져라! 준비하라. 그리고 내 일이 너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고 굳게 붙잡아라. 이제 너희는 그것을 연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희가 이미 나의 사역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성찰의 시간 동안, 너희는 너희를 놀라게 할

많은 교훈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제3의 시대에 살고 있으나, 제1의 시대의 예언자들을 아직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제2 시대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깊이 탐구하지 않았으며, 성령께서 너희에게 계시하신 사역을 아직 너희의 이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 가지 성서, 이 세 가지 계시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니,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법, 하나의 책,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29. 제1시대와 제2시대의 책들이 다시 너희 손에, 너희 눈앞에, 너희 영 안으로 돌아오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너희는 현재를 통해 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과거 시대에 계시된 가르침을 통해 현재를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0. 나는 나의 사자들의 인간적인 손이 너희의 과거인 역사를 기록하도록 허락하였다.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선택하고 준비시킨 이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새로운 계시를 전하기 위해 나를 드러내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현재이다.

나는 또한 예언적인 어조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제3의 시대에 예언자들을 양성하여 앞으로 닥칠 사건들에 대해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으니, 이 예언이 바로 너희의 미래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여러분과 같아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영원이며, 여러분이 제 뜻에 따라 이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단지 세상의 시간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이 시대의 주인일 뿐인 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31. 너희의 영적인 팔을 벌려라! 너희의 날개를 펼치라! 눈을 뜨고 영원을 품어라. 너희는 삶과 사건들의 운명을 깨닫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영성가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빛은 너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으며, 너희가 준비한다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신학자들과 신지학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 안에 비겁함이 없어야 하며, 오 이스라엘아, 네게 믿음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눈에는 진실로, 진실로 위대하지 않은 자들 앞에서 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영적인 눈들 또한 너희를 동등한 존재로, 이 시대의 "일꾼"으로 여길 것이다 – 오늘날 내 영적 합창단의 일부를 이루는 영혼들로서, 오랫동안 이 들판의 일꾼이자 길 닦는 자, 사자, 그리고 목소리의 전달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어 온 자들이다.

32. 보라, 오 선견자여! 느껴라,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곳에 있는 이 거대한 군단들을, 사랑과 존경, 그리고 너희를 향한 영혼 속의 환희로 가득 차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들을.

로케 로하스, 다미아나 오비에도, 영적 계곡으로 떠난 모든 목소리의 전달자들이 여기 있다 – 바로 "일꾼들", "기둥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내 표식을 지닌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민족, 영적 일꾼들의 군단을 이루며, 바로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섞여 들어와 제3시대의 백성, 즉 인류 가운데 계시되는 성령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제3시대의 영적 일꾼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나에게 임무 완수를 바치며, 나에게 그들의 씨앗을 보여주고, 너희가 아버지께 그들을 보여드릴 자격이 있도록 너희의 준비를 돕고 있다.

33. 너희 모두는 이 축복받은 시간, 심판과 사랑이 공존하는 이 순간에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서 하나의 가족, 하나의 백성을 이루고 있다. 이 순간 너희의 영혼은 어느 영역에서 진동하고 있는가? 영적 영역에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평화와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불행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짐의 무게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며, 입안의 쓴맛은 이 순간 오직 단맛으로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아? 여러분이 인간과 종교적 관념, 그리고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은밀하고 겸손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외침이 이 광활한 세상에서 메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영적 영역에서, 너희는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 모든 존재들이 승천하고 비물질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34. 너희는 정의의 목소리에 깨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때, 온 지구가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을 감지하며,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아버지, 천국, 곧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우리와 완전히 함께하게 될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나는 너희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오늘까지 너희는 아직 이를 이루지 못했도다, 오, 나의 대의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아!"

35. 너희는 여전히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고통받아야만 비로소 너희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화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있음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이 나라는 제2의

예루살렘, 곧 너희가 내 뜻대로 거하게 될 흰 성이다. 그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주민들은 준비되어 있으며, 성벽 안에는 평화와 구원, 영생이 가득하다.

너희는 그 길을 조금 더 걸어가야만 이 도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첫 번째 시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지평선 너머에 약속의 땅을 보라!"

36. 모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또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둔 날, 백성이 그분의 율법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첫 시대에 올랐던 것과 같은 산에 오르셨을 때, 주님은 예루살렘이 언제나 그랬듯이 죄악에 물들어 수세기에 걸친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스승의 눈과 마음은 그 사랑하는 도시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네 곁에 있던 선함을 깨닫지 못했구나! 나는 종달새가 새끼들을 모으듯이 너희를 하나로 모으고자 했다. 그러나 너희는 잠들어 버려 내 발걸음을 느끼지도 못했고, 내 말씀도 듣지 못했다."

오늘 이 시대, 바로 이 순간에, 오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오랫동안 나를 곁에 두었으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었다. 너희는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 비록 아버지께서 그 사랑과 형제애를 수없이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그분이 모든 새끼들이 그 날개 아래 자리를 잡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을 종달새로 변신하셨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과거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너희 안에 남아 있다.

37. 너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38. 그렇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미 이곳에서 그 위대한 도시의 불빛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다. 이미 이곳에서 그 도시 정원의 향기를 맡고 있다. 또한 여러분은 이곳에서부터 이미 그곳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감은 여러분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 아름답고 천상의 전경은 여러분이 그 성문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며, 마침내 "나는 나의 노력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39. 모세의 믿음과 용기는 첫 번째 시대에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으니, 그곳은 천상의 조국이자 영원한 고향의 반영이었던

땅이다. 어린 양의 피, 스승의 피가 두 번째 시대에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상이다. 아무도 내 것인 것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이 그 길 위에서 너희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운다. 이는 내가 제3시대의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계시해 온 수단이다. 그것은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양심의 빛이며, 진리를 위한 그 열린 통로 그 자체이다.

결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말과 세계관의 전쟁, 견해의 전쟁, 내 작품에 대한 해석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 법과 계시, 가르침을 결코 오해하지 말고, 대신 너희 동료들이 그것들에 대해 내리는 해석들을 경계하라. 다른 이들이 내 법에 대해 내리는 해석과 해설을 너희의 판단과 영적 감수성에 비추어 살펴보라. 그리고 그 해석이 옳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만약 다른 이들이 이해에 있어 너희보다 앞서 있다면, 편파적이지 말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너희보다 먼저 깨어나 내 작품의 핵심에서 그 진리와 영원함, 빛을 발견해 낸 이들에게 첫 번째 자리를 양보하라.

40. 나는 너희를 다시 한번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처럼 남겨 둔다. 그러나 이 양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목자 없이 걷지 않는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고, 양우리의 위치도 알고 있다. 너희가 그 길을 걷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늑대가 양이 되는 것이 양이 늑대가 되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오만과 불순종, 독선, 혹은 물질주의의 껍질을 뒤집어쓴다면, 너희는 약탈하는 늑대, 사나운 늑대가 될 것이다. 그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더 강한 늑대들이 나타날 것이며, 더 강력한 정의와 함정, 심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1. 나의 길은 너희 양심에 새겨져 있다. 머지않아 너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영혼의 목자도, 너희 눈앞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성직자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전을 상징하는 예배 장소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성전으로 삼게 될 것이며, 너희 영 앞에는 주님이시자 스승이시며,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너희의 말을 경청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 외에는 다른 제단이 없을 것이며, 너희 자신의 양심 외에는 다른 인도자도 없을 것이다.

42. 이 교훈들은 너희에게 계시되었으며, 너희 영 안에서 구체화되었다. 너희는 그 길을 분명히 깨달았으므로, 더 이상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여러분이 세속적인 신도, 의식도, 영적 지도자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노하며 여러분을 비난할 것이며, 그들에게 나의 진리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것, 즉 여러분의 행실과 덕행, 그리고 삶이 여러분을 홀로 남지 않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것입니다. 너희는 단지 입술로만 나의 일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삶의 *한* 행동은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 해도 너희의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 온유함, 희생 – 이런 방식으로 세상은 너희 안에서 나를 알아볼 것이다.

43. 나는 너희를 내 대신 스승으로 남겨두노라. 비록 너희가 내 곁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스승처럼, 또는 뒤처진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형제자매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 대한 사랑과 내 사역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너희보다 더 위대해진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미소 지어라 – 그러나 사랑의 미소, 영적인 만족감의 미소로.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 너희는 그들을 그 길에서 따라잡아, 모두가 평등해질 것이다. 너희는 모두 태초부터 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으며, 또한 동등한 존재로서 내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해질 것이다. 너희 모두는 권능과 지혜, 사랑을 지닌 영적 존재가 되어, 아버지를 느끼고 이해하며, 나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현재 너희는 낮은 위치에 있는 인간들에 비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지만, 내가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겨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왕국으로 데려갈 때 너희는 모두 아버지 앞에서 통치자가 되어 온 창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참된 위대함을 지닌 통치자들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너희의 모든 행실을 이끌어 갈 것이며, 너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함으로써 언제나 완전한 영적 행복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도, 이웃도 부재하거나 멀리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 세상이 다른 세상 곁에 있을 것이니, 마치 현재 한 집이 다른 집 곁에 서 있는 것과 같다.

44. 자, 백성들아,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완전함으로 이끌고자 하니, 너희는 나의 뜻에 따라 영원부터 준비된 이 위대한 "도시"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그 평화와 완전함 속에서 그 도시의 주민, 영원한 거주자가 될 것이다.

45. 1866년부터 1950년까지 지금까지의 계시 방식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은 『일곱 봉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인류의 모든 사건들은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확증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내 자녀들에게 나를 드러내 왔노라. 현재 너희는 아직 이 계시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서 그칠 것이다.

46. 나를 드러내는 새로운 방식이 올 것이다. 바로 영에서 영으로의 완전한 형태이다. 영적 계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완전함에 도달하겠지만, 너희가 세상과 육신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 최고 경지에 이를 것이다. 나는 이 은사를 통해 계속해서 많은 비밀을 밝혀 주고, 너희에게 새롭고 위대한 계시를 내려 줄 것이다. 사람들은 영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이 길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사업과 사명, 임무, 그리고 과학을 위한 빛을 찾게 될 것이다.

47. 영과 영의 대화를 통해 나는 계속해서 모든 이에게 질문을 받고 찾게 될 것이다. 이 수단을 통해 나는 내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은총을 통해 겸손과 온유함, 경외심으로 나를 찾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그는 내 안에서 빛과 계시, 그리고 은혜의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쁜 방식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니, 내가 그를 찾아가 그의 오류를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도 여전히 어리석다면, 그는 어둠과 유혹인 겉보기 빛과만 연결될 뿐이다!

48. 너희는 내가 가르침을 시작한 때부터 조금씩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너희는 여정 끝에 지치고 병들었으며, 많은 이들이 아무런 좋은 것 하나 없이 내 발치에 이르렀다. 나의 말씀과 사랑의 증거는 모든 불신을 이겨냈다. 나의 영적 본질은 물질주의를 물리쳤다. 나는 바위와 같았던 굳은 마음을 감수성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켰고, 죄인들을 나의 종들로 삼았다. 방탕에 빠졌던 남녀들을 나는 갱신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나의 일꾼들로 변화시켰다. 자신의 발걸음을 이끌 능력이 없었던 많은 이들을, 나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교회 지도자로 변화시켰다.

나중에 많은 세속적인 입술들이 신성한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다. 과학과 인간 지식의 빛에 닫혀 있던 많은 무학하고 서툰 지성들이, 영적 세계의 빛이 들어오도록 기꺼이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나의 부름받은 자들을 계급이나 카스트, 가문으로 나누지 않았다. 나는 과학자를

배척하지 않았고, 서기관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에게 문을 닫지 않았으니, 종종 교양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보다 나를 더 일찍, 더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에는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영혼의 깨달음이 이루어졌음을 더 일찍 깨달기도 했다.

49. 나는 모든 이를 부르었다. 나는 내 자녀들의 길에 한 사자, 한 전령을 세웠는데, 많은 이들이 내 부름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따랐지만, 다른 이들은 귀를 막고 결코 내게로 오지 않았다. 그러나 끈기 있게 남아 있던 이들 중에는 –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과 믿음 안에서, 어떤 이들은 불신을 극복하여 승리할 때까지, 또 어떤 이들은 병중에도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나에게 "아버지, 저를 고쳐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그대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이들도 있었다.

50. 나를 사랑한 이 모든 이들 중에서, 나는 "일꾼"들로 이루어진 나의 단체, 나의 새로운 사도 무리를 구성하였으며, 수많은 소박하고 초라한 모임 장소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여, 백성들이 그 그늘 아래 모여 내 음성 전달자들, 은사 소유자들, 교회 지도자들, '기둥들', 선견자들, '금 깃털들', 그리고 '초석들'을 통해 나의 신성한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상징하는 일곱 은사를 통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준비시키셨기 때문이다. 내가 택한 자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와 무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내 사역을 드러내 왔으니 – 그것이 한 마디 말이든, 한 환상이든, 한 시련이든 간에, 이것이 이 백성에게 자극과 격려가 되고, 이미 이 계시의 진리를 믿었던 자들이 다시는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51. 비록 많은 이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이 시기가 끝날 때까지 나를 따랐다. 너희는 바로 이 굳건한 이들, 이 일꾼들, 이 수많은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이다. 너희 모두는 수많은 영혼과 마음을 뒤따르게 했으며, 바로 이 무리가 건강과 도덕, 그리고 종교적 실천 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그들이 첫걸음을 내딛을 때 비참하고, 병들고, 궁핍하며, 무지한 모습을 보았지만,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무리의 입술에서 빛을, 그들의 행동에서 진실함을, 그들의 삶에서 갱신을,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숭배에서 갈망과 열망, 그리고 완전함을 목격하고 있다.

52. 나는 누구에게도 내 말씀을 거절한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이 백성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중재자들을 통해

본질과 진리와 생명을 흘려보냈다. 모든 이가 준비하는 법을 알았던 것은 아니며, 모든 이에게서 영성을 발견한 것도 아니다.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이들에게는, 그들의 준비와 고양, 그리고 내 사역에 대한 헌신 덕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모든 이에게 예고했던 마지막 날이 왔다. 아버지께서 이 날짜에, 너희가 받아온 그 형태로 말씀을 영원히 마치셔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53. 백성들은 이 사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54. 제자는 이 시련을 견딜 만큼 강합니까?

55. 나는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한 것을 보노라. 스승은 강한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깨어난 자들에게는 "잠든 자들을 위해 깨어 있으라!" 하며, 가장 많이 전진한 자들에게는 "뒤처진 자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이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실을 자각하고, 때가 되면 이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

56. 그러나 아버지는 온 백성에게 묻습니다. "왜 스승을 더 이상 붙잡아 두려 하는가? 왜 아버지가 자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로 인해 너희에게 불완전함의 본보기를 보이기를 요구하는가? 내가 변함없고, 무자비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내가 수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해 준 내 말씀이 부족하기라도 한가?"

57. 나의 말씀은 이제 너희 안에서 완성된 완전한 업적이었습니다. 너희는 은사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나의 계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준비시켰는데, 또 무엇을 더 구할 수 있겠느냐? 오, 백성아, 너희는 아버지께 또 무엇을 원하느냐?

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 곧 불순종하는 자들, 즉 신성모독을 일삼고 내 계명을 어기는 데 익숙해진 자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을 무시할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이든 허락하실 수 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한다.

59. 아, 진실로, 이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아버지의 심판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사실, 즉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알지 못한다!

60. 주님의 위대한 심판의 날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으며, 인간의 사법 또한 – 경각심을 가지고, 위압적이며, 나의 신성한 정의에 의해 비추어진 채 – 사람들의 행실을 심판하기 위해 나설 수 있다!

61. 신성한 사역과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 – 내 가르침과 내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며, 그들의 악행과 죄를 제지하고, 영원의 길로 인도한 모든 자들이 심판대에 서 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아, 네가 첫 번째이며, 그 다음으로 모든 종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62. 보라, 이것이 나의 저울이다! 여기 내 정의와 또한 내 무자비한 검이 있다!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내 백성아! 성찰의 해, 용서와 화해의 해에 일어나 살인적인 무기를 집어 들고, 평화의 순백을 형제의 피로 더럽혔으며,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 나의 평화 제안을 무시한 그 인류와 같지 말라!

63. 화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아! 세상은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세상은 큰 고통의 잔을 거품이 일도록 비워낼 지경에 이르렀으며, 깨어날 수 있도록 큰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4. 이것이 바로 인간이 원한 바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평화를 베풀었고, 나의 사랑을 베풀었으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는 나의 왕국을 원치 않고, 자기의 것을 원한다. 나의 권능도 원치 않는다 – 그는 자신의 권능을 택했다. 나의 축제 예복도 원치 않는다 – 그는 계속해서 교만으로 자신을 감싸고 싶어 한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 않고, 오직 일시적인 권력과 모든 인간의 행실을 심판할 죽음만을 원한다.

65. 나는 나의 평화를 구하고, 사람들의 불의한 전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이를 위해 한 곳을 미리 정해 두었다. 오른손에 무기를 들고 전장에 서 있는 이들이 많지만, 양심이 그들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다. 흐느끼는 양심과 마음속의 절망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죽음을 뿌리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 제가 당신을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66. 이들은 나를 느낀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백성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많은 이들이 평화로 돌아갈 것이며,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쓰러진 자들, 잔해 속에 육신을 남긴 자들은 영 안에서 영광스럽게 일어날 것이니, 내 목소리가 그들을 평화와 정의의 이 왕국으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에서 정의를 찾지 못했으나, 나의 정의는 존재하며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감싸며, 너희를 생명으로 깨우리라.”

67. 너희는 아직도 많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 시작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1951년은 인류에게 시련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이며, 아버지의 빛으로 준비되었던 1950년이 인류의 비극에 가려지고, 그들 자신의 피로 물들며, 거대한 사건들로 뒤흔들렸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1951년은 인류를 훨씬 더 크게 뒤흔들 것이다.

68. 나의 일부를 이루며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마친 너희는 "깨어 있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마치 "평화의 망토"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향유의 소유자임을 명심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보편적 광선과 나의 영적 세계와 하나 되어, 지극히 높은 왕국을 체험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시각에,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데려가지 않는 것이다. 너희를 위한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 곁에 머물며 그들에게 축복과 용서가 되어라.

69. 너희의 무기는 준비되어 있다. 너희의 힘은 너희를 끝까지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불행들을 오직 너희만이 함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시련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생각하라. 모든 고통과 불행에는 너희를 위한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함께 따를 것이다.

70. 나는 심판자로서 너희에게 말해 왔다. 나는 심판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 스승으로서 너희는 지난 수년간의 가르침 동안 나를 곁에 두었으며, 그 가르침은 지난 3년 동안 절정에 달했다. 나는 그 3년을 제2시대에 설교했던 시절을 기념하고, 또한 세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 바쳤다.

스승으로서의 나의 가르침은 나의 모든 말씀이다. 성령으로서의 나의 계시는 이 모든 가르침의 기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온 모든 것이다. 이 책은 성령 의 불로 너희 양심과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으며, 그곳에서 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대에 뚫을 수 없는 신비로 여겨졌던 모든 것이, 이제 이 제3의 시대에 너희 영에게 기적과도 같은 빛의 광선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71. 나는 너희를 내 사역과 내 말씀, 내 계명을 해석하는 자들로 남겨 둔다. 보라,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 예언들, 그리고 요한이 나의 신성한 계명에 따라 인류에게 전한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자 갈망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사람들, 신학자들, 해석자들은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바로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증언함으로써이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모든 가르침 속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베일이 걷혀졌고, 보물 창고가 백성들에게 열렸습니다. 너희는 이 빛의 수탁자들이다. 너희는 제자이며 성령의 자녀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 그들이 마침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앞으로 실현될 예언들—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칠지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72. 오, 성령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아, 오,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 고귀한 소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시대에 나의 제자들이었고, 나를 스승으로 모셨으나, 나는 너희가 마침내 나를 아버지로서 인식하기를 원한다.

73. 너희는 다시 한 번 나의 사랑의 식탁에 앉게 되었다. 너희 모두는 나의 제자들이다. 나는 항상 빵 한 덩어리를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 내 백성의 열두 지파가 똑같이 먹게 하였다.

성찬식, 즉 그 제2의 시대에 내가 사도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으로 식사했을 때, 나는 빵을 집어 들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나는 포도주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주며 말하였다. "마시라. 이는 내 피니라." 그러나 그 후 나는 덧붙여 말하였다. "내 기념으로 이것을 행하라!"

74. 제2 시대 내내 인류는 이 상징을 통해 양식을 얻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다시 너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 더 이상 예수를 통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서 영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의 신성한 영의 빛을 통해 겸손한 인간 피조물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가 변했고, 세월이 흘렀으며, 오늘날 내 *말씀이* 곧 내 몸 이며, 그 의미는 곧 내 피이다. 너희와 스승의 교제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형태로 너희에게 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시점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에게는 양식이요, 정수이자 생명이었으며, 이 백성에게는 구원과 갱신, 건강과 희망이 되어 왔음을 잊지 말라. 이 말씀에는 영원한 정수가 담겨 있으며, 비록 너희가 더 이상 목소리를 통해

이를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원천으로서, 양식으로서, 정선된 음식으로서, 치유제와 희망으로서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75.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것을 간직하고, 항상 너희 영혼 속에 간직하라. 그러나 너희가 스승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면, 그분을 온전히 너희 마음속에 모시고자 한다면, 마음과 생각의 정결함만으로도 충분하여, 영혼이 자유로워져 나를 매우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영혼은 나를 음식으로, 생명이 넘치고 맛이 좋은 양식으로 변모된 모습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76. 오,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나 이 완전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라. 내 격려와 평화가 너희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주위에 둘러앉아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으며, 스승께서는 다른 때에 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씀하신다. 겸손한 자들 가운데, 나를 지극히 사랑한 자들 가운데 – 시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나를 따랐던 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역을 인간 정의의 손에 넘겨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 사역과 내 말씀, 내 유언을 하찮은 돈을 위해 계속해서 왜곡할 것이며, 너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연 내일, 나는 부지런하고 순종적인 일꾼에서 배신자로 변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 스승은 누구인가"라고 너희의 영이 나에게 묻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나는 너희를 준비시키고, 너희에게 힘을 주어, 너희를 심판하는 일을 오직 나에게만 맡기게 하리라.

77. 너희가 가는 길에서 배신자, 위선자, 마음이 굳은 자, 연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 신성모독자,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를 용서하라 – 그렇다.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심판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하라.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심판이어야지, 너희의 심판이 아니어야 한다, 백성아. 너희의 심판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사역 안에서 일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동안, 배신자는 없다고 생각하라 –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순종하는 자들만 있다고 생각하라.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오직 일하기만 하라.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는 뒤에는 나의 공의가 서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이에게 그들의 빛과 완전함을 되돌려 줄 것이며,

나의 사역과 나의 법 안에서 생의 시작과 끝에서 모두 완전한 자들을 바로잡고 합당하게 만들 것이다.

78. 나의 마지막 말씀 – 너희는 내가 십자가의 높이에서 너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류는 새롭게 되지 않았다. 탄식이 내게 닿고, 사람들의 모독이 내게 이르며, 사람들의 전쟁이 일으키는 귀를 멍하게 하는 요란한 소음, 아이들의 울음, 남녀의 절망이 내게 닿는다. 나는 슬픔과 가난을 보며, 쇠퇴해 가는 왕국들과 붕괴 직전에 있는 세력들, 온 인류에 스민 죽음의 숨결을 본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와 주술의 소리 한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울려 퍼져 내게 닿는 한 목소리가 내 신성한 영을 움직인다. 그것은 "오소서!"라고 말하는 한 마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나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오소서!" 영이 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내가 재림을 예고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예고하셨다"고 말하며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그들은 나의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며 나에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주님, 왜 오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고통을 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비극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79. 오, 인류여, 내가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다. 아버지로서의 나의 시선이 너를 보고 있지만, 나의 눈은 또한 재판관의 눈이기도 하다. 너는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려 한 적이 없다. 너는 나에게 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스승으로 원하지 않았고, 오직 재판관으로만 원했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 너는 나를 재판관으로 맞이하고 있다.

너의 양심에 얹힌 짐을 더 무겁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의 정상 위에 서 있지만 – 그 십자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 너를 안아 주기 위해, 끝없이 넓게 벌린 두 팔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내 옆구리가 열려 사랑의 물과 피를 네게 쏟아부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영이 열려 모든 이에게 용서와 자비와 평화의 신성한 물과 피를 쏟아붓고 있다.

80. 내 팔이 활짝 펼쳐져 있다! 나의 온 영혼이 네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인간적인 고통도, 고통받는 영혼들의 고통도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고통이다 – 유한한 피조물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너희가 알 수 없는 한 고통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목마르다, 백성아, 나는

목마르다, 인류여, 네 평화를, 네 구원을, 그리고 네 사랑을 갈망하며!

81. 지금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이 순간 자신의 신앙의 형제를 해치기 위해 감히 손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욕적인 말도 내뱉기 위해 입을 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죽이며, 생명과 안녕, 그리고 사랑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서로에게서 빼앗고 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숭고한 날, 즉 전 세계적인 사랑과 정의의 날에, 육신을 뒤로 하고 영적인 공간을 가로지르는 모든 이들은 이 산 정상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음성을 다시 한 번 듣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너희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82. 이 신성한 영향력 아래서 준비되고 깨어나, 나에게 "주님, 이 거룩한 해의 마지막 날에 저는 제 육신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올라가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모든 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내 왕국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육신의 눈을 영원히 감을 때, 영적인 눈도 나의 빛을 향해 닫혀 있을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눈을 뜰 것이다.

83.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온갖 고통을 느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잠시 성령을 떠나셨을 때, 그분은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84. 오늘 나는 나와 함께 살고, 행하며, 고통받고, 죄를 짓는 모든 이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육체"의 연약함을 느낄 때, 스승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영을 부르라. 영은 "육체"보다 강하다. "육신"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영에게 너무나 크고 영보다 더 강할 경우, 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이 경우에만, 시련의 힘으로 인해 영의 부재를 느끼는 너희 육신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하도록 내가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너희 눈과 영혼에 빛의 광선이 비추어, 너희를 빛의 길로 들어올려 줄 것이며,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느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 을 버리실 수 없다는 것, 특히 그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큰 시련의 순간에 더욱 그러하다는 증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85. 나는 너희를 하나로 연합된 채로 남겨두고, 항상 너희를 감싸주었으며, 그 온기를 너희가 이미 경험해 본 그 자비의 망토를 너희에게 덮어준다.

86.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치에 계셨으며, 그 인류에 대해 단 한 번의 불평이나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버지의 눈에는 여인으로서도, 영으로서도 위대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 모성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은 시간에, 나는 이 사랑을 내 백성 안에 깊이 새겨 남기노니, 너희는 제3시대의 마리아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이 사랑, 이 향기, 이 끝없는 다정함, 이 중보,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동정성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안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대는 "항상 우주 안에서 어머니로 머물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다른 시대의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 백성에게 나는 말합니다. "백성아, 아들아, 여기 네 어머니가 있다!"

87. 나는 너희에게 고통도 슬픔도 남기고 싶지 않다. 비록 나의 신성한 영이 슬프고, 죽을 만큼 슬프지만, 나는 너희가 마지막 만찬에 함께했었다는 기억을 너희에게 남겨두고자 한다. 오, 사랑하는 백성아, 이 마지막 시간이 너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게 하려 함이니 – 사랑스러운 시간, 교제와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 너희가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채울 때까지 풍성한 영적 양식을 먹었던 이 시간에, 세상의 고통은 생각하지 마라. 나는 모든 이와 함께 있다. 이 순간, 현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잠시나마 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평화의 시대에 살아보라. 그리고 바로 이 식탁 주위에 사랑으로 가득 찬 너희 모두가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라 – 사랑과 가르침, 계시와 용서의 식탁이다.

88. 받아 먹으라! 내 말씀은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는 너희가 이 제3의 시대에 나를 진정으로 발견한 내 말씀 속에 내가 담아 둔 정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도, 그 목소리의 음색에서도, 인간 언어의 외형에서도 아니라, 그 의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바로 그곳에 내 말씀 그 자체의 피인 본질이 있다. 그것을 마시라. 내일 *너희는* 인류 가운데서 빵과 포도주, 곧 몸과 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89. 나는 너희가 하나 되어 이 식탁에 앉아 있도록 남겨두겠다. 이 식탁은 결코 재판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스승의 가르침에 깊이 몰입하고, 준비를 통해 그분이 언제든지 그들에게 나타나실 자격을 갖추는 제자들과 학생들의 학창이 되어야 한다. 내일 나는 엠마오로 가던 여행자들처럼, 내 임재와 증거를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했던 그 사도들처럼,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결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며, 너희의 증언은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예언적인 입술이 이곳에 있는 이 사랑하는 백성인 군중의 발걸음을 확실하게 인도할 것이며, 그들은 결코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어, 새 예루살렘의 성문까지 승리로 인도해야 한다. 바로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선물한 그 도시, 너희가 그 도시의 수호자로서 인류에게 바치도록 한 그 도시 말이다. 그 성문은 온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진리를 갈망하고 영성을 굶주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민족들의 훌륭한 인도자이자 지도자로서, 확고한 발걸음으로 그들을 눈부시게 빛나는 그 도시의 심장부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

90. 나의 심판이 내려졌으며, 나의 가르침과 계시 또한 그러하다. 나의 아버지 같은 평화와 나의 다정한 어루만짐이 모든 이와 함께한다. 내가 진리와 영 안에서 너희를 나의 신성한 가슴에 꼭 안아주고 있음을 느껴라, 느껴라!

91. 들으라, 들으라.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바로 이 순간 너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메아리를 찾기 시작하는 그 음성을. 왜냐하면 나는 이 순간부터 너희를 은총의 시간, 영과 영이 대화하는 시간 속으로 남겨두기 때문이다.

92.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길을 떠나, 가정에 들어가서 곳곳에 평화를 심어라! 나의 유언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과거에 했던 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맡긴 나의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의 사역을 끝까지 수호하라.

93. 나는 "구름 위"에서 내려왔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보편적 광선을 내려보냈고, 그 광선을 통해 너희는 1866년 로케 로하스(Roque Rojas) 때부터 1950년까지, 내가 나의 보편적 말씀을 울려 퍼지게 했던 마지막 대변자들을 통해, 말씀과 본질과 현존과 권능 안에서 나를 경험해 왔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며 열두 지파를 이루는 소수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면, 내일은 내가 인류 가운데 남겨 둔 이

증인들과 사자들을 통해 내 말씀이 온 지구상에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진리로 선포될 것이며, 이 땅의 순례자들에게는 구원의 닻이자, 보호하는 항구이자, 인도하는 별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을 위한 평화의 왕국이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94.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남기고 간다. 안녕, 사랑하는 백성아! 머지않아 너희는 성령 안에서 나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다… 왜 울고 있느냐, 백성아? 보라, 내가 바로 이 순간 너희에게 내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며, 나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다.

95. 오라, 백성아! 마음껏 울어라, 울어라. 내가 너희의 눈물을 받아주리라. "육체"는 연약하나 영은 강하다. 영은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으며, 순종하며 내 뜻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너희의 육신은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연약함을 느끼는 아이와 같으니, 너희 스스로 그 아이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96. 오라, 백성아, 네 고통을 내 발 앞에 내려놓아라! 네 마음을 열고, 네 마지막 탄식조차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평화로 바꾸어 주리라. 오랫동안 너는 내 말씀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고통을 억누르며 지내왔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육신'이 너를 배신했고, 미성숙한 육신의 껍질이 약해져 버렸다. 나는 그 육신을 내 품에 안고 어루만지며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로, 네 입에 삶이 쓴 잔이라 할지라도, 나는 네 영을 통해 그것을 달게 만들 줄 안다."

97.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아픔을 쏟아내는 눈들아, 울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새 시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화하게 될 것이니!

98. 일꾼이 된 남자들, 여자들, 청소년들, 성인들, 그리고 아이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 신성한 임재 안에서 마지막 눈물을 다 흘리고, 슬픔의 마지막 숨결과 마지막 한숨을 아버지께 맡겼을 때, 너희 마음의 아픔을 그분 안에서 달래라. 이제 오직 기쁨과 평화, 즐거움만이 남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양심이 다한 의무에 대해 주는 마음의 평안과, 준비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지닌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99. 너희는 나의 치유 연고의 소유자들이다. 그 연고에 힘을 불어넣어 너희 몸을 치유하고, 이 건강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100. 너희가 아버지께 간청한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다. 나는 진실로 그것을 들었으며, 너희를 돌보고 있다.

101. 이 간청을 위하여 – 받아들이고, 받으라!

102. 온 세상이 준비할 줄 안다면 – 이 시대의 이별을 앞두고 눈물을 흘릴 줄 안다면 – 내 평안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영성화, 갱신, 그리고 평안을 향해 나아간다면!

103. 오, 지구여, 내 평화와 내 축복, 곧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는 〃무기를 받아라! 나의 군대가 너를 돕고, 나의 치유도 함께하리니, 머지않아 너는 아버지의 우주적 음성과 성령의 음성, 그리고 바로 오늘 밤 교회와 가정, 그리고 길 위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영적 세계의 웅장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나의 뜻이니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목차

가르침 339	**구절 번호**
영혼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계시	10
영적 세계에 대한 계시	18
위로의 영에 대한 예고	25
가르침 340	**구절 번호**
더 이상 종교가 아닌 신성한 사역의 위대함	3
명상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계시들	43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45
제3의 성서	67
고통과 정화	69
가르침 341	**구절 번호**
선택받은 자들의 책임	2
주변 사람들을 헐뜯지 마십시오	52
인류가 신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한, 그들을 억압하는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53
가르침 342	**구절 번호**
영적 해방을 위한 적절한 시기	1
영과 영의 대화	12
멕시코에서 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다	15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	34
가르침 343	**구절 번호**
영적 이스라엘의 투쟁	2
제3의 성서	11
환생	17
야곱의 사다리의 의미	23
인간의 이해를 위한 84년간의 현현	47
가르침 344	**구절 번호**
준비와 영적 사명	1
정화하는 고통	53
영혼의 소명	64
가르침 345	**구절 번호**
심판의 때와 우리의 기원에 대한 가르침	2
창조와 선과 악의 시작	10
선과 악의 진동과 영향	16
창조의 기원	20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의 목소리이다	30
물질적 무기와 영적 무기	36
모든 시대의 신성한 선구자, 엘리야	51
로케 로하스는 누구였는가?	57
『일곱 봉인의 책』	61
영혼과 영혼의 대화	71
영성의 시대	74
휴식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78
보편적인 영적 진동	81
낫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90
가르침 346	**구절 번호**
영적 완성을 위한 준비	1
영혼의 죽음은 없다 (95,4 및 146,47 참조)	19
예언들	41
가르침 347	**구절 번호**
예언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이쪽 편에 쏠리기도 하고 저쪽 편에 쏠리기도 할 수 없습니다	11
영적인 기도	21
영혼은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23
많은 가르침이 글로 남게 될 것이다	26
심판의 때가 왔다	27
이제 곧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29
가르침 348	**구절 번호**
세 시대의 본보기와 조언	1
제3의 성서	26
가르침 349	**구절 번호**
제3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	1
인간은 모든 시대에 걸쳐 신성한 “음성의 매개자”였습니다	5
논쟁이나 폭력 대신 영성화	22
영성주의자의 사명	27
영성화와 정의의 새로운 시대	32
고귀한 모범들	39
영적 왕국의 존재들과의 교감	45
가르침 350	**구절 번호**
제자들의 준비	1
모든 시대를 위한 빛나는 본보기	14
가장 큰 소망	31
사랑의 힘	52
여섯 번째 봉인이 드러내는 것	69
가르침 351	**구절 번호**
더 큰 영적 고양	3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	19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예언들	64
가르침 352	**구절 번호**
준비하고 개념을 명확히 할 시간	4
영적 각성	34

영적 속죄	42
영원한 불에 대한 잘못된 해석	44
예언들	54
자신을 찾아라	72
가르침 353	**구절 번호**
사랑	10
영성화와 완성을 향한 부르심	18
악의 종말의 시작	50
1950년의 중요성	60
자연의 힘은 영적인 것에 복종한다	62
가르침 354	**구절 번호**
세상에는 여전히 위선과 악의가 만연하다	11
영적 능력의 발전	26
영과 영의 소통	27
누구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38
먼저 투쟁, 그다음 평화	46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시대	54
심판과 최후의 전투의 시대	58
인류는 여전히 악한 씨앗을 가꾸고 있다	65
과거 시대의 사례들	74
정신적 동요의 시기	81
제3시대의 이유	84
가르침 355	**구절 번호**
영성화의 시대	1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평화이다	19
제3의 성서	44
가르침 356	**구절 번호**
이 제3의 시대에 신의 계시가 내려진 이유	3
여러분은 신의 말씀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27
실수는 교훈이 된다	40
모범의 중요성	46
영성화	61
유물론의 붕괴에 대한 예언	88
“영성주의”, 영매주의가 아님	93

진정한 영적 예배 의식	99
“음성 전달자”의 임무	118
가르침 357	**구절 번호**
결혼식의 축복	1
평화와 화합의 사명	28
종교 재판	38
멕시코의 운명	41
선과 악의 영향이 미치는 효과	46
가르침 358	**구절 번호**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9
기도란 무엇인가?	11
우리는 전체의 일부이다	18
병든 인간 과학과 신성한 지혜	31
세 시대의 책	58
가르침 359	**구절 번호**
빛과 신성한 영감은 모든 이에게 위로를 준다	1
진정한 성전	18
영성주의는 종교가 아니다	60
영감과 사상의 자유	64
환생의 필요성	68
신은 “전체”이다	74
진화의 영원한 법칙	78
신성한 조언	84
가르침 360	**구절 번호**
영혼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	6
진정한 교차점	9
의식이 없는 영성	13
명확한 개념	19
마리아와 그녀의 모성	23
성령강림절	34
요한계시록 12	36
영원한 여성성	39
영과 영의 소통	44
우리는 벽을 허물어야 한다	50

가르침 361	**구절 번호**
마지막 준비	1
자비, 그리고 또 자비	65
가르침 362	**구절 번호**
영적 이스라엘의 성취를 향한 부르심	2
“성전”의 의미	14
세례 요한은 육신을 입은 엘리야였다	39
예수께서는 그 어떤 인간의 이상형에서도 영감을 받지 않으셨다	57
가르침 363	**절 번호**
영성은 종교성이 아니다	9
우주의 법칙과의 조화	23
이기적인 사람의 행실	25
우리 뇌는 환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34
세상의 빛의 왕국에 대한 예언	44
가르침 364	**구절 번호**
신성한 사랑은 무적입니다	1
영성주의는 신성한 가르침이다	19
주님의 재림	32
하나님은 무적입니다	50
공로의 중요성	52
가르침 365	**구절 번호**
마지막 호소와 명령	1
영매주의는 종교가 아니다	69
신의 말씀은 기록되어야 한다	71
가르침 366	**절 번호**
작별 연설	1
신의 심판	11
이스라엘과 세상은 창조주께 무엇을 바치는가?	14
성취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예언	15
일곱 번째 봉인의 개봉	19
교회에 대한 심판	23
영적 사자들	27
우리는 영원 속에 살고 있다	30
누가복음 13	36

영과 영 사이의 완전한 소통	46
의	60

1866-1950년 멕시코에서의 신성한 가르침
참고 문헌

라이히틀 출판사, D-56329 세인트 고아르, 전화: +49 (0)6741 1720
『진정한 삶의 책』,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3의 성서』(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판도 있음)
멕시코의 신성한 계시 (간략한 소개)
삶의 문제에 관한 신성한 계시
제3의 시대를 위한 예언들

삶을 위한 도서 서비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7371 929 66 42, 이메일:manfredbaese@gmx.de
신성한 사랑,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El Amor Divino -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진정한 삶의 책』,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3의 성서

유니콘 재단, D-88709 메어스부르크
전화: +49 (0)7532 808162, 이메일: info@unicon-stiftung.de
『진정한 삶의 책』 소개 (무료)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C.
오리노코 54번지 5호, 콜로니아 자카후이츠코, 03550 멕시코 시티
『진정한 삶의 책』, 제1권~제12권
『제3의 성서』
및 멕시코의 이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타 서적들

웹사이트

www.drei-offenbarungen.net
www.reichl-verlag.de
www.unicon-stiftung.de
www.drittes-testament.de
www.drittetestament.wordpress.com (다국어)
www.tercera-era.net (스페인어)
www.144000.net (다국어)
www.dritte-zeit.net